

2021 한국민속학회 하계학술대회
전국한우협회 공동 한우심포지엄

한국인의 삶과 소牛의 민속俗

| 일시 | 2021년 6월 12일(토) 13:30~17:00

| 장소 | - 온라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강당 세미나실

| 주최 | (사) 한국민속학회



전국한우협회



한우지조금관리위원회





개 회 사

한국민속학회 회장 김일권



한국민속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태 기반과 삶의 궤적을 장구한 우리 역사와 민속의 깊이 속에서 이해하고 다양하게 해석하려는 근대학문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해서도 건강한 학문의 발달은 동반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문의 역할을 적극 호응해주시어 금번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후원해주신 전국한우협회와 한우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좋은 산학 협력의 사례로도 주목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민속학의 학술적 품을 넓히기 위해 가축문화의 민속학적 연구를 기획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번 학회 주제로 내세운 “한국인의 삶과 소의 민속”은 제목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한 소의 역사와 민속은 어떠한가를 고심하고 토론하려는 마당입니다. 익숙하기에 다 알 듯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소’라고 부르고 일컫지만, 근대이전 훈민정음 표기로는 ‘쇼’라고 불렀습니다. [쇼(15-19세기) > 소(19세기-현재)], 『우리말샘』]

돼지의 경우는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불과 근대이후(20세기)부터 ‘돼지’라 불렀으며, 그 이전에는 ‘도야지, 되야지’ 등이 쓰였고, 그런데 ‘도야지’는 유체명(새끼 이름)이어서, 성체명(어른 이름)인 ‘돌’에 ‘아지’가 결합된 형태인 때문에, 성체명은 ‘돌, 돌희, 도티, 도치’ 등으로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돼지’란 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이 불과 1백년에 남짓한 일인 것입니다.

소와 돌은 가축으로 포괄하여 말하고 축산업에 속합니다. 그런데 ‘가축’이 무슨 뜻인가 묻거나, ‘축’이란 글자가 동물의 뜻인가 물어보면 막상 난감하기만 합



니다. 그 뜻을 잘 짚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개 ‘집에 기르는 짐승’(국어사전)으로 풀이하지만, 이는 2차적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본래 뜻은 ‘축’에 있으며,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貯蓄)하고, 양식을 비축(備蓄)한다 할 때의 ‘쌓을 축(畜)’입니다. 그러니 ‘가축(家畜)’은 집집마다 생활 영위를 위해 길러서 쌓아두는 양식의 뜻을 지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최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상금서수 기록과 무양(無羊) 오축(五畜)의 가축생태권 문화」(2021.5)란 글에서 육축(六畜)과 오축(五畜)을 정의하던 과정에서 고찰한 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다루는 소의 민속은 벼나 보리 등의 식물성 양식에 대비하여, 소, 돼, 닭 등 동물성 양식을 지칭하는 범주여서, 우리 역사와 함께 흘러온 식생활사 연구를 더욱 깊이 파고들고 확장하는 일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귀한 학술논문을 준비하여 주신 여러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께 학회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를 학제간 토론의 장으로 더욱 뜻깊게 만들어주신 전국한우협회 회장님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관계자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지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대한 ‘한국사에서 집대성한 소의 역사와 민속 종합서’ 집성 작업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협력된 산학 관계로 발전하여, 우리 한우산업의 발전이 우리 국민의 건강한 생활 기여로 더욱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민속학회 회장 김 일 권



환 영 사

전국한우협회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전국한우협회장 김삼주입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의해를 맞이해 「한국인의 삶과 소(牛)의 민속」이라는 주제로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한국민속학회와 강연자 여러분들이 쏟아주는 열정과 노고에 전국 한우농가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우의 역사에서 우리의 옛 모습을 반추하고 얼마나 한우가 우리 삶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우는 한민족 5천년 역사와 함께 해온 유서깊은 가족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 고유 문화유산입니다. 온순한 성질이지만 힘이 세고 성실하여 예로부터 충직, 우직의 대명사로 통했습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소가 말이 없어도 열 두가지 덕이 있다’와 같은 소와 관련된 구전 속담의 뜻풀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우의 품성은 우리 민족 정서에 녹아 여러 풍속과 민속문화에 공존합니다.

또한, 농경사회에서 한우는 생구(生口)라 하여 우리 민족의 가족이자 삶의 터전을 함께 지켜온 동반자로 지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의 밀바탕이 된 교육열은 우골탑(牛骨塔)으로 상징됩니다.

이렇듯 한우는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든 문화창달의 주역이자 사회번영을 표상



하는 보물입니다.

한우는 격변의 시기를 거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농업·농촌의 근간으로 우뚝
섰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코로나19의 습격에도 고품질 단백질원으로
국민의 한우 사랑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우는 우리 모두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세계 유일 유전자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하드리며, 이를 통해 확보
된 연구성과와 스토리 콘텐츠가 한우산업의 발전과 국민적 한우사랑에도 큰 역
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한우협회장 김 삼 주



축 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민경천 위원장



먼저 뜻깊은 심포지엄을 위해 애써주신 한국민속학회, 전국한우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우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연구해오신 귀한 성과를 이 자리를 통해 발표해주실 교수님과 학계 관계자분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소는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5천 년의 유구한 역사에서 우리 한민족과 고락을 같이해온 가축으로 조상님들은 소를 한집에 사는 식구라는 뜻의 ‘생구(生口)’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천하의 대본으로 생각했던 우리 사회에서 소는 한 집안의 식구이자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민가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먹거리로서도 소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큰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고려 시대 수요증가로 농경에까지 지장을 주게 되자 공민왕은 ‘금살도감’이라는 관청까지 설치해 소를 보호할 정도였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같은 이유로 소 도축을 금지하는 우금령이 내려진 적이 있지만, 실제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매일 도축되는 소가 1,000여 마리에 이를 정도로,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쇠고기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지난해 한우 소비는 증가했습니다. 외부활동이 줄어들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늘어나며 한우는 건강과 소비 가치를 높이는 음식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과 늘 함께였고 먹거리로서도 큰 사랑을 받아왔던 한우이지만 민속과 역사 속 이야기는 많이 알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신축년 소띠해를 맞아 ‘올해는 한우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우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저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로서도 한우의 역사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이번 ‘한우 심포지엄’은 그 뜻이 더욱 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심포지엄의 연구성과는 다양한 한우 이야기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어 한우산업 발전과도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민 경 천



프로그램 순서

일 정	소요 시간	주 요 내 용	진행
13:00~13:30	30	○ 등록 및 안내	
13:30~13:45	15	○ 개 회 사: 김일권(한국민속학회 회장) ○ 환 영 사: 김삼주(전국한우협회장)	사회: 박채린 (한국민속학회 연구위원장)
13:45~13:50	5	○ 기념 촬영	
13:50~14:05	15	기조 강연 : 농경사회에서의 소가 지닌 상징성 ○ 발표: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사회자
14:05~14:35	30	[우담(牛譚)] 소 이야기의 세계와 한국인의 소 인식 총위 ○ 발표: 임재해(안동대학교) ○ 토론: 신동훈(건국대학교)	좌장: 강정원 (서울대학교)
14:35~15:05	30	[소의 경제사] 고대사회 소의 고고·민속과 사회경제적 양상 ○ 발표: 박유미(상명대학교) ○ 토론: 유태용(靑邱고고연구원)	
15:05~15:15	10	○ 휴식	
15:15~15:45	30	[소 관리 정책과 제도] 조선시대 국가 소 관리 운영 체계 및 목장 운용 ○ 발표: 남인식(농협중앙회 경제지주) ○ 토론: 박철진(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좌장: 염원희 (경희대학교)
15:45~16:15	30	[소의 음식사] 아기나귀(야키にく, 焼肉) 음식민속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 발표: 오성희(서울대 인류학과) ○ 토론: 박채린(세계김치연구소)	
16:15~16:45	30	[축제·놀이문화와 소] 동제의 희생으로서 소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연구 ○ 발표: 김태우(신한대학교) ○ 토론: 정형호(전북대학교)	
16:45~17:00	15	○ 종합정리 및 총평 ○ 폐회사	사회자



목 차

기 조	농경사회에서의 소가 지닌 상징성_____1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1주제	소 이야기의 세계와 한국인의 소 인식 총위 _____14 임재해(안동대학교)
2주제	고대사회 소의 고고·민속과 사회경제적 양상_____54 박유미(상명대학교)
3주제	조선시대 국가 소 관리 체계 및 목장 운용_____82 남인식(농협중앙회)
4주제	야키니쿠(やきにく, 焼肉) 음식민속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_____97 오성희(서울대학교)
5주제	동제의 희생으로서 소의 활용과 운영에 대한 연구_____119 김태우(신한대학교)



[기조 발표 - 소의 상징]

농경사회에서의 소가 지닌 상징성

정 연 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 목 차 -

1. 머리말
2. 농가의 최고 노동력
3. 농가의 재산
4. 희생물과 벽사
5. 땀음말

1. 머리말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소띠 해이다. 소는 고집이 세지만 끈질기고 성실하며, 힘이 천하장사지만 온순하다. 그리고 큰 몸짓과 느린 걸음으로 힘든 일도 묵묵히 해내는 든직한 가축이다. 따라서 소띠 생은 인내력이 강하고 성실하며, 신의가 두텁고 정직하다. 마음만 먹었다면 하면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한다. 독심이 세어 추진력이 강하고 주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인간적 매력이 넘친다.

쟁기에 관한 문헌은 『삼국유사』 유리왕(儒理王, 기원 후 24-57) 條에 ‘쟁기를 처음으로 만들었다(始制犁耜及藏氷庫)’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보이며, 『삼국사기』 권 4 지증왕(智證王) 3년(502)에는 ‘주군(州郡)에 우경(牛耕)이 시작되었다(分命州郡勤農始用牛耕)’고 적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는 1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쟁기가 만들어졌고, 6세기 초에 이르러 우경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즉 1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까지는 쟁기를 사람이 끌었다는 셈이 된다. 그러나 함경북도 회령군을 비롯한 청동기유적지에서 나온 소뼈와 보습¹⁾, 평북 염주군에서 발견된 나무쟁기[木犁, 철기 초기]²⁾, 황해도 안악 고분 벽화(357년)와 평남 강서 고분벽화(408년)에 코뚜레 건 소가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AD

1) 선희창, 1991, 『조선의 민속』, 사회과학출판사, 188쪽.

2) 『조선원시 및 고대사회의 기술발전』, 1984, 과학백과출판사, 75-77쪽.



1-2세기에는 우경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6세기 초는 우리나라에서 우경이 보편화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염주군의 나무쟁기와 만주 일대에서 출토된 고구려 보습 등의 크기로 미루어 보면 두 마리 소가 견인하는 ‘겨리쟁기’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축년 소는 ‘흰소’라고 한다. 이것은 천간(십간)에 오방위의 색깔을 더한 것인데, 갑을(甲乙)은 청색, 병정(丙丁)은 적색, 무기(戊己)는 황색, 경신(庚申)은 흰색, 임계(壬癸)는 흑색이다. 즉, 2021년 신(申)자가 들어간 소띠 해는 흰색이 되는 것이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는 흑호랑이가 된다. 그러나 이런 관념은 근자에 나온 개념이고, 여기에 상술이 더해 황색인 무(戊)와 기(己)가 들어가는 해의 띠는 황금으로 도배하기도 한다.

이 글은 농경사회에서 소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노동력, 재산, 희생물 등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살펴보았다. 소는 농가 최고의 노동력으로, 일소 만들기, 소품앗이, 호리와 겨리, 풍년의례, 권농 등 5개 주제를 통해 농경사회에서 소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밝혔다. 또한 소는 농가의 재산이자 가족의 일원으로, 우골탐과 소보험, 소삼신과 질병치료, 생구(生口)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제의의 최고 희생물로, 이천 지식리와, 제주도 성읍온평리 등 현지조사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소개하였다. 소의 강한 힘과 역사적 의미는 쇠뿔과 코뚜레 걸기, 이사풍속 등의 사례를 통해 밝혔다.

2. 농가의 최고 노동력

1) 일소 고르기

소는 농가의 재산이라고 하지만 ‘소 없이는 농사 못 짓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최고의 노동력이다. 따라서 좋은 일소를 고르기 위해 농민들은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있다. 가령, 목이 굵은 소는 행동이 둔하다고 하여 목이 가는 소를 찾고, 등뼈와 꼬리가 붙은 선이 튀어나오지 않아 등뼈가 곧은 소를 좋은 일소로 본다. 또한 다리 튼튼하고, 발굽이 둥글어야 논밭에서 며칠을 일해도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어깨의 멍에 자극을 확인하여 소가 일을 해보았는지 확인한다. 소가 부리는 말을 알아듣는지 ‘어더(좌회전)’, ‘이려(직진 혹은 우회전)’, ‘워(정지)’, ‘무로(정지)’, ‘들버(다리 들어 고삐 빼기)’ 라고 걸어본다.

한국의 농가에서 운반은 수소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농사에는 암소를 쓴다. 수소에 비해 힘은 약하지만,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지구력도 강하기 때문이다. 수소는 암소보다 비싸서 송아지 때 우시장에 내다 팔고, 고기용으로 주로 판매된다. 소의 수명은 20~30년이며, 2~3세부터 일을 부려 10년 정도 일소로 쓰다가 우시장에서 송아지와 교환한다. 그러나 2, 3년마다 소를 교체하기도 하는데, 이때 마른 소를 사다가 잘 먹여서 살을 붙여 이익을 남기고 판다.



2) 일소 만들기

일소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하는 일이 멍에 걸기와 코뚜레 뚫기이다. 멍에는 쟁기나 마차를 걸 때 소 목에 거는 도구로, 소가 이들 농기구를 끌기 위해서는 멍에에 대한 적응은 물론 목 힘을 키워야 한다. 멍에를 건 소에게 무거운 돌로 만든 굴태(碌碡)나 ‘꽁게’에 어린아이나 돌을 얹혀 하루 종일 끌게 한다. 소가 멍에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모래밭이나 갈지 않은 땅(처녀지)에서 쟁기같이 훈련을 한다. 이때 한 사람이 앞에서 소를 견인하여 소로 하여금 밭의 보폭이나 쟁기 끄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일소를 조종하기 위해 소의 코에 코뚜레를 걸어야만 한다. 어린 송아지가 6개월 정도 지나면 부리기 용이하게 코뚜레와 고삐를 건다. 코뚜레 감은 습기에 강하면서 잘 부러지지 않는 주목(노가리나무)이나 물푸레나무를 으뜸으로 치지만,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휘어서 만들기도 한다. 속설에 코뚜레를 5월 수릿날에 걸면 송아지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한다.

개업이나 이사를 했을 때 문에 코뚜레를 걸고 주인은 ‘귀신 들어오지 말라’며 그 이유를 든다. 코뚜레가 억센 소를 꼼짝 못 하게 무서운 힘을 발휘하듯 감히 잡귀가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사용한 코뚜레를 거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장사하는 집에 거는 코뚜레는 벽사(辟邪)의 기능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의미도 있다. 소는 집안의 큰 재산으로서 부의 상징이며, 그 재산을 코뚜레가 꼭 잡아주어 가계가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과거에 소는 팔아도 코뚜레와 고삐는 주지 않았다. 만약 코뚜레를 줄 경우 다시 소를 키우면 그 소가 자주 병이 나고 집안의 재산이 팔려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비록 복을 상징하는 소는 팔았어도, 코뚜레와 고삐가 여전히 집안에 복을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고 여긴 것이다.

3) 소품앗이

소가 없는 사람이 남의 소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소주인 집의 일을 해주는 것을 ‘소품앗이’, ‘소품’이라고 한다. 소는 농가의 중요한 노동력이자 재산이지만, 소농의 경우는 오히려 겨울철 소여물 등 소를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되고, 소 장만할 돈도 없어 남의 소를 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1970년대 중반에도 소를 빌려 쓰는 농가가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주로 논 모내기나 밭 파종을 앞두고 쟁기질이나 씨레질을 할 때 이루어졌다. 소 한 마리는 네 사람의 힘을 합친 것과 동일하다고 여겼지만, 소의 하루 품삯으로 두 사람의 품과 맞바꿈 하였다. 즉 소를 하루 빌려 쓰면 주인집에 이틀간 일을 해주었다. 그러나 이웃, 사촌 간에 이루어지는 소품앗이는 보통 하루 정도 일을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었다.

4) 소 계약과 관습

소 주인과 빌리는 사람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계약관계가 존재하였다. 소 없는 집에서 주



인집의 논밭을 갈아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논밭을 가는 것을 ‘보도치’, 소를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로 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도짓소(윤돌소)’가 있다. 그리고 송아지를 얻기 위한 여러 계약도 있었는데, 소주인 송아지를 24개월 키운 뒤에 어미소가 되어 송아지를 낳으면, 어미소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송아지를 본인이 차지하는 ‘배넛소’, 송아지를 두 번 내면 마지막 난 새끼를 자신이 소유하는 ‘수양소’가 있다. 수양소는 배넛소보다 조건이 더 좋지 않은 계약관계이다. 소주인 송아지를 어미소가 될 때까지 키운 후 팔 때 송아지 값을 제외한 나머지 소값을 소주인과 기른 사람이 절반씩 분배하는 ‘어울리소’,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이 소 한 마리를 사서 함께 기르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의리소’라고 한다.

〈소 계약 관습〉

- 배넛소: 소주인 송아지를 24개월 키운 뒤에 어미소가 되어 송아지를 낳으면, 어미소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송아지를 본인이 차지
- 수양소: 주인 소를 대신 키워 송아지를 두 번 내면 마지막 난 새끼를 자신이 소유
- 어울리소: 소주인 송아지를 어미소가 될 때까지 키운 후 팔 때 송아지 값을 제외한 나머지 소값을 소주인과 기른 사람이 절반씩 분배
- 의리소: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이 소 한 마리를 사서 함께 기르면서 농사짓기
- 보도치: 소 없는 집에서 주인집의 논밭을 갈아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논밭을 갈음
- 도짓소(윤돌소): 소를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로 주인에게 일정 금액 지불
- 군소: 소가 없는 사람이 군(郡)에 신청하여 소를 길러주는 대신 일소로 부릴 수 있게 해 줌. 군소 키우다가 새끼 나면 소 기르던 사람 소유됨. 일반 농가에서 잘 모름
- 종모소(種牡牛): 암소 교미용 수컷 소. 교미 사례로 콩 한말 받음

5) 겨리와 겨리사춘

쟁기는 소 한 마리가 견인하기도 하지만, 강원도나 함경도 등 산간지역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끈다. 쟁기를 소 한 마리에 거는 것을 호리[胡犁, 單耜, 單犁, 獨犁]³⁾, 두 마리에 거는 것을 겨리[雙牛, 再駕牛, 雙犁, 結犁]⁴⁾라고 한다. 호리는 하나를 나타내는 ‘홀(홀로)’에서 나온 명칭이고, 겨리는 ‘맺을 결(結)’이 연음되어 불리는 명칭이다. 조선시대 박제가(朴齊家)는 우리나라 산지에서는 겨리로, 평지에서는 호리로 갈이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형원(柳馨遠)은 경기도와 영남지역에서는 호리를, 호서지역과 호남지역에서는 겨리를 사용한다고 구분하였다. 우하영(禹夏永)도 중부이북지방인 북관(北關)·서관(西關)·해서(海西)·관동(關東)·서울 동북지역과 영남(嶺南)·호서(湖西)·호남(湖南)의 산간지역 발갈이에

3) 호리를 조선시대 책에서는 “胡犁”(『山林經濟』), “單耜”(『北學議』), “單犁”(『林園經濟誌』), “獨犁”(『千一譜』)라고 적고 있다. “胡犁”라는 말은 중국 신은서(神隱書)에서 가져온 말이지만, 우리말 호리는 하나를 나타내는 ‘홀(홀로)’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4) 겨리는 조선시대 책에서는 “雙牛”(『課農小抄』), “再駕牛”(『北學議』), “雙犁”(『林園經濟誌』), “結犁”(『千一譜』)라고 적고 있다. ‘소겨리’라는 말은 겨리소를 이용한데서 나온 말이며, “겨리”는 맺을 “結”이 연음화 된 것으로, 두 마리 소를 결합한다는 의미이다. 두 마리의 소를 ‘겨리소’, 두 마리의 소를 매워 같이 하는 것을 ‘겨리같이 한다’고 말한다.



는 겨리가, 서울 서남쪽과 화성부 그리고 강화부에서는 호리가, 개성에서는 호리와 겨리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경기도 이북지역과 강원도,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의 산간마을에서 겨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겨리로 밭갈이를 하는 지역에서는 소를 가진 농가끼리 짝을 이루어 농사를 짓는다. 그것을 ‘쌍겨리’ 또는 ‘맞걸이’라고 한다. 강원도 홍천·삼척·태백의 산간지역에서는 쌍겨리를 구성하는 것을 ‘소짜기’라고 달리 말하기도 한다. 이들 농가는 소로 인하여 사촌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를 ‘겨리사촌’이라고 한다. 겨리사촌은 농사는 물론 집안의 대소사에 서로 도움을 줄 정도로 관계가 끈끈하다. 겨리는 주로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을 중심으로 묶어지며, 보통 구정 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번 묶어지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겨리로 갈이를 할 때 두 마리의 소 중 힘이 세고 일을 잘하는 소를 ‘안소’ 또는 ‘마마소’라고 부르고, 쟁기를 잡은 사람이 소를 바라볼 때 왼쪽에 위치한다. 안소보다 덜 길들여 지거나 힘이 약한 소는 ‘어저소’ 또는 ‘마라소’라고 부르며 오른쪽에 선다. 마마소는 어미소, 마라소는 오른쪽에 위치하는 소라는 뜻이다. 쟁기 보습이 밭을 가는 곳은 작년의 이랑으로 흙이 많고 곡식 뿌리가 엉키어 있다. 또한 흙밭을 좌측으로 넘기기 위하여 보습을 좌측으로 엇비슷하게 기울이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안소는 우측에 있는 어저소보다 몇 배의 힘을 써야 한다. 이랑을 다 갈고 쟁기를 돌리면 이번에는 안소는 이랑에, 어저소는 고랑에 서서 고랑을 갈기 때문에 어저소의 부담이 적게 된다. 그런데 소는 안소나 어저소로 한번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안소가 있는 집에서는 어저소를 가진 농가와 소 짝을 맺어야만 한다.

6) 권농(勸農)과 풍년 기원

입춘(立春)에는 농사의 시작과 권농(勸農)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흙이나 나무로 만든 소를 세워두었다. 고려 성종 7년(988) 2월에 “농사 때를 놓치지 않도록 입춘 전날에 흙으로 빚은 소를 길거리에 세워 놓았다”⁵⁾라는 기록이 보일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또한 고려 단종 때는 ‘土牛로서 한기를 쫓고자 흙으로 소머리 네 개를 만들었는데 길이는 1척이고 높이는 5촌이다’⁶⁾라고 적고 있다. 조선시대 『용재집(容齋集)』의 저자인 이행(李荇)은 토우를 만든 이유를 “농사에 힘을 쓰기로는 소에 비길 것이 없고, 만물을 낳아 기르지게 하는 것은 흙이니, 두 가지를 합쳐 만든 토우가 그만이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목우(木牛)를 세워두는 것은 농사의 때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조선시대에는 목우를 끌고 마을을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한국 최고의 세시기인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함경도에서는 입춘이 되면 나무 소를 관청에서 끌고 나와 마을을

5) 『高麗史』 卷3 世家 成宗 7년(988) 2월 壬子: 立春前出土牛以示農事之早晚.

6) 『高麗史』 卷64 志18 단종 6년: 季冬之月命有司大饗旁磔土牛以送寒氣.



돌아다녔다. 이것은 입춘 전날 흙으로 빚은 소를 길거리에 내놓던 관례를 모방한 것으로 농사를 장려하고 풍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식이다”라고 하였다. 한국의 최남 제주도에서도 “관복을 입은 호장이 나무로 만든 쟁기를 소에 매어 끄는 가운데 어린 기생들이 뒤를 따랐다.”고 『탐라록(耽羅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은 20세기 초까지도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고, 토우가 정적(靜的)이라면 목우(木牛)는 동적(動的)이다. 현재, 토우나 목우는 사라졌지만, 경기도 양주나 황해도 평산 소놀이곳에서는 명석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 소로 분장하여 행위를 펼친다.

한 해 농사의 풍·흉년은 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고려시대 성종(1476년)은 입춘에 일소 80마리를 40개의 겨리쟁기에 걸어 밭갈이 의식을 행하였으며, 이런 풍속은 조선시대 순종(順宗, 1909)까지 433년간 지속되었다. 이것은 임금이 손수를 쟁기를 잡고 농사의 소중함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조선시대 민간에서도 매년 입춘 아침에 관문(官門)의 길 위에서 목우를 몰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하여 풍·흉년을 점치고 풍년을 기원하였다. 이때 밭을 가는 자와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옷을 벗었는데, 이것을 ‘나경(裸耕)’ 풍속이라고 한다(『미암집(眉巖集)』)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강원도에서는 ‘보냄’이라는 풍년 기원 쟁기갈이를 한다. 겨우내 얼었던 밭이 해빙되고 소를 밭으로 처음으로 내보는 것이기 때문에 ‘첫보냄’, ‘보냄이’라고도 한다. 보냄을 하는 날짜는 대략 봄갈이 한 달 전이나 열흘 전에 좋은 날을 가려서 행하는데, 열두 띠 동물 가운데 털 없는 날을 택한다. 이들 동물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처럼 한 해 쟁기갈이가 수월하여 소나 농부가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보냄 의식은 추경(秋耕)을 하지 않은 밭에서 행하며, 쟁기를 건 소의 머리를 액운이 없는 방향으로 세운다. 그런 다음 밭을 둥글게 원 모양(곡식 갈무리 통)으로 쟁기질하고, 한 해 동안 소와 사람이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

3. 농가의 재산

1)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소보험

과거 자식들의 대학 입학에 위해 농가의 중요한 재산인 소를 팔았다. 소 팔아 대학에 들어왔음을 나타내기 위해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하였다. 그 전의 ‘상아탑’을 시대 상황에 맞게 달리 호칭을 한 것이다.

1897년 6월 대조선보험회사(1895년 설립)는 조선의 사육 소에 대한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보험료는 소의 크기와 상관없이 1마리에 엽전 1냥이었고, 소의 등급(大牛·中牛·小牛)에 따라 100냥, 70냥, 40냥의 보험료가 차등 지급된다. 보험료 지급 조건은 기르던 소가 갑자기 죽거나 소를 도둑맞았을 때 소의 값을 물어준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소 값이 보통



500냥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 지급은 일부인 셈이다. 보험증권에는 소 주인의 주소와 소의 털 색깔, 뿔의 상태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에 대해 잘 몰랐던 조선인들은 우세(牛稅)가 생겨났다고 분개했고, 결국 소보험 제도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100여일 만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소보험 증권의 도입은 한국인이 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소삼신과 질병치료

특별한 음식뿐만 아니라 여름철 소가 힘들어 할 때는 뱀을 잡아 먹이기도 하였다. 뱀을 썰어 깻잎에 싸서 먹이거나 통째로 소 입안에 넣어주었다. 소가 뱀을 잘 받아먹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뱀을 먹은 소는 쉽게 지치지 않고, 더위도 타지 않는다. 강원도 태백의 어느 농가에서는 소가 항상 힘을 내라고 외양간에 ‘사(蛇)’자를 거꾸로 붙여 놓기도 했다. 뱀자를 거꾸로 붙인 것은 한자의 거꾸로 ‘倒’와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到’자가 발음이 같아 ‘뱀이 항상 있다’라는 뜻으로, 소가 지치지 말고 계속 힘을 쓰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소에게 제일 나쁜 병은 설사이다. 설사를 멈추게 하기 위해 바위 밑의 풀을 태워 먹이거나, 침을 놓았고, 또한 전쟁터에 죽은 사람의 뼈를 갈아 먹이기도 하였다. 이런 민간요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의사에게 받은 처방약을 달여서 맥주병에 넣어 여러 차례 먹인다. 소와 관련된 병의 민간요법은 일찍이 후위(后魏) 고사협(賈思勰)의 『제민요술(齊民要術)』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돌림병(疫病)이 생기면 수달의 고기나 간, 똥을 달여 먹이거나 인삼을 달인 물을 먹이고, 또는 주사(朱砂)와 기름, 청주를 섞어 뜨겁게 해서 먹이면 된다. 그리고 12월에 잡은 토끼 머리를 재가 되도록 구운 후 물과 섞어 먹여도 효과가 있다. 이밖에 배가 더부룩하게 부를 때(復脹), 피부병, 말라리아(長虱), 설사와 기침, 더위 먹었을 때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⁷⁾.

3) 생구

소는 식구이자 주인과 가장 깊이 교감한 동물이다. 소는 ‘생구’(生口, 한 집에 사는 하인이나 종)라고 해서 가족의 일원이었으며, 살아 있는 동안 아무런 말없이 오로지 가족을 위

7) 『齊民要術·養牛，馬，驢，騾』第 56；

- 治牛馬病疫氣方：取獺屎，煮以灌之。獺肉及肝彌良，不能得肉，肝，乃用屎耳。
- 治牛疫氣方：取人蔘一兩，細切，水煮，取汁五升，灌口中，驗。又方：腊月免頭燒作灰，和水五六升灌之，亦良。又方：朱砂三指撮，油脂二合，清酒六合，暖，灌，即差。
- 治牛腹脹欲死亡：取婦人陰毛，草囊與食之，即愈。此治氣脹也。又方：研麻子取汁，溫令微熟，擘口灌之五六升許，愈。此治食生豆腹脹欲垂死者，大良。
- 治牛疥方：煮烏豆汁，熱洗五度，即差耳。
- 治牛肚反及嗽方：取榆白皮。水煮極熟。令甚滑，以二升灌之，即差也。
- 治牛中熱方：取免腸肚，勿去屎，以草囊，吞之，不過再三，即愈。
- 治牛虱方：以胡麻油塗之，即愈。猪脂亦得。凡六畜虱，脂塗悉愈。
- 治牛病：用牛膽一個，灌牛口中，差。



해 헌신과 희생으로 일관한다. 주인도 소를 가족처럼 여겼다.

새해 첫 소날(上丑日)을 소의 생일날로 여겨 소에게 잘 먹이고, 특별한 행위를 삼간다. 이날 쟁기를 만지면 농사 지을 때 쟁기나 보습이 부러지고, 방아를 찧으면 소가 일할 때 기침을 하게 되고, 식량을 집밖으로 나가면 소가 죽거나 힘이 빠진다고 한다. 농기구를 만지거나, 방아를 찧는 행위, 곡식을 나르는 행위 등은 소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소의 생일날은 이런 행위를 금한 것이다. 또한 쇠고기를 써는 것은 ‘소를 잡는다’는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

소의 출산 때도 사람처럼 대했다. 어미소는 사람처럼 10달 가까이 품고 있다가 송아지를 낳는다. 이때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문에 금줄을 걸어 잡귀나 부정한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외양간 한 쪽에는 송아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람으로 ‘소 삼신’이라고 하여 구멍 뚫린 둥근 돌을 걸었다. 그 모양이 엽전 모양이라서 소 주인집이 부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담고 있다.

소는 늘 사람들과 교감을 하는 가축이다. 1993년 자신을 돌봐준 이웃집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고, 냇을 기리기라도 하듯 빈소 정면을 한참을 서 있는 등 술한 화제를 낳았던 경북 상주의 의로운 소가 주민들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아오다가 19살의 나이로 2007년에 죽었다. 이 소는 죽기 직전에도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준 할머니 영정사진을 혀로 핥으며 숨을 거두었다. 상주시는 의로운 소 ‘장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치 사람이 죽은 것처럼 장례의식을 치렀다. 염, 입관, 발인제를 거쳐 차량으로 만든 꽃상여와 달구지로 장지인 사벌면 삼덕리의 상주박물관 인근 시유지로 운구, 하관과 봉분제 등을 거쳐 안장하고, 무덤은 의우총(義牛塚)으로 명명됐다. 그러나 상주시가 의로운 소를 기리는 테마파크를 만든다며 묻은 지 18일 된 소의 사체를 다시 파내 소의 실물을 누구든 볼 수 있도록 박제와 골격 모형 만들기를 추진하자, 부관참시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전시관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박제된 소는 갈 곳을 잃어 상주축협이 운영하는 한우홍보 테마타운 2층에 전시하고 있다. 쇠고기를 파는 장소에서 의로운 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뒷맛은 불편하고 씁쓸하다.

소를 단순히 가축이 아닌 인격으로 대했던 이야기가 많이 전해 오고 있다. 황희 정승이 길을 가다가 어떤 농부가 2마리 소로 밭을 가는 것을 보고 “어느 소가 더 잘 가느냐?”고 물었더니 농부가 귀엣말로 대답했고, 그 이유는 “비록 짐승일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어 질투하지 않겠느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강원도 인제, 홍천의 농민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와 단둘이 쟁기질을 하다보면 심심하고 지루해 소와 친구삼아 이야기를 주고 받다보면 후에 소들이 사람의 말을 모두 알아듣는다고 한다. 농부가 황희에게 귀엣말로 한 것은 정말로 소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두 마리 소 중에 일 잘하는 소는 오른쪽에 선 ‘안소’이다.

소는 예로부터 농가의 조상으로, 오곡의 신으로 섬겨왔다. 이것은 머리는 소, 몸은 사람



몸의 형상을 하였다는 신농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를 농업신으로 여기고 소를 제물로 제사를 지냈다. 이 제사를 지낸 곳이 '선농단(先農壇)'(서울시 文化財 第 16號)이다. 조선왕조 때 임금들은 친히 쟁기를 잡고 농사의 소중함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의식을 벌렸다. 선농단에서의 제사는 성종(成宗) 7년(1476) 때 시작하여 조선시대 마지막 황제인 순종(順宗, 1909)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참가한 농부들에게는 독배기에 곰국을 담고 밥을 말아 주었는데, 선농단에서 끓인 국이라 하여 '선농탕(先農湯)'이라고 불렸다. 후에 '선농탕'은 '설렁탕'으로 바뀌어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술이나 밥을 먹기 전에 그 일부분을 땅에 뿌리거나 던지는 '고시례' 행위도 신농(神農)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간략한 의식이다.

소는 가축이기는 하나 식구처럼 대해주어 '생구(生口)'라고 부르며, 소 나이에 따라 이름을 따로 불러주기도 했다⁸⁾. 또한 우리는 소의 무병장수를 위해 '소놀이굿'을 벌였고, 10월 고사 때는 '소신'에게 백설기 시루떡을 바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소를 사거나 송아지를 들여오는 날을 '납우일(納牛日)'이라 하여 음양오행설에 근거하여 택일을 하였으며, 구유를 들여오거나 외양간을 고칠 때도 길일을 택하였다.

소는 집안의 재산으로서, '공자(公子)', '수신(水神)'으로 불리어지기도 하며, 강원도, 함경도 지역에서는 '군옹(君翁)', '쇠구영신(牛口靈神)'이라 하여 소를 위한 신을 집안에 모시기도 한다. 소가 새끼를 나면 집안에 아이를 낳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문에 금줄을 치거나 소나무를 걸어 잡귀의 진입을 막았다. 경기도 이천지역에서는 금줄 가운데 고무신 한 짝을 걸어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소는 조상이자 부모로 인식하였다. '소는 농가의 조상', '부모처럼 소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격언이나 꿈에 소가 보이는 것은 후손에게 할 말이 있는 조상이 나타난 것으로 여긴다. 주인은 소의 먹이나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소에 대한 대접을 남다르게 하였다. 농사일로 피곤해도 아침, 저녁으로 소에게 여물을 주는 것을 절대로 거르지 않으며, 들판에 풀이 자라는 시기에는 소를 몰고 싱싱한 풀을 뜯어 먹게 하거나, '꿀 베기'를 하여 소에게 먹였다. 그리고 소가 힘이 없거나 송아지를 잉태하면 특별 음식으로 삶은 콩을 벗짚과 섞여 먹였다. 정월이나 추석에 소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 해의 농사가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즐기는 '소먹이 놀이'에서도 소를 대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소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외양간 청소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떼어내면서 털 손질을 해주었다. 소의 발굽을 보호하기 위해 징을 달아주고, 논밭을 갈 때는 쇠짚신을, 사람 어깨에 걸치는 솔처럼 거적으로 등을 덮어 보온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8) 소의 이빨을 통해 소의 나이를 헤아린다. 즉 1살 된 송아지를 '하릅', 2살 된 소를 '이릅', 3살은 '사릅', 4살은 '나릅', 5살은 '다릅', 6살은 '여릅', 7살은 '이릅', 8살은 '여릅'이라고 부른다. 나이를 헤아리는 방법은 2살이 되면 소의 이빨(幼齒)이 모두 나고, 3살이 되면 유치 2개가 빠지고 영구치가 2개가 난다. 4살이 되면 유치 한 개가 더 빠지고 영구치는 모두 3개, 다섯 살은 유치 한 개가 더 빠지고 영구치는 모두 4개가 된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7살 된 소는 영구치가 6개가 있는 셈이다.



4. 희생물과 역사

1) 희생물

가) 산신제 제물(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정개산)

마을제의 가장 큰 제물은 황소로 산신제를 주관하는 대동회에서 잡색이 없는 황소를 선택한다. 보통 3살 이상 된 소로, 2년 동안 집집마다 대두 1말씩 거둔 산제미(山祭米)로 구입한다. 구입한 소는 부정이 없는 집에 두었다가 제사 당일 정개산 흐르는 물에 깨끗이 몸을 씻긴 다음 이천의 도살장에서 잡아 제당으로 운반한다. 소를 도살할 때 잡은 부위가 빠지지 않도록 열 명 정도가 참관하고 소가죽도 가져온다. 토막 낸 고기는 제상에 올릴 때 부위별 맞춰 온전한 소의 형태로 만들고 제의 후에는 각 가정이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 ‘발톱도 나눠 가진다’라고 말할 정도이며, 본래 제의를 마친 후 음복 행위는 없다. 각 가정에서는 소고기를 먹은 후 뼈는 신에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둔다.

나) 포제(酬祭) 제물(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정월 별제의 본향지신(本鄉之神) 제물로 소를 희생물로 사용하며, 제의는 유교식으로 지낸다. 소를 구입할 때는 점이 없는 것을 고르며, 구입한 소는 바닷가에서 도살한 후 제상에는 등심 부분만 올린다. 마을 본향당신이 돼지고기를 부정시하기 때문에 소를 바친다고 하는데, ‘뺨 송배’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바치지 않는다. 뺨은 돼지의 가죽을 물 수 없는 대신 돼지는 뺨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라고 한다. 뺨, ‘긴업’을 섬기는 지역에서는 소를 희생물로 바친다.

충청도 외연도에서도 소를 제물로 바친다. 위의 지역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마을이 아니기에 개인이 소고기를 먹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함께 비싼 소를 제물로 바치고 단백질 고기로 섭취를 하는 것이다. 제의를 통해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다) 강원도 태백시 한소리 마을제

한소리는 산간지역의 마을로 과거 화전을 경작하면 농사를 지었다. 농사는 보통 9월이 마무리되고, 농사에 쓰인 소는 마을 뒤 산에 풀어놓는다. 소는 날씨가 추워지면 알아서 내려오는데, 마을 사람들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마을 소의 수를 확인한다. 9월 말이면 수소를 산에 올려 암소를 잉태하게 만든다. 음력 10월이 되면 황소는 마을 제물로 사용하고, 각 가정에서는 소를 공평하게 나눈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갔을 때 ‘황소를 내년에 쓰면 안 되겠다?’ 물어보자, 현지주민들은 ‘수소는 한 번 교미한 암소와 다시는 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였다. 이것을 ‘황소의 법칙’이라고 한다.



2) 강한 힘과 벽사

개업이나 이사를 했을 때 쇠뿔, 코뚜레 등의 물건을 문에 걸기도 한다. 그 이유에 대해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라고 이유를 낸다. 코뚜레가 억센 소를 꼼짝 못하게 무서운 힘을 발휘하듯 감히 잡귀가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사용했던 코뚜레를 거는 이유도 그런 의미가 더욱 강하다. 장사하는 집에 거는 코뚜레는 벽사(辟邪)의 기능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소는 집안의 큰 재산으로서 부의 상징이며, 그 재산을 코뚜레가 꼭 잡아주어 가계가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원래 소는 팔아도 코뚜레는 물론 고삐도 주지 않는다. 만약 고삐를 줄 경우 다시 소를 키우면 그 소가 자주 병이 나고, 집안의 재산이 팔려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록 복을 상징하는 소는 팔았어도, 고삐가 여전히 집안에 복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소를 통해 그 해 농사를 점치기도 하였다. 정월 초하루 새벽에 소가 울면 그해 행운이 들고 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다. 또한 보름 아침에 찰밥·오곡밥·나물 등을 얹은 키를 내밀었을 때,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본다.

옛말에 ‘부지런한 농가의 소는 살찌고, 농사도 풍년이 든다’, ‘며느리는 소 잘 되는 집에서 얻어라’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근면한 농가(農家)를 묘사한 것으로, 그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부모를 본받아 부지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어느 농가에서는 소를 잘 키워도 소가 병들거나 송아지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집 사람들은 재물 복이 없다’고 여겨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기를 꺼리기도 한다.

소의 목에는 ‘워낭’이라고 부르는 방울을 달아 준다. 이것은 잃어버린 소의 위치를 빨리 찾게 해주고, 소도둑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게 해준다. 일설에 의하면, 소는 겁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타서 헛소리만 들어도 크게 동요하므로 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울을 단다고 하며, 또한 호랑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방울소리이기 때문에 호랑이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소의 눈망울은 착한 모습이라서 소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소는 힘도 세지만 강한 뿔을 가진 무서운 존재이다. 따라서 집이 이사를 갈 때 소나 며칠 지나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풍속이다. 무서운 형상의 가축이 집안에 갇든 가신들을 몰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소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착한 동물로 여겨지나, 일만 하는 모습과 느릿한 행동, 무딘 반응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소의 양면적 특성은 사람의 언어와 행동에 빗대어 지곤 한다. 소는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묵묵히 일하는 소는 근면함의 상징이다. 한국의 농담 중 “소 같이 일하고 쥐(돼지) 같이 먹어라” 라는 말이 그것을 나타낸다. 소의 귀·피·뼈·가죽(牛皮) 등은 결맹(結盟)을 맺는 도구로 쓰였듯이, 소는 의(義)를 중시하는 동물이다. 주인의 양육에 대한 대가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그러하고, 주인을 위해 호랑이와 싸워 죽는다는 설화의 내용도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속담 ‘소가 우는데 소가 따라 운다.’ 등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소는 평화의 상징이다. 풀 먹는 모습이나 신선이 타고 다녔다는 소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평화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칼 팔아 소 산다(賣劍買牛(漢書))’는 것은 전쟁을 그만두고 평화를 찾겠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속어 중 ‘두렁에 든 소’, ‘개천에 든 소’ 등은 복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소 꿈을 꾸면 길하다.’ 는 것도 소가 사람에게 복을 전해 준다는 의미이다. 풍수지리에서 소의 형국(形局)은 부자가 될 좋은 터이다.

묵묵히 일하는 모습과 느긋한 태도에서 사람들은 소를 신중하고 덕이 있는 가축으로 여겨 군자에 비유하기도 한다. 한국의 속어 ‘소더러 한 말은 소문이 안 나도, 어미(처)한테 한말은 난다’, ‘소귀를 삶아 먹으면 정직해진다.’ · ‘소가 말은 못해도 열 두 가지 덕은 있다.’ 등과 중국의 속어 ‘牛馬比君子’ 등은 소의 이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소는 농가의 귀중한 재산이다. 농가에서 가장 큰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경우는 소를 파는 것이고, 소를 구입하기 위해 사람들은 토지를 팔기도 한다. 한국인의 말에 ‘소 팔아서라도...’ 라고 할 때는 귀중한 재산을 팔아서라도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큰 소 잃고, 송아지 잃었다’ · ‘소 잃고 양 얻었다’ · ‘소가 반 재산이다’ · ‘소는 농가에서 땅 다음 재산이다’ 등은 소의 귀중함을 나타낸 것이다.

‘눈먼 소에 멩에가 아홉이다’ · ‘뜯 소 올 넘었다’ · ‘소 힘은 소 힘이고, 새 힘은 새 힘이다’ ·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소의 능력과 유용함을 나타낸 것이고, ‘牛黃’은 보약, ‘牛有換氣之力’은 큰 힘, ‘牛不吃髒草, 馬不飲髒水’, ‘牛喜順, 馬喜逆’ 등은 소의 깨끗함과 순종적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끈기 있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오히려 고집스럽게 보일 때도 있다. 고집스러운 사람을 빗대어 ‘황소고집’ · ‘죽은 쇠귀신 같다.’ · ‘쇠가죽’이라고 말한다. 소의 무딘 반응과 행동 등은 사람들은 둔하고, 무식하고 복이 없는 동물로 취급한다. 한국의 속어 ‘쇠귀에 經 읽기’ · ‘기운이 세면 소가 왕 노릇할까’ · ‘쇠 대가리’ · ‘오뉴월 쇠불알 늘어지듯’ ·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 ‘소 뒤 걸음 치다 쥐잡다’ · ‘소한테 물렸다.’ · ‘느린



소도 화낼 때 있다’.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큰소리 치고 허풍을 떨고, 자만하고 예의 없는 사람을 우리는 ‘꼬리 없는 소가 남의 소 등의 파리를 잡겠다고 한다.’ ·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 ‘정승 집 송아지 백정 무서운 줄 모른다.’ · ‘거들거리는 소는 받지 않는다.’ · ‘농아먹인 소’ 라고 표현한다. 걱정이 많은 사람을 ‘새끼 아홉 둔 소 길마 벼를 날이 없다.’고 빗대어 말하며, 이밖에 ‘여물 많이 먹은 소 똥 놀 때 알아본다.’ · ‘여물 안 먹고 잘 걷는 소’ 등은 속임을 잘하는 사람을, ‘소 머리’는 흉악함을, ‘牛皮衣’는 가난함을, ‘소가 푸줏간 들어가듯이’는 겁 많음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보천리(牛步千里)’ 또는 ‘우보만리(牛步萬里)’라는 말처럼, 지치지 않고 두벅두벅 앞만 보고 걸어가는 소와 같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보면 밝은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소의 잡귀 퇴치 능력으로, 하루속히 역병을 몰아내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돌아오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

■ 참고문헌

『山林經濟』 『北學議』 『林園經濟誌』 『千一譜』 『課農小抄』 『齊民要術』

홍희유, 1959, 「15세기 이후의 조선 농구에 대하여」, 『문화유산』 제 5호.

강석준, 1959, 「쌍명에 가대기」, 『문화유산』 제 2월호.

『조선원시 및 고대사회의 기술발전』, 1984, 과학백과출판사.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강원도, 문화재관리국, 1977.

김광언, 1988, 『韓國의 住居民俗誌』, 민음사,

전경식, 1991, 「소」, 『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 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선희창, 1991, 『조선의 민속』, 사회과학출판사,

『조선의 민속전통』(4), 1994,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김진순, 1995, 『강원도지역 ‘소모는 소리’의 현장론적 연구』, 관동대 석사학위논문.

裴桃植, 1996, 『韓國民俗의 原形』, 集文堂.

김광언, 1986, 『한국농기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河野通明, 1996, 「동아시아의 이경의 전개에 대한 시론」, 『商經論叢』 32-1, 1996.

鄭然鶴, 1998, 『中國與韓國型的比較研究』, 박사학위논문.

정연학, 1999, 「소에 나타난 민속학적 의미와 상징-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6호, 국립민속박물관.

이준석, 2000, 「강원도에서는 왜 아직도 두 마리 소로 쟁기질할까」 『실천민속학 새책』 2.

정연학, 2003, 『한중농기구 비교연구: 파비에서 쟁기까지』, 민속원.

장정룡, 2007, 「보냄」,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김세진, 2014, 「강원도 산간지역의 쟁기의 발달과 특징」, 『사회과학연구』 53(2),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김세진, 2016, 「강원도 겨리소의 길들이기 방식과 특징」, 『사회과학연구』 55(2),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김세진, 2017, 「강원도 겨리농경지역 논연장과 발연장의 비교」, 『사회과학연구』 56(2),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주제 발표 - 우담(牛譚)]

소 이야기의 세계와 한국인의 소 인식 층위

임 재 해
(안동대학교)

- 목 차 -

1. 소와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인의 문화
2. 소 이야기의 분류 준거와 소의 인식 층위
3. 소의 행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인간의 한계
4. 소의 긍정적 대상화에 따른 인식과 여러 쓰임새
5. 소의 부정적 대상화에 따른 인식과 인간의 탐욕
6. 인간과 소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개입한 소 인식
7. 이야기에서 포착된 한국인의 소 인식 층위

1. 소와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인의 문화

한국인에게 소는 예사 가축이 아니다. 기둥뿌리이자 식구이다. 기둥뿌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살림밑천이라는 뜻이며, 식구라는 것은 사람과 대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된다는 뜻이다. 소가 기둥뿌리인 것은 사실의 문제이며, 소가 식구라는 것은 인식의 문제이다.

사실의 문제는 더 따질 필요가 없다. 소가 살림밑천인 것은 소값이 비쌀 뿐 아니라, 농가에서 축력을 제공하는 까닭이다. 농가에서 농사일을 돕는 일소는 그 자체로 소중한 재산이면서 노동력 제공으로 엄청난 경제적 생산 효과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소의 형국에 묘를 쓰면 부자 된다.’는 풍수 관련 속신은 소가 부를 보장하는 존재로 인식된 까닭이다. ‘꿈에 황소가 집으로 들어오면 부자 된다’는 속신까지 있다.¹⁾ 소가 들어오는 것은 곧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소는 꿈에만 봐도 부자가 된다고 인식한 것이다.

사실의 문제와 달리, 인식의 문제는 과연 그런가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

1) 천진기, 『한국동물민속론』, 민속원, 2003, 121~126쪽에서 여러 속담과 길조어, 금기어 등의 속신어 등을 두루 다루면서 소의 상징 및 소에 관한 인식을 포착하려고 했다. 여기 인용한 속신은 이 책 129쪽에서 참고한 것이다.



사실과 다르게 소의 존재를 생각하는 까닭에 인식의 근거를 추적해 봐야 한다. 식구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혈연 가족을 뜻하는 까닭에 누가 보더라도 소는 식구가 될 수 없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닐 뿐더러, 동거한다고 하더라도 끼니를 같이 먹는 존재가 아니어서 식구일 수 없다.

그럼에도 소가 사람들과 대등한 식구라는 것은 소에 관한 민중의 인식, 특히 농민의 인식이 특별하다는 것을 말한다. 생각만 식구처럼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른 가축과 달리 특별히 대우한다. 이를테면 의식주생활부터 다르다. 어떤 가축이든 추위를 막기 위해 옷을 입히는 전통은 없다. 그러나 소는 겨울이 다가 오면 천이나 명석으로 엮어서 만든 ‘삼정’을 만들어 몸을 감싸 주어서²⁾ 추위를 막아 준다. 삼정은 소의 겨우살이 옷인 셈이다. 반려견의 경우 옷을 입히긴 하지만, 그것은 최근 현상일 따름이다.

소의 식생활도 특별하다. 왜냐하면 소의 먹이는 다른 가축과 달리 별도로 끓여서 제공하는 까닭이다. 개와 돼지, 닭 등은 음식 찌꺼기를 주는 것이 고작이지만, 소 먹이용 여물은 별도로 마련하여 쌓아둔다. 따라서 꼴머슴이 있어서 꼴 베는 일을 누군가 일삼아 해야 한다. ‘헛간’이라 일컫는 여물 칸이 별채로 있어서 작두를 갖추고 여물을 쌓아두는 저장 공간 구실을 한다. 소여물을 끓이는 부엌은 사랑방 아궁이에 마련되어 있어서, 사람들 끼니를 마련하는 안방 부엌과 짝을 이룬다. 사랑방 부엌에서 남정네들이 아침저녁으로 가마솥에 소여물을 끓이는 일을 한다. 소의 식생활을 담당하는 공간이 사랑방 부엌이다.

소의 주거공간은 외양간이다. 외양간은 사람들의 방 한 칸 차지와 같은 크기로서, 집의 구조에 따라 본채의 사랑방 곁에 붙어 있거나, 번듯한 아래채의 한 칸을 차지한다. 담장에 붙어서 설치된 돼지우리나 닭장과 견주어 볼 때,³⁾ 사람들의 가옥구조 속에 한 칸을 차지하는 소의 외양간은 특별한 주거공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저녁마다 외양간의 쇠똥을 쳐내고 마른 풀을 넣어주어서 쾌적한 잠자리가 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소의 주거환경은 위치나 규모나 비중이 인간과 대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의 의식주 환경은 다른 어느 가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다. 특히 쇠죽을 끓여주고 외양간을 번듯한 잠자리로 제공하는 것은 인간의 식생활 및 주생활과 대등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소가 인간과 대등하게 인식되는 더 구체적 사례는 소가 출산할 때이다. 암소가 송아지를 낳을 때는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처럼 삼신상을 차려놓고 비는가 하면, 대문에 금줄을 쳐서 부정한 출입을 막기까지 했다. 송아지 삼신을 아기 삼신처럼 섬기고 금줄을 쳐서 송아지를 보호했던 까닭이다. 송아지 출산을 아기 출산 못지않게 신성하게 여겼던 셈이다. 그러므로 소는 사실상 가축이면서 가족처럼 사람과 대등하게 인식되

2) 현 천이나 명석, 짚 등을 엮어서 소의 허리와 배를 덮어 가릴 만한 크기의 장방형 ‘삼정’을 만들어, 겨울철 저녁에 소를 외양간에 들여 땀 때 허리에 두른 다운 두 끈으로 좌우를 묶어 고정시켜 준다.

3) 닭장을 만들지 않은 채 외양간에 설치한 헛대에 닭들이 올라가 자도록 하기도 한다. 개는 전통적으로 집이 별도로 없어서 마루 밑에서 잤으나, 최근에는 시골에서도 작고 소박한 개집을 별도로 비치하기 시작했다.



어 각별한 보살핌을 받았던 셈이다.

그럼에도 소는 재산이었기에 살림을 늘리는 수단으로 사고팔았을 뿐 아니라, 고대에는 제천(祭天) 행사 때 소를 희생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⁴⁾ 제물로 바치는 ‘희생(犧牲)’의 두 글자마다 소를 지칭하는 ‘우(牛)’ 자가 들어 있다. 세속적 재산이자 신성한 희생물인 것처럼, 소는 성실한 일꾼이자 주인을 따르는 충직함의 미덕과 함께 우직함과 미련함의 단점도 지녔다. 따라서 흔히 ‘소 귀에 경 읽기’나 ‘소 발에 쥐잡기’라고 하는 옛말에는 ‘소 같이 미련한 놈’의 뜻을 넘어서 어리석고 무지한 속성까지 갈무리되어 있다. 게다가 고집까지 세어서 흔히 고집 센 사람을 ‘쇠고집’으로 일컫기 일쑤였다. 우직하고 우둔한 소의 속성이 쇠고집으로 은유된 셈이다.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의 세계에서 소를 큰 살림밑천과 식구 수준으로 대우하며 더불어 살아가지만, 관념의 세계에서는 우둔하고 우직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에게 재화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의 유용성에 초점을 맞춘 경우와 소의 동물적 속성에 초점을 맞춘 경우 소의 인식이 서로 맞서 있다. 사람과 긴밀한 관계로 존재하는 소에 대해서는 그 유용성이 긍정적으로 드러나지만, 한갓 짐승으로 대상화된 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재산이나 일소로서 기능이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로 포착되는 셈이다.

위와 같이 소의 의식주 관행과 소 관련 옛말을 통해 소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를 이야기 곧 설화로 바꾸면 소에 관한 다른 인식이 포착될 수 있다. 이야기에는 소에 대한 한국인의 집단인식은 물론 집단 무의식까지 갈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미디어로서 온갖 정보를 담고 있을⁵⁾ 뿐 아니라 정보 이전의 무의식까지 담고 있다. 인간의 일반 의식과 달리 무의식의 세계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적절한 관련 자료를 확충하고 공통 요소들을 추출해야 하는데, 이야기는 집단 무의식을 밝히는 데 긴요한 자료이다.

이야기 가운데 신화와 민담은 특히 분석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무의식을 해석하는 소중한 연구 자료이다. ‘칼 융(C. G. Jung)은 신화와 민담에서 인간 무의식의 보편적 원초적 조건이 발견된다’고 말했으며, ‘분석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인간심성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민담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⁶⁾ 따라서 소에 관한 한국인의 심층인식을 포착하는 데, 이야기는 아주 긴요한 자료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논지에 따라 소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떤 양상으로 구전되고 있는지, 유형 분류를 함으로써 소 이야기의 세계를 포착하는 작업부터 하기로 한다.

4) 천진기, 앞의 책, 129~130쪽에 희생제물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임재해, 「설화의 미디어 기능과 지명전설의 인문지리 정보」, 『韓民族語文學』 69, 한민족어문학회, 2015, 42~45쪽에서 설화의 미디어 기능과 자질을 주목했다.

6) 李符永, 「分析心理學과 民譚」, 金烈圭 외, 『民談學概論』, 一潮閣, 1982, 111쪽.



2. 소 이야기의 분류 준거와 소의 인식 총위

가축에서 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소에 관한 이야기도 상당히 풍부하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이야기 목록⁷⁾ 가운데 소(송아지, 소도둑)를 제목으로 다룬 각편이 72편⁸⁾이어서, 개(강아지)를 제목으로 다룬 각편 75편과⁹⁾ 거의 같다. 개는 반려견이라 일컬을 만큼 사람과 가장 친근한 가축이므로 이야기가 풍부할 수밖에 없다. 개에 견주어 소에 관한 이야기도 뜻밖에 많이 전승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소에 관한 인식을 포착하는 데, 소 이야기는 민담으로서 자료적 성격과 수집된 각편의 양적 확충 모두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소 이야기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포착하려면 일정한 분류가 필요하다. 소 이야기의 분류는 두 갈래로 나누어 할 수 있다. 하나는 유형별 분류이고 둘은 소재별 분류이다. 유형별 분류는 설화 전체의 서사적 구조를 주체와 상황의 대립적 관계에 따라 나눈 것으로서¹⁰⁾, 소가 주체로 등장하는 유형은 ‘443-1 소를 바꾸어 탄 두 사돈’과 ‘611-5 소로 변했던 사람’의 두 유형이 있다.

443-1은 ‘4. 바르고 그르기’ 상위유형 가운데 ‘44. 그를 만해서 그르기’ 유형의 하위유형으로서 ‘443 남녀관계 잘못되기’에 속한다. 443-1은 남녀관계 가운데도 남녀사돈 곧 바깥사돈과 안사돈 사이의 관계가 잘못되는 유형이다.¹¹⁾ 사돈끼리 장에서 만나 서로 암수 소를 바꾸는 거래를 하고 술에 취해 바꾼 소를 타고 귀가한 바람에, 자기 집이 아닌 사돈집으로 밤늦게 도착해서 안사돈과 동침하는 사건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술에 취해 소를 타고 가서 이런 사달이 생긴 것은, ‘그를 만해서 그른 이야기’에 속한다.

611-5는 ‘6. 오고 가기’ 상위유형 가운데 ‘61. 올 만해서 오기’ 유형의 하위유형으로서 ‘611 사람 모습 찾기’에 속한다. 사람이 뱀이나 두꺼비, 지네, 소 등으로 변했다가 다시 사람의 모습을 되찾는 유형인데, 611-5는 소로 변했던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오는 유형이다.¹²⁾ 게으른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소탈을 쓰고 소가 되어서 힘들게 일을 하다가 우연히 무를 먹고 다시 사람이 되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게을러서 소가 된 까닭에 부지런히 일하면서 개심한 까닭에 다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이물이 서로 오고 가는 변신 이야기 가운데 ‘올 만해서 오는 이야기’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주체와 상황에 따른 유형 분석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사건을 전개하는 논리

7) 趙東一 외, 『韓國口碑文學大系』 別冊附錄(II) 韓國說話素索引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8) ‘소’를 제목으로 단 각편이 57편, ‘송아지’를 제목으로 단 각편이 6편, ‘소도둑’을 제목으로 단 각편이 9편이다.

9) ‘개’를 제목으로 단 각편이 65편, ‘강아지’를 제목으로 단 각편이 10편이다. ‘개도둑’을 제목으로 단 각편은 없다.

10) 趙東一 외, 『韓國口碑文學大系』 別冊附錄(I) 韓國說話類型分類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12~18쪽 참조.

11) 趙東一 외, 위의 책, 34~38쪽 참조.

12) 趙東一 외, 같은 책, 44쪽 참조.



가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사람들이 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이 유형분류로 잘 포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에 관한 이야기를 다 망라해서 보여주지도 못한다. 소를 이야기의 소재로 다룬 이야기를 두루 포괄해야 소에 관한 이야기의 세계가 제대로 드러나고 이야기를 전승하는 집단의 소 인식도 다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소에 관한 한국인의 집단인식을 포착하려면 구조적 유형분류보다 소재적 유형분류가 더 기능적이다. 그러므로 소를 소재로 다루거나 소가 등장하는 이야기에 한정해서 소를 인식하는 양상에 따라 작품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소 이야기의 소재적 유형 분류는 처음이다. 다만 줄거리에 따라 8유형으로 분류하고 소의 상징을 다룬 연구가 있다.¹³⁾ 분류는 이용과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야 기능적이다. 한국인들은 소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알아보려면,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보다 이야기 속에서 거론되는 소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소의 무엇이 어떻게 문제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포착하기 위해 두 가지 준거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소 자체에 대한 인식이며, 둘은 소에 대한 인식의 방향이다.

소 자체에 대한 인식은 1) 소의 행태에 관한 인식, 2) 인간에 의한 소의 대상화에 관한 인식, 3) 인간과 소의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1)은 소의 천성으로서 생태 곧 생물학적 본성에 관한 문제라면, 2)는 소의 유용으로서 인간이 소를 어떻게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3)은 소와 인간의 관계로서 소가 사람살이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하는 양자의 관계양상에 관한 인식이다. 이러한 준거에 따라, 사람들이 소의 행태 자체를 주목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소를 한갓 특정 존재로 대상화하는 이야기들과, 소와 인간이 서로 상호교섭하며 일정한 관계를 맺는 이야기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세 유형의 이야기는 인식의 방향에 따라 다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소의 행태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유형과 부정적으로 인식한 유형, 둘째 인간이 소를 긍정적 존재로 대상화한 유형과 부정적 존재로 대상화한 유형, 셋째 소와 인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다룬 유형과 부정적으로 다룬 유형 등 크게 여섯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 이야기의 유형은 상당히 잡다하여 쉽게 종잡을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소에 관한 인식 준거에 따라 분류하면 여섯 갈래로 한정된다. 자연히 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층위도 소에 관한 이야기의 유형에 따라 최소한 여섯 층위로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대립적으로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추론이 가능하지만, 실제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논리적 바

13) 한양명, 「소피의 民俗과 象徵」, 『중양민속학』 6,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1994, 김선풍 외 『열두 띠 이야기』, 집문당, 1995에 재수록, 41쪽, 1) 소가 된 게으름뱅이, 2) 송아지로 다시 태어난 아이, 3) 소 되어 속죄하기, 4) 소와 짝짓기, 5) 소 되었다가 원수갚기, 6) 소 바꾸고 마누라까지 바꾼 사돈, 7) 잃은 소 되찾기, 8) 지붕 위에 소 올리기 등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준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평면적 분류여서 분류가 단선적이다.



탕 위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집단 감성과 공감대에 의해 자연스레 생산되고 전승되는 까닭이다.

한 편의 이야기 속에서도 소에 관한 인식이 여럿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긍정과 부정의 인식 방향에서도 그 인식의 심도가 다를 수 있다. 이야기의 각편들이 드러내는 소의 인식 양상은 연역적 논리가 아니라 귀납적 실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을 구체적으로 주목하면 논리적 인식을 넘어서 실제적 인식이 다양하게 귀납될 것이다. 그러므로 연역적 갈래 유형의 틀 위에서 실제로 전승되는 소 이야기들을 귀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인식 층위를 열린 눈으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

소재로서 소의 인식을 주목하는 까닭에, 소 이야기를 그 자체로 완결된 작품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소가 이야기에서 어떤 존재로 그려지고 대상화되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설화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총체적 작품론이 아니라 소가 소재로 다루어지는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원자론적 해석에 머물게 된다. 이야기 자료 이용에도 소가 부분적으로 등장하는 각편들도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유기적 작품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에 관한 인식 부분을 한정하여 다루는 까닭에 일종의 해체비평을 하게 된다.

해체비평을 한다고 해서 구조주의에 맞서는 해체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소에 관한 인식 포착이라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해체비평을 동원한 것이다. 따라서 ‘소 이야기’ 자체를 온전한 작품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서 소가 문제되는 부분만 추출해서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구조적 완결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소와 관련된 부분을 제한적으로 주목함으로써, 이야기에서 소의 존재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목한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으로서 이야기 분석이 아니라 소에 관한 인식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이야기를 해석한다.

3. 소의 행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인간의 한계

소의 행태가 소의 존재감을 입증한다. 소의 행태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될 수도 있다. 소의 행태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것은 소가 인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깨치지 못한 인간다운 삶의 보기를 소에서 찾는 것이다. 소가 인간을 깨우쳐주는 주체가 된다. 이를테면 불효자가 소의 행태를 보고 감복하여 마음을 고쳐먹고 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서 ‘소를 보고 깨달아 효자 된 사람’이 그러한 보기이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들이 배운 바가 없어서 어머니를 걸핏하면 때렸다. 어머니는 아들한테 맞을까봐 겁을 설설 내면서 지냈다. 하루는 아들이 소를 몰고 강 건너 논을 가는데, 떼어놓고



온 송아지가 강 건너서 ‘오메!’하고 우니까, 어미 소가 논을 갈던 쟁기를 벗어던지고 강을 건너가서 송아지 젖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본 아들이 ‘말 못하는 짐승도 강을 건너서 새끼 젖을 주는 걸 보면, 올 엄마도 나를 저렇게 키웠을 터인데, 나는 엄마를 두들겨 패고 했으니 아주 불효 노릇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깨닫고 어머니를 잘 섬기기 시작했다.¹⁴⁾

버릇없이 자란 아들은 어머니 때리는 일을 예사로 했다. 이야기에 따라서 부모가 아기에게 장난삼아 서로 “네 어머니 때려라!”, “네 아버지 때려라!” 하고 키운 탓에¹⁵⁾ 장성해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수시로 아버지 어머니를 때려서 부모가 아들을 늘 두려워하게 되었다. 스스로 가르친 일이라 바로잡을 수 없어서 아들의 손찌검을 두려워하며 지내는데, 아들이 우연히 어미소가 송아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사랑을 절감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깨치게 된 것이다. 부모가 가르치지 못한 효심을 어미소의 모성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만사 제쳐놓고 강을 건너가서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 소의 모성은 인간의 모성 이상으로 훌륭한 생명본성이라 할 수 있다. 소의 모성 행태는 누구에 의해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 타고난 천성이다. 다른 동물도 이와 같이 어린 새끼를 사랑하는 생명본성이 있고 새끼가 자랄 때 까지 적극적으로 새끼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천성을 지녔다. 따라서 새끼를 기르는 어미들은 어느 짐승이나 용감하다. 이를테면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것처럼, 암닭은 약하지만 병아리를 품은 어미닭은 강하다. 무엇이든 병아리에게 범접하면 털을 곤추 세우고 방어한다. 이러한 모성본능 행태는 인간도 본받을 만하다.

천성적인 모성본능 행태와 달리 살아가면서 소 스스로 터득한 자력적 행태도 있다.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집을 찾아오는 능력과 함께 주인이 타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타도록 하는 온순함이 있다. 낯선 소는 타기 어렵지만 주인과 친숙해진 소는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다. 소를 타고 가는 목동이나 도인의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¹⁶⁾ 말을 타는 사람보다 순박하고 한가한 여유를 보인다.

청백리 맹사성은 좌의정이지만 홀로 소를 타고 고향 온양까지 내려가자, 현지의 고을 수령이 황정승을 알아보지 못해 소동이 일어났다는 일화를 남겼다. 말이 아니라 소를 타는 것은 청백리의 상징이다. 소는 말처럼 민첩하지 못하고 날렵하게 생기지 않아서 소를 타고

14) 崔正如, 『韓國口碑文學大系』 7-1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402~404쪽, ‘소를 보고 깨달아 효자 된 사람’. 구어로 채록된 이야기자료를 소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집약하여 인용한다. 이하 다른 자료 인용도 같다.

15) 朴桂弘·黃仁德, 『韓國口碑文學大系』 4-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546쪽, ‘부모를 때리는 아이’; 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600쪽, ‘부모를 때리던 아들의 뉘우침’; 鄭尙垓·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버릇없이 자란 아들의 개과천선’ 등 여러 각편이 전한다.

16) 목동이 소를 타고 가는 그림으로는 김홍도의 ‘牧童歸家’와 최북의 ‘騎牛歸嫁’, 이경운의 ‘柳陰騎牛’ 등이 있고, 도인이 소를 타고 가는 그림으로는 김홍도의 ‘歸牛圖’와 장승업의 ‘소탄 노자 모습’ 등이 있다.



가는 일은 보기에 다소 민망하지만 가장 소박하고 안전한 탈것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한다. 게다가 소는 스스로 자기 집을 알아서 찾아가는 능력까지 갖추었다. 따라서 굳이 고삐를 잡고 부리지 않아도 제 발로 집까지 무사히 찾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소의 행태를 나타낸 대표적인 이야기가 ‘소를 바꾼 탓에 실수한 두 사돈’이다.

황소를 팔아 암소를 사고 암소를 팔아 황소를 사려는 두 사돈이 우시장에서 만났다. 뜻이 서로 맞은 두 사돈은 황소와 암소를 서로 바꾸기로 하고 절약한 거간꾼 비용으로 함께 술을 잔뜩 마셨다. 거나하게 취한 두 사돈은 걸어가기가 힘들어 각자 바꾼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주인이 바뀐 줄을 알지 못하는 소는 제각기 본디 자기 집으로 갔다. 밤늦게 도착한 두 사돈은 사돈집인 줄 알지 못한 채 방에 들어가서 안사돈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사돈은 대경실색하면서 사돈과 잠자리를 같이 했을 아내 걱정애 역장이 무너졌다.¹⁷⁾

소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각편이 수집될 정도로 널리 전승되는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소는 농가에서 증식하는 중요한 재산이자 가장 유용한 노동력인¹⁸⁾ 까닭에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송아지를 길러서 옷돈을 남기는 수익이 쏠쏠할 뿐 아니라, 농사 규모에 따라 황소나 암소, 또는 큰 소와 작은 소를 적절히 가려서 길러야 순조롭게 부릴 수 있다. 따라서 소만 사고파는 전문 우시장이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의 거래를 돕는 거간꾼이 공인중개사처럼 별도로 있어서 흥정을 붙여 거래를 성사시킨 뒤에 뒷돈을 챙기기도 한다.

우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돈끼리 뜻이 맞아 서로 암수 소를 맞교환 하는 바람에 거간꾼을 거치지 않고 뒷돈 지출도 없이 아주 수월하게 소 개비(改備)하는 일을¹⁹⁾ 마쳤다. 여기까지 소는 한갓 재화의 하나로서 거래와 교환의 대상일 따름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정적 반전은 소의 재화로서 기능이 아니라 탈것으로서 승용 기능에서 비롯된다. 평소에는 소를 탈것으로 이용하지 않으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탈것으로 이용하게 된다. 그 특수한 상황이 사돈과 소를 교환하는 거래가 원인이 되어 벌어진다.

장에서 사돈끼리 만나면 으레 술대접을 하기 마련인데, 마침 뒷돈도 절약하고 흥정할 일도 없이 서로 소 거래를 수월하게 마친 까닭에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 소를 사고파는 일처럼 큰 거래를 성사하고 나면 으레 거간꾼과 거래 당사자들이 술을 나누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므로 두 사돈은 돈과 시간을 모두 절약한 까닭에 여유를 누리며 마음껏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하게 된 것이다.

17) 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1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300~302쪽, ‘소를 바꾼 탓에 실수한 두 사돈’.

18) 裴永東, 「소의 利用과 그 農業技術史의 意義」, 『韓國民俗과 文化研究』,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232쪽에 소가 제공하는 다양한 노동력(논갈이, 밭갈이, 논골타기, 밭골타기, 논썰기, 밭썰기)과 함께 운반(지르매, 걸옹구, 재옹구, 소달구지) 기능과 연자매 돌리기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소의 축력 외에 소가 배출한 똥과 오줌으로 퇴비를 생산하는 일에도 유용하다.

19) 기르던 소를 팔고 자기가 필요한 소를 새로 사는 일을 흔히 ‘소 개비한다’고 한다.



늦도록 술을 마시고 취한 터라 집까지 먼 길을 걸어갈 수는 없고 응당 소를 타고 갈 수밖에 없다. 제각기 바꾼 소를 탔지만, 소들은 바꾼 사실을 알 턱이 없다. 따라서 소는 평소처럼 본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결국 두 사돈은 각자 소를 타고 사돈집으로 가게 되어서 안사돈과 함께 잠을 자게 되는 대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사람이 소를 바꾸어 탔지만, 취한 채 타고 온 까닭에 결과적으로 소가 사람을 바꾼 셈이 되었다. 여기서 드러난 소의 행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귀소본능으로 볼 수 있다. 귀소본능이 아니더라도 소는 보금자리로 알고 있는 공간을 스스로 찾아가는 능력을 갖춘 존재이다. 달리 말하면, 소는 자율운행이 가능한 탈 것으로서 자기 집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을 익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팔려간 소가 원래 집으로 되돌아온 실화도 전한다.²⁰⁾

소를 바꾸어 탄 탓에 목적지 이동의 오류가 나긴 했지만, 소는 스스로 터득한 알고리즘에 따라 정상적인 운행을 한 것이다. 따라서 사돈은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고 탄식하지만 어느 누구도 소를 나무라는 이가 없다. 소는 평소에 익힌 대로 제 갈 길을 차질 없이 갔던 까닭이다. 그러므로 마치 김유신의 말이 졸고 있는 김유신을 태우고 기녀 천관의 집으로 간 것처럼, 승용으로서 소의 행태는 훌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 노릇을 제대로 한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소는 자기가 터득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인다. 김유신이 말을 탓하며 목을 벤 것은 전적으로 김유신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늘 천관의 집으로 드나든 김유신이 말에게 잘못된 알고리즘을 주입시켜 놓은 까닭이다. 그러나 소를 타고 집으로 간 사돈들은 다르다. 소 스스로 터득한 알고리즘을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소가 움직이리라 착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소의 행태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소의 행태 탓에 엉뚱한 사태가 빚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행태가 문제라 해야 할 것이다.

소의 자력적인 행태와 달리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소의 타력적 행태도 나타난다. 사람들은 개나 닭을 부르거나 쫓기 위해 일정한 말을 하거나 소리를 외친다. 반려견에게 이름을 불러서 거둬 부르면 반려견이 점차 알아듣고 반응한다. 소에게도 일정한 말이나 소리를 지속적으로 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이 있다. 소를 부르는 소리에 따라 소가 움직이는 것도 소의 한 행태이다. 이것은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해 길들여진 타력적 행태이다. 따라서 사람이 소를 잘 길들이면 소의 행태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으나, 길이 안 든 소는 순조롭게 부릴 수 없어서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소의 축력으로 농기구를 운행할 때는 특히 연습이 필요하다.

어린 소에 코뚜레를 해서 고삐를 잡고 부리기 시작하면, 점차 길마를 엮고 달구지를 끌며 쟁기질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처음 쟁기질은 밭에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혼자서 하기 어렵고 누군가 앞에서 고삐를 끌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쟁기질로 논밭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의 노동력 이용이자 가장 마지막 훈련 과정이다. 그러므로 소 길들이기 이

20) 安東大學校 民俗學研究所 編, 『醴泉의 牛市場』, 1991, 206쪽의 실화자료 참조.



야기는 으레 쟁기질에 관한 것이다. ‘소 길들여 돈 번 농부’는 길들여진 소의 특이한 행태에 관한 것이어서 이야깃거리가 된다.

어린 소를 처음으로 쟁기질을 시키며 길을 들이는데, 젊은 아들이 쟁기를 잡고 늙은 아버지가 소 고삐를 잡고 소를 끌었다. 아들이 쟁기질을 하며 아버지에게 차마 “이랴!” 소리를 못해서 “아부지, 이리 갑시다”, “아부지, 저리 갑시다” 하며 소를 몰아서 그렇게 길이 들였다. 소가 성장해서 아버지가 소를 끌지 않아도 “아부지, 이리 갑시다”라고 해야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길들인 소가 나이 먹자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소를 사 간 사람이 아무리 “이랴!” 해도 소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아서 부리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를 다시 되팔 수 밖에 없었는데, 본디 소 주인이 헐값에 사서 거둬 팔아 돈을 벌었다.²¹⁾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옛말처럼 아이 때 기른 버릇이 평생 간다. 소도 사람처럼 어렸을 때 길들이기 나름이다. 소가 어릴 때 좋은 버릇을 들여야 어른 소가 되었을 때도 부리기 순조롭다. 길들여진 소의 행태는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그에 따라 움직여서 부리기에 적절하다. 소의 행태는 사람들이 길들이기 나름인 것처럼, 아이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장난삼아 부모를 서로 때리도록 시켜서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²²⁾ 소고삐를 잡은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한 호칭과 존대 말이 소의 귀에 뿌리박혀서 문제가 된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소를 아버지 모시듯 하면서 부려야 하는 것은 불편할 뿐 아니라 남세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의 행태는 부정적이라 할 수 없다. 가르치고 길들인 대로 하는 소의 행태는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게 일컬어서 길을 들인 사람들 탓이다. 엉뚱하게 배운 버릇을 스스로 깨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까닭에 우직하긴 하지만, 가르친 대로 하는 행태를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소를 가르친 본디 주인에게 뜻밖의 이익을 준 것은 덤이다. 그러므로 소는 사람들의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듣고 길들인 대로 행동하는 까닭에 일소로서 쟁기질도 하고 달구지도 끌며 탈 것으로 이용도 할 수 있는 훌륭한 가축 구실을 하는 것이다.

만일 소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부릴 수 없다면 돼지처럼 한갓 육우로서 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는 고기 제공뿐 아니라 일소로서 노동력을 제공하며 무거운 짐을 나르는 운반구 구실과 사람의 승용으로서 탈 것 구실도 하는 까닭에 다각적으로 이용된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스스로 터득하는 적응 능력과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는 학습 능력이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소는 새끼를 낳아 기르는 모성본능과 함께 스스로 현실에 적응하고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는 능력을 지닌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의 행태는 크게 3가지 층위로 나타난다.

21) 崔正如·千惠淑, 『韓國口碑文學大系』 7-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35~36쪽, ‘소 길들여 돈 번 농부’.

22) 주 15)의 자료 참조.



첫째 타고난 모성본능으로서 인간의 귀감을 보이는가 하면, 둘째 자기가 사는 주거공간에 대한 장소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스스로 지리적 정보를 체득해서 어디서든 회귀 가능한 공간지각 능력을 갖추었다. 셋째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말귀를 익히고 길들여지게 되면 다른 지시에는 반응하지 않고 오롯이 배운 대로 행하는 행태를 보인다. 첫째 타고난 모성 본능을 천성적 행태라 한다면, 둘째 스스로 터득한 공간지각 능력은 자력적 행태, 셋째 사람에 의해 길들여진 학습 능력은 타력적 행태라 할 수 있다.

타고난 천성적 행태는 인간의 모범이 되고 스스로 터득한 자력적 행태는 빛나간 인간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며,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타력적 행태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따라서 소의 행태는 인간을 비춰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모성본능의 천성적 행태는 그 자체로 인간의 귀감이며, 스스로 터득한 행태는 만취해서 정신없는 인간을 고발한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타력적 행태는 인간이 아니라 소를 대상으로 길을 들여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는 생물학적 천성과 자력적 공간 지각 능력, 타력적 학습 능력이 모두 긍정적 행태로 인식되는데, 다만 인간이 그러한 행태에 잘못 개입을 해서 차질을 빚거나 불편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소의 긍정적 행태에 견주어보면 인간이 지닌 한계라 할 수 있다. 소의 긍정적 행태와 달리, 부정적 행태에 관한 이야기는 수집되지 않았다.

4. 소의 긍정적 대상화에 따른 인식과 여러 쓰임새

소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 ‘소 도둑’에 관한 것 또는 ‘잃은 소’를 찾는 것이다. 소를 훔친 장물(贓物)로 보면 부정적 존재이지만, 훔칠 만한 대상으로 보면 소는 긍정적 존재로 포착된다. 인간에게 탐심을 줄 만한 귀한 대상이기 때문에 훔치는 것이다. 소를 보고 탐심을 품는 인간이 나쁠 뿐 소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귀한 것이어서 훔치려 들지 나쁜 것이나 하찮은 것이라면 훔치려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도둑 관련 이야기는 소를 긍정적으로 대상화한 것으로 포착하려 한다.

소도둑 이야기와 잃은 소 찾는 이야기는 서로 관련성과 공통성이 있으나 조금 차이를 보인다. 소를 값진 재화로 대상화한 까닭에 소를 훔치는 도둑 이야기들이 많고, 소도둑이 소를 훔치니 소를 잃고 찾는 이야기들도 많은 것이다. 소도둑 이야기가 소를 훔치는 주체에 관한 이야기라면, 잃은 소 찾는 이야기는 소를 찾아주는 사람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두 이야기는 주체로 보면 모두 사람에 관한 것이므로 소를 인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들이 소를 어떻게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는가 주목해야 소에 대한 인식을 포착할 수 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에는 소도둑이야 말로 가장 큰 도둑, 그래서 가장 나



뿐 도둑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야기에서 소도둑은 가장 큰 도둑이자 지혜나 술수가 높은 도둑으로 묘사되어 선악의 판단에 쉽게 귀속되지 않는다. 소도둑은 높은 술수의 경지를 나타내는가 하면, 잃은 소를 찾아주는 사람 또한 초월적 주술의 힘을 지녔거나 수완이 탁월한 대인으로 묘사된다. 왜냐하면 소처럼 재산 가치가 높은 재물은 아무나 훔칠 수 없는 것이며, 한번 잃으면 쉽게 찾을 수도 없는 까닭이다. 먼저 ‘기지로 소 훔친 도둑’ 이야기를 보자.

소를 길러서 먹고 사는 사람이 소를 사 오면 소도둑이 끌어가서 못 견디자, 밤에 잘 때는 쇠다리에다가 따리를 끼워서 소가 아예 일어서지 못하게 했다. 소도둑이 몰래 소를 끌어가려고 했으나 소를 일으켜 세울 수 없어서 실패했다.

다음날 아침에 소도둑이 그 집을 찾아가서 ‘간밤에 소를 잃었는데 끌고 가는 사람 못 봤느냐?’고 하자, ‘도둑놈이 소를 못 끌어가게 하려면 다리에 따리를 끼워두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소도둑은 ‘웁다구나!’ 하구선 저녁에 와서 따리를 뺏기고 소를 끌고 가버렸다.²³⁾

소는 집안의 재산목록 1호이다. 도둑들은 으레 가장 값나가는 1호 재산을 겨냥한다. 이미 소를 잃은 경험이 많은 소주인은 궁리 끝에 밤마다 소 다리에 따리를 끼워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소도둑이 아무리 소를 훔쳐가려고 해도 소를 일으켜 세울 수 없어서 끌어가질 못해 실패했다. 소도둑은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소를 도둑맞은 척하고 소주인에게 접근해서 소를 도둑맞지 않는 비밀을 알아내고서 소를 훔쳐가 버렸다. 이처럼 이야기는 소를 두고 소 주인과 도둑이 소를 지키고 훔치는 것을 다투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때 소는 값비싼 재화로서 중요한 자산이자 소유의 대상이다.

소 주인은 소를 가족으로 여겨서 지키려는 것도 아니고 소도둑도 소를 사랑해서 끌어가려는 것이 아니다. 값비싼 재물로서 일종의 동산(動産)이기에 지키거나 훔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도 소를 움직이지 못하게 따리로 묶어두고 도둑은 그 비밀을 알아내 따리를 풀어서 소를 끌고 갔던 것이다. 마치 주인은 금고에 돈을 넣어두고 비밀 잠금장치를 해두어서 돈을 지키고, 도둑은 비밀 잠금장치를 풀어서 돈을 훔쳐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소를 생명체나 노동력으로 여기기보다 값나가는 재화로 인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는 가장 비싼 재물인 까닭에 소도둑이 기어코 소를 훔치려고 온갖 기지를 발휘하는 반면에, 소를 잃은 사람도 잃은 소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기어코 소를 찾으려 한다.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소를 찾기 위해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방법이다. 소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점을 쳐서라도 찾을 수밖에 없다. ‘점을 쳐 찾은 소’ 이야기가 그러한 보기이다.

소를 잃은 사람이 돈을 구해서 점을 쳤다. 점쟁이는 돈을 다 받아먹고서 ‘점심 도시락을 싸서

23) 曹喜雄, 『韓國口碑文學大系』 1-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54~55쪽, ‘기지로 소 훔친 도둑’



길을 가다가 길에 앉아 똥을 누면서 도시락밥을 먹어라.’ 하고 일러주었다.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길을 가다가 똥을 누면서 밥을 먹으니 길 가던 사람이 보고서 “길을 가다가 별 놈을 다 보겠네. 밥을 먹으며 똥 싸는 놈이 없나, 방에다 소를 키우는 놈이 없나.” 하고 웃었다. 그이에게 “어떤 놈이 방에다가 소를 키웁니까?” 하고 물어서 확인하니, 소도둑이 훔친 소를 자기 뒷방에다 숨겨두고 있어서 찾아왔다.²⁴⁾

이야기하는 사람은 점이 용하다고 했으나²⁵⁾, 여기서는 점은 논외로 하고 소에 대한 인식을 주목한다. 돼지나 개, 닭을 잃었다면 돈을 들여 점을 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소를 잃은 것은 살림을 송두리째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까닭에 돈을 들여 점이라도 쳐서 찾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소는 도둑이 탐낼 만한 재화인 동시에 주인이 점을 쳐서라도 찾아야 할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점쟁이가 소를 훔쳐간 사람을 직접 가르쳐 주지 않고 엉뚱한 지시를 한다는 점이다. 길에서 똥을 누면서 밥을 먹으라는 것이다. 똥과 밥은 상극인데다가 중인환시(衆人環視) 상황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소를 찾을 욕망 때문에 점쟁이 말대로 길에 앉아서 똥을 누며 밥을 먹었던 것이다. 주인이 얼마나 소를 절실하게 찾고 싶었으면 이런 별난 짓까지 기꺼이 할까.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은 더 별난 짓에 관해 말한다. ‘밥 먹으며 똥 싸는 놈’도 별나지만 ‘방에다가 소를 키우는 놈’도 별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의 일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부끄러움을 견디고 뻔뻔스러우면 가능하지만, 뒤의 일은 마음먹는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소를 방에다 들여 놓고 키우는 일은 구조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소는 덩치도 크고 엄청나게 무거울 뿐 아니라 오줌똥을 싸게 되면 방이 결판나고 집을 크게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예사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소도둑은 기꺼이 이 일을 한다. 소에 대한 탐욕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소도둑은 훔친 소를 숨기기 위해 별난 짓을 기꺼이 한 셈인데, 소도둑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를 잃은 사람은 쉽게 소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소도둑의 탐욕으로 빚어진 과도한 소의 숨김 장치가 오히려 훔친 소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소는 사람들의 부도덕한 소유를 자극하는 값비싼 재화이자, 방에서라도 숨겨 두고 차지하고 싶은 대상이다. 소를 한갓 가축으로 보면 방에 들일 수 없지만, 사람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생각하면 기꺼이 방에다 숨길 수 있다. 그러므로 소는 사람처럼 방에서 자고 먹는 파격적 대접을 받는 대상으로 비약한 것이다. 소에 대한 과도한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가 사람처럼 방에서 생활하는 대접을 받는가 하면, 소의 질병이 사람의 질병 못지않

24) 金善豊·金起高, 『韓國口碑文學大系』 2-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344~346쪽, ‘점으로 찾은 소’.

25) 金善豊·金起高, 위의 책, 346쪽. 이야기꾼 함기문은 이야기를 마치면서 점이 용해서 소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게 크게 문제되는 이야기도 있다. 일반적으로 닭이나 개, 돼지들은 질병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소가 병들면 사람이 병든 것 이상으로 문제된다. 따라서 다른 가축들과 달리 소의 질병을 고치는 의원이 마을에 있다. 한의처럼 침을 놓아서 소의 병을 고치기 일쑤이다. 그러므로 전통 한의는 소의 질병까지 함께 치료했다. 소를 사람처럼 대상화한 까닭에 한의가 소의 질병도 치료했던 것이다. 다음은 김선달이 술수를 부려 병을 고치고 노잣돈을 챙긴 이야기다.

김선달이 여비가 떨어져서 숙식할 길이 없자 수작을 부렸다. 개울에서 가재를 한 마리 잡아다가 개울가에 매어둔 소 항문에도 집어넣은 것이다. 소가 펄펄 뛰면서 마을로 들어가자 동네가 난리였다. “아무개 집 소가 병이 나서 지금 큰일이라!” 했다. 김선달이 병을 고치겠다고 나서서 참기름을 손에 바른 다음 항문에 손을 넣어서 가재를 꼬집어냈다. 그래서 소가 조용해지자 “아유, 이제 소가 살았다!”고 하며,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노자까지 두둑하게 주었다.²⁶⁾

소가 펄펄 뛰자 동네가 난리였다고 할 만큼 어느 집 소가 병이 나면 마을 주민들 모두 큰일로 여겼다. 소가 병이 나서 죽게 되면 살림살이가 기울어지는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사람이 아플 때처럼 의원을 찾기 마련이다. 김선달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소를 이용하여 수작을 벌인 것이며, 소 주인은 소의 질병을 고쳐준 김선달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노잣돈까지 두둑하게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는 한갓 재화로서 소유의 대상을 넘어서 인간 못지않은 생명체로 존중되었다. 그러므로 병이 나면 큰 위기로 인식하고 서둘러 의원을 찾아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소를 잃는 것은 곧 소의 죽음이나 다름없다. 소가 병들면 의원을 찾듯이 소를 잃은 사람은 점을 치거나 관가에 의뢰하여 찾으려 든다. 도둑이 소를 훔쳐간 경우에는 점을 쳐서라도 되찾지만 잡아먹은 경우에는 되찾을 수 없다. 특히 소를 잡아먹은 사람이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에는 점을 쳐도 소용이 없다. 관가에 호소하여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소 찾아 준 원님’ 이야기를 보자.

장님이 소를 사서 길러달라고 산지기에게 맡겨 두었다. 산지기는 돈이 궁하자 산신제를 올릴 때 장님이 맡긴 소를 잡아서 제물로 써버렸다. 장님이 소를 돌려달라고 하자 언제 소를 쫓으면서 시치미를 뚝했다. 장님이 사또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니, 원은 근처에 사는 백정을 불러서 소 잡은 일을 캐물었다. 백정의 실토에 따라 산지기를 잡아 하옥을 하자 그 삼촌이 와서 소값을 치르고 데려갔다. 원은 소 잃은 장님에게 소값을 주어서 문제를 해결했다.²⁷⁾

제목처럼 소를 찾아 준 것이 아니라 잃은 소 대신에 소값을 받아 준 이야기이다. 남의

26) 成者說, 『韓國口碑文學大系』 1-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417~418쪽, ‘김선달이 소의 병을 고치다’.

27) 曹喜雄, 『韓國口碑文學大系』 1-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794~796쪽, ‘(1) 소 찾아 준 원님’.



닭이나 개를 잡아먹은 경우에는 송사(訟事)가 일어나지 않지만, 소의 경우에는 고을 사또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큰 송사 거리이다. 소가 지닌 재화적 가치가 그만큼 큰 까닭이다. 따라서 인신을 구속하지 않고서는 소값을 제대로 받아내기 어렵다.

이야기는 소를 잡아먹은 자를 찾아내고 소값을 물어주게 하는 원의 지혜를 다룬 것이다. 소를 찾아 준 사람 못지않게 소값을 받아준 사람도 훌륭하기 때문이다. ‘농부의 소를 찾아준 이완대장’ 이야기도²⁸⁾ 잃은 소 대신에 소값을 마련해 줌으로써 소를 잃은 사람의 손실을 보상해 준다. 소를 찾아준 점쟁이가 용한 것처럼, 온갖 지혜와 역량을 동원해서 소값을 현금으로 보상해준 관료나 장군도 탁월한 인물이다. 소처럼 큰 재산의 손실을 보상해 준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 문제 해결인 까닭이다.

그러나 사람을 제쳐두고 소에 관한 정보만 주목하면, 소가 재화로서 어떤 현금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동시에, 소는 산신제와 같은 큰 제의의 희생 제물로 쓰인 사실을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소는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라 백정이라는 특수 전문직이 잡는다는 사실도 원의 문초과정에서 확인된다. 흥미로운 것은 소는 희생 제물이나 현금과 같은 재화로서 가치가 높은 반면에 소를 잡는 백정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천민 계층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백정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하는 것은 ‘고창녕의 소 찾아 주기’에서 실감나게 이야기된다.

가난한 양반이 소가 없어서 철이 늦도록 모심기를 하지 못했다. 신분 탓에 망설이다가 백정 집에 가서 소를 빌려와서 겨우 모심기를 끝냈다. 아들에게 백정집에 소를 몰아다 주라고 하자, 아들은 차마 백정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삼작 밖에다 소를 매놓고 와버렸다. 그날 밤에 도둑놈이 바깥에 있는 소를 몰고 가버렸다.

장님이 소를 돌려달라고 하니 양반이 아들에게 사실을 확인하고는 소를 사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난한 까닭에 소를 사 줄 수 없는 딱한 사정에 놓이게 되었다. 양반의 딱한 사정을 알아차린 고창녕은 백정에게 ‘이 어른을 쌍가마에 태워 다니면서 소를 찾아보라’고 했다. 백정은 자칫하면 소값이 더 들 것 같아서 소를 찾지 않겠다고 물러나므로, 곤경에 처한 양반을 구해 주었다.²⁹⁾

여기서 소는 양반과 백정에게 각각 다른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양반에게 소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소이다. 농가에서는 일철에 소가 없으면 사정이 아주 절박해진다. 따라서 신분을 따지지 않고 백정을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한 것이다. 소를 쓰고 돌려주는 양반 아들도 지체를 생각한 나머지 백정에게 직접 소를 돌려주지 않고 삼작 밖에 매어두고 만 것이다. 소를 빌릴 때와 돌려줄 때 처지가 이렇게 달라진 셈이다. 빌릴 때는 귀한 노동력으로서 절박한 소용 때문에 양반이 직접 나섰지만, 돌려줄 때는 아들을 대신 보내고 아들 또한

28) 鄭尙朴·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82~94쪽, ‘농부의 소를 찾아준 이완대장’.

29) 鄭尙朴·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161~163쪽, ‘고창녕의 소 찾아 주기’.



대충 몰아다 놓고 온 까닭에 문제가 발생했다.

농가에서는 소가 노동력이지만 백정에게는 소가 곧 재화이다. 백정이 부자라고 하지만 소 한 마리를 잃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다. 따라서 소를 돌려받으려고 관가로 찾아가 사포 고창녕에게 호소를 한 것이다. 그러나 사포로서는 잃은 소를 찾을 길이 없고 가난한 양반은 소를 사서 줄 재력이 없는 까닭에 지혜를 발휘하여 백정의 욕망을 꺾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백정에게 소는 재화인 까닭에 소를 기어코 찾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 경비가 소값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면 소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고창녕의 슬기로운 재판을 다룬 것이지만, 소의 인식 문제에 한정하면 소의 노동력으로서 유용성과 재화로서 경제성이 도드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유형의 제목을 흔히 ‘소 찾아 준 아무개’로 붙이기 일쑤인데, 사실은 ‘소값을 보상에 준 아무개’라고 해야 제격이다. 잃은 소를 되찾아 준 것이 아니라 소값을 받아 주거나 구해주어서 사실상 소값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점을 쳐서 도둑이 훔쳐간 소를 되찾은 이야기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소를 찾아준 사람이 주로 용한 점쟁이인 반면에, 잃은 소의 값을 받아준 사람은 큰 인물이다.

더군다나 ‘고창녕의 소 찾아주기’ 이야기는 소는커녕 소값도 찾아주지 못했다. 백정이 잃은 소를 찾지 않고 포기하도록 슬기를 발휘하여 곤경에 빠진 양반을 구해준 이야기이다. 백정이 포기한 까닭은 소를 노동력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재화로 포착한 까닭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노동력으로 포착한 양반의 소 인식과, 재화로 포착한 백정의 소 인식이 대조적으로 구성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화로서 이익을 챙기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백정이 소 찾는 일을 포기한 것이다.

양반이 직접 백정집에 소를 빌리러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처럼, 일철에 소가 노동력으로서 절박하게 필요할 때는 사회적 신분이나 사돈 간의 체면 문제 또는 남녀 사이의 정조까지 무너뜨리게 된다. ‘영똥하게 당한 과부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야기는 농번기에 소의 노동력을 빌리기 위해 신분 차별을 넘어서 정조 관념까지 훼손할 만큼 절박하게 소를 구하는 사정을 담고 있다.

과부 시어미와 과부 며느리가 논을 덧 마지기 부치는데, 가뭄 끝에 비가 와서 논을 갈려고 소를 얻으려니 얻을 데가 없어서 며느리를 데리고 사돈집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사돈집에도 비온 틈을 이용해 논갈이를 하는 바람에 소를 얻지 못한 채 돌아왔다.

고부가 독길로 걸어오는데 마침 논을 갈던 총각놈이 “이놈의 소! 얼른 가자. 저기 가는 거 한번 데리고 자면 논이나 대엿 마지기 갈아서 살아줄 것인데” 하는 것이 아닌가. 시어미가 듣고 귀가 번쩍 뜨여서 며느리와 의논을 하고 총각을 불러서 방금 한 말을 확인한 뒤에, 며느리를 총각에게 보냈다. 총각은 빈 집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고서는 영똥한 탈을 잡아 논을 갈아주려는 약속을 파기해 버렸다.³⁰⁾

30) 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443~446쪽, ‘영똥하게 당한 과부 며



일종의 육담이자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는 소를 구하는 과부 시어미와 며느리의 절박한 심정이 잘 담겨 있다. 어지간하면 사돈집에 무엇을 빌려 가지 않는다. 소 빌리는 일은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비온 틈을 이용해서 논을 갈지 않으면 모 내기를 하지 못해서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므로 염치불구하고 며느리를 앞세워 소를 빌리러 간 것이다. 그러나 사돈집 역시 같은 처지여서 소를 빌리지 못하고 낙심해서 돌아오게 되었다.

이때 소를 앞세워 논을 갈던 총각이 엉큼한 제안을 혼잣말처럼 한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시어미가 솔깃하여 며느리와 의논한 뒤에 총각의 제안에 따라 며느리를 빈 집으로 들여보낸다. 시어머니가 소를 빌리려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며느리의 부정을 조장한 셈이다.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과부 시어미와 며느리에게 소의 노동력은 정조와 바꿀 만큼 절박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가난한 농가의 과부들에게 소는 한갓 노동력을 제공하는 유용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밥줄이나 다름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제때 농사일을 하지 못하면 한해 농사를 망쳐서 굶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존은 정조의 가치를 우선한다. 그러므로 가난한 과부 농가에게 소는 정조의 가치보다 높은 생명 가치로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가 없는 사람은 여러 모로 절박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는 법이 없다. 이웃소를 빌어서 쓸 수 있는 까닭이다. 농촌에서는 이웃에 연장도 빌려 쓰고 노동력도 빌려 쓰기 일췌인데, 위의 이야기처럼 순조롭게 빌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빌려줄 사람이 판전을 피우면 하는 수 없다. 독점욕이 강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도 소를 빌려주지 않는 탓에 소 없는 사람은 곤경에 처하기 마련이다.

소 없는 사람이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다. 소 주인이 ‘산너머 사촌이 소를 빌려가서 없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돌아 나오는데, 외양간에서 소 방울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들여다 보니 소를 외양간에 두고서 빌려주지 않는 것이니 어쩔 수 없었다.

옥칠월에 벼가 자라서 논매기를 하게 되었는데, 소 없는 사람 논에는 물이 잔뜩 들어와 있고 그 아래 있는 소주인 논에는 물이 없어 논매기를 못했다. 소 없는 사람이 자기 논이 물을 아랫논에 대주지 않고 논둑 옆구리를 따서 물을 흘려보낸 탓이다. 소주인이 왜 자기 논으로 물꼬를 트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이 물을 자네 쳤으면 좋겠는데, 물이 부족한 사촌 논으로 물을 보내줬다고 했다. 소를 빌려주지 않은 데 대한 앙갚음이다.’³¹⁾

이야기에서 “이웃간에 소 한 참이나 두 참 그 얻어다 쓰기는 보통 아니겠소?”라고³²⁾ 하며, 이웃끼리 소를 서로 빌려 쓰는 것이 예사라고 한다. 집집마다 소가 없으므로 이웃과

느리와 시어머니’.

31) 朴桂弘, 『韓國口碑文學大系』 4-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586~587쪽, ‘소 안 빌려주고 앙갚음 받은 이웃’.

32) 朴桂弘, 위의 책, 586쪽.



소의 노동력을 공유해야 하지만, 만일 이웃집에서 소를 빌려주지 않는다면 농사일을 접어야 하는 곤경에 처한다. 그럼에도 소 없는 사람들도 큰 차질 없이 농사짓고 살아가는 것은 노동력을 두레나 품앗이로 나누고 공유하는 것처럼, 소의 노동력도 서로 나누면서 공유하는 까닭이다.

그것은 논물을 서로 공유하는 것과 같다. 농업용 관개용수가 공공재인 것처럼, 소는 사유재산이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공재나 다름없다. 따라서 소를 빌려주지 않는 데 대해서 소 없는 사람이 공공재인 논물의 독점으로 양값음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야기에서 소는 비록 사적 소유에 해당되지만 소의 노동력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공공재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을³³⁾ 알 수 있다.

소는 살아서 공공재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제 값을 한다. 산신제에 제물로 바쳐질 만큼 귀한 희생 구실하는 것은 물론, 훌륭한 먹거리로서 질 좋은 고기 구실도 한다. 쇠고기는 워낙 귀해서 아무나 먹을 수 없다. 특히 소의 간은 귀한 술안주로 꼽힌다. 그 가운데도 검정소 간은 더욱 귀하게 쓰인다.

어떤 총각이 아버지가 죽자 토롱(土壟)을 해두고 명당을 구하려고 풍수 집을 밥마다 찾아가 대화를 엿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풍수 내외가 자기가 죽으면 문힐 명당을 구해 두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총각이 엿들은 대로 터를 잡아 이장을 했다. 풍수가 자기 명당에 묘를 쓰는 것을 보고 '이 왕이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바르게 묘를 써라'고 하며 향을 잡아주고는 댕가로 '검정소 간'을 요구했다. 총각이 강변에 있는 검정소를 골라 간을 꺼내 대접하고는 풍수가 이르는 대로 묘를 써서 발복을 했다.³⁴⁾

이 이야기에서 검정소 간은 풍수에게 명당을 구하는 값으로 제공되었다. 명당은 그냥 차지해서는 발복하기 어렵다. 터를 잡아준 풍수에게 일정한 사례를 해야 발복한다는 뜻이 숨어 있다. 그 사례가 검정소 간이다. 실제로 묘를 쓴 뒤에 발복을 했다고 하니 검정소 간은 묘터를 산 것을 넘어서 복을 산 것이나 다름없다. 소의 희생은 천제나 산신제의 제물 구실을 하는데, 이때도 제의에 따른 복록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쇠고기는 복을 기원하는 희생이면서 동시에 복록을 보장하는 공물이기도 하다.

쇠고기의 제의적 대상화는 소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 소는 죽어서 귀한 고기 구실을 하거나 제의적 희생으로 쓰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쇠가죽과 쇠뿔, 쇠뼈, 발굽까지 모두 일정한 쓰임새가 있어서 버릴 것이 없다. 보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소를 지나치게 유용한다. 살아서는 일을 부리고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 뼈를 모두 챙기는 까닭이다. 소의 처지에서 보

33) 소뿐만 아니라, 농가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농사일을 할 수 없다. 사람들의 노동력도 그렇다. 품앗이도 하고 두레도 하며 상부상조하는 까닭에 아쉬움과 부족함을 서로 충족시켜 준다. 그렇기에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

34) 崔正如·千惠淑, 『韓國口碑文學大系』 7-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744~746쪽, '검정소 받고 자기 묘터 내 준 풍수'.



면 사람들의 갖은 착취가 나쁘게 인식되지만,³⁵⁾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죽은 소도 버릴 것 하나 없는 유용한 대상이다. 소의 유용성은 죽어서도 살아 있는 셈이다. ‘죽은 소 세 번 울면 묘 쓰시오’ 이야기는 소가죽의 유용성을 말한다.

묘를 쓰는데 풍수가 ‘죽은 소가 세 번 울 때 묘를 써야 발복한다’고 일러주었다. 영문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바다로 떠나는 배가 북을 세 번 울렸다. 북은 소가죽으로 만든 까닭에 북소리는 곧 죽은 소의 울음소리나 다르지 않았다. 북소리가 세 번 울리는 것을 듣고 그때 하관을 하여 제대로 발복했다고 한다.³⁶⁾ 따라서 소의 간이나 가죽은 한갓 음식으로서 고기이거나 또는 약기로서 북이 아니라, 명당 발복을 보장하는 제의적 신성물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은 죽어서 묘지에 묻히는 데서 끝나는데, 소는 죽어서 고기와 가죽을 남겨서 온갖 쓰임새로 유용하게 쓰인다는 점이다. 북소리를 한갓 약기 소리로 인식하지 않고 소의 울음소리로 은유한 것은 북소리에서 소의 생명성을 읽고 있는 까닭이다. 소는 죽어도 죽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주검과 달리, 소의 주검이 가지는 물질적 유용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의 유용성은 죽어서도 살아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능적으로 소가 어떤 유용성을 지닌 존재로 대상화되고 있는가 상관없이 소를 인간과 같은 심성을 지닌 대등한 존재로 대상화하고 있는 이야기도 있다. 한 마디로 소 주인이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인격체로 배려하고 그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이야기이다. 널리 알려진 황희 정승 일화다.

황희 정승이 젊은 시절 시골길을 가는데 농부가 누렁소와 검은소로 논갈이 하는 것을 보고서 “검둥소가 일 잘하나, 누렁소가 일 잘하나?” 물었다. 농부는 즉답을 하지 않고 논둑으로 쫓아나와서 귓속말로 “검둥소가 일 잘합니다.” 하는 것이었다. 황희가 “그까짓 일을 여기까지 와서 이야길 하나?” 하고 웃으니, 농부는 정색을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누구는 잘한다 하고 누구는 못한다고 하면 섭섭해 합니다.”, “소가 사람 말 알아듣나?” “왜 소가 사람 말 못 알아들어요?” 하고는 보란듯이 눈에 들어가서 ‘이라’ 하며 소를 부리고 ‘워’ 하며 소를 세워보였다.³⁷⁾

황희는 지나가는 길에 대수롭잖게 누렁소와 검은소의 일하는 능력을 물었는데, 농부는 하던 쟁기질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검둥소가 일을 더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황희가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소도 사람과 같아서 듣는데 대놓고 비교해서 말

35) 최인학, 『옛이야기 괴나라봇집』 8, 문예원, 2016, 109쪽, ‘토끼의 판단’ 이야기에서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준 사람을 호랑이가 잡아먹으려 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소는 호랑이 편을 들어서 인간을 잡아먹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한다. “우리 황소들은 밭을 갈고 비료를 나르고 곡식을 운반하고 추운 날이면 무거운 나무를 나르고 오랜 시간 마차를 끌기도 하는데, 그뿐인가 인간의 필요에 따라 힘든 일을 마다 않고 하지만 우릴 때리기만 하고 결국엔 도살해 버리잖아.”라고 한다.

36) 崔德源, 『韓國口碑文學大系』 6-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108쪽, ‘죽은 소 세 번 울면 묘 쓰시오’.

37) 崔正如, 『韓國口碑文學大系』 7-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307~308쪽, ‘황희정승 이야기’.



하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에 대한 배려는, 소도 사람처럼 말귀를 알아들을 뿐 아니라, 사람처럼 비교되어 평가되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적 심성까지 지녔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 농부와 부리는 소는 사람과 짐승 또는 주종의 갑을 관계가 아니라 같은 생명개체로서 대등하게 대상화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비록 소를 노동력으로 부리긴 하지만 함부로 수단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는 소도 인간과 대등한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포착할 수 있다.

길고 고단한 하루/논배미에 땅거미 기어올 때/쟁기질 끝내고 두벅두벅/집으로 돌아가는 길/목덜미에 멍에 자국 깊고/땀을 뻘뻘 흘리는 소를/마을 우물로 데리고 가/바가지로 등물해주며/어머니가 애뜻하게 말한다/ “여보게 애 썼네, 고마우이.”³⁸⁾

김정원의 시 ‘집으로 가는 길’ 일부이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묵묵히 견뎌온 소를 ‘여보게!’로 부르고 등물해주며 ‘애 썼네, 고맙네’ 위로하는 어머니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이다. 비록 이야기에서는 찾아내지 못했으나, 소의 노동력에 고마워하는 한국인의 심성을 시적으로 잘 형상화하고 있다.

5. 소의 부정적 대상화에 따른 인식과 인간의 탐욕

소를 긍정적으로 대상화 한 이야기는 한결같이 소의 유용성에서 비롯된다. 재화로서 유용성, 노동력으로서 유용성, 사후 쓰임새로서 유용성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재화로서 유용성도 지나친 욕심에 빠지면 재앙에 이른다. 재물에 탐닉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려고 들면 참혹한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장인이 소를 팔러 장에 가는 길에 사위집에서 자는데, 사위가 소 판 돈이 탐나서 아들에게 복면을 하고 장인을 칼로 위협하여 돈을 빼앗아 오게 시켰다. 아들이 산에 숨어 있다가 외할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소 판 돈을 요구하자, 순순히 내주었다. 아들이 돈을 받으려고 칼을 놓는 순간 외할아버지가 칼을 집어 들고 그 아들을 찔러죽였다.

장인이 사위집에 와서 겪은 이야기를 하자, 자기 아들 죽인 사실을 알고 장인을 죽여서 대밭에다 묻어버렸다. 장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자형집에 와서 아버지가 살해된 것을 알아차리고 자형과 그 아이들을 죽이고 아들도 자결해 버렸다.³⁹⁾

한 마디로 ‘멸문지화(滅門之禍)’를 일으킨 소’ 이야기이다. 소가 소로 보이지 않고 막대

38) 김정원, 『아득한 집』, 푸른사상, 2021에 수록된 시 ‘집으로 가는 길’의 일부이다.

39) 朴順浩, 『韓國口碑文學大系』 5-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140~143쪽, ‘멸문지화(滅門之禍)’를 일으킨 소’.



한 현금으로 보인 까닭에 아들로 하여금 장인의 소 판 돈을 빼앗아오게 한 것이다. 그런데 차질이 생겨서 서로 죽이고 죽는 사건으로 확대되어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소를 재화로 보는 데서 생기는 탐심 수준이 아니라, 장인의 소판 돈까지 빼앗으려고 아들에게 강도질을 시킨 일은 극악무도한 탐욕이다. 이때 소는 한갓 탐욕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병들게 하는 재앙으로 인식된 셈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값과 같은 거금은 인간의 탐욕을 유발하는 재앙이라는 말이다.

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다. 돈 덕에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탓에 죽은 사람도 있다. 따라서 소가 거액의 현금으로 환원되어 포착되는 순간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재앙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는 상황에 따라 재앙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소가 현금으로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부정한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소 자체로는 가축이자 재화로서 여러 유용성이 있지만, 사람이 소가 되는 경우에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이야기가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게을러서 소가 되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소는 나쁜 인간이거나 게으른 인간의 징벌적 존재로 대상화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토색질 하다 소가 된 대감’ 이야기는 소가 나쁜 인간형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사천석지기 부자가 서울 김정승택에 벼슬자리를 사러 가서 재산을 모두 가져다 받쳤지만 김정승의 외면 탓에 백수건달로 돌아오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참외밭 주인과 내기 장기를 두다가 저서 장기망태를 덮어쓰고 소가 되었다. 간신히 고삐를 떼고 무를 먹은 뒤에 사람으로 돌아왔다.

웁거나 싫어서 장기망태를 차고 대감댁을 찾아가서 장기두기를 하다가 대감이 지쳐서 잠이 들자 장기망태를 씹워 소로 만들었다. 대감이 잠에 깨어나 ‘갑갑하다’고 하니 ‘웁매’ 소리만 났다. 사랑에서 송아지 소리가 들려서 아들이 나와 보니 아버지 대감이 소가 되어 있었다. 소가 된 대감을 고치려고 굿을 하고 경을 읽고 해도 고치지 못하자, 벼슬 구하던 이가 슬그머니 나서서 약을 구해 오겠다고 했다.

집에 돌아오니 집은 가난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무와 무임 말린 가루를 잔뜩 마련해서 대감집으로 가서, 병풍을 치고 몰래 구정물에도 무 가루를 타서 먹이자 대감이 소허물을 뱉고 사람으로 돌아왔다. 정신을 차린 대감은 벼슬 사러 온 이에게 은공을 갚아야 한다면 받아먹은 4천석 가운데 2천석을 주고 뒤에 다시 불러 남원부사 자리를 주었다.⁴⁰⁾

주인공은 부당한 방법으로 벼슬자리를 얻으려다가 재산을 다 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장기내기에 져서 소가 되는 곤경에 처했다. 내기에 졌으니 약속대로 장기망태를 쓰고 소가 되고 말았다. 이때 소는 장기망태를 쓴 인간으로서 소의 형상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 달리 말하면 소가 된 사람은 장기망태와 같은 허물을 쓴 존재일 뿐 사람으로서 인격은 고스란히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무를 먹지 못하게 당부한 말을 귀담아 듣고 스스로 무를 뜯어먹어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다.

40) 朴桂弘, 『韓國口碑文學大系』 4-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282~293쪽, ‘토색(討索)질 하다 소가 된 대감’.



장기망태가 사람을 소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자기 재산을 모두 갈취한 대감에게 이것을 이용하여 복수를 한다. 장기망태를 쓰고 소가 된 대감은 사람으로 돌아올 길이 없다. 어느 누구도 고칠 방도를 알지 못한다. 막다른 상황에서 주인공이 무 말린 가루를 먹여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한 뒤에 상응하는 재산을 돌려받고 벼슬자리를 얻게 된다. 이야기꾼은 이야기 말미에 “공것은 없는 겁니다. 남의 것을 그렇게 많이 뺏어 먹었으니 죄가 많았지”라고⁴¹⁾ 평했다. 대감처럼 매관매직으로 토색질을 하면 벌을 받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 벌이 바로 소가 되는 것이다. 관직을 사려던 이도 잠시 소가 되었다가 돌아왔다. 재물을 주고 벼슬을 사려는 행위도 잘못된 까닭이다.⁴²⁾ 그러므로 소를 부정적으로 대상화하는 경우 소는 인간의 징벌적 존재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소로 징벌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위와 같이 토색질이 징벌의 이유인가 하면 게으름이나 사소한 탐심이 징벌의 이유가 된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대표적인 징벌담이라 할 수 있다. 일을 하지 않고 놀고먹는 게으름뱅이는 아내가 짜놓은 베를 팔아 술이나 마시며 놀러다가 신령을 만나 가족탈을 쓰고 소가 되어서 갖은 고생을 한다. 그러다가 무를 뜯어먹고 가족탈을 벗은 뒤에 다시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자 개과천선하여 베를 찾아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잘 살았다는 이야기이다.⁴³⁾

이 때도 소는 부정적으로 대상화되는데, 게으름을 벌하는 징벌적 대상이어서 게으름뱅이가 개과천선하는 전환점 구실을 한다. 단순한 징벌 기능보다 참회의 기회가 되도록 한 것이다. 마치 감옥이 범죄자에게 징벌적 기능과 회개의 기능을 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소가 되면, 소라는 존재는 짐승의 몸으로서 사람의 인격을 가두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소가 되면 말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다만 소울음 소리만 내게 된다. 본디 소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격을 지닌 채 인간이 소로 변신한 까닭에 사실은 감옥보다 더 암울한 지옥이자 더 지독한 고통을 겪는 것이다.

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지옥이지만, 더 지독한 고통은 소가 되어 오랫동안 부림을 당하며 험한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고난을 겪게 하는 이야기로 ‘소가 된 상좌’와⁴⁴⁾ ‘소로 변한 동자’가 있다.⁴⁵⁾ 상좌나 동자가 시주를 하고 오는 길에 조밭에서 뒤를 보다가 이삭을 하나 부러뜨리거나, 또는 무와 배추를 한두 개 뽑아오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스님은 상좌를 소가 되게 하여 밭주인 집에서 3,4년을 일해 주고 저지른 죄를 갚도록 한다. 상좌는 소가 되어 부지런히 일을 하여 죄를 다 갚고 기한이 차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다. 스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상좌를 제자로 받아들여 평생을

41) 朴桂弘, 위의 책, 293쪽.

42) 朴順浩, 『韓國口碑文學大系』 6-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206~209쪽, ‘사람을 소로 만드는 장기망태’ 이야기도 위와 같은 유형이다.

43) 金承燦, 『韓國口碑文學大系』 8-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24~28쪽, ‘소로 변한 게으름뱅이’.

曹喜雄, 『韓國口碑文學大系』 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804~807쪽, ‘소가 된 게으름뱅이’.

44) 鄭尙垞·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578~579쪽, ‘소가 된 상좌’.

45) 崔德源, 『韓國口碑文學大系』 6-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676~678쪽, ‘소로 변한 동자’.



함께 했다는 이야기다.⁴⁶⁾

절에서 수련하는 상좌나 동자는 사소한 실수를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 과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의 무배추 몇 포기를 뽑는 것은 물론, 밭에 들어가서 뒤를 보다가 실수로 조이삭 하나를 부러뜨린 실수조차 큰 업보로 간주되어 주인집의 소 노릇을 하며 수년간 일소로서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도 소는 징벌적 대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의 이야기와 달리, 소가 되는 자체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일소로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업보를 갚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징벌은 단순한 가둠으로서 소가 되는 것 이상이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소로서 과보를 실제 이상으로 갚음으로써 지은 업을 말끔하게 닦아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징벌의 뜻을 넘어서 과보로서 갚음이자 응당한 수행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가 된 사람은 기꺼이 이 과정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훌륭한 불제자로 거듭 나게 되는 것이다.

소가 된 상좌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와 동기가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게으름뱅이는 소가 되는 고통을 겪은 뒤에 개심하여 부지런한 사람이 되지만, 상좌는 힘든 노동으로 과보를 갚음으로써 지은 업을 닦는 수행 과정을 겪은 뒤에 청정한 불제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속세의 개과천선과 불교의 업을 닦는 수행이 서로 차이는 있되, 모두 소가 되는 통과의례를 겪는다는 점에서 한결같다. 통과의례를 거침으로써 게으름뱅이에서 부지런한 사람, 허튼 상좌에서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 나는 것이다.

소를 통과의례의 시련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부정적이면서 긍정적이다. 징벌의 감옥으로서 소는 부정적이지만, 수행의 과정으로서 소가 되는 것은 긍정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 나는 까닭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소는 인간의 수행 과정이자 윤회의 일환이기도 해서 소를 끔찍한 감옥으로 여길 수 없다. 소가 되어 하는 일은 신성한 노동이었다.⁴⁷⁾ 인간이 소가 되고, 소가 인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좌는 4년 동안 소가 되어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소는 인간의 다른 모습으로 대상화 되었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인간이 소로 변신한 까닭에 소도 곧 인간이라는 말이다.

사람이 소로 변신을 하는데,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징벌형 변신과, 소가 된 상좌의 수련형 변신이 있는가 하면, 선비를 팔아먹으려고 소로 만드는 사기형 변신도 있다. ‘사람을 소로 변하게 하는 노인’ 이야기가 사기형 변신담의 보기이다. 가난한 선비가 배를 파러 집을

46) 같은 유형의 이야기로 崔正如·千惠淑, 『韓國口碑文學大系』 7-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229~231쪽, ‘소가 된 생도와 회개한 도둑’과, 趙東一·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692~696쪽, ‘소로 변한 중’이 있다. 뒤의 이야기는 중이 가장 한 줄기를 꺾어버린 과보로 소가 되어 밭주인의 일소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인집에 닦칠 도적떼를 미리 알아서 개심시키도록 한 뒤에 모두 불제자로 만들었다고 한다. 중이 소가 된 까닭에 도적떼들을 회개시키고 불제자로 만든 셈이다.

47) 권정생 글·이지연 그림, 『들국화 고갯길』, 창비, 2020, 23쪽, 할머니 소는 젊은 아저씨 소가 ‘뭇줄이 팽팽할 만큼 힘겨운 쟁기를 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래, 얼마나 훌륭하니? 우리들 소에게 하느님은 가장 성스러운 일을 맡겨 주셨어.”라고 한다. 타의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노동은 서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노동은 숭고하고 신성한 일이다.



나섰는데, 어떤 노인이 배를 사겠다며 다가와서는 탕건을 덮어씌우고 선비를 소로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아버렸다. 소가 된 선비는 백정에게 팔려가 배가 고파서 무를 먹자 탕건이 벗겨지면서 사람이 되었다. 노인이 사람을 소로 만들어 팔아서 돈을 챙기는 것을 알아차린 선비는 다시 찾아가서 노인 부부를 모두 소로 만들어 부자가 되었다.⁴⁸⁾

사람으로 변신한 구미호가 나타나 탕건을 씌워서 사람이 소가 되자 백정에게 팔아먹는 이야기도 있다.⁴⁹⁾ 이 이야기에서 소는 징별이나 수련의 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팔아먹기 위한 가축으로서 소이다. 따라서 소는 재화이자 상품으로서 대상화된다. 상대적으로 소는 사람과 달리 재화로서 재산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경제적 재화나 상품의 기능으로 볼 때 사람은 쓸모가 없지만 소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므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고 사람을 속여서 소로 변신하게 만드는 술수를 부리는 것이다.

사람을 속여서 소로 변신하게 만드는 까닭에 사기형 변신담이라 할 수 있지만, 변신한 소의 쓰임새를 주목하면 팔아먹기 위한 상품형 변신담이다. 변신한 소의 기능에 따라 징별형과 수련형, 매매형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소가 되는 것은 세속적으로는 큰 징별이고 종교적으로는 수련인 한편, 경제적으로는 값진 재화이자 매매 가능한 상품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이야기는 변신 과정과 방법이 일치한다. 낫선 사람이 주는 물건을 머리에 쓰면 소로 변신하게 되며, 소가 무를 먹게 되면 본디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특별한 탕건이나 망태기, 가죽탈을 씌워서 소를 만든다는 점과 소가 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무를 먹게 되면 다시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점은 한결같다. 사람도 무엇을 잘못 쓰게 되면 소가 되고, 소도 무를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데서 소의 인식을 찾는다면, 사람과 소의 본질은 같되 다만 옷이나 가죽처럼 무엇을 몸에 걸치는가 하는 외양에 따라 사람과 소가 차별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소도 쇠죽을 먹어서 소의 탈을 벗지 못하나 사람처럼 무를 먹으면 소의 탈을 벗고 사람이 된다는 것으로서, 결국 소와 사람은 의식(衣食)이 다를 뿐 본질은 같다는 인식이다.

인간의 변신으로 소가 대상화될 때는 인간의 징별이나 수련, 상품화 등으로 문제되지만, 소 자체로 당나귀와 비교될 때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으로 이야기된다. ‘당나귀와 소의 분수’에서 소는 당나귀와 달리, 불쌍한 대상으로 이야기된다. 당나귀는 코뚜레도 없이 깨끗한 곡식과 맑은 물을 먹는데, 소는 코뚜레를 하고 고삐에 끌려 논밭을 진중일 갈아야 할 뿐 아니라 구정물에도 콩깍지나 먹으니 불쌍하단다. 소로 태어난 까닭에 천생 팔자로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⁵⁰⁾ 이때 소는 힘든 노동을 빼 빠지게 하면서도 먹는 것은 험하기 짝이 없

48) 趙東一·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688~691쪽, ‘사람을 소로 변하게 하는 노인’.

49) 崔正如·姜恩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43~44쪽, ‘소로 변하게 한 탕건’. 崔來沃·金均泰, 『韓國口碑文學大系』 6-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323~325쪽, ‘소가 된 사람’에서는, 할머니가 나그네에게 이상한 떡을 먹여서 소로 만들어 장에다 팔아먹는다. 팔린 소는 배추를 뜯어 먹고 사람으로 환생해서 그 할머니를 소로 만들어 시장에다 팔아 복수한다.

50) 金善豐, 『韓國口碑文學大系』 2-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725~727쪽, ‘당나귀와 소의 분수’.



는 불쌍한 존재로 인식된 것이다. 소로 태어난 이상 이러한 운명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일소로서 겪는 소의 고난이 운명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소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어리석어서 문제적인 존재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소를 일소로 부리는 일꾼의 처지에서 포착한 소 이야기이다.

양반 댁에서 막일을 하던 머슴이 대청에 앉아 땀자리를 읽고 있는 도령을 보고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신선놀음을 하고 나는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나!’ 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뉘두리를 하자, 듣고 있던 도령이 머슴을 불러서 역할을 바꾸어 보자고 했다. 머슴은 도령의 옷을 갖추어 입고 딱딱한 마루에 꿇어앉아 땀자리를 읽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대목을 채 못 읽고 도령께 잘못을 빈 뒤에 잠뱅이를 입고 소를 몰고 나가 일을 했다. 소가 부리는 대로 말을 잘 듣지 않자, “이놈의 소, 말 안 들으면 대청에 올려 얹혀놓고 땀자리를 가르쳐 주겠다. 요놈의 자식!”⁵¹⁾

머슴이 도령처럼 옷차림을 갖추고 대청에 꿇어앉아 땀자리를 읽는 일은 소를 몰고 논을 가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머슴에게는 도령 노릇하는 것이 사실상 형벌이나 다름없는 고통이었다. 따라서 소가 말을 듣지 않자 대청에 얹혀서 땀자리를 읽도록 하겠다고 나무란 것이다. 형벌을 말해서 소를 위협하기 위한 셈이다. 어리석고 미천한 소의 처지로 볼 때 엉뚱한 호사를 꿈꿀 것이 아니라 머슴처럼 말 잘 듣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소는 어리석고 미천한 존재로 인식되면서 머슴처럼 늘 일이나 하는 노동력으로서 대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가 죽도록 일만 하는 노예노동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소 탓이 아니라 사람들 탓이다. 사람들이 소를 한갓 일을 위해 태어난 수단적 존재로 대상화하게 되면 소의 노동력은 가혹하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 소의 노동력 착취가 얼마나 가혹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이빨 빠진 소값 주소’이다.

밥숯깨나 먹는 사람이 남의 소를 빌려다 험하게 부려먹어서 소문이 났다. 농번기가 되어 소를 빌리러 가니 모두 소를 버릴까 여겨 빌려주지 않았다. 소여물도 많이 주고 쉬엄쉬엄 부리겠다며 사정을 하길래 소를 빌려주었는데, 소 빌린 이는 욕심을 채우려고 소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부리면서 소여물은 전혀 주지 않아서 소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다.

소를 돌려받은 주인은 소가 지친 모습을 보고 기가 찼다. 다음날 동구 밖에 소를 매어놓고 소 빌린 이를 불러서, 여럿이 보는 가운데, ‘소를 버렸으니 소값 물어 달라’고 하자, 이유를 대라고 했다. ‘너무 뜨거운 소죽을 줘서 소 아랫니가 다 빠져버렸으니 소값을 물어달라’고 하니, ‘내가 소죽 줄 사람인가, 마른 풀 한 입도 안 줬네. 종일 부리기만 했네.’ 하고 뽀뽀스레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제서야 주인은 ‘자네 심보를 떠보려고 했네. 원래 소는 아랫니가⁵²⁾ 없다네.’ 하여 망신을 주어서 나쁜 버릇을 고쳤다.⁵³⁾

51) 金榮振, 『韓國口碑文學大系』 3-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586~587쪽, ‘소에게 땀자 읽히겠다는 머슴’.

52) 소는 아랫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윗니가 없다. 윗니 가운데도 어금니는 있고 앞니가 없다. 따라서 소가 웃는 듯 입을 벌리면 윗니가 모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꾼이 아랫니가 없다고 한 것은 착각이다.



남의 소를 빌려 쓸 욕심으로 자기는 소를 기르지 않는 구두쇠가 있었다. 남의 소를 더 조심스레 부려야 할 터인데, 오히려 가혹하게 부릴 작정을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여물도 주지 않은 채 온종일 부린 것이다. 배를 곯은 채 종일 일을 한 소는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다. 소의 노동력을 극도로 착취한 터이다. 소도 생명이므로 먹고 쉬며 일해야 한다. 남의 소라고 하여 죽도록 부려먹는 착취는 소를 생명이 아니라 한갓 노동력 제공물로 인식한 것이다. 이야기는 이러한 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만든 것이다.

소는 사람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불쌍한 존재일 뿐 아니라 탐욕적이고 인색한 존재로도 이야기된다. ‘소가죽탈 벗은 구두쇠 양돼지’ 이야기는 별명이 양돼지로 불릴 만큼 인색한 구두쇠였는데, 아무도 자기네와 혼사를 하려 하지 않자 잘못을 깨닫고 재산을 동네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소는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소가죽 탈이 거론되지만 사람이 그것을 쓰고 소로 변신하는 일도 없다. 다만 구두쇠를 쇠가죽 쓴 사람 곧 소 같은 사람으로 은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에 대한 인식을 일정하게 드러내고 있을 따름이다.

가난한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부자가 되었으나 워낙 인색해서 양돼지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 자녀들 혼인을 시킬 수 없었다. 아무도 양돼지에게 자식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며느리도 얻지 못하고 딸도 시집보낼 수 없게 된 것이다. 절박해진 돼지부부는 ‘우리가 여태껏 쇠가죽을 둘러쓰고 살았으니, 이제 쇠가죽을 벗자!’ 하고 큰 잔치를 벌여서 동네사람들을 초대했다. 잔치음식을 잘 차려 대접한 뒤에 사람들 앞에 쇠가죽을 둘러쓰고 나와서 “그 동안 쇠가죽을 쓰고 인색하게 살았는데, 이제 살림을 두루 나누고 쇠가죽을 벗고 살겠요.”하고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⁵⁴⁾

구두쇠는 실제로 쇠가죽을 쓰고 산 것이 아니다. 구두쇠로 사는 것이 곧 쇠가죽을 쓰고 산 것이나 다름없는 삶이라는 것이다. 인색한 사람은 사실상 사람이 아니라 쇠가죽을 쓴 소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이다. 쇠가죽이나 망건을 쓰고 소로 변신하는 이야기와 달리, 여기서 쇠가죽은 관념적인 것이자 상징적인 것일 뿐 실제로 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색한 구두쇠는 사실상 쇠가죽을 쓴 것 곧 소나 다름없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관념적 쇠가죽을 벗어버림으로써 인색한 사람에서 인간적인 사람으로 변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쇠가죽으로 은유되는 소는 인색한 구두쇠를 상징하는 셈이다.

소를 인색한 존재로 간주한 것보다 더 나쁜 대상화는 소를 한갓 사물 취급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 소를 사물처럼 도구화한 것은 문제적이다. ‘지붕에 소를 끌어올려라’는 이야기가 그러한 보기이다. 자식자랑을 입증하기 위해 소를 지붕에 끌어올리도록 한 것인데, 소의 처지에서 보면 전혀 무용한 짓이자 공연한 일로서 소가 아예

53) 崔德源, 『韓國口碑文學大系』 6-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762~765쪽, ‘이빨 빠진 소값 주소’.

54) 崔來沃, 『韓國口碑文學大系』 5-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342~348쪽, ‘소가죽탈 벗은 구두쇠 양돼지’.



짐짝처럼 다루어진 것이다.

일삼아 자식 자랑하는 영감에게, 이웃영감이 ‘자식들이 말을 잘 듣는가, 지붕에다가 소를 끌어 올리라고 시켜보세.’ 하고 제안을 했다. 자식 자랑하던 노인이 아들들에게 시키자, 아들은 ‘아부지 미쳤네’ 하면서 달아나버렸다.

이번에는 자식자랑 않던 노인이 아들들에게 시키자, 아들들이 ‘예’ 하고는 지붕에 덕석을 깔고 사다리를 놓아서 고삐를 잡고 소를 차근차근 끌어올렸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놓아서 자식들이 아버지 말을 잘 따른다는 것을 입증했다.⁵⁵⁾

어느 집 자식이 훌륭한가, 누가 아버지 말을 잘 듣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하필 소를 지붕 위에 끌어올리라고 한다. 늘 자식 자랑하던 영감이 아들에게 시켰더니, 아들들이 “아부지 죽을라고 환장했소. 아부지 미쳤네.” 하고는 모두 달아나버렸다. 이야기꾼은 이 아들들을 시원찮은 아들로 간주하는 반면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라서 소를 지붕에 끌어올렸다가 내려놓은 아들을 훌륭하게 여기면서, 자식 자랑하는 영감을 나무랐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꾼의 평가는 아버지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라야 한다는 전근대적 효 관념이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아버지 말이라도 따를 만한 것을 따라야지 사리에 전혀 어긋나는 일이라면 거부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소를 지붕에 끌어올리라는 아버지 말에 아들이 아버지가 미쳤다고 하며 자리를 피한 것이 오히려 자식된 도리이자 현명한 일이다. 그러지 않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소를 지붕에 끌어올린 아들의 행위는 아버지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맹목적인 효이자 극복되어야 할 윤리 덕목이다. 그 바람에 짐짝 취급당하며 자식자랑의 검증 수단이 된 소만 혼이 난 것이다.

소는 가축이자 살아 있는 생명이다. 인간이 자기 목적을 위해 소를 한갓 사물이나 짐짝처럼 수단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버지된 사람의 덕성과 자녀의 효심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소를 동원한 것은 지나친 수단화이자 동물 학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자식자랑을 하지 않은 어른의 겸손함과 자녀의 절대적 효를 입증하기 위해 소를 사물처럼 수단화한 것은 소의 생명권 또는 동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인간중심주의라 할 수 있다.

소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수단화하긴 마찬가지이다. ‘송아지 사또마님’은 어떤 건달이 원님의 사팔뜨기를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그 비법으로 송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는 이야기다. 원이 속은 줄 알고 포졸을 보내 건달을 체포하려 하자, 송아지에게 비단 치마저고리를 입히고, ‘사또마님 행차다’ 하면서 포졸을 물리쳤다는 것이다.⁵⁶⁾ 기지와 술수가 대단한 건달의 우스개이긴 하나, 소를 인간의 성적 노리개로 다룬 것은 지나친 대상화라 할 수 있다.

55) 崔來沃·金均泰, 『韓國口碑文學大系』 6-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168~169쪽. ‘지붕에 소를 끌어내려라’.

56) 徐大錫, 『韓國口碑文學大系』 4-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332~339쪽. ‘송아지 사또마님’.



6. 인간과 소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개입한 소 인식

소에 대한 인간의 일방적 대상화가 아니라, 인간과 소가 맺는 관계를 다룬 이야기를 대상으로 소에 대한 인식을 포착할 수 있다. 소가 되는 인간의 이야기와 달리, 인간과 소가 제각기 공존하며 일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소를 인간과 대등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야기에서는 제각기 다른 인식 층위가 드러난다. 소가 인간의 구조자나 구원자로 등장하는 까닭이다. 소가 인간을 살리는 구조자라면 사람보다 우위의 존재로 인식되는 셈이다.

‘소무덤’ 이야기를 보면, 할아버지가 산골 논을 쟁기질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할아버지를 잡아먹으려 하자, 소가 호랑이와 싸워 주인을 구해주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소의 충심을 기려서 나중에 소가 죽자 소무덤을 써주었다는 것이다.⁵⁷⁾ 선산의 의우총((義牛塚) 전설에도 소가 호랑이를 공격하여 주인을 구했으나 주인이 죽자 쇠죽을 먹지 않고 사흘만에 죽었으므로, 그 사실을 돌에 새겨 무덤가에 세웠다고 한다.⁵⁸⁾

‘호랑이로부터 주인 구한 소’는 더 적극적이다. 범이 주인을 해하려고 하자 뿔로 범을 들이받아서 죽이고 주인을 살려내는 데 그치지 않았다. 죽은 범의 가죽을 벗겨서 바위 위에 걸어 두었더니 다음날 소가 범 가죽을 보고 분이 나서 들이받다가 소도 죽었다. 주인 아들이 아버지를 살린 소라고 하여 쇠고기를 먹지 않고 물어주었다는 이야기이다.⁵⁹⁾

소가 범을 물리치고 주인을 살려냄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살린 은인 구실을 하는데, 범을 죽인 것도 모자라 그 가죽을 들이받기까지 했다. 따라서 소를 팔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르다가 소무덤을 써주고 기렸다는 것이다. 주인을 살리려고 범과 싸운 소의 충심과 범에 대한 적개심이 사람의 심성 이상이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호랑이와 맞서 싸운 소 못지않게, 억울한 아기의 죽음을 초월적으로 구해낸 불가사의한 소 이야기도 있다. ‘금송아지가 된 아기’,⁶⁰⁾ ‘송아지로 태어난 사람’⁶¹⁾, ‘소 허물 벗은 아들’⁶²⁾ 등의 이야기이다. 시냇싸움으로 본처나 후처가 낳은 아기를 소에게 먹여서 죽이려 했으나, 소가 아기를 먹고 송아지를 낳으니 마침내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되어서 원한을 풀었다는 것이다.

어느 양반이 아이를 낳지 못해 후처를 얻었는데, 남편이 출타하고 없는 사이에 본처가 아기를 낳았다. 질투한 후처가 본처 아기를 쇠죽에 삶아서 소에게 먹으라고 주니 소가 아기를 고스란히

57) 조희웅 외, 『호남 구전자료집』 2, 박이정, 2010, 300~301쪽, ‘소무덤’.

58) 趙繼韓, 『義牛圖序』, 安應昌, 『義烈圖』 참조.

59) 崔來沃·金均泰, 『韓國口碑文學大系』 6-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476~477쪽, ‘호랑이로부터 주인 구한 소’.

60) 趙東一, 『韓國口碑文學大系』 7-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260~262쪽, ‘금송아지가 된 아기’.

61) 崔來沃, 『韓國口碑文學大系』 5-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474~475쪽, ‘송아지로 태어난 사람’.

62) 鄭尙卦·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226~232쪽, ‘소 허물 벗은 아들’.



삼켰다. 본처는 아기를 잃은 죄로 우리에게 갇혀서 고초를 겪게 되었다. 아기를 삼킨 소가 열 달 만에 금송아지를 낳았는데 후처가 백정집에 보내 잡도록 했으나, 송아지가 애걸하는 말을 하므로 백정이 풀어주었다. 풀려난 송아지는 서울로 가서 대감이 사위를 보려고 달아놓은 짚북을 쳐서 그 딸과 혼인하고 첫날밤에 허물을 벗고 신선비가 되었다. 금의환향해서 어머니를 구해내고 후처를 징벌하여 원한을 풀었다.⁶³⁾

상당히 불가사의한 이야기로서, 인간은 간악한 존재인데 소는 초월적 존재로 이야기된다. 소가 아기를 삼켜서 송아지를 낳지만 사실 허물만 송아지고 본질은 삼킨 아기였던 것이다. 본처나 후처가 아기를 죽이려고 소에게 먹였지만, 소가 고스란히 삼켜 자기 뱃속에서 송아지처럼 자라게 만들었던 것이다. 낳은 송아지는 비범한 송아지로 태어나서 시샘을 받아 죽을 고비에 이르나 시련을 극복하고 아무도 울리지 못하는 짚북을 울려서 귀한 집 딸과 결혼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억울하게 고난을 겪는 어머니를 구하고 원한을 갚게 된다.

사람이 소가 된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람이 잘못하여 소가 되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소가 살해될 아기를 삼켜서 보호하고 열달 동안 길러서 송아지 모습으로 아기를 낳는 것이다. 따라서 송아지는 말을 할 뿐 아니라 첫날밤에 스스로 허물을 벗고 선비로 재탄생한다.

여기서 소는 징벌이나 수련, 상품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아기를 살리는 어머니처럼 이야기된다. 왜냐하면 어머니로서 아기를 몸속에 고스란히 품었다가 송아지 모습으로 다시 낳은 까닭이다. 따라서 소는 인간의 구원자이자 양육자로서 어머니 같은 존재이며, 어미소가 낳은 금송아지는 사실상 신선비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다. 어미소가 어머니다운 모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금송아지는 자질이 대갓집 신랑감으로 제격인 훌륭한 선비이다.

이 이야기에서 소는 인간적 자질을 갖춘 존재이면서 인간을 구한 초월적 구원자이다. 한갓 동물로서 인간을 구한 앞의 유형 이야기보다 소가 더 초월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죽은 아기를 삼키고 송아지로 길러서 허물을 벗고 사람으로 재탄생하도록 한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의 이야기에서 소가 현실적 구조자라면, 이 이야기에서 소는 초월적 구원자라 할 수 있다.

소가 일방적으로 사람을 구해주고 아기를 살려주는 구원자 구실을 하는가 하면, 거꾸로 사람이 소를 구해주는 구실의 이야기도 있다. ‘흰죽으로 기른 소’ 이야기인데, 이야기꾼은 “감천 건네 서당마을”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자란 소를 팔 때는 ‘김상 개봉’으로 팔았다고 했다. 설화가 아니라 실화라는 말이다.

어미소가 새끼를 낳고 죽게 되자, 사람이 어미소 대신에 새끼를 정성껏 길렀다. 젖이 없어 끓여죽게 된 송아지에게 흰죽을 끓여서 손바닥에 묻혀 핥아먹도록 하여 살려냈다. 주인이 소를 길러서 부리다가 팔았는데, 나중에 주인이 죽자 장례 때 소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⁶⁴⁾

63) 趙東一, 위의 책, 같은 곳, ‘금송아지가 된 아기’. 다른 이야기에서는 본처가 시기하여 후처의 아기를 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아주 감동적이어서 듣는 사람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한 마디로 소와 인간이 서로 모성과 효성으로서 상호관계를 맺은 이야기다. 사람은 어미 잃은 송아지를 아기처럼 길러서 기어코 살려내고, 소는 자기를 살려낸 주인을 어머니처럼 섬긴 것이다. 주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먼 길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조문했다. 뿐만 아니라, 장례가 끝나자 주인을 따라 소도 죽었다고 한다. 소도 인간과 다름없는 심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사람과 소가 당사자로서 부모와 자식 같은 인연을 맺는가 하면, 소가 중매자 구실을 하여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기도 한다. 소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를 길러준 사람을 찾아간 것이, 혼자 홀아비로 늙어가던 사람을 장가들게 만든 것이다. ‘소가 맺어준 인연’ 이야기이다.

외딴 집에 사는 가난한 홀애비가 부잣집 소를 빌려서 길렀다. 부자가 논 사는데 돈이 모자라자 빌려줬던 소를 받아와서 시장에 팔려 나갔다. 시세가 맞지 않아서 팔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가는 아낙네를 만나서 짐을 소의 길마에 얹어주었다.

한참 가다가 소주인이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동안 소는 짐을 실은 채 자기를 기르던 홀아비집으로 갔다. 길마에 짐을 실은 아낙네도 소를 따라 외딴 집으로 들어갔다. 날이 저물어서 홀아비 집에 유하게 된 아낙네는 과부로서, ‘소가 내 중매쟁이고 내 인연’이라 생각하며 소를 맡아 기르기로 했다. 다음날 소 주인이 소를 팔기 위해 몰고 가려고 하자, 그 소를 사서 홀아비와 부부가 되어 살림을 이루고 잘 살았다.⁶⁵⁾

소는 자기를 소유한 부자가 아니라 자기를 길러준 홀아비를 주인으로 알았다. 따라서 소유주가 아니라 ‘먹이던 정(情)’을 찾아서 홀아비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과부도 짐을 실은 소를 따라가다 보니 저절로 홀아비집으로 가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다. 과부는 집주인이 상처하여 어린 딸과 사는 홀아비라는 사실을 알고, ‘소가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 중매쟁이’라 생각하며 어린 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물론, 소도 팔지 않고 자기네가 사서 계속 기르기로 했다. 따라서 소는 기른 정으로 집을 찾아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홀아비 주인에게 과부를 중매하여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였으며 자신도 팔려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소는 실제 주인보다 길러준 정을 소중하게 여긴 까닭에 결과적으로 부부의 인연까지 맺어주는 존재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와 사람이 직접 인연을 맺기도 하지만 소가 사람 사이의 인연을 맺게 하는 중매쟁이 구실도 한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의 인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의 인연인데, 그렇게 맺어진 부부는 넉넉한 살림으로 잘 살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이야기꾼은 이야기 말미에 “너저는 우째 사람이 중매를 해도 못 사노? 나는 소가 중매를 해도 일평상을 잘 살고 있다.”⁶⁶⁾ 했다.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 소의 중매쟁이 역할이 사람보다 낫다는 인식이다.

64) 崔正如 외, 『韓國口碑文學大系』 7-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509~510쪽, ‘개의 비(碑)와 흰죽으로 기른 소’.

65) 金承燦, 『韓國口碑文學大系』 8-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083, 983~986쪽, ‘소가 맺어 준 인연’.



소가 사람보다 낫다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다.

어떤 부부가 난리가 나자 피난을 가서 빈 절에 머물며 사는데, 가끔씩 중이 나타나서 양식을 가져다주곤 했다. 중이 드나들자, 아내가 중하고 살고 싶은 생각에 중을 꺾어서 남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중이 아내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남편을 구한 뒤에 새 배필을 만나도록 했다. 새 배필은 소였다. 살이 찐 소가 아니라 바짝 마른 소를 골라서 간장을 먹이면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일렀다. 중이 이른 대로 해서 부부로 잘 살았다. 중은 산신령이었다.⁶⁷⁾

피난 중에 사람의 아내는 남편을 배신한다. 산신령이 중으로 나타나서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실상을 잘 보여주고는, 배신하는 아내 대안으로 소를 새 배필로 삼으라고 일러주었다. 그 가운데도 살찐 소가 아니라 마른 소를 권했다. 살찐 소는 늙고 탐욕스럽지만, 마른 소는 젊고 욕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른 소를 데려 가서 간장을 먹여 허물을 벗게 하고 부부가 되어 잘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부부의 인연을 맺는 이야기인데, 앞의 이야기는 소가 우연히 중매자 역할을 하여 홀아비와 과부가 부부가 되도록 하는데 반하여, 이 이야기는 아예 소가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되어서 부부가 되는 것이다. 앞에서는 소가 현실적인 존재로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면, 여기에서 소는 불가사의한 존재로서 스스로 부부의 인연을 맺는 당사자가 된다. 어느 쪽이든 사람이 하기 어려운 관계를 소가 일정한 역할을 하여 깊은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다. 특히 뒤의 이야기는 산신령과 함께 소의 초월성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중매자든 당사자든, 소는 사람 이상의 구실을 하는 존재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7. 이야기에서 포착된 한국인의 소 인식 총위

여러 가지 소 이야기가 다양한 이야기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소가 이야기의 세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 소의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긍정·부정의 두 가지 인식 방향에 따라 나누어 보기로 했다. 1) 소의 행태에 관한 긍정·부정, 2) 소의 대상화에 관한 긍정·부정, 3) 인간과 소의 관계에 대한 긍정·부정 등 모두 여섯 갈래를 상정했으나, 검토한 결과 2)의 경우만 긍정과 부정 인식이 함께 나타나고 1)과 2)의 경우는 모두 긍정적 인식만 나타났다. 적어도 이야기 속에서는 소의 부정적 행태나 소가 사람살이에 부정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는 한국인의 소 인식 총위는 크게 4가지 양상으로 존재한다. 가) 소의 행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나) 사람들이 소를 긍정적으로 대상화하거나, 또는

66) 金承燦, 위의 책, 986쪽.

67) 朴桂弘·黃仁德, 『韓國口碑文學大系』 4-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512쪽, ‘소하고 부부를 맺다’.



다) 부정적으로 대상화 하는 한편, 라) 소가 사람살이에 개입하는 경우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의를 압축하면, 소라는 존재는 행태 자체나 사람들의 생활에서 늘 긍정적으로 존재했을 뿐 부정적으로 존재한 경우는 없다. 다만 사람들이 소를 대상화하는 경우에 긍정적인 대상화와 함께 부정적인 대상화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의해서 부정적으로 대상화하지 않는 한 소는 그 자체로 인간생활에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이 소를 부정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수단화하지 않으면, 소는 생물학적 행태나 사람살이에 기능하는 것이 모두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총체적 결론을 귀납적으로 포착하면서 본론에서 논의된 구체적 인식 양상을 네 가지 가닥에 따라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한국인의 소 인식에 대한 다중성과 다양한 층위를 더 분명하게 포착하게 된다.

첫째, 소의 행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새끼를 사랑하는 천성적 모성본능이고 둘은 집을 찾아가는 후천적 귀가본성이다. 둘 모두 사람에 의하지 않고 얻은 본성으로서 천성적 또는 자력적 행태에 해당된다. 그런가 하면 셋은 사람들이 길들이는 데 따라 충실하게 움직이는 타력적 행태이다. 사람들의 말귀를 익히고 배운 대로 꼼꼼하게 실천한다는 점에서 타력적이되 긍정적 행태로 포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적 모성본능의 천성과 자력적 공간 지각 능력, 타력적 학습 능력 등이 소의 긍정적 행태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람들이 소를 대상화할 때에는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가 병존한다. 사람이 사람을 대상화할 때에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경우와 하찮은 존재로 멸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를 대상화할 때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가 어떤 사람을 인종적이나 종교적으로 차별하며 핍박할 경우, 그것은 핍박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하고 핍박하는 사람의 문제이다. 따라서 대상을 부정적으로 차별한다고 하여 대상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보석을 흠친다고 해서 보석이 나쁜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먼저 소도둑이나 소 잃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를 긍정적으로 대상화하는 경우를 주목하면 다소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소를 도둑질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정적으로 대상화한 것 같지만, 그것은 소가 부정적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석도 덕이 들끓는 것은 보석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귀한 까닭이다. 소도둑 이야기도 소가 부정적 존재여서가 아니라 소가 보석처럼 값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가 귀한 까닭에 소도둑이 기지를 발휘하여 소를 훔치는 한편, 소를 잃은 사람도 점을 치든 대인의 도움을 받든 기어코 소를 되찾는다. 한마디로 소가 귀한 재화여서 소도둑은 큰 도둑이고 소를 찾아준 사람은 대인인 것이다.

소는 재화나 상품으로서 거래될 뿐 아니라, 산신제의 희생물이기도 하고 농가의 귀중한 노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번기가 되면 양반도 상하 신분관계를 극복하고 백정을 찾아



가 소를 빌리는가 하면, 과부도 소를 빌리기 위해 정조까지 훼손하기도 한다. 소의 노동력이 신분적 위상이나 여성의 정조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된 셈이다. 그러므로 소는 사적으로 소유하되 노동력을 독점하지 않고 공동체가 공유하는 공공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소는 죽어서 희생제물로 쓰일 뿐 아니라 귀한 고기를 제공하고 가죽은 복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긍정적으로 대상화되는 소는 살아서 재화로서 경제력과 노동력으로서 유용성을 지닐 뿐 아니라, 죽어서도 희생(犧牲)과 고기, 소가죽의 유용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용성은 신분과 정조의 가치를 넘어서는 소의 노동력이다. 소의 노동력이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가에서 가장 긴요한 것이다. 재화로서 경제력 보다 노동력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밥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의 노동력이 지닌 유용성은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다.

소는 여러 모로 유용한 대상일 뿐 아니라 사람이 소를 사람과 대등한 존재로 대상화하기도 한다. 황희정승이 만난 농부는 소도 서로 비교해서 우열을 말하면 사람처럼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귓속말로 들려주어서 놀랄 만한 깨우침을 주었다. 농부가 부리는 소를 사람처럼 존중한 까닭에 면전에서 비교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소를 인간과 같은 존재로 인식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물론 소도 우열을 비교하는 것은 삼가야 마땅하다는 인식이다.

셋째, 사람들이 소를 부정적으로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소가 한갓 재화로서 현금화 되는 것이다. 소값은 비싼 까닭에 거액의 현금으로 전환되어 인식되는 순간 인륜을 저버리는 강도 행위와 살인 행위가 저질러지고 마침내 두 가문이 함께 멸망하는 지경에 이른다. 소를 생명체로 다루는 소도둑과 달리, 소를 순전히 금전으로 여기는 순간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금전화된 소는 회복불능의 파국을 불러일으키는 재앙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소가 그 자체로 부정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람이 소가 되는 일이다. 사람이 완전히 소가 되면 차라리 나운데, 정신과 영혼은 사람인 채로 몸만 소로 변신함으로써 결국 인간이 소라는 몸의 감옥에 갇혀서 말도 못하고 쇠죽을 먹어야 할 뿐 아니라, 날마다 힘든 노동까지 해야 하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 견주어 소는 축생으로서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처지에서 보면 소는 헤어날 수 없는 생지옥이다. 그러므로 토색질하는 대감이나 게으름뱅이들이 소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징벌로서 소가 되는가 하면, 실수한 과보를 갚아나가는 과정으로서 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소는 못된 사람을 가두는 형벌로서 축생이 아니라, 실수로 저지른 죄를 소멸시키는 업보의 과정으로서 축생의 시련을 겪는 것이다. 징벌로서 소나 업보로서 소나 모두 일정한 시련을 겪고 본디 인간으로 되돌아오는 통과례의 시련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소는 축생으로 부정적인 인식 대상이지만 그 본질은 인간이며 인간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열린 인식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시련을 겪는 까닭에 부



정적인 대상화인 것이다.

상당히 악랄한 경우에는 아예 사람을 소로 만들어 팔아먹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팔아서 이익을 챙길 수 없는 존재지만, 소는 언제든지 팔아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도 매매 대상이 되는 경우 노예나 다름없는데, 사람을 소로 만들어 매매하려 드는 경우는 사실상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소의 몸 감옥에서 다시 매매 대상이 된 까닭이다. 그러므로 소는 축생의 고통을 겪으며 지푸라기를 먹고 평생 중노동을 하다가 팔려 다니는 운명적 존재로 대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상화는 소 탓이 아니라 사람 탓이다.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부리기만 해서 자기 이익을 극도로 챙기려는 사람들에게 소의 노동력은 극단적으로 착취 대상이 될 뿐이다. 소를 생명으로 다루지 않고 노동기계로 다루게 되면 이처럼 무참하게 수단화하는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소의 인성도 사람에 따라 인색한 존재로 포착된다. 따라서 구두쇠가 인색한 자신을 성찰하고 인정을 베푸는 사람으로 거듭 나면서 스스로 쓰고 있던 마음의 소가죽을 벗어던지기도 한다. 관념적 소가죽이지만 소는 이기적이고 인색한 존재로 대상화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소를 한갓 사람들의 노리개로 사물 취급당하기도 한다. 소를 지붕에 끌어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또 다른 동물학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엉뚱한 목적으로 소를 수단화하는 경우 소는 생명권조차 없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넷째, 소와 인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소는 주로 긍정적 구실을 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호랑이로부터 주인을 구해주는 현실적인 구조자 구실을 하는가 하면, 소가 살해된 아기를 삼켜서 송아지로 낳아 훌륭한 선비가 되게 함으로써 초월적 구원자 구실까지 한다. 따라서 소는 인간생명의 은인으로서 구조자 또는 구원자로 인식되는 것이다. 소무덤 곧 의우총 전설이 그런 유형이다.

소가 일방적으로 사람을 살려내는가 하면, 사람이 소를 살려내기도 한다. 어미소를 잃은 송아지에게 흰죽을 끓여서 훔아먹도록 하여 정성껏 살려낸 이야기다. 이렇게 살아난 송아지가 자라서 주인의 죽음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조문함으로써 인간과 소가 사실상 부모자식 관계를 맺은 단계로 발전한다. 소도 은혜를 아는 인간다운 심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된 것이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소가 인간생명의 구조자 또는 구원자이자, 효친의 정을 지닌 자식 구실을 하는가 하면, 어려운 처지의 과부와 홀아비가 부부의 인연을 맺도록 하는 중매쟁이 구실을 한다. 물론 의도된 행위는 아니지만, 소가 자기를 길러준 정을 잊지 않고 찾아간 결과로 빚어진 귀한 인연이다. 더 나아가 사람의 아내는 남편을 배신하는데 소의 허물을 벗은 아내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훌륭한 부부의 인연을 이룬다. 산신령이 개입한 불가사의한 인연이지만, 소가 사람보다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이룬 셈이다.

위와 같이 귀납한 대로 한국인이 인식하는 소의 층위는 다중적이면서 다층적이다. 긍정



적이면서 부정적인가 하면, 축생으로서 인간을 가두는 감옥 같은 형벌이자 인간생명을 구해내는 초월적 구원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소는 이 두 극단 사이서 다양한 인식 층위로 다중성을 띠고 있다. 그런 한편 소와 인간은 서로 오고 가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인간 속의 사악한 탐욕과 소 속의 인간다운 심성을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소의 인식에 대한 다층성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는 겉으로 나타내지는 한갓 형태일 뿐 그 본성에는 인간다운 영혼이 잠재되어 있으며, 인간도 사실은 형태적 존재일 뿐 그 심성에는 짐승 같은 탐욕의 본성이 숨겨져 있다는 심층적 인식까지 포착될 수 있다.

사람이 소가 되든, 또는 소가 사람이 되든 그 매개물은 가축이고 허물이다. 사람도 소의 가축이나 허물을 쓰면 소가 되고, 소도 허물이나 탈을 벗으면 사람이 된다. 소인가 사람이냐 하는 것은 한갓 허물로서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일 뿐, 그 영혼과 심성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사람이라고 하여 소의 심성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껍데기가 소라고 하여 사람의 심성보다 못하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소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보다 나은 소도 있기 때문이다. 소나 사람의 몸은 존재의 집이자 껍질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소와 사람의 분별을 넘어 차별하는 것은 표면적 인식에 머무는 것이다.

소 인식에 대한 다중성과 다층성을 다양하게 고려할 때, 한국인의 소 인식을 한 마디로 집약해서 말하는 것은 실상과 맞지 않을뿐더러 무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소 인식을 열린 시각으로 주목하면서 다중성의 폭을 더 확장하고 다층성의 심층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열린 소 인식을 닫힌 표현으로 무리하게 문장화한다면, 한국인은 소의 행태 자체는 물론 사람살이 속에서 소를 인간처럼 두루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유용한 존재로 대상화하여 바람직하게 인식하되, 사람들의 탐욕과 착취 때문에 소를 부정적으로 대상화하여 수단화한다고 할 수 있다.

소는 한국인의 심성을 비춰주고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이다. 거울을 이리저리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정생 글·이지연 그림, 『들국화 고갯길』, 창비, 2020.
 김정원, 『아득한 집』, 푸른사상, 2021.
 배영동, 「소의 利用과 그 農業技術史的 意義」, 『韓國民俗과 文化研究』,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編, 『醴泉의 牛市場』, 1991.
 이부영, 「分析心理學과 民譚」, 金烈圭 외, 『民談學概論』, 一潮閣, 1982.
 임재해, 「설화의 미디어 기능과 지명전설의 인문지리 정보」, 『韓民族語文學』 69, 한민족어문학회, 2015.
 조동일 외, 『韓國口碑文學大系』 別冊附錄(I) 韓國說話類型分類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 조찬한, ‘義牛圖序’, 安應昌, 『義烈圖』
- 조희웅 외, 『호남 구전자료집』 2, 박이정, 2010.
- 천진기, 『한국동물민속론』, 민속원, 2003.
- 최인학, 『옛이야기 괴나리봇짐』 8, 문예원, 2016.
- 한양명, 「소띠의 民俗과 象徵」, 『중앙민속학』 6,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1994.
- 曹喜雄, 『韓國口碑文學大系』 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成者說, 『韓國口碑文學大系』 1-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曹喜雄, 『韓國口碑文學大系』 1-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 曹喜雄, 『韓國口碑文學大系』 1-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 金善豐·金起高, 『韓國口碑文學大系』 2-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金善豐, 『韓國口碑文學大系』 2-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 金榮振, 『韓國口碑文學大系』 3-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朴桂弘, 『韓國口碑文學大系』 4-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徐大錫, 『韓國口碑文學大系』 4-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 朴桂弘, 『韓國口碑文學大系』 4-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朴桂弘·黃仁德, 『韓國口碑文學大系』 4-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崔來沃, 『韓國口碑文學大系』 5-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朴順浩, 『韓國口碑文學大系』 5-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 崔德源, 『韓國口碑文學大系』 6-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 崔來沃·金均泰, 『韓國口碑文學大系』 6-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 崔來沃·金均泰, 『韓國口碑文學大系』 6-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 崔德源, 『韓國口碑文學大系』 6-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 趙東一, 『韓國口碑文學大系』 7-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趙東一·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崔正如·姜恩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崔正如·千惠淑, 『韓國口碑文學大系』 7-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 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崔正如, 『韓國口碑文學大系』 7-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崔正如, 『韓國口碑文學大系』 7-1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 崔正如 외, 『韓國口碑文學大系』 7-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 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1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 鄭尙卦·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鄭尙卦·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鄭尙卦·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金承燦, 『韓國口碑文學大系』 8-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鄭尙卦·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鄭尙卦·柳鍾穆, 『韓國口碑文學大系』 8-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 임재해, 「신축년 소띠해, 생태학적 통찰의 해가 되기를」, 대학지성 In & Out, 2021년 1월 1일자 신년칼럼,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4>).



[1주제 토론]

“소 이야기의 세계와 한국인의 소 인식 층위”에 대한 토론문

신 동 훈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임재해 선생님의 귀한 발표에 대해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방대한 자료 검토를 통해 도출된 호한하면서도 섬세하고 계시적인 논의들이 담겨 있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한 편의 논문으로 한국 구비설화 속의 소에 대한 모든 것이 꿰어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부분적으로 작품 해석에 대한 의문이나 이견이 없지 않지만, 말 그대로 부분적인 것일 따름입니다. 이를 꼬치꼬치 따지기보다 설화 속 ‘소’의 핵심적이고 원형적인 서사적 형상과 함의에 대해 모종의 논쟁적 문제제기를 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해서 그 방향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한국인에게 소는 예사 가축이 아니라 ‘식구’라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소가 있었지요. 저는 그 소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풀을 먹이러 데리고 다니기도 했구요(데려간 게 아니라 함께 간 게 맞습니다). 제가 열 살 때 그 소가 비탈에서 굴러서 죽었는데, 어린 시절의 가장 슬픈 날 중 하나였습니다. 하교 후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거적에 덮여 있는 그 친구(실은, 형)의 모습을 어른들이 보여주시지를 않더군요. 제가 슬픔에 무너질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소를 보낸 슬픔은 더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나셨을 때의 슬픔 이상으로 오래 갔습니다. 그는 ‘식구’를 넘어서 ‘가족’이었으니까요. (기억에 의하면, 어른들도 그 소를 먹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가족이었을 테니까요. 그 소가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논문으로 돌아와서,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혹시 ‘백정설화’를 다루셨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설화 공부를 할 때 저한테 강한 충격을 주었던 글 중 하나가 서정범 선생의 「백정설화 연구」였습니다(자유문학 29~33호; 1959). 물론 ‘소’를 주인공으로 한 논의입니다. 찾아보니 RISS에도 없고, 대학원 시절에 복사해뒀던 자료도 없더군요.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 서정범 선생께서 집필한 ‘백정설화’ 항목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여년 읽은 논문의 내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백정설화, 곧 백정들 사이에서 전승돼온 설화의 핵심은 ‘소’가 본래 하늘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선(또는 왕자)이었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벌로 지상에 내려져서 코뚜



레를 낀 채로 갖은 노역을 담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노역은 소가 죄를 벗고 하늘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지요. 백정들은 소를 죽이는 일을 죄 씻음을 다한 신선을 하늘로 돌려보내는 신성한 의식으로 사유한다고 합니다. 고통 없이 단번에 명을 끊어서 하늘로 돌려보내는 것을 과업으로 삼는다고 해요. 그렇게 자신들의 ‘천직(賤職)’을 ‘천직(天職)’으로 재의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화는 신분사회 최하층에 있었던 백정들의 눈물겨운 삶과 함께 ‘소’의 존재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소는 백정과 한몸인 동시에, 어쩌면 ‘백정 아래 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에서 기막힌 삶을 살아갑니다. 평생의 끝없는 노역 뒤에 제 몸을, 고기 외에 뼈와 가죽까지 온통 다 바치고서 떠나지요. 그렇게 소는 ‘한스러운 생(生)’의 표상이 됩니다. 그 자신 힘든 노역의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로서는 소가 남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넘어서 ‘또 다른 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순 선생은 ‘소모는 소리’ 현지조사에서 농부가 소를 몰면서 소에게 속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며 일을 마친 뒤 “소와 같이 쓰러진다”고 하는 말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의 전생이, 그리고 후생이 ‘고귀한 하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는 일은 그 또한 소의 죄를 씻어서 그를 하늘로 보내기 위한 과정이기도 한 셈입니다. 힘들게 일할수록 속죄와 회귀가 제대로 이루어질 테니 소에게도,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됩니다. 물론 현실이 아닌 ‘서사’ 속의 일이지요. 사람들이 소에 대한 설화에서 세상을 사유하고 위로를 받는 방식을 의미심장하게 보여주는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의 서사무가(예컨대, 산천굿)와 소설(예컨대, 속향전), 또는 민요(예컨대, 베틀노래)나 민담(예컨대, 선녀와 나무꾼)에서 현실 속의 인간은 하늘 존재의 화생(化生)으로 사유되고 표현됩니다. 세상의 밑바닥에서 갇은 고생을 하는 인간이 곧 그들입니다. 그 일련의 삶의 과정 또한 하늘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니 소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과 소의 시원적인 존재적 동질성 내지 연결성을 봅니다. 어쩌면 소가 죽은 뒤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는 일 또한 ‘신선이 남긴 육신’을 흠향하면서 그 자신 신선되기로 나아가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소를 단순한 대상으로 보는, 축생(畜生)이나 미물로 사물화하는 오늘날의 관점과 질적으로 다른 세계관적 면모입니다. 개인적으로 전통생활과 민속 속의 소를 사유할 때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 여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비롯한 여러 구비설화 자료집 어디에도 ‘백정설화’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보고돼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최래옥 선생님은 백정설화를 채록해 보려고 애써봤지만 실패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백정설화의 사유는 제한된 특수 집단 내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 수궁하면서, 백정설화 이외의 구비설화 자료 속에도 그와 같은 서사와 사유가 깃들여 있음을 주목합니다. 저로서는 그것이 소에 대한 설화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원형적 측면이 아닐까



여기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소와 관련한 변신담 내지 환생담입니다. ‘인간과 소 사이의 오고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있으며, 본 발표문에서도 이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설화는 <금송아지로 태어난 아들>(6절) 유형입니다. 이야기에서 소의 먹이가 된 불쌍한 아기는 송아지로 ‘환생’합니다. 인간과 소가 생명적으로 오고간다는 점 외에, 전생의 억울함과 한(恨)이 소로의 환생을 통한 시련과 고통, 시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야기에서 아기가 송아지로 살아가는 과정은 ‘죄/업보 씻음’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백정설화의 ‘신선~소’라는 구도가 ‘인간~소’로 바뀌기는 했지만, 서로 긴밀히 통하는 서사적 설정입니다. 이야기는 그 소가 특별히 ‘금송아지’였다고 함으로써, 또는 아무도 울리지 못하던 ‘짚북’을 울렸다는 내용을 통해서 그 내재한 신성성을 부각합니다. 뒤에 ‘신선비’가 됐다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험하고 부조리한 현실 속의 고통받는 ‘소/인간’의 본원적 신성성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설화를 통해 ‘현실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죄를 씻는 하늘존재’로서 인간과 소의 동질적 존재성에 대한 인식과 만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백정설화’와 통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국인의 전통적 소 인식의 한 원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환생담 내지 변신담에 대해서도 유사한 맥락의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하고 부부를 맺다>(6절)에서 소가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되어 결혼하는 일, <토색질하다 소가 된 대감>이나 <소가 된 게으름뱅이>, <소가 된 상좌> 등(5절)에서 사람이 소 되기를 통해 죄업(토색질, 게으름, 실수)을 풀어나가는 일 등이 그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에 대해 그 변신을 ‘징벌형’과 ‘수행형’으로 구분하셨지만, 징벌로서 노역을 수행하는 과정도 죄씻음의 수행(修行)이라는 점에서 내적 공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에서의 ‘소 되기’는 표면상으로 ‘하강’이고 ‘소의 부정적 대상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로서의 삶이 곧 ‘존재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면적으로 볼 때 긍정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통해 부연하면, 이야기 속에서 게으름뱅이가 소가 되어 일하는 과정은 내면의 인간성/신성을 회복하고 발현하기 위한 필연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뱅이가 소가 된 것은 ‘전락’인 동시에 ‘상승’이었던 셈이지요. 소로서 울음을 우는 것은 ‘짐승의 몸에 인격이 갇힌 상황’인 동시에, ‘갇혔던 인격을 풀어내는 해방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의 백정설화에서 말하는바 ‘현실의 고통’과 ‘죄 씻음’을 연결하는 가운데 본래적 존재성 실현으로 나아가는 구도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징벌의 감옥’과 ‘수행의 과정’을 상호 매개하는 이런 해석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발표자께서 ‘사기형 변신’으로 표현하신 <사람을 소로 변하게 하는 노인>이나 <소로 변하게 한 탕건> 같은 이야기 속의 변신까지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논의는 생략합니다.)

채연을 더하자면, 발표자가 다룬 자료들 중 소 도둑 이야기나 소 찾은 이야기, 소 판 돈



이야기, 지붕에 소 올리는 이야기 등은 소가 주요한 ‘서사화’의 대상이라기보다 주변적 요소로 등장하는 사례들이라서 설화 속 소 인식을 그리 유의미하게 담고 있지는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포괄적인 논의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자료들은 과감히 논의대상에서 뺄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는 진짜로 사족입니다만, 선생님께서 여러 설화 가운데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지붕에 소 올리기〉 해석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극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해서 살펴다 보니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명령과 복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간의 ‘신뢰와 존중’에 있다고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야기에서 부잣집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키는 데는 뭔가 뜻이 있으리라는 것으로요. (저는 역으로 그 아버지도 아들의 말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부자’인 것이고요.) 이야기에서 하필 ‘소’를 지붕에 올리라고 하는데 이 또한 소를 사물 취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 외에 소의 큰 존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는 함부로 다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업이 설화적 문제성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발표자께서 소 도둑 이야기나 소 찾은 이야기 등에서 도출하신바 소의 존재성과 통하는 해석입니다. 부분적인 내용이지는 하지만, 이런 해석 가능성도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관심사 위주로 논의를 하다 보니 인간을 구해준 소나 참주인을 알아본 소, 부부 인연을 맺어준 소 등 여러 주요한 설화에 대한 언급을 따로 못했습니다. 소의 소중함과 신령함, 소와 인간의 동반자적 관계 등 발표자께서 도출하신 관점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바 “소인가 사람인가 하는 것은 허물로 드러난 껍데기일 뿐 그 영혼과 심성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인식”(7절)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아 울러, 암소가 송아지를 낳을 때 ‘삼신상’을 차려놓고 빌었으며 금줄을 치기도 했다는 것이 이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로 놀라우면서도 마음 따뜻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니다. 그 게 곧 한국인의 전통적 소 인식일 것입니다.

쓰다 보니 문득 40여 전 귀천(歸天)한 친구/형이 신선으로서 우리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에 ‘이름’이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서정범 선생의 자료 속에서 하늘에 살던 소의 이름은 ‘인마’였는데, 우리 형 이름은 그냥 ‘한우’라고 할까 봅니다. “한우 형,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나도 형 곁으로 돌아갈 겁니다.”



[2주제 발표 - 소의 경제사]

고대사회 소의 고고·민속과 사회경제적 양상

박 유 미

(상명대학교)

- 목 차 -

1. 서론
2. 선사시대 우리나라 소의 기원에 대한 추정과 발굴된 소의 고고유체
3. 고대 소의 활용과 사회경제적 양상
4. 결론

1. 서론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에서 동물의 이용은 큰 영향을 끼쳤다. 채집이나 어렵 외에도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그들에게서 얻어지는 여러 부산물을 쓰면서 생존한 사람들은 이내 그들이 찾아내고 활용하고자 하는 동물들의 특성을 관찰하여 알아내게 되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사회에 적응하여 살 수 있는 몇몇 동물들을 분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 노력에 대응하여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 동물을 ‘가축’이라 하는데, 이때의 가축은 인간이 공동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번식·세력권의 구성·먹이 공급을 완전히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사육한 것을 의미한다.¹⁾ 가축은 인간 사회에 많은 유용함을 주지만 그 중에서도 소는 고기, 가죽, 뼈 등을 공급하고 농사를 비롯한 役畜으로써 가장 중요한 가축종 중 하나가 되었으며, 소와 관련된 사회적 활동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여러 의미와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소가 사람들의 문화에서 어떤 양상과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선사시대부터 고대사회에서 소가 기능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소는 동물 중에서도 대형이어서 그 순화와 사육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사인들은 소를 활용하고 이를 통제하려 노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유를 살피는 것은 선사인들의 생활상과 활동, 문화를 이

1) J.C. Brock 著, 과학세대 譯, 『인간과 가축의 역사』, 새날, 1996, 42쪽.



해할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구축되고, 이후 전승되는 소의 기능, 의미, 상징 등이 사회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발달되게 되었는지를 헤아리는 데에 도움을 주리라 여겨진다. 또한 고대사회는 가축화된 소가 국가단위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시기보다 더 풍부해지고 다양해진 사회·경제적 활용과 문화적 실제 등을 고고유물이나 동물유체, 문헌, 고분벽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사시대부터 고대의 소와 관련된 연구내용은 주로 고고 발굴을 통해 확인되는 동물유체로 알아볼 수 있다.²⁾ 소의 기원³⁾, 고고유적에서의 소뼈 수습⁴⁾, 선사시대의 소뼈 출토와 자연환경 및 동물상⁵⁾, 고대의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체⁶⁾, 동물희생의례⁷⁾, 복골이나 장송의례 및 제사⁸⁾, 소뼈 등의 동물뼈 매장⁹⁾, 가축 사육¹⁰⁾, 민속학적 관점에서의

2) 각종 발굴조사보고서는 연구사 정리에서 제외한다.

3) J. B. Kim·C. Lee, "Historical look at the genetic improvement in Korean cattle",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13(10), 2000 ; Kyu-Il Kim·Jun-Heon Lee·Sung-Soo Lee·Young-Hoon Yang, "Phylogenetic Relationships of Northeast Asian Cattle to Other Cattle Populations Determined Using Mitochondrial DNA D-Loop Sequence Polymorphism", *Biochemical Genetics*, 41(3-4), 2003 ; Jeongsoo Lee·Kyung-Tai Lee·Sungmin Ahn·Seunghwan Lee·Dajeong Lim·Young-Ju Kim·Eun-Seok Cho·Kyung-Seok Kim·Hailu Dadi·Tae-Hun Kim, "Genetic characterization of Northeast Asian cattle based on sequence polymorphisms in the complete mitochondrial genome", *Open Journal of Animal Sciences*, 2(4), 2012 ; 최태정, 「한국 전래 소품종(한우, 호반우, 및 흑우)에 대한 계통유전체학적 특성 규명」,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신동훈, 「미토콘드리아 DNA D-loop 유전 정보 서열에 대한 계통적 군집화 분석에 의한 동아시아 소의 계통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홍종하·신동훈, 「동아시아 소 계통 규명에 대한 통합연구적 접근」, 『통합인문학연구』 8-1, 통합인문학연구소, 2016 ; 홍종하·신동훈, 「최근 소의 기원에 관한 국제적 연구경향과 한반도 신석기시대 소 뼈 연구에 관한 제언」,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49, 한국상고사학회, 2018 ; 홍종하·신동훈, 「유전학적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동북아시아 소의 기원과 확산」, 『한국상고사학보』 105, 한국상고사학회, 2019.

4) 이정민·박영환·윤혜성·함철희·권혁남, 「나주 북암리 고분군 출토 소뼈의 수습 및 보존처리」, 『보존과학연구』 3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5) 김신규,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포유동물상」, 『조선고고연구』 1986-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6 ; 리애경, 「금야군 온정리 굴재덕동굴에서 드러난 포유동물화석」, 『조선고고연구』 1989-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9 ; 金子浩昌·서양남·김양미, 「목도패총 출토 척추동물유체」, 『고고학지』 1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0 ; 조태섭, 「우리나라 선사시대 소과화석에 대한 고찰」, 『한국구석기학보』 20, 한국구석기학회, 2009 ; 강봉원, 「반구대 암각화에 표출된 육지동물의 재인식」, 『한국신석기연구』 23, 한국신석기학회, 2012 ; 강윤형·문지환·안미정·방문배·신태균, 「제주 종달리 1819번지 패총에서 출토된 뼈 유물의 분류」, 『대한수의학회지』 54-1, 대한수의학회, 2014 ; 조태섭, 「우리나라 중부 내륙지방 신석기시대 동물상과 자연환경」, 『백산학보』 100, 백산학회, 2014 ; 김현석, 「신석기시대 출토 동물유체의 연구성과와 향후 방향성」, 『고고학지』 2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15a.

6) 김건수, 「동물유체를 통한 고분 검토」, 『호남고고학보』 18, 호남고고학회, 2003 ; 유병일, 「동물유체의 분석과 연구:陸上動物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15-1, 영남고고학회, 2006 ; 유병일, 「동물유체의 해체장소와 방법에 관한 일고찰-삼한 및 삼국시대의 조개더미 자료를 중심으로」, 『고문화』 70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7 ; 김건수, 「호남지방 고분 출토 동물유체 고찰」, 『호남고고학보』 52, 호남고고학회, 2016 ; 이현태, 「경주 교동 94-3번지 일원 유적출토 삼국시대 동·식물유체 연구」, 『신라문화』 48, 신라문화연구소, 2016 ; 조태섭, 「제주 괘지 사람들의 동물 이용에 대하여」, 『인문과학』 110, 인문학연구원, 2017 ; 김현석, 「포유동물유체로 본 영남지방 중심지의 동물 이용의 현황과 양상」, 『대한체질인류학회지』 33-2, 대한체질인류학회, 2020.

7) 박중환, 「백제권역 동물희생 관련 고고자료의 성격」, 『백제문화』 47, 백제문화연구소, 2012 ; 이장웅, 「문헌에 나타난 한국 고대 동물 관념과 의례」,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41, 한국고고학회, 2017 ; 고은별, 「중부지방 원삼국~삼국시대 동물희생의례의 지역적 특징」, 『고고학』 11, 중부고고학회, 2020.



고찰¹¹⁾을 통해 연구되었으며, 고대 관련 음식생활을 다룬 거의 모든 논문에는 단편적이라도 소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다. 선사에서 고대까지의 소와 관련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주제별로 개별적 연구가 진행되어 소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개나 돼지, 사슴 및 말, 꿩 등의 동물류와는 달리 소를 단독 주제로 한 연구성과도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선사에서 고대까지 여러 지역과 주제별로 연구된 소 관련된 발굴내용과 각종 문헌사료, 고분벽화 등의 자료를 역사적 추이에 따라 정리하며, 생활문화사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우리 민족이 형성한 소 관념과 민속, 여러 문화적 기호의 특이성이나 원형성을 고찰하는 데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선사시대 우리나라 소의 기원에 대한 추정과 발굴된 소의 고고유체

현대의 사육소는 대체로 소(*Bos taurus*)와 인도소(*Bos indicus*)로 구분되며 이들은 原牛(*Bos primigenius*, 옛소)에서 분화되었는데, 마지막 빙하기 말기(12,000 BP)에 이들은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토착종이 되었다.¹²⁾ Brock에 의하면 소는 *Bos primigenius* → *Bos primigenius primigenius*/*Bos primigenius namadicus* → *Bos taurus*/*Bos indicus*로 분화되었고, 물소(*Bubalus bubalis*)는 *Bubalus arnee* → *Bubalus bubalis*로 가축화가 진행됐다고 한다.¹³⁾

선사시대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소는 소(*Bos taurus*, 흑 없는 소)와 물소(*Bubalus bubalis*)이다. 이 중에서 소는 근동지방에서 야생소가 처음으로 가축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 8) 은화수, 「한국 출토 복골에 대한 고찰」, 『호남고고학보』 10, 호남고고학회, 1999 ; 김창석, 「한성기 백제의 국가제사 체계와 변화 양상 : 풍납토성 경당지구 44호, 9호 유구의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2, 서울학연구소, 2004 ; 김용성, 「고분으로 본 신라의 장송의례와 그 변형」, 『중앙고고연구』 15,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 이수연, 「삼한·삼국시대 영남지역 복골로 본 점복문화의 양상」, 『영남고고학』 79, 영남고고학회, 2017 ; 정재운·박초롱, 「문헌 및 고고자료를 통해 본 고대 장송의례-백제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31, 백제학회, 2020.
- 9) 장윤정, 「고대 동북아시아 동물 매장행위에 관한 연구-우리나라와 중국 내몽고지역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56,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3 ; 김현희, 「삼국시대 동물뼈의 매장에 대한 검토」, 『동원학술논문집』 18,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17.
- 10) 이준정, 「한반도 선사·고대 동물사육의 역사와 그 의미」,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36, 한국고고학회, 2012 ; 김현석, 「동위원소로 본 동래패총인의 식생활과 가축사육」, 『고고광장』 16-1, 부산고고학회, 2015b ; 최현구·신지영·임재수·한지선, 「풍납토성 출토 뼈 콜라겐의 탄소·질소·황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본 백제 시대 식생활과 가축 사육 양상」,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대한지질학회, 2015 ; 최현구·신지영·한지선, 「풍납토성 출토 동물뼈의 탄소와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본 백제시대의 가축사육 양상」, 『보존과학회지』 32-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6.
- 11) 배도식, 「소에 얽힌 민속」, 『민속학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1995 ; 임장혁, 「고대의 사냥과 가축에 의한 동물공희」, 『비교민속학』 70, 비교민속학회, 2019.
- 12) Marleen Feliuss-Marie-Louise Beerling·David S. Buchanan·Bert Theunissen·Peter A. Koolmees and Johannes A. Lenstra, "On the History of Cattle Genetic Resources", *Diversity*, 6(4), 2014, p.705. : [www.mdpi.com/journal/diversity\(2021.04.13.\)](http://www.mdpi.com/journal/diversity(2021.04.13.)).
- 13) J.C. Brock 저, 앞의 책, 117쪽~122쪽.



퍼져나갔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소도 근동지방에서 나온 소의 후손으로 추정된다.¹⁴⁾ 가축화된 소(*Bos taurus*)의 유전형은 T형으로 이것은 다시 T1, T2, T3, T4, T5로 나뉘지며, 동아시아 가축소의 유전형은 T4유전형이다. 최근에는 T6의 존재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축소의 mtDNA 분석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는 내용이 살펴진다. 유럽 야생소 유전형은 P형으로 분류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나라 소 관련해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멸종한 유럽 야생소의 유전형이 소에 지금껏 보존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2건)와 중국(1건)의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어 소의 가축화는 여러 지역 내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⁵⁾

한편, 최근 보고된 C유전형 때문에 기존의 유럽과 시베리아를 거쳐 온 소가 중국의 동북부 지역을 지나 우리나라,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설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¹⁶⁾ 소 전래 및 가축화 시점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하얼빈에서 발굴된 소의 하악골 분석 및 mtDNA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유전형과 사육과 관련된 내용이 전해진 것이다(<그림1>참조¹⁷⁾). 이 소의 연대는 10,600BP로 판명되며 어금니

<그림 1> C형 유전형질 소의 하악골



Figure 2 | Early-Holocene cattle mandible discovered in northeast China. Different views of the mandibles found at Kangni ditch, northeastern China, showing bilateral and symmetrical overnutrition of M1 (a). An area of periodontal resorption can be seen adjacent to P4 and M1 on the buccal aspect of the left mandible (b). Radiographs of right mandible indicate normal root and alveolar bone development (c). Scales for a and b are given in centimetres.

의 마모정도를 봤을 때 Bar-biting과 유사한 흔적도 관찰된다고 한다. 이것은 야생소에서 발견되지 않은 흔적이며, 인간의 관리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소의 유체를 통해서 인간이 사육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길들이기 전단계로서 여러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¹⁸⁾ 이러한 관리가 매번 성공하지는 못했을 지리라도 지속적으로 선사인들이 지역의 야생동물을 통제하려고 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동물의 인위적 관리와 통제의 시도는 비단 하얼빈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의 이행기에 동물 자원이나 석기, 토기 등의 물질문화에 나타난 교류, 전파, 유사성의 상황¹⁹⁾을 고려했을 때 소의

14) 홍종하·신동훈, 앞의 글, 2019, 263쪽~264쪽.

15) 위의 글, 265쪽~270쪽.

16) 홍종하·신동훈, 앞의 글, 2016, 216쪽.

17) Hucai Zhang·Johanna L.A. Pajmans·Fengqin Chang·Xiaohong Wu·Guangjie Chen· Chuzhao Lei·Xiujuan Yang·Zhenyi Wei·Daniel G. Bradley·Ludovic Orlando, Terry O'Connor, Michael Hofreiter, "Morphological and genetic evidence for early Holocene cattle management in northeastern China", Nature Communications, 4(1), Nature Publishing Group, 2013, p.3 Figure 2 재인용.

18) Hucai Zhang 외, 앞의 글, pp.2~4.

19) 이동주, 「동북아시아 초기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문물연구』 10,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6, 3쪽~48쪽 ; 이현중, 「동북아시아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 전환기의 해체과정과 통합의 제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12, 한국신석기연구회, 2006, 33~53쪽 ; 임상택, 「중국 동북지역과 한



사육 시도 및 그 행위가 어느 한 지역에서만 고립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며, 그러한 정보나 노력의 내용이 여러 지역에도 전해졌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선사인들이 행한 교류를 통해 전해지거나 이미 그들이 스스로 터득하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C유전형이 계속 동북아시아에서 나타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는 대략 4,000년전 근동지방에서 도입된 T유전형 소가 C형 야생소를 대체하여 지역 내에서의 주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²⁰⁾ 그러나 소를 길들이기 위한 노력에는 소의 유전형별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 사람들이 시도했던 인위적 관리, 통제 방식이 C형이나 T형의 유전형질 소를 가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개체별 특성이 몇몇 반영될 수는 있으나 이들이 경험한 소의 사육화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소에 적용되었을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선사인들이 소를 가축화하는 데에 일조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발굴되는 선사시대 물소, 들소, 옛소, 소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선사시대 물소, 들소, 옛소, 소 유체 출토 지역과 시기²¹⁾

	물소	들소	옛소	소
구석기	상원검은모루동굴 상원군 중리유적 황해도 랑정 동굴유적 역포 대현동유적 승호구역 화천동유적 굴재덕유적 승리산유적 로동리 물이 사냥터유적 룡곡1호 동굴유적	상원군 중리유적 랑정유적 역포 대현동유적 승리산유적 청파대유적 함북 동관진유적 충북 제천 점말용굴	역포 대현동 유적 승리산 유적 평양 금옥동굴 평양 만달리유적 함북 동관진유적 함남 룡남 동굴유적 단양 도담 금굴유적 충북 청원 두루봉 2굴 강원도 영월 쌍굴유적	
신석기	궁산유적 경남 하동 목도패총유적 창녕 비봉리유적 영월군 쌍굴유적			만달리유적 위층 단양 도담 금굴 단양 상시 3바위그늘 영월 쌍굴유적 부산 동삼동패총 통영 연대도패총 창녕 비봉리유적 김해 수가리유적 고성 문암리유적 제주 종달리패총

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토기문화의 비교, 『백산학보』 100, 백산학회, 2014, 117~161쪽.

20) 홍종하·신동훈, 앞의 글, 2019, 268쪽.

21) 사회과학연구소 편, 『조선의 짐승뼈 화석(1)』, 진인진, 2009a, 20쪽·86~87쪽·134쪽~135쪽·184쪽~187쪽·245쪽 ; 사회과학연구소 편, 『조선의 짐승뼈 화석(2)』, 진인진, 2009b, 102쪽·104쪽·109쪽·189쪽 ; 사회과학연구소 편, 『조선의 짐승뼈 화석(3)』, 진인진, 2009c, 30쪽·41쪽·107쪽·244쪽·259쪽·293쪽 ; 유병일, 앞의 글, 2006, 3쪽 ; 조태섭, 앞의 글, 2009, 87쪽~98쪽 내용 재편집 ; 강운형·문지환·안미정·방문배·신태균, 앞의 글, 18쪽 ; 김건수, 「고성 문암리 유적 출토 동물유체 분석」, 『고성 문암리 유적Ⅱ 분석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387쪽~388쪽 ; 홍종하·신동훈, 앞의 글, 2018, 42쪽 표1 참조.



이들 선사시대 소과 화석 출토 유적들 대부분 산악지대보다는 낮은 지대 혹은 평지의 낮은 산에 발달했던 지역이었다. 간혹 청원 두루봉 동굴이나 점말용굴과 같이 산악지형에 속하는 곳들도 있으나 이들 유적 주변에는 어김없이 너른 평지가 물길을 따라 발달하고 있었다.²²⁾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대로 선사인들이 소가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야생에서의 소를 사냥해 고기와 뼈, 가죽, 기름 등을 이용²³⁾하거나 또는 사로잡아서 순화 및 사육시키려 노력하여 소를 여러 쓰임새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3. 고대 소의 활용과 사회경제적 양상

1) 고조선과 삼한에서의 소의 이용과 사회경제적 양상

고조선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사회경제적 요소로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전시기보다 사람들이 토지의 점유에서 배타성을 보이며 토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생산력을 증대시키려 노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일정한 영역 내에서 세력권을 형성한 정치·사회집단인 고조선인들은 토지에서 생산하는 곡물을 중요한 생계 수단으로 하여, 이를 수렵, 어렵, 채집 생활이 보조하는 경제구조를 형성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인들은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곡물의 생산과 이용이 필요했는데, 남경 유적 탄화벼 등과 같이 이른 시기부터 발굴되는 여러 탄화곡물 및 식물유체는 이러한 고조선인들의 음식생활과 곡물 활용을 짐작하게 한다. 고조선인들이 곡물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토지생산력을 늘리는데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궁리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농업을 돕는 도구들이 만들어졌으며, 소 등의 축력 사용도 마련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고조선시대 소가 농사에 활용되었다는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유물이 있는데 이것은 평안북도 연주군 주의리에서 출토된 평후치이다(<그림2>참조²⁴⁾). 서기전 8세기에서 7세기 사이의 것으로 편년된 이 유물은 염주군 염주읍 서남쪽 4km 떨어진 마을 부근 논밭에서 수레바퀴 조각과 함께 발굴된 것이다. 길이가 140cm이며 L자형으로 구부러진 참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것인데 둔중하여 수레처럼 소가 끌었을 가능성이 있다.²⁵⁾ 게다가 이 시기 함경북도 회령 오동유적, 무산 범

<그림 2> 나무후치



22) 조태섭, 위의 글, 2009, 104쪽.

23) 전세계에서 공통된 소의 쓰임 중 동아시아 및 중부 아프리카 몇몇 지역에는 착유의 습관이 없어 소의 이용과 관련된 것 중 우유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J.C. Brock 저, 앞의 책, 116쪽~117쪽).

24)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2, 동광출판사, 1990, 39쪽 도판 38번.

25) 장국중, 『조선농업사』, 백산자료원, 1998, 24쪽.



의구석유적, 북청 토성리유적, 평양 입석리유적 등에서 소뼈가 발굴되고 있어, 당시에 소가 사람들에게 활용되어 가축으로써 농사에 이용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고조선시대 함경북도 무산군 호용동 주거지 유적에서 소 견갑골로 만든 복골이 출토되어서 주목된다.²⁶⁾ 발굴된 복골이 대체로 사슴이나 멧돼지 등으로 제작된 데에 비해 소로 만든 복골이 확인되는 것은 호용동 복골이 최초의 사례이며, 이후 부여나 고구려가 이러한 고조선의 소를 활용한 점복을 계승함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고조선에서의 소는 식육재나 농우를 포함한 역축 외에 제례나 점복으로 쓰였음이 확인된다.

삼한에서도 소의 이용이 문헌과 고고자료로 확인되는데, 문헌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1. 마한 사람들은 농사와 양잠을 할 줄을 알며, …金·보화·비단·모직물 등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牛·馬를 탈 줄을 모르고, 오직 구슬을 귀중히 여겨서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한다.²⁷⁾

소나 말을 탈 줄 모르기 때문에 소나 말은 모두 장례용으로 써버린다.²⁸⁾

(가)-2. 辰韓은…토질이 비옥하여 5곡이 잘 자라며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꿀 줄을 알고 비단과 베를 짠다. 소나 말을 타고 다니며 혼인은 예의에 맞게 한다.²⁹⁾

[并辰의] 土地는 비옥하여 五穀과 벼를 심기에 적합하다.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기를 알아 비단과 베를 짤 줄 알았으며, 소와 말을 탈 줄 알았다.³⁰⁾

(가)-3. 마한의 서쪽 바다의 섬 위에 州胡國이 있다.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며, 배를 타고 왕래하면서 韓의 國中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³¹⁾

州胡가 馬韓의 서쪽 바다 가운데의 큰 섬에 있다.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³²⁾

인용문(가)-1은 마한에 대한 내용으로 牛馬를 탈것으로 활용하지 않는 측면을 말하며, 장송의례용 공헌물 또는 부장품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농업을 조력하는 농우로써 소의 기능은 문헌을 통해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농사를 할 줄 안다는 내용 통해 소가 여전히 농우로써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인용문(가)-2에서 진한과 변한 관련해 언급되는 牛馬를 ‘乘駕’ 했다고 하는데 ‘駕’에는 멍에라는 뜻³³⁾이 있다. 멍에는 수레나 가마를 끄는 것 외에도 쟁기 등을 끌기 위해 쓰이므로 소는 수레 외에도 쟁기를 끄는 농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상남도 김해 회현리 패총에서 확인

26) 은화수, 앞의 글, 14쪽 표1 참조.

27) 『後漢書』卷85, 「東夷列傳」第75 韓傳, “馬韓人知田蠶, …不貴金寶錦綢, 不知騎乘牛馬, 唯重嬰珠, 以綴衣爲飾, 及縣頸垂耳.”

28)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第30 韓傳, “不知乘牛馬, 牛馬盡於送死.”

29) 『後漢書』卷85, 「東夷列傳」第75 韓傳, “辰韓, …土地肥美, 宜五穀. 知蠶桑, 作縑布. 乘駕牛馬. 嫁娶以禮.”

30)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第30 韓傳,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縑布, 乘駕牛馬.”

31) 『後漢書』卷85, 「東夷列傳」第75 韓傳, “好養牛豕, 乘船往來貨市韓中.”

32)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第30 韓傳, “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好養牛及豬.”

33) 『說文解字』卷11, 「馬部」, “馬在軛中.”



된 소의 하악골에서 특이한 마모 양상이 확인되는데 마치 봉상의 것을 이빨 사이에 끼워 지속적으로 갉은 것과 같은 형태의 마모가 보인다고 했다.³⁴⁾ 이러한 동물유체 및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진한이나 변한 지역에서 소가 농우로 쓰였을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인용문(가)-3은 주호국인들이 소와 돼지를 사육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소와 말이 아닌 소와 돼지가 함께 언급되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소가 돼지와 같은 역할, 즉 식재료로 기능함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함부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호국에서의 소 사육이 어떤 기능을 위한 것인지는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선사시대부터 소의 유체가 확인된 제주도에서의 소의 이용은 여러 발굴유물을 통해 알려졌다. 특히,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편년되는 광지패총에서 발굴된 소뼈는 주호국 사람들이 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광지유적에서 소의 유체는 높은 출토비율을 보이며, 광지리 2030번지 유적의 경우 사슴이나 돼지보다 소가 더 많이 확인되기도 한다. 게다가 출토된 유체에서 부위별로 여러 해체흔이 보이는데 이것으로 당시 광지인들은 소를 역축으로 쓰기보다 식육재로 썼음을 이해할 수 있다(〈그림3〉³⁵⁾,〈그림4〉³⁶⁾참조).³⁷⁾

〈그림 3〉 광지유적 출토 소발등뼈 흔적



〈사진 4〉 소 발등뼈에 나타난 자른 자국

〈그림 4〉 광지유적 출토 소손등뼈 흔적



〈사진 5〉 소 손등뼈에 나타난 자른 자국

이런 점을 주호국의 기록과 비교한다면, 주호국 사람들이 소, 돼지를 기르기 좋아한 까닭에는 농우나 역축으로의 쓰임새보다 식육재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그들의 음식풍속에 육류를 활용한 음식이 풍부했으리란 것을 이해할 수 있다.³⁸⁾

34) 김현석, 「김해패총 출토 자연유물에 대하여」, 『김해회현리패총』, 국립김해박물관, 2014, 163쪽~164쪽.

35) 조태섭, 앞의 글, 2017, 122쪽 〈사진4〉 재인용.

36) 위의 글, 123쪽 〈사진5〉 재인용.

37) 위의 글, 113쪽~120쪽~124쪽.

38) 제주도 신석기 시대와 관련하여 이른 시기부터 수렵과 채집생활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최종혁,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 생업연구-제주도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문물연구』 37, 동아문화재단, 2020, 6쪽~13쪽)이나 제주도에서는 상시적인 물부족 현상 때문에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그리 성행하지 않았다는 점(김민구·권경숙,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석기조성과 생업경제-호남지역과의 비교-」, 『호남고고학보』 36, 호남고고학회, 2010, 76쪽~77쪽)이 고대 제주도의 농우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2) 고대국가에서의 소 사용 실재와 사회경제적 양상³⁹⁾

(1) 고구려에서의 소

고대 국가 중에서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 고구려와 관련된 소 사용과 그 사회경제적 맥락을 살펴보기 위한 문헌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때 부여와 예, 옥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이며⁴⁰⁾, 고조선의 옛 지역 위에 예, 옥저와 함께 세워졌고⁴¹⁾, 이후 예와 옥저를 병합⁴²⁾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고구려에 포함시켜 알아보고자 한다. 자료의 제시는 금석문, 국내사료, 국외사료 순서이다.

(나) 고구려

(나)-1. 영락5년(395) 을미년으로 왕은 패려가 조공하지 않기 때문에 몸소 토벌에 나섰다. 부산을 넘어 산을 등지고 염수에 이르러 패려의 부락 6~7백영을 부수고 소와 말, 양떼를 헤아릴 수 없이 노획했다. 그곳에서 돌아오면서 양평도를 거쳐 동으로 왔다.⁴³⁾

(나)-2. (408)무덤을 만드는데 만명의 공력이 들었고, 날마다 소와 양을 잡아서 술과 고기, 쌀은 먹지 못할 정도다.⁴⁴⁾

(나)-3. 고국양왕 3년(386) 겨울에 복숭아와 오얏 꽃이 피고, 소가 말을 낳아 다리가 8개이고 꼬리가 2개다.⁴⁵⁾

(나)-4. 보장왕 4년(645) 획득한 말이 5만 필과 소가 5만 두와 明光鎧 1만 벌이고 다른 기계도 그 정도였다.⁴⁶⁾

39) 문헌기록에서 살필 수 있는 각종 소(牛) 관련 지명은 고찰에서 제외한다.

40) 『後漢書』卷85, 「東夷列傳」第75 高句麗傳, “東夷들이 서로 傳하여 오기를 [高句麗는] 夫餘의 別種이라 한다(東夷相傳以爲夫餘別種).”

41) 『後漢書』卷85, 「東夷列傳」第75 濊傳, “예 및 옥저·고구려는 본디 모두가 [옛]朝鮮의 지역이다(濊及沃沮句麗, 本皆朝鮮之地也).”

42) 박유미, 『고구려 음식문화사』, 학연문화사, 2017, 41쪽~43쪽.

43) 광개토대왕비釋文 1면, “永樂五年(395), 歲在乙未, 王以碑麗不歸口人, 躬率往討, 過富山負山, 至鹽水上, 破其三部(族), 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于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

44) 덕흥리고분 묘지명, “造穢萬功日煞牛羊酒 米粢不可盡掃旦食鹽豉食一棣記.”

45)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第6 故國壤王條, “三年冬十月, 桃李華, 牛生馬八足二尾.”

46)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第9 寶臧王條 : 『唐會要』卷95, 高句麗, 貞觀十九年(645)四月, “四年(645)…獲馬五萬匹·牛五萬頭·明光鎧萬領, 它器械稱是.”

이러한 내용과 유사한 사료로 『新唐書』卷220, 「東夷列傳」第145 高句麗傳, “소와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는다. …男建이 군사 5만으로 扶餘[城]을 습격하자, [李]勣은 薩賀水 위에서 그를 쳐부수어 5千級의 머리를 베고, 3만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器械와 소와 말도 이에 맞먹었다. 진격하여 大行城을 탈취하였다(殺牛馬者沒爲奴婢…男建以兵五萬襲扶餘, 勣破之薩賀水上, 斬首五千級, 俘口三萬, 器械牛馬稱之. 進拔大行城.).” ; 『通典』卷186, 「邊防 東夷」第2-下 高句麗傳, “가축에는 소와 돼지가 있다. …노획물은 말이 5만필, 소가 5만두, 甲이 1만벌이다(畜有牛豕…(645)獲馬五萬匹, 牛五萬頭, 甲一萬領.).” ; 『太平實字記』卷173, 「四夷 東夷」第2-2 高句麗國傳, “소와 말이 피했다…가축에는 소와 돼지가 있다. …말갈인 3천인을 구덩이에 묻었다. 획득한 말은 5만필, 소는 5만두, 갑은 1만개이다(牛馬避之…畜有牛豕…獲馬五萬匹, 牛五萬頭, 甲一萬領.).” ; 『冊府元龜』卷126, 「帝王部」第126 納降條, “말갈인 3천



(나)-5. 이에 값비싼 팔찌를 팔고 농지와 집, 노비 및 소와 말 그리고 그릇붙이를 구입하여 살림 살이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갖추었다.⁴⁷⁾

(나)-6. ㉠소와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는다.···㉡노획물은 말이 3만필, 소가 5만두, 명광갑이 5천벌이고, 기타의 器械들도 이에 맞먹었다.⁴⁸⁾

(나)-7. 고려에서 전하길···주몽의 신부를 맞이하고 날마다 소를 죽여 제사를 지냈다.⁴⁹⁾

(나)-8.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동맹이라고 한다. 군사 일에도 또한 그때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소를 죽여 발굽을 보고 길흉을 점친다.⁵⁰⁾

(나)-9. 이 해 日鷹吉士가 高麗로부터 돌아와 工匠 須流枳·奴流枳 등을 바치니, 지금의 大倭國 山邊郡 額田邑의 熟皮高麗가 그 후예이다.⁵¹⁾

(다) 부여·옥저에

(다)-1. ㉠六畜의 이름으로 관명을 지어 馬加·牛加·豬加·狗加 등이 있다.···㉡친정집에서 [그 부인의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내어준다.···㉢전쟁을 하게 되면 그 때에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가지고 吉·凶을 점친다.⁵²⁾

(다)-2. 양방《五經鉤沉》에서 이르길, 동이의 사람은 소뿔로 점을 친다고 한다.⁵³⁾

(다)-3. 소나 말이 적다.⁵⁴⁾

(다)-4. 대가는 고려 관명으로 소위 마가, 우가, 구가와 같은 것이다.⁵⁵⁾

(다)-5.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벌로 生口와 소·말을 부과하는데, 이를 ‘責禍’라 한다.⁵⁶⁾

3백인, 구덩이에 파묻어 죽였다. 말은 5만필 획득하고 소는 5만두, 광명갑은 1만개를 얻었다(收靺鞨三千三百人, 盡坑殺之, 獲馬五萬匹, 牛五萬頭, 光明甲一萬領).”

47) 『三國史記』 卷45, 「列傳」第5 溫達條, “乃賣金釧, 買得田宅·奴婢·牛馬·器物·資用完具.”

48) 『舊唐書』 卷199, 「東夷列傳」第149 高句麗傳 : 『新唐書』 卷220, 「東夷列傳」第145 高句麗傳, “殺牛馬者, 沒身爲奴婢.···獲馬三萬匹·牛五萬頭·明光甲五千領, 他器械稱是.”

49) 『冊府元龜』 卷369, 「將帥部」第30 攻取條, “高麗云···進朱蒙爲婦, 日槌牛以祭之.”

50) 『太平御覽』 卷783, 「四夷部 東夷」第4-4 高句麗條 : 『翰苑』, 「蕃夷部」高麗, “祭天, 名曰東盟. 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 以占吉凶.”

51) 『日本書紀』 卷15, 「億計天皇 仁賢天皇」6年條, “是歲 日鷹吉士 還自高麗 獻工匠須流枳奴流枳等 今大倭國山邊郡額田邑熟皮高麗 是其後也.”

52)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第30 夫餘傳 : 『後漢書』 卷85, 「東夷列傳」第75 夫餘傳 : 『晉書』 卷97, 「東夷列傳」第67 夫餘傳 : 『通典』 卷185, 「邊防 東夷」第1-上 夫餘傳 : 『冊府元龜』 卷959, 「外臣部 土風」第4-1 : 『冊府元龜』 卷962, 「外臣部 官號」第7 : 『太平御覽』 卷726, 「方術部 牛蹄卜」第7 : 『太平御覽』 卷781, 「四夷部 東夷」第2-2 夫餘傳 : 『翰苑』, 「蕃夷部」夫餘, “有馬加·牛加·豬加·狗加·大使·大使者·使者···女家欲得, 輸牛馬乃與之···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以占吉凶.”

53) 『太平御覽』 卷899, 「獸部 牛」第11-中, “楊方 五經鉤沉曰, 東夷之人以牛骨占事.”

54)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第30 東沃沮傳 : 『冊府元龜』 卷959, 「外臣部 土風」第4-1 東沃沮傳 : 『太平御覽』 卷784, 「四夷部 東夷」第5-5 沃沮傳, “少牛馬.”

55) 『太平寰宇記』 卷175, 「四夷 東夷」第4-4 東沃沮傳, “大加高麗官號, 所謂馬加·牛加·狗加.” ; 『通典』 卷186, 「邊防 東夷」第2-下 東沃沮傳, “또한 대가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는데, [대가는 고구려 관호로 소위 마가, 우가, 양가 구가라고 부른다] 그 지역에 따라 크고 작음이 있다(又使大加統之, [大加, 句麗官號, 所謂有馬·牛·羊·狗加] 其所部有大小).”



이러한 내용을 통해 고구려인들은 소를 크게 음식, 생활용품, 제사 및 점복, 재물 및 재화, 전리품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음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용문 (나)-2, 덕흥리 고분 묘주인 鎭의 묘지명에 소와 양을 잡아먹는다고 기록된 내용이다. 묘지명에까지 소를 일상적으로 먹었음을 기록한 것은 고대에 소를 식육재로 소비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겨지는데, 이러한 소를 음식화할 수 있는 계층은 주로 부유한 귀족계층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묘주인 진이 소를 잡아먹는다고 언급한 것은 소를 음식화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고구려 사회에서 소가 값진 가축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용문(나)-2를 통해, 고구려에서는 소를 식육재로 사용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의 소비가 지위나 신분, 부의 과시를 드러내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의 소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여겨지는데 그 내용은 (나)-5에서 확인된다. 이것은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가서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인 농지 마련 및 농사를 짓는데 보탬이 되거나 수레를 끄는 데에 쓰일 수 있는 소를 장만한 내용이다. 그 외에도 그릇붙이, 노비, 무예를 수련하고 전공을 쌓는데 조력할 말을 구비하는 것이 이와 관련되었다. 이때의 소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자 사회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기능을 수행할 역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용문(나)-7과 (나)-8은 제사 및 점복에 소가 활용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점복에 사용되는 소의 경우, 특수한 부위 뼈를 활용하여 앞날의 길흉을 예견하면, 나머지 부분은 점복의식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으며, 부패하기 전에 이를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소와 같은 가축을 도살 후 그냥 폐기하는 일은 별로 없으므로 이를 활용해 제수음식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부여에서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소를 잡아서 소뼈, 발굽으로 점을 친다고 했으므로(인용문(나)-1. ㉔, 인용문(나)-2) 제사 및 점복 후에 소를 제수음식으로 만들어 共食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사 및 점복 후의 소고기 共食 경험은 신비한 의식을 함께 치르고, 특별한 음식을 함께 맛보면서 경험하는 공감각을 통해 참여자들이 느낄 수 있는 소속감이나 동질감을 갖게 하는 데에 기여하여 집단의 응집력을 강하게 해준다. 점복이나 제사를 통해 고구려인들과 부여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길흉을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의식을 치른 후 공고해지는 집단의 결속과 정체성 고취라는 효과를 얻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집안에 위치한 태왕릉 1호 배장묘에서 여러 동물뼈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 소도 포함되어 있어 고구려 제사에 소가 쓰인 고고학적 정황이 확인된다.⁵⁷⁾

그러나 고구려에서 소는 천제를 지내는 데에는 희생물로 쓰이지 않았다. 고구려인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주로 사슴이나 돼지를 썼기 때문이다. 이는 유리왕조의 내용⁵⁸⁾이나

56)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第30 藏傳 : 『後漢書』 卷85, 「東夷列傳」第75 藏傳 : 『通典』 卷185, 「邊防 東夷」第1-上 藏傳 : 『太平實字記』 卷172, 「四夷 東夷」第1-1 藏國傳 : 『冊府元龜』 卷959, 「外臣部 土風」第4-1 東沃沮傳 : 『太平御覽』 卷780, 「四夷部 東夷」第1-1 藏貊傳, “輒相罰責生口牛馬, 名之爲責禍.”

57) 김현희, 앞의 글, 2017, 70쪽.



산상왕조의 기록⁵⁹⁾, 사냥대회의 기록⁶⁰⁾ 등을 통해 확인된다. 이를 통해 고구려에서 소는 사회경제적으로 농업이나 여러 역축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가축이지만 제례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돼지 및 사슴보다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소가 고구려에서 재화로서 쓰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인용문은 (나)-6. ㉠으로 소와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소와 말이 고구려인들에게 재산이었으며 이를 훼손하는 것은 일종의 재물손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고 배상하는 방안으로 죄 지은 자를 노비가 되게 한 것이다. 이는 부여나 예에서도 확인되는데 (타)-1. ㉠은 부여의 경우로 투기한 부인을 죽였을 때 그 부인의 집안에서 시신을 가져가려면 소와 말로서 배상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의 소와 말이 교환되는 가치를 지닌 재화로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의 경우도 비슷하여, 인용문(타)-5는 타 부락을 함부로 침범했을 때 그 배상으로 소와 말을 내어줘야 했다. 이처럼 부여나 예에서 소가 높은 가치를 지닌 재화로서 활용되는 이유를 인용문 (타)-1.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여에서는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삼고 있었고 옥저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부여는 오곡이 자라기 적당한 곳이며, 그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 때문에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했으므로⁶¹⁾ 농사가 부여의 주요한 생산경제로서 큰 위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곡물 생산과 증산에 영향을 미치는 농우로서 소의 존재는 중요하였고, 소가 수행할 수 있는 역축, 식량, 제사 및 점복 기능을 살펴봐도 사회경제적으로 소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비단 부여뿐만 아니라 고구려나 옥저, 예에서도 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 오희분 5호묘에 그려진 소 머리를 한 농사의 신이 벼 이삭을 쥐고 있는 것(<그림5>⁶²⁾)을 비롯하여 교통수단으로써의 소(<그림6>⁶³⁾), 장송의례에 쓰이는 소 그림(<그림7>⁶⁴⁾) 등은 고구려나

58)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第1 琉璃王條, “19년 가을 8월에 郊祀에 쓸 돼지[郊豕]가 달아나자 왕이 託利와 斯卑에게 이를 쫓게 하였다. [그들은] 長屋澤 가운데에 이르러 이를 찾아내어 칼로 그 다리의 힘줄을 끊었다. 왕이 그것을 듣고 화내며 말하기를, 하늘에 제사지낼 희생을 어찌 상하게 할 수 있느냐며, 결국 두 사람을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 죽였다(十九年, 秋八月, 郊豕逸, 王使託利·斯卑追之. 至長屋澤中得之, 以刀斷其脚筋. 王聞之怒曰, “祭天之牲, 豈可傷也.” 遂投二人坑中, 殺之.).”

59) 『三國史記』 卷16, 「高句麗本紀」第4 山上王條, “12년(208) 겨울 11월에 하늘에 제사지낼 돼지[郊豕]가 달아났다(十二年, 冬十一月, 郊豕逸).”

60) 『三國史記』 卷45, 「列傳」第5 溫達條, “고구려에서는 매년 봄 3월 3일마다 樂浪의 언덕에 모여 사냥하였는데, 잡은 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高句麗常以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以所獲猪鹿, 祭天及山川神.).”

61)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第30 夫餘傳, “土地宜五穀, …舊夫餘俗, 水旱不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或言當易, 或言當殺. 麻余死, 其子依慮年六歲, 立以爲王.”

62) 조선화보사출판부,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5, 도판 229 참조.

63) 위의 책, 도판 85번 참조.

64) 평양시 삼석구역 노산동 대성산 기슭에 위치한 개마총 널방 천장 동측 1층 평행고임 측면의 그림에는 뿔이 날카롭게 선 황소 한 마리가 서 있고 그 앞으로 사람의 머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일부 남겨져 있는데 황소 코뚜레와 연결된 외줄이 앞의 인물 쪽으로 늘어져 있어 앞의 인물이 소를 끌고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널방 찬장고임 1층에 그려진 장송행렬과 같은 공간에 그려졌음을 감안할 때 장송의례에 사용될 희생용 소일 가능성이 높다(국립중앙박물관, 『고구려벽화무덤』, 국립중앙박물관,



부여, 옥저, 예에서 소가 갖는 사회 및 경제적 위상이나 유용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림 5〉 오희분 5호묘 벼이삭을 들고 있는
소머리 신



〈그림 6〉 덕흥리고분 牛車



〈그림 7〉 개마총 소 그림1916년 유리원판 사진과 모사도



또한 전쟁의 승패 결정 이후 소는 전리품으로써 활용된다. 인용문(나)-1은 광개토왕의 전쟁 승리 후 소와 말, 양떼의 획득을 알려주고 있으며, 인용문(나)-4와 (나)-5. ㉠은 고구려인들이 가져간 전리품은 아니지만 소 등이 전쟁 이후 승전한 군인들에게 획득되어 전리품으로써 기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때 전리품으로써 노획된 소가 각각 5만두로 문헌에 나타나는데 이는 고구려에서의 소 사육이 상당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 외에 고구려, 부여 등의 관련기록에서 소가 활용되었지만 분류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으로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을 기록한 인용문(나)-3과 일본에서 소가죽 등을 만드는 수공업자 집단인 ‘熟皮高麗’가 고구려에서 비롯되었음⁶⁵⁾을 알려주는 기록인 인용문(나)-9이다. 특히 인용문(나)-9는 고기 외에 소에게서 얻을 수 있는 부산물 중 가죽의 이용을 고구려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를 통해 고구려에서는 소가죽 등을 활용한 여러 피혁 공예품을 잘 만드는 장인계층이 존재했고, 이러한 장인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가죽을 다루는 수공업자 집단 형성에 영향을 줬음을 이해할 수 있다.

2006, 158쪽 도판 99번).

65) 국사편찬위원회, 『일본서기』 卷15 웹서비스, 「億計天皇 仁賢天皇」6年條 註2번 참조 : <http://db.history.go.kr/> (2021.04.20.).



(2) 백제에서의 소

백제에서 소 관련 쓰임의 정황을 살필 수 있는 문헌과 문자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1. 온조왕 25년(7) 봄 2월에 왕궁의 우물물이 갑자기 넘치고, 漢城의 민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몸은 둘이었다.⁶⁶⁾

(라)-2. 丁- 소 한마리⁶⁷⁾

인용문(라)-1은 이변에 대한 일을 기록한 것이나 한성의 ‘민가’에서 소를 사육한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 인용문(라)-2의 경우 나주 북암리에서 출토된 목간에 나오는 내용으로 6세기~7세기경 당해 촌 소속의 호주, 호구 및 가축 등의 실태를 파악한 문서 목간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백제에서의 소 문헌 및 문자기록은 고구려에 비해 많지 않으나 백제 권역에서는 다양한 소의 유체가 발굴되어 그 관련 내용으로 백제에서의 소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한성백제기 대표적 유적지인 풍납토성에서는 소와 관련된 여러 쓰임새가 나타난다. 풍납토성 9호, 46호에서 소의 유체가 발굴되었는데, 특히 101호 유구에서 출토된 소의 유체는 말이나 멧돼지, 사슴 등의 다른 어떤 동물 유체보다 많았다. 여기서는 소가 전체 동물유체의 65%에 달하여 가장 많이 확인되었으나 그에 비해 9호나 46호의 경우 발굴된 소의 유체가 주로 두개골과 하악골이라는 것이 특징이다.⁶⁸⁾ 또한 풍납토성 9호 유구의 경우, 소 외에도 다수의 말 머리가 함께 발굴되었다. 이를 통해 9호 유구를 제사유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백제에서 소나 말을 제례에 활용할 때, 전체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절단한 후 바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신체 중 머리가 주는 의미나 상징 때문일 수도 있고, 동물을 공헌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재화의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동물을 바치면서도 그 결손을 비교적 적게 할 수 있는 부위인 머리를 바치고 나머지 부위를 제례음식으로 활용한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후 풍납토성 경당지구 재발굴조사를 통해 223호, 228호 유구에서도 소의 유존체가 확인되었다. 특히 223호의 소뼈는 상악골, 하악골, 대퇴골, 경골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는데 이와 같이 일부분이 아닌 소의 여러 부위가 함께 발굴된 101호, 223호 유구에서의 소 유체는 출토 정황이나 부위별 비율을 볼 때, 육류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뒤 불필요한 부분을 폐기한 결과가 유적에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⁶⁹⁾ 이로써 한성백제기 백

66)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第1 溫祚王條, “二十五年, 春二月, 王宮井水暴溢, 漢城人家馬, 生牛一首二身.”

67) 김성범, 「나주 북암리 목간의 판독과 의미」, 『목간과 문자』 5, 한국목간학회, 2010, 164쪽 목간5 판독문.

68) 김건수·양나래, 「풍납토성 경당지구 출토 동물뼈에 대한 분석」, 『풍납토성』 VI, 국립문화재연구소·한신대학교박물관, 2005, 143쪽~146쪽.

69) 이준정·김은영, 「경당지구 재발굴조사에서 검출된 동물유존체 분석 결과」, 『풍납토성』 XII, 한성백제박물관·한신대학교 박물관, 2011, 105쪽~108쪽.



제인들은 소를 보편적으로 길렀으며, 백제인들의 육류음식생활 중 가축에서 소가 음식화된 비중을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를 사육할 때 그 먹이로 여러 잡곡의 부산물을 제공하였다는 것도 소 유존체 분석을 통해 알아냈다.⁷⁰⁾ 이는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먹이 위상이 남다른 것으로 소 등의 가축 사육이 발달하기 위해서 농사도 동반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먹이사슬로서 드러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문(倭)-1에서처럼 한성 민가에서 소나 말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은 백제 건국 초기부터 상당한 곡물의 생산은 물론 이것을 바탕으로 한 소 등의 가축사육이 보편화되었음을 나타내주는 동시에 소를 활용한 생활양상이 백제인들에게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백제기 제사 유적인 9호 유구 같은 경우 소가 아니라 말을 제례 희생물로 썼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성이 아닌 다른 백제 권역에서도 소와 관련된 유체는 다양하게 출토된다. 제사 유적이거나 고분, 저습지 등에서 여러 소의 유체를 살필 수 있다. 이때, 특징적인 것은 풍납토성에서 소로 제례를 지낸 흔적이 몇몇 발견되지만 실제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말이 주로 백제 제사유적과 관련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비로 백제가 천도한 이후 제사 유구에서는 말보다 소가 주로 출토된다는 보고가 있어 주목된다. 궁남지 유적과 관북리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 자료 중 소 유체 출토량이 가장 많다는 점은 당시의 일반적인 생계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⁷¹⁾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슴이나 돼지의 쓰임이 많고 그 유체가 다량으로 출토되기 때문이다. 소를 먹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사의 희생물로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을 중심으로 제사 제물을 사용했던 이전시기와는 다른 양상인 것이다. 이렇게 6~7세기에 들어서서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사비시기 백제에서 소가 갖는 사회경제적 위상이 남달랐기 때문으로 파악되는데⁷²⁾, 그 이유는 백제의 도읍 천도와의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의 수도는 본래 한성이지만 개로왕 때 고구려에게 한성을 빼앗긴 후 웅진(공주)으로의 천도한다.⁷³⁾ 이후 내정불안에 시달리던 백제는 다시 성왕 16년인 538년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긴다.⁷⁴⁾ 이러한 천도로 인해 백제의 중심지는 한반도 중남부로 이동하게 되고 최대 곡창지대인 전남지역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백제의 전남지역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즉, 사비천도 이후인 6세기 중반 경에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토착세력들이 백제로 편입되게 된 것이다.⁷⁵⁾ 그런 지역 세력 중에 나주 복암리 집단도 포함되게 되는데 이 지역은 곡물생산뿐만 아니라 철기생산의 중요한 요지였기 때문에 이들을 백제 지배력 하에 두는 것은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더불어 전쟁 및 필수

70) 최현구·신지영·한지선, 앞의 글, 2016, 185쪽~186쪽.

71) 이준장·고은별, 「부여 궁남지·관북리 유적 출토 동물자료」, 『궁남지Ⅲ』, 2007, 202쪽~203쪽.

72) 고은별, 앞의 글, 2020, 63쪽

73)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第4 文周王條, “冬十月, 移都於熊津.”

74)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第4 聖王條, “十六年, 春, 移都於泗泚, 國號南扶餘.”

75) 최미경, 「사비시기 백제의 영산강 유역 지배와 남방성」, 『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504쪽.



물자 확보라는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⁷⁶⁾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이들 토착세력들을 대립보다는 교류를 통해 흡수하려 했을 것이고 이들이 갖는 문화적 요소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려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징이나 의미를 갖는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등의 유화적 입장을 보였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점이 사비시기 백제에서 소가 갖는 의미나 상징을 재규정하게 되어 이전시기보다 소를 여러 의식에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졌으리라 추측된다.

이때 주목되는 소 유체는 6세기에서 7세기 경으로 파악되는 나주 북암리에서 출토된 소뼈이다. 분절되긴 했지만 거의 통째로 나왔다(<그림>877, <그림>978). 이것은 제의 의식에 의해 동물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⁷⁹⁾ 소뼈가 출토된 곳은 슬래그, 도가니 등이 발견된 제철관련 유적이어서 그 내용이 더욱 주목된다. 대체로 소가 절단되어 부분 발견되는 다른 유구에 비해 이와 같이 소 1마리분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소가 갖는 의미나 상징이 상당했음을 나타내준다.

더군다나 해당지역이 옛 마한의 땅이란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인용문(가)-1에서와 같이 소, 말을 장례용으로 쓰는 전통이 유지되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장송의례는 사람만이 아니라 중요한 성격을 지니는 장소의 폐쇄나 폐기에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주 북암리 고분 1호~3호분에서 각각 확인되는 부분적인 말의 유체, 소 1두의 유체는 의미가 남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표 2>는 호남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동물유체 중 소와 관련된 유적을 정리한 것이다. 소가 갖는 장송의례적 의미가 상당함을 고분출토 유체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표 2〉 호남지역 고분 동물유체 출토표⁸⁰⁾

유적명	시기	출토동물과 부위
광주 선암동유적 2호	6세기	소 상/하악골
광주 행림유적	6세기 전반	소 치아
나주 북암리고분 1호	5세기말~6세기	소(1두)
나주 북암리고분 2호	6세기 중후반	소(1두)
함평 표산고분	6세기 초반	소 치아
영암 자라봉 공분	5세기말	소(4두)
신안 상서고분	6세기 중반	소 치아

76) 최미경, 앞의 글, 478쪽.

77) 김건수, 「나주 북암리유적 출토 자연유물」, 『나주 북암리유적 I』 (1~3차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2010, 106쪽 사진4 재인용.

78) 이정민·박영환·윤혜성·함철화·권혁남, 앞의 글, 76쪽 Fig 1 참조.

79) 강소영·조은민·김수훈·김윤지, 「나주 북암리유적 출토 동물뼈의 생물·화학적 분석」, 『나주 북암리유적 II 4~6차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2013, 510쪽~511쪽

80) 김건수, 앞의 글, 2016, 표1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8〉 나주 복암리 1호분 출토 소 유체 〈그림 9〉 나주 복암리 2호분 출토 소 유체



(3) 신라에서의 소

신라에서의 소가 갖는 사회경제적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인용문은 삼국시대 금석문, 국내사료, 국외사료, 남북국시대 금석문으로 배치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한다.

- (마)-1. (503)이 7인이 무릎을 꿇고 보고한 일을 마치고 소를 잡아 널리 알리었기에 이에 기록한다.⁸¹⁾
- (마)-2. (524)신라의 6부는 얼룩소를 죽여 몸을 정갈히 씻고 아뢴다.⁸²⁾
- (마)-3. 파사 이사금 5년(84) 여름 5월에 古陞郡主가 靑牛를 바쳤다.⁸³⁾
- (마)-4. 눌지 마립간 22년(438) 여름 4월 백성들에게 牛車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⁸⁴⁾
- (마)-5. 지증 마립간 3년(502) 3월에 州主와 郡主에게 각각 명하여 농사를 권장하게 하고, 처음으로 소를 부려 논밭을 갈았다.⁸⁵⁾
- (마)-6. 문무왕 2년(662) 6일에…蘇定方에게 銀 5,700푼(分), 가늘게 짠 베 30필, 머리카락 30냥(兩), 牛黃 19냥을 주었다.⁸⁶⁾

81) 〈포항 냉수리 신라비〉, “此七人, 張踪所白了事, 煞牛拔誥故記.”

82) 〈울진 봉평리 신라비〉, “新羅六部, 煞斑牛謂沐.”

83)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第1 婆娑 尼師今條, “夏五月, 古陞郡主獻靑牛.”

84)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第3 訥祗 麻立干條, “教民牛車之法.”

85)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第4 智證 麻立干條, “三月, 分命州郡主勸農, 始用牛耕.”

86)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第6 文武王條, “贈定方以銀五千七百分, 細布三十四, 頭髮三十兩, 牛黃十九兩.”

위의 내용 외에도 우황에 대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삼국사기』에서 확인된다.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第7 文武王條, “牛黃 1백 2십 푼(牛黃百二十分).” ;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第8 聖德王條, “여름 4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 果下馬1필, 牛黃, …등을 바쳤다(夏四月, 遣使入唐, 獻果下馬一匹·牛黃…等).” ;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第8 聖德王條, “바친 牛黃과 金銀 등의 물품은 표문을 살펴보니 잘 갖추어졌다(所進牛黃及金銀等物, 省表具之).” ;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마)-7. 12월 寅日에는 新城 북문에서 八槽에 제사지내는데, 豐年일 때에는 大牢를 쓰고 凶年일 때에는 小牢를 쓴다.⁸⁷⁾

(마)-8. 4두품…신발은 牛皮과 麻 이하를 사용한다.⁸⁸⁾

(마)-9. 4두품에서 백성까지…안장 밑갈개는 소와 말의 가죽을 사용한다.⁸⁹⁾

(마)-10. 그 곁으로 한 늙은이가 암소를 끌고 지나가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 그 꽃을 꺾어와 또한 가사를 지어 바쳤다. 그 늙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⁹⁰⁾

(마)-11. 토지는 비옥하여 五穀을 심기에 적합하다. 뽕나무와 삼이 많아 비단과 베를 생산한다. 소는 수레를 끌리고 말은 탄다.⁹¹⁾

(마)-12. 宰相의 집에는 祿이 끊어지지 않으며, 奴婢가 3천명이나 되고, 甲兵과 牛·馬·돼지도 이 에 맞먹는다. 가축은 海中の 山에 放牧을 하였다가 필요할 때에 활을 쏘아서 잡는다.⁹²⁾

(마)-13. (884)대개 因果의 자취를 쫓아 色相의 마을을 떠났고 큰 소 수레를 올라타 象이 없는 지역에 들어갔다.⁹³⁾

(마)-14. (924)㉠대사가 대답하기를, 牛戴牛라고 이르지만, 값나가는 바는 얼마 안됩니다.…㉡대사는 세간에서 도를 행함에 있어 멀고 가까움과 평탄하고 험준함을 가림이 없었고, 일찍이 말이나 소에게 노고를 대신토록 하지 않았다.⁹⁴⁾

인용문(마)-1과 (마)-2는 6세기 신라 금석문의 내용으로 각각 분쟁을 해결하고 이것을 소를 잡아 널리 알리는 내용 및 죄지은 자를 처벌하고 이를 널리 공표하는 내용이다. 사회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합의하여 해결한 후 이를 소를 죽이고 술을 빚어 제사를 지냄으로써 일의 완료를 천명하였다. 즉, 신라인들은 소로 희생의례를 거행하여 처벌이나 분쟁해결의 완성을 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신라인들은 소로 제사를 지낸 것인가? 그 이유는 소가 신라사회에서 갖는

第9 惠恭王條, “9년 여름 4월 당에 사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고, 금·은·牛黃… 등의 토산물을 바쳤다(九年, 夏四月, 遣使如唐賀正, 獻金銀牛黃…等方物).”; 『舊唐書』 卷199, 「東夷列傳」第149 新羅傳, “8년, 使臣을 보내와 朝覲하고, 아울러 金·銀·牛黃·魚牙紬·朝霞紬 등을 바쳤다(八年, 遣使來朝, 并獻金銀牛黃魚牙紬朝霞紬等).”

87) 『三國史記』 卷32, 「雜志」第1 祭祀條, “十二月寅日, 新城北門祭八槽, 豐年用大牢, 凶年用小牢.”

88) 『三國史記』 卷33, 「雜志」第2 色服條, “四頭品…履用牛皮.”

89) 『三國史記』 卷33, 「雜志」第2 車騎條, “四頭品至百姓…鞍轡用牛馬皮.”

90) 『三國遺事』 卷2, 「紀異」第2 水路夫人條, “傍有老翁牽牝牛而過者, 聞夫人言折其花, 亦作歌詞獻之. 其翁不知何許人也.”

91) 『梁書』 卷54, 「東夷列傳」第48 新羅傳, “土地肥美, 宜植五穀. 多桑麻, 作縑布. 服牛乘馬.”

92) 『新唐書』 卷200, 「東夷列傳」第145 新羅傳, “宰相家不絕祿, 奴僮三千人, 甲兵牛馬猪稱之. 畜牧海中山, 須食乃射.”

93)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 “蓋掃因果之跡, 離色相之鄉, 登大牛之車, 入罔象之域.”

94)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答曰, 謂牛戴牛所直無幾…在世行 無遠近夷險, 未嘗代勞以蹄角.”



위상이 높음을 이유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3에서 5까지의 내용은 각각 특별한 소 진상과 백성들에게 牛車 사용방법 강습, 그리고 농우의 활용에 관련된 내용이다. 먼저 파사 이사금 때에 고타군주가 청우를 바쳤다는 것은 기존의 소 중에서도 개체별로 특출하게 우수한 소나 새로운 특성을 갖춘 소의 발견으로 귀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임금께 진상함을 나타낸다. 흔히 드물게 나타나는 동물이나 그 외양이 나라의 태평성대나 풍요를 예견하거나 담보하는 것처럼 고타군주가 바친 청우도 그런 의미를 나타내거나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대체로 남다른 빛깔을 가진 새나 사슴, 노루, 상서로운 벼이삭 등이 바쳐지는 것에 비해 청우가 『三國史記』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 「新羅本紀」에만 등장한 청우는 신라사회에서 소가 갖는 남다른 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라는 牛車 사용법 학습 권장과 牛耕을 각각 눌지왕과 지증왕 때 이뤘다고 했는데 이는 신라인들이 역축으로써의 소 활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미 진한과 변한시기에 그들은 소와 말을 ‘乘駕’할 줄 알았다. 멩에를 사용하여 가축을 부리는 것을 삼한시대부터 이룬 그들이 소의 활용을 몰라서 가르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새로운 牛車의 도입이나 牛耕 방식을 국가적으로 공식화하고 제도화한 것이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국가적 차원에서 널리 도모하는 이와 같은 일이 소와 관련 있다는 것은 신라 지배층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 사용의 극대화와 효율성의 보편화를 꾀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신라인들의 소와 관련된 내용은 중국 측 기록에도 등장하는데 인용문(㉮)-11와 (㉮)-12는 신라인들의 소 사육과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 인용문(㉮)-11의 경우는 일반적인 신라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인용문(㉮)-12는 부유한 신라 귀족이 소유한 소, 말, 돼지의 숫자가 엄청난 것과 더불어 이들을 방목하여 사육하였음도 알려준다. 노비나 갑병, 가축이 함께 거론된 것은 이것들이 신라 귀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노비는 노동력을 제공할 재화 및 필요할 때 군인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갑병은 그야말로 무력이란 측면에서, 소와 말 등은 식량화가 가능하고 무력을 보조하며 여러 생산성을 보조할 수 있다는 방면에서 귀족의 부와 지위를 담보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가치가 높았을 것이다. 결국 소와 말 등은 신라에서 부유함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가축으로써 기능했다고 보인다.

신라는 소를 국가제사에 사용한다. 이 내용은 인용문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대뢰’, ‘소뢰’는 농사와 관련 있는 제사로써 각각 소, 양, 돼지와 양, 돼지를 의미한다. 결국 대뢰와 소뢰의 차이점은 소의 유무인데 풍년이었을 때 소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경제적 여건상 허락되는 일이었을 테지만 흉년이었을 때에는 소를 쓰지 않는 것은 여건이 어려운 형편상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소를 바치는 것은 모두 앞서서 살펴본대로 ‘殺牛’하는 것이므로 가축이 재산으로 큰 가치를 지니는 당시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를,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려 흉년에 지내는 희생물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렇게 높은 가치를 지닌 소 등을 국가적으로 잘 사육하기 위하여 신라에서는 사료 담당하는 관청을 설치하였는데 그것이 백천목숙전 등⁹⁵⁾과 같은 관아이다. 한편, 신라 제사 관련하여 7세기 이후 신라 제사 제물에 변화가 있다는 점은 유의할 내용이라고 생각된다.⁹⁶⁾

그 밖에 신라 관련 문헌에서 소의 내용이 언급되는 것은 인용문(마)-6과 같이 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약재인 우황이다. 우황은 신라와 당 사이에 건네지는 외교적 방물로 사용되었다. 특이한 점은 고대국가 중에서 신라 관련된 기록에서만 우황의 존재가 확인된다. 인용문(마)-9와 (마)-10의 경우는 신분에 따라 쓰임새가 허락되고 제한되는 재료를 언급하는 내용 중 4두품에서 백성들에게 허용되는 물품 재료들이다. 신발과 안장의 밑갈래 제작하는 데에 허용되는 재료에 소가죽이 포함되었다. 살아있는 소는 재산상의 가치가 높지만 도살된 후 여러 부위별 재료화된 이후의 소가죽은 그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5두품이나 6두품 또는 진골 관련한 기록에서는 대체로 가죽(皮)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 4두품, 혹은 4두품과 일반백성처럼 ‘牛皮’로 규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⁹⁷⁾

한편, 남북국시대의 신라 관련 기록에서 소와 관련된 형이상학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인용문(마)-10, (마)-13, (마)-14. ㉠이 그것이다. 인용문(마)-10은 수로부인 설화인데 이때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암소’의 존재이다. 암소가 의미하는 바가 신적인 존재 또는 풍요나 여성성이란 해석⁹⁸⁾이 있기도 하고, 소를 ‘방목’하는 것이야말로 태평하고도 평화로운 세월을 뜻하는 것⁹⁹⁾이라는 여러 해석이 있다. 이는 신라시대 향가인 헌화가에 담긴 ‘소’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표현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인용문(마)-13와 (마)-14. ㉠은 각각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 탑비>에 나타난 내용이다. 이 중 ‘大牛車’는 『법화경』에 나오는 불교적 표현으로 쓰였고¹⁰⁰⁾ ‘牛載牛’는 길고 흠없이 없는 쇠뿔로서 삼색을 갖추었으며 활을 만드는 재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풀이해 보면 소가 소 한 마리 값을 이었다는 말로서 곧 값어치 있는 인물이나 물건에 비유되는 말이라고 한다.¹⁰¹⁾ 이를 통해 신라시대 문헌 속 소 글자는 가축이란 뜻 외에도 불교적 표현이나 그 유용함에서 파생된 의미가 생겨나게 되어 소가 실제적 생물로서의 가치 외에도 여러 비유적 형상으로써 사용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헌 외에도 신라시대 소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생활거주지, 저습지, 우물 등 유적에서 발굴된 동물유체, 고분에서 발굴된 소뼈, 신라시대 토우, 청

95) 『三國史記』 卷39, 「職官」第8, “白川苜蓿典…漢祇苜蓿典…蚊川苜蓿典…本彼苜蓿典.”

96) 박은애, 「한국 고대의 희생의례」, 『지역과 역사』 29, 부경역사연구소, 2011, 161쪽.

97) 『三國史記』 卷33, 「雜志」第2 色服, “五頭品…履用皮麻.”: “六頭品…履只用皮麻.”: “眞骨大等…履任用皮絲麻.”; 『三國史記』 卷33, 「雜志」第2 車騎條, “五頭品…鞍轡用皮”: “六頭品…鞍轡用皮.”

98) 강등학, 「헌화가의 심층」, 『새국어교육』 33-1, 한국국어교육학회, 1981, 93쪽.

99) 황병익, 「삼국사기 ‘수로부인’조와 <헌화가>의 의미 재론」, 『한국시가연구』 22, 한국시가학회, 2007, 21~23쪽.

10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 금석문,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 註18 참조: <http://db.history.go.kr/> (2021.0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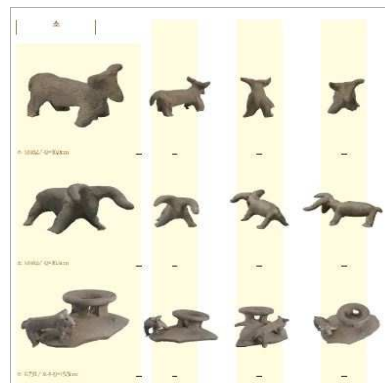
10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 금석문,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註334 참조: <http://db.history.go.kr/> (2021.04.24.)



동 마탁 등에서 확인된다. 소뿔이 출토된 대표적 유적은 진주 중촌리 1~4호 유적으로 척추 갈비뼈 붙은 몸통은 바닥에 놓고 머리뼈는 몸통 위에 다리는 몸통과 나란히 북쪽으로 두었다고 한다. 이것은 먹고 남은 것이 아닌 의도적 제사 유물로 잘 알려져 있다.¹⁰²⁾ 그 밖에도 경주 월성 유적을 비롯하여, 경주 교동 94-3번지 유적 습지, 부산 고촌 유적, 임당 저습지유적 등에서 소 유체가 확인된다. 이들은 대체로 3세기에서 6세기 후반이며 이중 가장 많은 가축 뼈 유체가 출토되는 곳은 경주 월성이었다. 이는 경주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수도가 정치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상도 높았음을 이러한 소를 포함한 가축 뼈 출토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¹⁰³⁾

고분에서 출토되는 소뿔과 관련된 유적은 황남대총을 비롯하여 노서동 131호 고분, 일명 ‘牛塚’ 등이 있다. 황남대총 남분의 봉분에서는 항아리에 여러 동물 유체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 소도 있었으며 그릇 속에서 발견되는 뼈는 조각나 있었다고 한다. 망자를 위한 음식으로 조리한 것을 담았기 때문이다.¹⁰⁴⁾ ‘우총’이라 명명된 노서동 131호 고분은 1929년에 발굴된 곳으로 고분이 평지형태이며, 출토된 유물은 석실내부에서 발굴된 소뿔 외에는 없다. 이 소뿔 출토로 131호가 ‘우총’으로 불리게 되었다.¹⁰⁵⁾

〈그림 10〉 신라시대 토우 중 ‘소’



신라시대 생활상과 정신세계를 사실 그대로 담은 토우도 신라인들의 소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 〈그림 10〉¹⁰⁶⁾은 다양한 신라의 모양의 소 토우이다. 모두 3마리가 빗어졌는데 이 중 오른쪽에 위치하고 뿔이 길게 뻗어진 소가 주목된다. 우리나라 소는 대체로 뿔이 이렇게 길게 앞으로 뻗어져 있지는 않은데 이처럼 곧고 길게 뻗어진 뿔을 갖고 있는 종은 물소라고 한다.¹⁰⁷⁾ 물소는 우리나라에서 구석기시대 및 신석기시대 일부 확인되지만 고대국가 시기에는 없는 종이다. 그런데 신라인들이 신라에서 거의 볼 수

102) 김현희, 앞의 글 2017, 68쪽.

103) 김현석, 앞의 글, 2020, 51쪽~53쪽.

104) 국립중앙박물관,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2010, 52쪽

10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고분 학술조사연구-문화고고자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7, 161쪽.

106) 안경숙, 『신라토우 영원을 꿈꾸다』, 국립중앙박물관, 2009, 144쪽~146쪽.

107) 위의 책, 144쪽.



없었던 물소를, 그 특징적 요소를 잘 반영시킨 토우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당시 신라인들이 물소를 흔히 볼 수 있는 동남아시아와의 직접적 교류를 통해서 물소라는 소를 본 후에 토우를 빚은 것인지, 고구려처럼¹⁰⁸⁾ 중국과의 교류 중 물소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물소가 신라에 들어왔는지 등의 여부를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밖에 신라인들의 소 관련한 유물로 청동마탁(동탁)을 살필 수 있다. 이 청동마탁은 일제강점기 경주 황오리 16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마탁에 새겨진 문자는 ‘宜牛羊’이며, 대구를 이루는 내용은 ‘大富貴’다(〈그림 11〉, 〈그림 12〉참조¹⁰⁹⁾). 부장품으로써의 마탁의 의미는 ‘마탁’이라는 점과 소·양의 글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말과 소, 양은 모두 장송의례나 제례에 쓰이는 희생제물이다. 사거한 무덤주인을 위한 부장품으로써 유의미하며, 또한 무덤의 주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쓴 마탁을 그대로 부장한 것이라면 마탁과 그 명문이 가진 의미는 현생의 삶이 풍요롭고 부유하길 바랬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마탁에는 마탁주인이 생존한 당시든 사거한 후이든 그가 원한 평안과 부귀의 기원이 포함된 것이다. 이를 통해 가축이나 가축으로 상징되는 의미를 물건에 투영한 신라인들이 꿈꾼 소원을 살필 수 있었다.

〈그림 11〉 ‘의우양’ 명문



〈그림 12〉 ‘대부귀’ 명문



이상으로 살펴본 고대국가에서의 소 관련한 양상은 크게 문헌 및 문자 내용과 고고유물로 나눠 정리할 수 있다. 문헌 및 문자내용의 분류는 〈표 3〉과 같다. 이를 통해 고대국가에서 소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식량생산과 음식, 노동력 제공뿐만 아니라 각종 의례와 제사, 생활용품 제작과 구비, 부의 규모를 가늠케하는 재화로 역할하며 각종 상징과 의미, 이변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사람들에게 의미지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108) 『太平御覽』 卷359, 「兵部」第90 障泥條, “소방등 《십삼국춘추》에서 이르길, 고구려가 천리마, 생웅피, 징니를 남연에 보내자 연왕이 크게 기뻐하며 물소, 앵무새로 답하였다(蕭方等三十國春秋曰, 高句驪以千里馬生羆皮障泥, 獻于南燕, 燕王超大悅, 答以水牛能言鳥).”

109)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소장품검색, 일제강점기 황오리 16호분 제3과 출토 동탁 원판번호 320671·320672 사진 참조 : <https://www.museum.go.kr/> (2021.05.12.).



〈표 3〉 고대국가 문헌에 나타난 소의 역할 및 기능 구분

농사	역축	점복, 제사, 희생 제물	생활 용품 및 재료	약재	음식 재료	부장품 및 장송 의례	재물, 재화	상징, 의미	이변
	탈것 수레			우황			선물, 교환물, 전리품	종교, 정치, 경제	
(마)-5.	(가)-2. (마)-11. (마)-14. ㉠	(나)-7. (나)-8. (마)-1. ㉡ (다)-2. (마)-1. (마)-2. (마)-7.	(나)-5. (나)-9. (마)-8. (마)-9.	(마)-6.	(가)-3. (나)-2.	(가)-1.	(나)-1. (나)-4. (나)-6. ㉢ (나)-6. ㉣ (다)-1. ㉤ (다)-5. (라)-2. (마)-4. (마)-12.	(다)-1. ㉥ (다)-4. (마)-3. (마)-13. (마)-14. ㉦	(나)-3. (라)-1.

또한 고고유물로서 살펴볼 수 있는 소 관련한 사회경제적 양상은 ① 특수한 목적의 제사나 점복을 위해 소가 희생물로 활용됨으로써 지역이나 국가의 응집성 고취 및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앞날 예견하기 위한 목적, ② 장송의례를 통하여 죽은 자의 내세를 기원하고 산자를 위로하는 의식, ③ 집단 내부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수행, ④ 부귀, 풍요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여러 기물에 활용 ⑤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음식 식재료로의 사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아주 오래전부터 소를 가축화시켜야 할 동기가 사람들에게 명확했음을 알려주고 점차 사회를 발달시키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에 소가 유용하게 쓰였음을 보여준다.¹¹⁰⁾

4. 결론

가축으로써의 소가 갖는 가치는 명확하다. 소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비롯한 가죽, 뼈, 힘줄, 기름 등의 여러 재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사람들이 소에게서 우유를 얻어 활용한 사례는 적지만 그 외에 소가 제공하는 많은 재료들을 사용한 후 만드는 다양한 음식, 공예품 등은 사람들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가 제공하는 것은 이렇게 고기나 가죽 등과 같은 재료 외에도 深耕의 가능과 사료를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력 및 희생물로서의 기능이다. 이것은 곡물의 소출을 증가시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물질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물건, 사람들

110) 이 글은 고대국가 중 가야와 발해 소의 사회경제적 양상을 문헌이나 고고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여기서 미처 고찰하지 못한 가야와 발해에서의 소와 관련된 여러 실재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을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줌으로써 사회성장과 집단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희생물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를 통해 여러 기상이변이나 지역 정치세력의 변동 및 전란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의식과 의례를 거행할 수 있었다. 이는 집단 구성원들의 불만이나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앞날을 담보하는 결의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고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데에 큰 기능을 하였다.

한편,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 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도 수행하는 역할이 상당했는데 그것은 장송의례의 공헌물 및 부장품으로서의 기능이다. 사후 세계에서든 현생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죽은 이를 위한 물품을 마련하는데 소가 활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소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왔고 일들을 해결했다. 소가 사람과 사회에 기여한 것은 어떻게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와 삶에 그 흔적이 남으므로 선사시대를 거쳐 고대국가시대에는 그런 흔적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의미나 비유로 자리하게 되고 상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교가 수용된 이후 불교적 의미까지 소에 더해져 소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문화로서 상징화되었으며 소가 갖는 특성이나 소 그 자체는 신비로운 의미로 또는 사람이 본받아야 할 품성이나 자질을 뜻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소가 갖는 위상은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 중에 전쟁이란 특수한 상황에 활용되어야 하는 말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하고 특별하게 취급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소를 통해 빚어낼 수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와 의식들은 농경사회의 지속과 발전이란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고 사람들의 삶과 밀착된 믿음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구성하는데 일조하였다. 비록 사회경제적 기반의 변화로 인해 소와 관련된 전통적 양상이 지금 우리의 삶과 크게 융합되는 면은 적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소와 함께 살고 그에 기반한 음식문화를 갖고 있으며 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와 같은 소와 관련된 전통적 양상의 의미고찰은 역사와 생활문화, 민속적 측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룩하며 전통문화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는 데에 여러 정보와 시사점 등을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자료

광개토대왕비釋文

『舊唐書』卷199.

〈덕흥리고분 묘지명〉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三國史記』卷1·卷3·卷4·卷6·卷7·卷8·卷9·卷13·卷16·卷18·卷21·卷23·卷26·卷32·卷33·卷39·卷45.

『三國遺事』卷2.

『三國志』卷30.

『說文解字』卷11.



『新唐書』 卷220.
 『梁書』 卷54.
 <울진 봉평리 신라비>
 『日本書紀』 卷15.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
 『晉書』 卷97.
 『冊府元龜』 卷126·卷369·卷959.
 『通典』 卷185·卷186.
 『太平御覽』 卷359·卷780·卷783·卷784·卷899.
 『太平寰宇記』 卷173·卷172·卷175.
 <포항 냉수리 신라비>
 『翰苑』
 『後漢書』 卷85.

■ 국내저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고분 학술조사연구-문헌·고고자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7.
 국립중앙박물관,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2010.
 박유미, 『고구려 음식문화사』, 학연문화사, 2017.
 사회과학연구소 편, 『조선의 짐승뼈 화석(1)』, 진인진, 2009a.
 사회과학연구소 편, 『조선의 짐승뼈 화석(2)』, 진인진, 2009b.
 사회과학연구소 편, 『조선의 짐승뼈 화석(3)』, 진인진, 2009c.
 안경숙, 『신라토우 영원을 꿈꾸다』, 국립중앙박물관, 2009.
 장국중, 『조선농업사』, 백산자료원, 1998.
 J.C. Brock 著, 과학세대 譯, 『인간과 가축의 역사』, 새날, 1996.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2, 동광출판사, 1990.
 조선화보사출판부,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5.

■ 국내논문

강등학, 「헌화가의 심층」, 『새국어교육』 33-1, 한국국어교육학회, 1981.
 강봉원, 「반구대 암각화에 표출된 육지동물의 재인식」, 『한국신석기연구』 23, 한국신석기학회, 2012.
 강소영·조은민·김수훈·김윤지, 「나주 복암리유적 출토 동물뼈의 생물·화학적 분석」, 『나주 복암리유적Ⅱ 4~6 차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3.
 강운형·문지환·안미정·방문배·신태균, 「제주 중달리 1819번지 패총에서 출토된 뼈 유물의 분류」, 『대한수의학회지』 54-1, 대한수의학회, 2014.
 고은별, 「중부지방 원삼국~삼국시대 동물희생의례의 지역적 특징」, 『고고학』 11, 중부고고학회, 2020.
 김건수, 「동물유체를 통한 고분 검토」, 『호남고고학보』 18, 호남고고학회, 2003.
 ———, 「나주 복암리유적 출토 자연유물」, 『나주 복암리유적Ⅰ』 (1~3차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0.
 ———, 「고성 문암리 유적 출토 동물유체 분석」, 『고성 문암리 유적Ⅱ 분석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 「호남지방 고분 출토 동물유체 고찰」, 『호남고고학보』 52, 호남고고학회, 2016.
 김건수·양나래, 「풍납토성 경당지구 출토 동물뼈에 대한 분석」, 『풍납토성』 VI, 국립문화재연구소·한신대학교박물관, 2005.
 김민구·권경숙,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석기조성과 생업경제-호남지역과의 비교-」, 『호남고고학보』 36, 호



- 남고고학회, 2010.
- 김성범, 「나주 복암리 목간의 판독과 의미」, 『목간과 문자』 5, 한국목간학회, 2010.
- 김용성, 「고분으로 본 신라의 장송의례와 그 변혁」, 『중앙고고연구』 15,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 김신규,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포유동물상」, 『조선고고연구』 1986-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6.
- 金子浩昌·서양남·김양미, 「목도패총 출토 척추동물유체」, 『고고학지』 1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0.
- 김창석, 「한성기 백제의 국가제사 체계와 변화 양상 : 풍납토성 경당지구 44호, 9호 유구의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2, 서울학연구소, 2004.
- 김현석, 「김해패총 출토 자연유물에 대하여」, 『김해회현리패총』, 국립김해박물관, 2014.
- _____, 「신석기시대 출토 동물유체의 연구성과와 향후 방향성」, 『고고학지』 2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15a.
- _____, 「동위원소로 본 동래패총인의 식생활과 가축사육」, 『고고광장』 16-1, 부산고고학회, 2015b.
- _____, 「포유동물유체로 본 영남지방 중심지의 동물 이용의 현황과 양상」, 『대한체질인류학회지』 33-2, 대한체질인류학회, 2020.
- 김현희, 「삼국시대 동물뼈의 매장에 대한 검토」, 『동원학술논문집』 18,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17.
- 리에경, 「금야군 온정리 굴재덕동굴에서 드러난 포유동물화석」, 『조선고고연구』 1989-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9.
- 박은애, 「한국 고대의 희생의례」, 『지역과 역사』 29, 부경역사연구소, 2011.
- 박중환, 「백제권역 동물희생 관련 고고자료의 성격」, 『백제문화』 47, 백제문화연구소, 2012.
- 배도식, 「소에 얹힌 민속」, 『민속학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1995.
- 신동훈, 「미토콘드리아 DNA D-loop 유전 정보 서열에 대한 계통적 군집화 분석에 의한 동아시아 소의 계통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유병일, 「동물유체의 분석과 연구:陸上動物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15-1, 영남고고학회, 2006.
- _____, 「동물유체의 해체장소와 방법에 관한 일고찰-삼한 및 삼국시대의 조개더미 자료를 중심으로」, 『고문화』 70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7.
- 은화수, 「한국 출토 복골에 대한 고찰」, 『호남고고학보』 10, 호남고고학회, 1999.
- 이동주, 「동북아시아 초기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문물연구』 10,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6.
- 이수연, 「삼한·삼국시대 영남지역 복골로 본 점복문화의 양상」, 『영남고고학』 79, 영남고고학회, 2017.
- 이장웅, 「문헌에 나타난 한국 고대 동물 관념과 의례」,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41, 한국고고학회, 2017.
- 이정민·박영환·윤혜성·함철화·권혁남, 「나주 복암리 고분군 출토 소뼈의 수습 및 보존처리」, 『보존과학연구』 3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 이준정, 「한반도 선사·고대 동물사육의 역사와 그 의미」,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36, 한국고고학회, 2012.
- 이준정·고은별, 「부여 궁남지·관북리 유적 출토 동물자료」, 『궁남지Ⅲ』, 2007.
- 이준정·김은영, 「경당지구 재발굴조사에서 검출된 동물유존체 분석 결과」, 『풍납토성』 XII, 한성백제박물관·한신대학교 박물관, 2011.
- 이현중, 「동북아시아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 전환기의 해체과정과 통합의 제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12, 한국신석기연구회, 2006.
- 이현태, 「경주 교동 94-3번지 일원 유적출토 삼국시대 동·식물유체 연구」, 『신라문화』 48, 신라문화연구소, 2016.
- 임상택,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토기문화의 비교」, 『백산학보』 100, 백산학회, 2014.
- 임장혁, 「고대의 사냥과 가축에 의한 동물공희」, 『비교민속학』 70, 비교민속학회, 2019.
- 장윤정, 「고대 동북아시아 동물 매장행위에 관한 연구-우리나라와 중국 내몽고지역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56,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3.



- 정재윤·박초롱, 「문헌 및 고고자료를 통해 본 고대 장송의례-백제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31, 백제학회, 2020.
- 조태섭, 「우리나라 선사시대 소과화석에 대한 고찰」, 『한국구석기학보』 20, 한국구석기학회, 2009.
- _____, 「우리나라 중부 내륙지방 신석기시대 동물상과 자연환경」, 『백산학보』 100, 백산학회, 2014.
- _____, 「제주 광지 사람들의 동물 이용에 대하여」, 『인문과학』 110, 인문학연구원, 2017.
- 최미경, 「사비시기 백제의 영산강 유역 지배와 남방성」, 『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 최종혁,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 생업연구-제주도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문물연구』 37, 동아문화재단, 2020.
- 최태정, 「한국 전래 소품종(한우, 호반우, 및 흑우)에 대한 계통유전체학적 특성 규명」,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최현구·신지영·임재수·한지선, 「풍납토성 출토 뼈 콜라겐의 탄소·질소·황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본 백제시대 식생활과 가축 사육 양상」,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대한지질학회, 2015.
- 최현구·신지영·한지선, 「풍납토성 출토 동물뼈의 탄소와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본 백제시대의 가축사육 양상」, 『보존과학회지』 32-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6.
- 황병익, 「삼국사기 ‘수로부인’조와 〈헌화가〉의 의미 재론」, 『한국시가연구』 22, 한국시가학회, 2007.
- 홍종하·신동훈, 「동아시아 소 계통 규명에 대한 통합연구적 접근」, 『통합인문학연구』 8-1, 통합인문학연구회, 2016.
- _____, 「최근 소의 기원에 관한 국제적 연구경향과 한반도 신석기시대 소 뼈 연구에 관한 제언」,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49, 한국상고사학회, 2018.
- _____, 「유전학적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동북아시아 소의 기원과 확산」, 『한국상고사학보』 105, 한국상고사학회, 2019.

■ 해외논문

- J. B. Kim·C. Lee, “Historical look at the genetic improvement in Korean cattle”,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13(10), 2000.
- Kyu-Il Kim·Jun-Heon Lee·Sung-Soo Lee·Young-Hoon Yang, “Phylogenetic Relationships of Northeast Asian Cattle to Other Cattle Populations Determined Using Mitochondrial DNA D-Loop Sequence Polymorphism”, *Biochemical Genetics*, 41(3-4), 2003.
- Jeongsoo Lee·Kyung-Tai Lee·Sungmin Ahn·Seunghwan Lee·Dajeong Lim·Young-Ju Kim·Eun-Seok Cho·Kyung-Seok Kim·Hailu Dadi·Tae-Hun Kim, “Genetic characterization of Northeast Asian cattle based on sequence polymorphisms in the complete mitochondrial genome”, *Open Journal of Animal Sciences*, 2(4), 2012.
- Marleen Felius·Marie-Louise Beerling·David S. Buchanan·Bert Theunissen·Peter A. Koolmees and Johannes A. Lenstra, “On the History of Cattle Genetic Resources”, *Diversity*, 6(4), 2014.
- Hucai Zhang·Johanna L.A. Paijmans·Fengqin Chang·Xiaohong Wu·Guangjie Chen·Chuzhao Lei·Xiujuan Yang·Zhenyi Wei·Daniel G. Bradley·Ludovic Orlando, Terry O’Connor, Michael Hofreiter, “Morphological and genetic evidence for early Holocene cattle management in northeastern China”, *Nature Communications*, 4(1), Nature Publishing Group, 2013.

■ 인터넷자료

- <https://www.mdpi.com/journal/diversity> (2021.04.13.)
- <http://db.history.go.kr/> (2021.04.20.)
- <http://db.history.go.kr/> (2021.04.24.)
- <https://www.museum.go.kr/> (2021.05.12.)



[2주제 토론]

“고대사회 소의 고고 • 민속과 사회경제적 양상”에 대한 토론문

유 태 용

(靑邱考古研究院)

1. 본 논문은 구석기시대 소의 기원에서 삼국시대까지 문헌자료는 물론 고고자료, 민속자료, 금석문, 벽화, 유물, 목간 등의 자료를 총망라하여 소의 고기, 가축, 노동력, 점복, 의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두루 다루었다. 따라서 앞으로 소에 관한 연구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58쪽 표1을 보면, 빙하기가 끝난 후 신석기시대에 들어와 물소와 소의 유체가 출토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이후에도 물소의 존재가 유체로서 조사된 것이 있는가? 한국 한우의 역할에 牛車의 비중이 큰 것은 물소와 교잡된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이란 학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학설인가?
3. 60쪽 인용문 (가)-3에서 언급된 州胡는 오늘날 제주도를 말하는 것인데, 현재 제주도의 소는 黑牛種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지나 후한서에 언급된 주호국 당시의 소도 흑우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는 있는가?
4. 고고학에서 다루는 농경의 문제는 곧 牛耕이 언제쯤 시작되었을까 하는 점인데, 삼국사기 기록에는 지증왕 3년(502년)에 ‘처음 우경이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가장 오래된 우경 기록이다. 평북 주의리 출토 기원전 8~7세기의 나무후치(쟁기)가 발굴되었는데, 그렇다면 우경의 시작은 청동기시대로 추정 가능한가?
5. 고구려의 벽화에 말보다는 소가 일상의 생활 속에 많이 표현되어 있다. 특히, 고관대작들의 수레도 말보다는 소가 끄는 牛車가 자주 보이는데, 이러한 일상에서의 소의 비중이 말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되는가?



[3주제 발표 - 소 관리 정책과 제도]

조선시대 국가 소 관리 체계 및 목장 운용

남 인 식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조선시대 국가 소 관리 체계 및 목장 운용

남 인식(농협경제지주 이사, 축산실록 저자)



목차

1. 우리나라 한우 산업 개황
2. 조선왕조실록에 기록한 축산
3. 소 관리 체계 및 목장운영
4. 제례와 우금(牛禁) 제도 등



우리나라 한우 산업 개황



한우개량사업소(충남 서산, 국내 최대 한우 씨수소 목장, 340만평)

단군 이래 최대 사육 두수, 최고 가격 거래

- 9만 농가에서 320만두 사육
- 매년 80만두 도축, 평균가격 900만원

- 종전 일소(役牛)에서 현재 고기소(肉牛) 전환
- 황우(黃牛) 중심의 단일 모색(일부 쇠소, 교잡우)
- 거의 인공수정으로 번식, 수소 대부분 거세
- 혈통등록, 씨수소 검정, 계획교배, 초음파 진단, 생산 이력제 등 첨단 과학 기술 도입
- 21.3월 세계 최고 맛으로 소개(미국 USA Today)



3

한우 산업 발전 현황



지난 60년간 한우 사육두수는 3.2배가 늘었으며, 체중은 2배가 늘었고, 1등급 소고기 생산비율은 7배 증가



4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축산



조선 왕조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번역본 지원
- 음력/음력 일자 지사일의 간별
- 태조(太祖)~연조(宣祖) 기사 위주
- 원문을 원적으로 일괄 해설 정작
- 축산수의 체계 정립, 동물분야 등

마정(馬政) 2,900여건, 축산 1,100여건, 수의학 190여건 등 기사 수록



5

조선시대 나라의 3가지 보배는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상속도화첩, 활쏘기

- 국력에 가장 중요한 3대 보배 : 소와 말, 물소 뿔
- 말은 국가목장에서 생산한 관마(官馬) 또는 국마(國馬), 민간목장에서 사육된 사마(私馬), 관마는 용도에 따라 전마(戰馬), 역마(驛馬), 파발마(擺撥馬), 태마(駄馬), 만마(輓馬), 농마(農馬), 교역마(交易馬), 진헌마(進獻馬) 등
- 소는 농우(農牛) 또는 경우(耕牛)로 불리우며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 밭을 가는 우경(牛耕) 작업시 지역에 따라 양우(兩牛), 단우(單牛)로 구분
- 물소의 뿔인 흑각(黑角)은 활 제조 재료, 검은 뿔을 붙이면 흑각궁(黑角弓), 흰색 뿔은 백각궁(白角弓), 황소 뿔은 향각궁(香角弓)

세조실록 20권, 세조6년 5월 13일 무자 1460년
-나라의 보배에 세 가지가 있으니, 말(馬)이고 소(牛)이고 흑각(黑角)이다. 말은 여럿을 태울 수 없고, 소는 도둑에게 줄 수 없고, 흑각(黑角)은 연습으로 쓸 수가 없다.



6



조선시대 한우(韓牛)는 있었을까



최북 (1712~1760), 기우귀가도(騎牛歸家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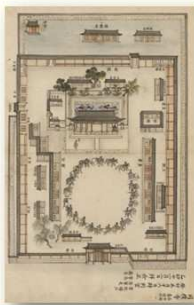
- 한우(韓牛)라는 명칭은 1950년대 이후 사용
- 소 500여건, 농우 180여건, 경우(耕牛), 우척(牛隻) 등
- 수소: 특(特), 암소: 고(枯), 송아지: 독(犢), 두살: 시(犝), 세살: 삼(參), 네살: 사(筴), 한 가지 색: 전(栓) 등
- 농경(農耕), 제례, 접빈(接賓), 군사 및 무역 등이 주 용도
- 황우(黃牛), 흑우, 백우, 청우, 리우(離牛), 록반자 등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6월 13일 1460년
-농우(農牛)가 있었으나 고실(故失)한 자와, 가난한 자는 목장(牧場)의 아마(兒馬)를 소와 바꾸어 나누어 주소서



7

조선시대 축산청(畜産廳) 사복시(司僕寺)의 소속은



사복시,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

- 병조(兵曹) 소속으로 여마(與馬), 구목(廐牧), 목장(牧場) 총괄
- 정 3품인 판사(判事) 2명, 종3품 경(卿) 2명 외 잡직(雜職)으로 마의(馬醫) 10명, 안기(安驥) 1명, 조기(調驥), 목자(牧子) 등
- 무과(武科) 출신, 근무자 1천 8백명- 3천5백명, 목자 5천여명
- 여마와 구목 외 목장의 관리와 우유의 관리 등의 업무 수행
- 어마(御馬) 사육 살곶이(箭串) 목장, 지방 감목관 관할 목장, 별도 제주도 목장 설치 운영
- 기타 가축사육 관청: 전구서(典廐署) · 전생서(典性署) · 예빈시(禮賓寺) · 분예빈시(分禮賓寺) · 사연소(司嚮所) · 사축서(司畜署)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1일 1431년
-병조로 하여금 마·소를 농아먹일 수 있는 곳을 조사하게 하다



8



목장(牧場)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상, 유계세마도(柳溪洗馬圖)

- 선정 조건 : ①백성이 적게 살고 ② 토지가 넓은 지역(閑曠) ③물과 풀이 모두 풍족한 지역 ④ 그중에 호랑이가 없거나 적은 곳으로 ⑤ 제주도, 강화도, 진도, 거제도, 연평도 등 도서(島嶼) 지역
- 국마목장에는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 아래에 감목관(監牧官)을 두어 관리, 실무는 군두(群頭), 군부(群副) 및 목자(牧子)
- 암말 100필과 수말 15필을 1군(群)으로 삼고, 군마다 군두 1명, 군부 2명, 목자 4명을 배치- 경국대전(經國大典)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2월 4일 을유 1417년
-연변 주군에 도적이 있거나, 목장에 맹수가 돌입하면, 소재지의 관리가 상례에 구애되어 결재를 받아서 군사를 조발(調發)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 참으로 염려된다



9

국가 목장에 사육된 우마(牛馬) 사육두수



진헌마정색도(進獻馬正色圖)

- 성종(成宗) :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황해, 평안도 등 전국 7개 지역 33개 국가목장에서 우마(牛馬) 1만4천두
- 이종 소 487두, 말 1만3천599두 방목 사육, 유실 16.6% 2천340두, 311두 호랑이 피해
- 전국 목장수는 세종(世宗) 59개소, 중종(中宗) 87개소, 이후 최대 170여 개소 운영
- 사복시에서 봄, 가을로 각 도의 목장에 소나 말을 점고(點考) 하기 위해 임시 관원인 점마별감(點馬別監) 파견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4일 계미 1470년
-점마 별감(點馬別監)의 우마적(牛馬籍)을 상고해 보니, 경기(京畿) 양성(陽城)의 괴태길곶이(槐台吉串)에는 방목(放牧)한 소가 1백 1두(頭), 장단(長湍)의 호곶이(壺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40두..



10



600년 전 젖소 국가 목장이 있던 곳



안성지도(安城地圖, 규장각)

- 조선 초기 왕실용 우유 공급 관아(官衙) 유우소(乳牛所), 근무 인원 최대 200여명
- 세종 : 타락색(駝酪色)으로 바꾸고, 소 기르는 목장을 동대문 일대로 옮김, 타락산(駝酪山)·낙산(酪山) 명명
- 단종 : 경기 양성 괴태 길곳이목장, 암소60두, 황소10두
* 1969년 국내 최초 한독 낙농시험목장 개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7월 6일 신유 기사 1453년
-암소 60두와 황소 10두를 사서 경기(京畿) 양성(陽城)의 괴태 길곳이(槐台吉串) 목장에 놓아 기르고, 젖소를 골라 본사에서 길러 민폐(民弊)를 덜게 하였다



11

11

왕실에 우유를 착유하던 관원(官員)은



관아재(觀我齋) 조영석(趙榮祐), 젖짜기(搾油)

- 젖소는 일반 농우(農牛)를 국가에서 사육하거나, 분만한 소를 경기(京畿)의 민호(民戶)에서 색출(索出)하여 사용 -암소, 송아지가 함께 상해 원성
- 착유시 송아지를 자연 포유(哺乳)시키다가 궁중 어약(御藥)을 조제하던 내의원(內醫院) 의관(醫官)들이 우유를 수집
- 우유 및 유제품 관련 유락(乳酪), 종락(漚酪), 유즙(乳汁), 수유(酥油), 타락(駝酪) 등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9일 임인 기사 1421년
유우소(乳牛所)는 위에 지공(支供)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모든 인원 2백 명을 매년 전직하여 승직시켜 5품에 이르면 별좌(別坐)가 된다는 것은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으니, 유우소를 혁파하소서



12



소 사양 관리는 계절 및 용도에 따라



김득량(金斗梁, 1696-1763), 목동오수(牧童牛睡)

- 사양 표준인 축마료식(畜馬料式) 기준, 연중 풀의 성장기인 5월에서 9월을 청초절(靑草節), 10월에서 4월을 황초절(黃草節)로 구분 사료 양을 조절
- 1일 사료 급여량 : 큰 소는 피(稗) 8되, 콩 3되, 황초 7단(束), 농사용 역우(役牛)는 청초절 기준 피 6되, 콩 2되, 송아지는 피 4되, 콩 2되를 급여
- 조사료인 생곡초(生穀草), 농후조사료인 곡류로 구분
 - 생곡초 : 벼짚위주 곡초(穀草), 생초(生草)
 - 목초 : 자골초·모애초·갈근·토끼풀·서숙대·억새등
 - 곡류 : 쌀·콩·보리·조·녹두·보릿겨 등

세조실록 12권, 세조 4년 3월 18일 을사 1458년
-사용(私用)의 축료(畜料)를 도리어 백성에게 징수하였으니, 비록 사유(敎育)가 경과하였더라도 청컨대 파출(罷黜)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13

암소가 송아지를 몇 마리까지 낳았나



양기훈(楊基薰, 1843-?), 뇌경(牢耕)

- 송아지 기사 : 200여 차례, 기형(畸形)이나 다태(多胎) 출산 기사 주류, 특히 다태 출산 기록은 25회로 2마리 출산 9회, 3마리 출산 11회, 4마리 출산 4회
- 중종(中宗) : 경상도 소 한 마리가 송아지 5마리 출산, 임금이 놀라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반성을 하며, 아래로는 인사(人事)가 잘못되어 천변이 생긴 것으로 기록
- 일반 평민들 세쌍둥이 출산시 종 9품 관리가 1년간 받는 급료(給料)에 해당되는 쌀과 콩 10석 하사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3일 갑자 1519년
-요사이 재변이 매우 많아, 경상도에서 소 한 마리가 송아지 다섯을 낳은 재변은 옛적에도 듣지 못하던 일이니 반드시 불러들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14



왕실에서 논란이 된 발이 일곱 개 달린 송아지



박제가(1750-1805), 목우도 牧牛圖

- 소 기형(畸形)에 관한 기사 : 100여건
 - 결합쌍생체(結合雙生體)로 머리가 둘인 이두 기형체 (二頭畸形體, Dicephalus) 60여건, 다리가 정상보다 많은 다지증(多指症, Polymelia) 20여건 등
 - 대부분 유전적 결함이나 근친교배 등 영향 추정
- 가축의 기형 출산 대부분 괴변(怪變)으로 인식 : 임금이 근신(謹愼), 나라에 괴이한 현상이 발생시 지내는 제사인 해괴제(解怪祭) 시행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19일 무신 1478년

- 발이 일곱 개 달린 소는 바로 부정(不正)한 물건인데, 부정한 물건은 천지(天地) 사이에 함께 기를 수 없으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땅에 묻어서 그 모양을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15

소 번식을 위한 국가 정책은



김준근(金俊根, 1800년대), 이산광속도첩/발갈이

- 세종 : 유수(留守)·대도호부·목(牧) 등- 암소(牝牛) 6두, 황소(雄牛) 3두, 도호부와 지군사 등- 암소 4두, 황소 2두, 현령(縣令)·현감(縣監) 등- 암소 2두, 황소 1두 배정, 국고의 요두(料豆)로 번식
- 세조 : 한양에 가옥 40칸(間) 이상 대호(大戶)- 소(牛) 7두 이상, 30칸 이상 중호(中戶)- 5두, 10칸 이상 소호(小戶) 소(牛) 3두 사육시 요역(徭役)과 각종 전세(田稅) 면제, 한양이외 지역- 토지가 50결(結, 15만평) 이상 소 10두, 20결 소 7두, 10결 소 4두면 세금 감면 조치, 특히 종친(宗親), 재상, 세가자제(世家子弟)는 논죄(論罪)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4일 임인 1434년

- 소를 백성들의 자원에 따라 나누어 주고, 만 3년에 송아지 1마리씩을 거두고, 그 나머지는 백성들로 하여금 임의 사용하게 하며, 고실(故失)한 것은 징수하지 말고, 피육(皮肉)만 거두게 하다



16



과거시험에서 가축번성 방안을 물은 임금



단원 (檀園) 김홍도 (金弘道) 화첩명생도, 소과응시

- 임금 대별 축산기사 : 세종 85건, 숙종 57건, 헌종(개)56건, 중종 55건, 성종 53건, 영조 46건 등
- 세조 : 37건
 - 소·말·양·닭·개·돼지 등 육축(六畜) 번성방안 문과 중시(文科重試) 책문(策問) 선정
 - 가자(加資)한 문신(文臣)에게 어찰(御札)로 말과 소 번식 방안 제술(製述) 요청
 - 형률(刑律) 중 우마(牛馬) 도적질 주범자는 도살(屠殺) 여부(與否) 불구하고 교형(絞刑)
 - 목은 농지인 진지(陳地) 경작(耕作)·개간(開墾)시, 농우(農牛) 사료(飼料)로 군자창(軍資倉) 목은 콩 사용 등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5일 기해 1457년

-친히 문과 중시(文科重試)를 책문(策問)하였는데, 육축(六畜)이 번성하지 않으니, 이를 생각해 보아도 그 요령을 얻지 못하겠다. 그대를 대부(大夫)는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라



17

허가없이 소를 잡으면 온 가족이 외딴 섬으로 쫓겨났다



단원 (檀園) 김홍도 (金弘道) 황숙도첩

- 우금(牛禁) : 농우(農牛) 보호책으로 소 도살을 금한 법
* 관련 실록 기사 : 19건
- 우금은 소나무 벌채를 금지하는 송금(松禁), 주금(酒禁)과 함께 삼금(三禁)
- 성균관 전복이 운용하는 현방(懸房)에서 우육생산과 판매 독점권을 가지고 하는 소 도축은 공도(公屠)
- 소나 말을 매매 도살한 자는 장(杖) 1백, 가산은 관에서 몰수, 몸은 수군(水軍)에 보충, 소와 말을 도적질하여 도살한 자는 같은 형벌에 몸에 자자(刺字)-세종, 소를 잡는 것을 고발한 자는 그 재산(財産)으로 상(賞), 벼슬 받기를 자원(自願)하는 자는 3자급(資級) 승진-세조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0일 을묘 기사 1477년

-마소를 잡는 것을 금하는 법이 엄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니, 소를 잡은 자는 온 가족을 절도(絶島)에 옮기도록 하였다



18

18



조선 시대 정육점 원조는 성균관(成均館) 노복



최준 김식(金植, 1579~1662), 우도(牛圖)

- 성균관(成均館) 소속 전복(典僕)들이 문묘 제향(文廟祭享) 희생(犧牲) 제물을 위해 도사(屠肆, 푸줏간) 설치, 남은 소고기 판매 생활
 - 후에 쇠고기 독점 판매권 보유한 현방(懸房) 운영하며 성균관 관련 역(役) 전담
 - 도축 외에 소 관련 부산물인 소 가죽(牛皮), 소 기름(牛肪), 소 뿔(牛角) 등 판매 이익
 - 시전(市廛)과 같은 현방(懸房) 당 전복 60~80호 소속, 한양에 40~15여 곳
- 북학의(北學議, 박제가) : 성균관(成均館)과 한양 오부(五部) 안 24개 푸줏간, 300여 고을 관아에도 고깃간

증종실록 97권, 증종 37년 1월 4일 을유 1542년

-학교의 관원들이 소 잡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 뼈가 구름처럼 쌓이게 되었으니 지극히 부당하다



19

소의 태(胎)를 즐겨먹고 송아지 찜을 좋아했던 임금



선조조기영회도(宣祖朝耆英會圖), 1585년

- 연산군(燕山君) 일화
 - 연향(宴享)에 농사를 위해 소고기를 쓰지 않으나, 중국은 공궤(供饋)할 때 쓰니, 자유롭게 써도 무방
 - 흥청(興淸)을 공궤하는 데에도 다 쇠고기를 쓰고, 날마다 10여 두(頭)를 잡아 수레로 운반
 - 노상에 수레를 끌거나 물건을 실은 소까지도 다 빼앗아 잡아, 백성이 다 부르짖어 곡(哭)을 함
 - 군현(郡縣)에서 계속하여 바치되, 가까운 도(道)에서는 날고기로, 먼 도에서는 포(脯)를 만들어 바침
 - 불시(不時)에 소고기를 올리라 하여 사축서(司畜署)에서 때를 맞추지 못하면 담당 관원 국문(鞫問)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4월 20일 을해 1번째 1505년

-왕이 소의 태(胎)를 즐겨 먹으므로 새끼를 낳은 배가 부른 소는 태가 없을지라도 잡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20

20



국가 행사에 따라 소 종류가 달랐다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행려평속도 일부

- 국가 제례
 - 흑우(黑牛) : 사직대제(社稷大祭), 종묘제(宗廟祭) 등
 - 성우(騁牛) : 석전제(釋奠祭), 문소전 별제(文昭殿別祭)
- 친경례(親耕禮)
 - 청우(靑牛) : 실제로 흑우 2두, 5차례 쟁기질(五推之禮)
- 기타
 - 성종(成宗) : 백우(白牛)를 괴이(怪異)하게 여기고 물리침
 - 세종(世宗) : 얼룩소(犁牛) 새끼도 빗갈, 뿔이 바르면 쓴다
 - * 희생사육 : 대사(大祀) 90일, 중사 30일, 소사 10일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2월 6일 을묘 3번째 1439년

-제수(祭需)로 종묘제 때의 검은 송아지 5두(頭), 영녕전제(永寧殿祭) 때의 검은 송아지 2두, 사직제 때의 검은 큰 소 3두, 문선왕 석전제(文宣王釋奠祭) 때의 큰 황소 2두, 문소전 별제(文昭殿別祭) 때의 누런 송아지 2두를 매양 봄·가을에 점우 별감(點牛別監)이 선택



21

등심, 갈비 등 부분육은 제수용



성현(成憲), 풍속화첩 야만(野宴)

- 우성칠체(牛腥七體) : 왕실 제향에 쓰이는 쇠고기 7개 부위
 - 칠체(七體) : 척(脊: 등심 부위) 1개, 견(肩: 어깨 부위) 2개, 박(拍: 갈비 부위) 2개, 비(脾: 넓적다리 부위) 2개
- 양쪽 허파, 내장, 위(胃) 등 제물 사용, 이외 핏덩이(血)와 털(毛)쟁반 모양 제기 모혈반(毛血盤)에 담아 올렸으며, 구운 간인 간료(肝料), 창자기름인 율료(脛料) 제기인 등(甑)에 담아 사용
- 뿔의 크기 : 천지(天地) 제사- 누에고치(繭)·밤톨(栗)크기, 종묘(宗廟)제사-한 줌(握) 크기, 빈객(賓客)용 한 자(尺) 크기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14일 을유 5번째 1425년

-우성(牛腥)을 담고, 양쪽 허파와 양쪽 어깨와 양쪽 갈비에다가 등심을 아울러 쓰되, 허파는 양쪽 끝에 놓고, 어깨와 갈비는 그 다음에 놓고, 등심은 한가운데 놓는다



22



최초 생우 도입을 위해 찾아간 국가는



우마의방(牛馬圖方, 1399년)

- 농우(農牛)에 대한 기사 : 180여건
- 주로 농경용 소를 조달, 우금(牛禁), 북방교역관련 내용 등
- 임진왜란 피해(선조 26년 3월 14일, 1593년) :
"각 고을의 마소가 적에게 다 노략당하여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고, 도로에서 쓰러져 죽은 것이 많아 농우(農牛)가 핏절되어 밭갈이를 할 대책이 없다."
- 전라도 농우 부족으로 평안도 일원 관서(關西) 둔전(屯田)에 있던 소 1천여두 지원(英祖, 10년 1월 20일)

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 6월 9일 경자 1번째기사 1638년
비국 낭청 성익(成弼)이 소를 무역하는 일로 몽고(蒙古)에 들어갔다. 소 1백 81두를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평안도 열읍(列邑)에 나눠주어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게 하라고 명하였다



23

조선시대 백정(白丁)의 원조는 몽골의 달단(韃靼)



타타르 지도 Wikipedia

- 달자(獐子) : 조선과 중국 북방에 사는 종족, 시대별 달단(韃靼)·몽고(蒙古)·흉노(匈奴)·돌궐(突厥)·거란(契丹) 등 표기
- 관련 표기 : 타타르(塔塔爾, Tatar), 달단(韃靼), 달달(達達), 달자(達子), 달적(達賊), 달달구자(達達駒子, 개), 달달마(達達馬, 말), 달달병(達達兵, 병사) 등
- 백정(白丁) : 유목 민족 달단인(韃靼人) 고려말 전란 중 유입, 조선에서 수렵 위주 정착, 주로 가축 도살, 가죽제품 제조, 화척(禾尺), 수척(水尺), 무자리라고 통칭 - 신백정, 거골장
*왕실 육류조리사 : 파오치(波吾赤)→별사옹(別司穢)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4월 24일 갑신 1406년
달단(韃靼) 화척(禾尺)에게 소와 말을 잡는 것을 금하도록 거듭 밝혔다



24



버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수유치(酥油赤)



세종 3년 11월 28일 실록

- 수유(酥油) : 일종의 버터(Butter), 불교 밀교(密敎) 제단(祭壇) 화로에 불을 피우고 진언(眞言)과 함께 소원을 비는 호마(護摩) 때 쓰는 기름
 - 왕실에서 어용(御用) 약(藥)으로 소용, 연료하고 병든 신하들에게 하사
 - 갈분(葛粉)을 넣어 쑀 죽인 제호(醞醐) 보양식
- 수유적(酥油赤) : 달단(韃靼)의 유종(遺種)으로 도재(屠宰)를 하며, 매 호(戶)에 해마다 수유(酥油) 한 정(丁)을 진상하고 부역(賦役) 및 군역(軍役) 면제
 - *일반 양민들도 군역 회피목적 이용- 수백호 폐지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8일 정해 1421년
수유적(酥油赤)을 폐지하였다. 황해도·평안도에 수유적이 있는데, 스스로 달단(韃靼)의 유종(遺種)이라 하면서 도재(屠宰)로써 직업을 삼고 있었다. 매 호(戶)에 해마다 수유(酥油) 한 정(丁)을 사옹방(司饔房)에 바치고는 집에 부역(賦役)이 없으니, 군역(軍役)을 피하는 사람이 많이 가서 의지하였다



25

조선 최초의 수입 외래 종 물소(水牛)



최훈 김식(金植, 1579~1662), 동자기우도(童姿騎牛圖)

- 물소(水牛) 기사 : 60여건 주로 물소뿔(水牛角) 관련
 - 궁각(弓角), 흑각(黑角)
- 세종(世宗) : 물소(水牛)가 농우 2배 힘이 세니, 농경용으로 중국에서 도입 추진
- 문종(文宗) : 사신에게 암수(雌雄) 20두를 해도(海島)에 놓아 기르려고 주청(奏請) 실패
- 세조(世祖) : 일본 유구국(琉球國)에서 2두 도입, 창덕궁 후원에서 사복시 관원, 의생(醫生)등이 사양
- 성종(成宗) : 70두, 가자(加資) 논의, 사람 상해(傷害)

증종실록 10권, 증종 4년 11월 6일 갑자 1509년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는 물소를 백성의 청원에 따라 나누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하되, 혹 죽거나 잃어버리더라도 죄를 다스리지 말게 하소서



26

26



人君所畏者 史而已

“내가 두려워 하는 것은 역사뿐이다 ”

연산 12년 8월 14일



27

감사합니다.





[3주제 토론]

“조선시대 국가 소 관리 체계 및 목장 운용”에 대한 토론문

박 철 진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소의 유래〉

1. 한우는 우리민족의 언어 및 이동경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우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소관리 방법〉

2. 조선시대 종자를 보급과 가축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관청과 방법 및 소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서는 무엇이 있는지요?

〈음식의 유래〉

3. 조선시대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 임금이 선농제를 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지금의 설렁탕에 대한 유래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조선시대 말기 4대문 밖에서 소부산물 등으로 끓인 탕(지금의 해장국에 해당)을 하인 등을 시켜 배달해 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데 대한 구체적인 고증자료가 있는지요?
5. 이외에도 지금의 실생활과 밀접한 소를 재료로 한 음식에 대한 유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일제강점기와 한우〉

6. 일제강점기인 1939년 조선소 외모심사기준이 설정되어 조선(반도)우는 황색으로 품종을 고정하고, 일본(열도)는 흑색으로 고정하는 개량정책이 실행되었는데, 그당시 조선소의 모색분포는 황색(황소)이 60%수준이고 나머지는 흑색(흑소), 호반색(첼소) 및 얼룩무늬 등 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 관보 등의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이 다른 색의 소는 멸살시키고 황색으로 모색을 고정화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7. 아직도 일제강점기에 설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우 외모심사기준을 사용하여 모색은 황색, 코색은 육색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우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종 다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모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4주제 발표 - 소의 음식사]

야키니쿠¹¹¹⁾(やきにく, 焼肉) 음식민속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오 성 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 목 차 -

1. 들어가며
2. 탈영토화-재영토화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3. 야키니쿠 기원론
4. ‘야키니쿠’의 탄생과 일본산업화
5. 한국에서의 야키니쿠 역수입과 정체성 담론
6. 나가며

1. 들어가며

한국 전통농경사회에서 소는 농업생활의 동반자로서 생생한 교류와 교감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생활 전반에 존재하였다. 반면, 도시화 된 현대의 일상에서 소의 존재감은 매우 부분적으로만 자리한다. 도시인에게 소는 식재료로서 도축된 이후의 형태로써만 인식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젊은 세대가 즐기는 소 음식민속 중에 야키니쿠(やきにく)는 꽤 독특한 식문화라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야키니쿠는 소의 정육은 물론 내장, 혀, 꼬리 등 대부분의 부위를 화로에 구워먹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야키니쿠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넘어간 재일한국인¹¹²⁾들에 의해 판매된 고기구이가 일본인들에게도 대중화됨과 동시에 현지화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일본음식화 된 야키니쿠는 한국으로 역수입되어 오늘날 젊은 세대가 즐기는 일본식 문화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야키니쿠는 다변화한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거친 듯 보인다.

111) 한국 대중들 사이에서는 ‘야끼니꾸’와 ‘야키니쿠’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어의 한글 기재시 ‘키→키’로, ‘<→쿠’로 작성하는 것이 표준이며, 대부분의 학술지에서도 ‘야키니쿠’로 기재하므로, 본고에서는 표준을 따라 ‘야키니쿠’로 기재하고자 한다.

112) 식민지시기 일본으로 넘어간 재일동포들에 대한 명칭은 ‘재일동포’, ‘자이니치’,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코리안’ 등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해방 전에 대한 서술의 경우 ‘재일조선인’, 해방 후에 대한 서술의 경우 ‘재일한국인’의 명칭을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 인용 시에는 인용문의 명칭을 따른다.



다. 이와 같은 야키니쿠의 정체성 변화는 이를 일본 문화에 정착시킨 재일한국인들이 지난 한 삶을 통해 겪어온 정체성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남근우(2012)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민족의 준-종족화와 문화 분절화를 비교하면서, 자이니치(재일한국인)는 일본사회와 갈등적 상호관계를 겪어온 탓에 ‘쇠퇴형 경계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¹³⁾. 식민지시기에 일본으로 넘어갔지만 해방 후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다시 한반도로 돌아올 수 없었던 이들은 조국을 식민화했던 나라에 남아 식민지인으로서의 낙인과 차별을 겪어야했다. 특히 재일한국인들은 해방 후 식민지시기에 부여받았던 일본국적을 상실하였고, 일본정부로부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민족교육권, 직업선택권, 사회보장혜택 제외 등의 차별을 받았으며, 일본인으로 귀화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일한국인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사회생활에서 한국식 이름보다는 일본식 이름인 통명을 쓰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적은 조선 혹은 한국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이라는 영토에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체성과 생활방식을 형성해 왔다. 이렇게 재일한국인들의 정체성 변화는 야키니쿠가 지나온 정체성의 변화와 중첩된다.

본고에서는 ‘야키니쿠’가 지나온 정체성의 변화를 탈(脫)영토화와 재(再)영토화의 개념을 빌려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변화의 배경이 되는 문화사를 검토하기 위해 재일한국인 및 야키니쿠와 관련한 선행연구, 저술 및 신문기사 등 문헌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야키니쿠와 재일한국인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에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탈영토화-재영토화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탈영토화(déterritorialisation)와 재영토화(reterritorialisation) 개념은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정신분석학자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가 『안티-오이디푸스』(1972)에서 사용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영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인 영토를 벗어나고 다시 다른 영토에 위치 짓는 활동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탈영토화는 “내용물을 모든 코드(형태, 기능 혹은 의미 작용)로 부터 해방시키는 과정”¹¹⁴⁾이며, 재영토화는 탈영토화에 수반되어 새로운 영토(또는 코드)로 안착시키는 과정이다. 말하자면, 의미의 변화에 대한 운동성을 강조한 것으로, 모든 사물(대상, 존재, 실체)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코드화되어 있는 일종의 영토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영토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영토’란 지정학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기호·상징·의미 등 추상적 개념까지 포괄한다. 이와 같은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개념은 세계화 담론이 진행되

113) 남근우, 「한민족(韓民族)의 준-종족화(準種族化)와 문화 분절화-김일성민족, 중국조선족, 자이니치 사회의 비교연구」, 『국제정치연구』, 15(1),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2, 246~247쪽.

114) 아르노 빌라니 저, 『들뢰즈 개념어 사전』, 신지영 역, 갈무리, 2012, 400쪽.



면서 현지화(localization)와 같이 단순히 문화가 하나의 영토(또는 국가영역)를 벗어나 새로운 영토에 자리매김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지만, 본고에서는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적 사유를 차용하고자 한다. 즉, 야키니쿠 음식민속이 지닌 내용물과 그것을 둘러싼 의미와 정체성이 시대와 장소의 변화에 따라 분절됨과 동시에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위와 같은 개념은 민속이 재해석되고 변화되며 의미의 변화를 겪어온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한양명(2009)이 사용한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¹¹⁵⁾ 개념과 유사하다. 한양명은 놀이민속의 변형과 의미의 변전을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탈맥락화는 일정한 목적으로 민속을 유용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재맥락화는 유용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민속이 전과 다른 새로운 문화맥락 속으로 편입되어 전승되는 것이다¹¹⁶⁾. 이러한 개념은 전승을 이어온 민속의 재해석을 통한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연구에 있어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야키니쿠의 경우 오랜 전승성을 지닌 특정한 형태의 민속이라기보다는 민족이 내재하고 있던 음식민속이 이민자들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발현되고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한정된 영토 내에서 특정한 행위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여타의 민속들과 달리, 야키니쿠는 여러 주체들의 개입에 의해 ‘영토’라는 공간적 변화를 벗어나는 활동을 보여준다. 이러한 탈영토화-재영토화가 지닌 운동성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형태와 의미뿐 아니라 정체성까지 변화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보다 확장된 개념인 ‘탈영토화-재영토화’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음식문화의 의미변화에 대한 여러 민속학 연구들에서도 이와 같은 탈맥락화-재맥락화의 개념을 적용하거나 혹은 탈영토화-재영토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성과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배영동(2018)의 안동 헛제삿밥의 관광상품화로 인한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¹¹⁷⁾는 제사음식이 종교성에서부터 탈맥락화하여 관광 상품인 헛제삿밥으로 새롭게 명명되는 사례를 다룬다. 이를 통해 헛제삿밥의 탄생에서부터 관광 상품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명칭뿐만 아니라 의미와 형태가 탈맥락화(되고 재맥락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해 기제사 음식의 본질적 이미지와 의미가 탈색되는 결과에 주목하며, 음식문화가 상업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전주비빔밥의 고급화 과정에 대한 양미경(2013)의 연구¹¹⁸⁾는 위의 개념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음식이었던 비빔밥이 외식메뉴로 편입되면서 고급화되는 과정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동시에 음식의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없음에도 지역사회의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 결합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존재하는 상황을 제시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기능하는 음식의 의미와 형태가 변화하는 양

115) 한양명, 「놀이민속의 탈맥락화와 재맥락화」, 『한국민속학』, 49, 한국민속학회, 2009, 85쪽.

116) 위의 논문, 89쪽.

117) 배영동, 「안동 헛제삿밥으로 본 제사음식의 관광상품화와 의미 변화」, 『한국민속학』, 67, 한국민속학회, 2018.

118) 양미경, 「전부비빔밥의 사회적 부각과 고급화 과정 연구」, 『한국민속학』, 58, 한국민속학회, 2013.



상을 통해 탈맥락화-재맥락화 과정을 보여주었다.

한편 지역적 공간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음식문화가 탈영토화되고 재영토화되는 과정을 다룬 연구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자장면의 토착화 과정에 대한 김만태(2009)의 연구¹¹⁹⁾는 중국음식 자지앙미엔이 한국으로 들어와 토착화된 배경과 더불어 자장면이 창출하는 문화적 의미를 밝혀내었다. 특히 익히 알려져 있는 자장면의 원조설이 문헌기록과 증언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직접적인 역사적 사료들을 통해 유래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연변냉면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며 중국동포들의 삶을 주목한 연구¹²⁰⁾도 있다. 성치원(2015)의 이와 같은 연구는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연변냉면이 다시 한반도로 유입되기까지 지나온 변용의 과정을 동포들의 생활·문화적 배경에 밀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음식문화의 변용과정이 자문화 중심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삶과 생업의 문제에 대면하고 있는 환경에서 양쪽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물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음식민속의 변용에 관한 민속학계의 연구들은 변용의 과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변용의 결과 나타난 본래 의미에 대한 혼란(배영동 2018)과 기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채 난무하는 설들(양미경 2013, 김만태 2009)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는 곧 탈맥락화-재맥락화 과정에서 민속의 의미와 형태가 변화하는 동안 민속이 지닌 역사성까지 탈락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민속에 대한 연구는 민속이 지니고 있던 형태와 의미에 대한 역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동안 재일한국인의 삶과 문화는 일본학¹²¹⁾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그 중에서 야키니쿠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는 박미아(2002)의 연구¹²²⁾가 국내에서는 유일하다. 이 연구는 암시장을 통한 재일한국인들의 야키니쿠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나아가 일본에서 진행된 야키니쿠 관련 연구들을 함께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에 큰 참고가 되었다. 그 외 야키니쿠에 대한 연구는 식품영양학에서 불고기의 기원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다룬 연구¹²³⁾가 존재할 뿐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야키니쿠에 관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외동포를 통한 음식민속의 변용에 대하여 민속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야키니쿠의 문화사적 흐름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19) 김만태, 「짜장면의 토착화 요인과 문화적 의미」, 『한국민속학』, 50, 한국민속학회, 2009.

120) 성치원, 「한국 소재 연변냉면으로 본 음식 문화의 변용과 적용」, 『한국민속학』, 61, 한국민속학회, 2015.

121) 일본학에서는 재일한국인을 주로 ‘재일코리안’으로 명명하고 있다.

122) 박미아, 「재일코리안과 야키니쿠(肉) 산업 - 일본 패전 이후 암시장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일본학』, 50,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0.

123) 이규진, 「근대 이후 100년간 한국 육류구이 문화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0.



3. 야키니쿠 기원론

일본 패전 이후의 야키니쿠 산업에 대해 연구한 박미아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야키니쿠 기원설’에 대한 논의가 기록의 부족 및 기억의 왜곡 등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¹²⁴⁾. 하지만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려면, 그 운동성에 대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야키니쿠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존재한다. 하나는 “1926년 경 평양의 한 기생이 도쿄에 조선요리옥인 명월관을 개업하고 갈비구이를 판매하면서 일본인들이 이러한 고기구이를 ‘야키니쿠(焼肉)’라고 부른 것이 시초가 되었다”¹²⁵⁾는 설이다. 이와 같은 설은 ‘이북식 불고기의 야키니쿠 기원설’로 볼 수 있는데, 단지 ‘야키니쿠’라는 어원의 형성에 관한 근거로 작용할 만 하다. 근대 이후 100년간 한국에서의 육류구이 문화의 변화에 대해 연구한 이규진은 이에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소’가 지닌 의미는 농사를 짓기 위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소를 식육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평양에서는 이미 육식을 목적으로 한 평양우를 1933년부터 사육하였는데¹²⁶⁾. 여기서 “평양명물 소육(燒肉)”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이것이 일본어로 발음되어 ‘야키니쿠(焼肉)’라는 말이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¹²⁷⁾. 나아가 식민지기 소설가 이효석이 잡지 『여성』에서 “(평양의) 중요한 음식 중 하나가 ‘야키니쿠’인데 고기를 즐기는 평양사람의 기질을 그대로 반영시킨 음식인 듯합니다”¹²⁸⁾라고 쓴 구절을 인용하며, 이미 식민지시기에 평양식 고기구이에 대해 ‘불고기’, ‘소육’, 그리고 ‘야키니쿠’가 혼용해서 사용되었음을 지적한다. 동시에 평양식 불고기의 형태와 요리법이 현재의 야키니쿠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평양식 불고기가 야키니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가정한다¹²⁹⁾. 이와 같은 논의는 “야키니쿠의 기원은 불고기”, 나아가서는 “야키니쿠의 기원은 이북식 불고기”라는 담론을 검증 없이 형성하였고, 계속해서 매체를 통해 무비판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불고기와 야키니쿠의 어원적 연결은 논외로 하더라도, 평양식 불고기가 야키니쿠의 기원이라는 논의 오늘날 일본과 한국에서 향유하고 있는 야키니쿠 음식문화와 평양식 불고기 간에 직접적인 연결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

반면,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보다 설득력 있는 기원론은 식민지시기 일본으로 넘어간 재일조선인들이 소의 내장류를 구워 판매하던 것이 야키니쿠가 되었다는 것이다. 박미아는 일본의 패전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실업상태에 봉착하자, 일본인들이 형성

124) 박미아, 앞의 논문, 147~148쪽.

125) 주영하, 『백년식사』, 휴머니스트, 2020, 92~94쪽.

126) 이규진, 앞의 논문, 67쪽.

127) 위 논문, 90쪽.

128) 위 논문, 90쪽(재인용). 그러나 이규진의 연구에서 이 구절을 인용할 시에 원문이 아닌 번역본을 참고하였다는 점에서 이효석의 1937년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9) 위 논문, 95쪽.



해놓은 암시장을 통해 재일한국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의 야키니쿠 식당의 원형이 바로 이 암시장에서 발원한 것이라 주장한다¹³⁰⁾. 한편, 이러한 소 내장요리 음식점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발명이라 할 수 없다. 그 배경에는 식민지시기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향유하던 식문화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박미아는 식민지시기 재일조선인의 식생활 상황을 볼 수 있는 기사들을 제시¹³¹⁾하며, 고된 육체노동 종사자가 주를 이루고 있던 재일조선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소 내장을 섭취했음을 보여준다¹³²⁾. 또한 재일한국인을 참여관찰하며 인류학적 연구를 선구적으로 진행한 이광규 역시 재일한국인의 생활문화를 이루고 있는 한국요리 중 불고기와 함께 유명한 호르몬야끼라는 것이 있다고 소개한다. 이 요리는 소 내장을 작게 썰어 양념을 하여 구워먹는 요리인데,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의 고기만 먹고 내장은 먹지 않고 도살장에서 버렸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이것을 깨끗이 씻고 양념을 하여 먹은 것에서 유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¹³³⁾.

반면, 야키니쿠의 직접적인 기원으로 볼 수 있는 호르몬야끼에 대한 어원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은 “‘호르몬’이라는 것이 ‘버린다’는 뜻의 ‘호루(ほうる)’와 ‘사물’을 뜻하는 ‘모노(もの)’의 준말인 ‘몬’자가 결합한 것”¹³⁴⁾이라는 설이다. 말하자면, 내장은 일본인들이 먹지 않고 버린 것이기 때문에 ‘호르몬’이라 불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재일한국인들에게서도 재생산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90년 창간되어 2000년까지 간행된 재일사회의 잡지에 『호르몬문화』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 잡지의 발행인 고이삼은 잡지명을 호르몬으로 선택한 이유로 ‘호르몬’이 “일본사회에서 버려질 것만 같은 존재”¹³⁵⁾라는 의미에서 ‘재일’을 상징하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재일한국인들의 이와 같은 ‘호르몬’에 대한 해석은 어원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가 없이 문화적 담론이 형성되어 오랜 시간 이어져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을 믿고 있는 이들은 주로 재일한국인 2세 이후 세대로, 해방 이후 태어난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해방 전 야키니쿠 산업을 형성할 당시의 기억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담론을 그대로 흡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해석은 “재일 한국인의 생활의 지혜를 왜곡시킨 것”¹³⁶⁾이라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야키니쿠 요리가 보급되기 이전인 1937년에 이미 호르몬이라

130) 박미아, 앞의 논문, 148쪽.

131) 박미아는 위의 논문에서 『삼천리』 1938년 1월호에 실린 金明植의 글, 「나의 回想記, 大阪八年間放浪記」와, 『朝光』 1939년 2월호에 실린 송지문의 글을 인용하였다.

132) 위의 논문, 150쪽.

133) 李光奎, 『在日韓國人-生活實態를 中心으로-』, 일조각, 1983, 167쪽.

134) 국립민속박물관, 『일본 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2, 161쪽.

135) 양명심, 「『호르몬문화(ホルモン文化)』(1990~2000)연구: ‘재일(在日) 문화’의 재해석」, 『日本語文學』, 75, 한국일본어문학회, 2017.

136) 역사 교과서 재일 코리언의 역사 작성 위원회 저, 『(역사교과서) 재일 한국인의 역사』, 신준수·이봉숙 역, 역사넷, 2007, 100쪽.



는 독일어가 상표 등록이 출원되었고, 1940년 오사카의 북극성 산업(주)에 의해 상표 등록이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¹³⁷⁾. 이와 같은 반박의 입장은 ‘호르몬’이라는 단어가 “정력에 좋다는 의미를 지닌 ‘hormone’에서 유래된 것”¹³⁸⁾이라는 또 다른 설을 제시한다. 이는 ‘호르몬’이라는 단어가 내분비계를 흐르는 신호전달 물질인 ‘hormone’과 동시에 ‘보양’을 의미하며, 내장을 보양식으로 먹던 조선인의 식습관과 연결되어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1937년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홀몬료리’라는 단어가 보양식의 의미로 식민지 조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사이 동경이나 대판서는 조그만한 음식집에 들어가면 『메뉴』에 의례히 홀몬료리라는 한 항목이 끼어 있는데 보음, 보양(補陰, 補陽)의 그 조흔 홀몬제를 약도 아니요 음식으로 섭취(攝取)한다는 것은 물론 누구나 환영할일입니다. 그야 그전에도 우리 조선서는 뱀, 메뚜기, 뱀장어가튼 것을 보하는 음식으로치고 (….) 보통 홀몬료리라는것도 이런 걸로 맨드는것입니다. 그 멧가지에 대하여 요리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의 내장을 순대나 횡갓으로 해먹고 생선의 내장을 알젓으로 태창젓으로 해먹는 것은 확실히 조선료리의 특색이요 자랑입니다¹³⁹⁾.

위의 기사를 통해 이미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 ‘홀몬료리’라는 메뉴가 판매되고 있었고, 이는 보양식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홀몬료리’라는 것이 이미 조선에서는 이전부터 향유되던 음식민속이며, 그 중에 내장요리가 포함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같은 해 다른 기사에서도 소고기 내장 요리가 ‘호르몬 제’로 맛과 영양이 좋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고기에는 폭신 한 정육도있고 질깃한 힘살도있고 딱딱한 사리도잇스며 간,청엽,창자할것업시 못먹는게업습니다 (….) 눈나리는 겨울밤에 이글이글한 숯불을 피어노코 소고기를 가진양염으로 비저서 구어먹는맛도 조선료리중에서 차저볼수잇는 구수-한 정취일것입니다그리고 내장으로 간,염통,콩팥,지래등은 모두 비타민에이비와 철분이만코 최근에는 『호르몬』제로서 여기더조흔고기가업다고 들합니다. 그중에도간은중병치르고난 사람에게 대단히쫓습니다¹⁴⁰⁾.

이와 같은 기록으로부터 ‘호르몬야끼’의 어원은 조선인들이 내장을 먹던 음식민속을 ‘보양식’으로 여기는 것에서부터 기원한 것이라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호르몬’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의미를 지녔던 간에 ‘호르몬야끼’는 ‘내장을 먹는 음식민속’으로부터 기원한 것은 양 측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호르몬야끼’는 조선인들이 내장을 먹던 관습이 새로운 요리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조선인들이 내장을 먹던 음식민속이 탈영토화-재영토화 과정을 거쳐 재일조선인 음식민속으로 자리

137) 위의 책.

138) 이광규(李光奎), 위의 논문.

139) 「음식메뉴에 새로 나타난 “홀몬”요리의 제법」, 『조선일보』, 1937. 3. 10.

140) 「영양과 맛으로 육류의 왕자-쇠고기」, 『조선일보』, 1937.01.14.



잡은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불교적 이념아래 육식을 금했던 고려시대를 제외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소고기 육식을 이어왔으며, 특히 소의 거의 대부분 부위를 섭취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고기 육식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지혜가 재일 조선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으며, 그들의 일상에서 향유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음식민속은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일조선인들이 의식적으로 고집하는 다른 전통문화-예컨대 제사, 한복과 같은 민족의상, 한국식 이름 유지-와 달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따라서 이는 자연스럽게 유지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권숙인은 관서지방 현지조사를 통한 재일한인들의 식생활 연구에서, 일본음식이 조선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 집단거주지에서 조선의 식습관을 가능한 한 유지해왔음을 밝혔다¹⁴¹⁾. 이처럼 음식민속이라는 것은 영토가 옮겨지더라도 내재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 소의 모든 부위를 먹던 육식 민속은 재일조선인들에 내재되어 이어져 왔으며, 소의 부속품만을 구할 수 있었던 한계에 따라 호르몬야끼 음식민속으로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내장을 먹는 음식민속이 탈영토화되어 재일조선인의 음식민속에 재영토화 된 것이다.

4. ‘야키니쿠’의 탄생과 일본산업화

1945년 일본의 패전과 조국의 식민지 해방은 역설적으로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영토에 영주(永住)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방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재일조선인들은 혼잡한 조국의 정세와 귀국 시 현금 1000엔·화물 250파운드 이상 소지를 금지한 조항 때문에 귀국을 포기하게 되었다¹⁴²⁾. 결국 패전 후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수의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전쟁 중 형성해 놓은 암시장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육류의 내장을 요리하여 판매하였다. 전후 미국인이나 일본인들은 내장류의 조리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먹지 않고 버렸지만, 조선인들은 내장의 처리법과 조리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요리화 하여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⁴³⁾.

초기 재일한국인의 내장요리는 소고기에만 치중된 것은 아니고, 돼지와 소, 구분 없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머리, 소 내장, 돼지 내장 할 것 없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식재료가 되었다. 오사카에서 나고 자란 재일동포 3세 사진작가 이봉언은 재일한국인 1세들의 구슬생애사를 남기는 작업을 했는데, 이들의 구슬에는 이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다. 야키니쿠 집을 40년간 운영했던 한 재일한국인 1세는 장사를 시작할 당시 소 내장을 구하기 어려워 돼지 내장을 씻어 팔았던 기억을 증언하

141)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161쪽.

142) 역사 교과서 재일 코리언의 역사 작성위원회, 위의 책, 114쪽.

143) 최석신 외, 『재일코리안사회의 경제환경』, 집문당, 2005, 97쪽.



였다¹⁴⁴). 마찬가지로 돼지내장을 주어다 곱창구이로 판매한 기억이 다른 이의 구술 기록에서도 발견된다¹⁴⁵). 패전 후 먹을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조선인들이 지닌 내장섭취의 문화는 하나의 생존방식으로 기능한 것이었다.

한편 일본인들의 육식은 불교의 영향아래 금지되어오다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국가를 형성하면서 장려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메이지 초기 일본인들은 주로 스키야키, 구나베(소고기전골), 찜 등으로 소고기를 섭취한 것으로 기록¹⁴⁶)되어 있지만, 이는 일부 부유층에 한정된 것¹⁴⁷)으로 대부분의 서민들은 곤궁한 생활을 이어왔다. 패전 후 극심한 식량난으로 말미암아 암시장 인근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일본인 노동자들은 조선인들이 형성해 놓은 내장요리 시장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국의 노동자 계급 일본인들로 확장되어 향유되었다¹⁴⁸).

해방 전 재일조선인들끼리는 이와 같은 내장요리를 일상적으로 ‘똥창’이라 칭하였는데,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식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세련된 용어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¹⁴⁹). 박미아의 연구에서는 암시장을 통해 그동안 분리되어있던 재일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생활공간이 만나게 되었으며, ‘호르몬’과 ‘야키니쿠’라는 용어 역시 일본인들과 접점을 이루게 되며 발생하게 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평소 재일한국인들은 일본 사회에서 부정적인(차별적인) 평판을 지녀왔기 때문에 음식 이름에서 이와 같은 출신(origin)을 지워 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¹⁵⁰). 이에 따라 재일한국인들은 음식에 ‘호르몬’과 ‘야키니쿠’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패전 후 암시장을 통해 일본인들과 만나면서 재일조선인의 내장요리는 다시 한 번 탈영토화되고, ‘호르몬야끼’ 그리고 ‘야키니쿠’에 재영토화 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일본식 명칭을 통한 한국 정체성 탈피는 재일한국인들이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일본식 통명을 사용하는 것과 닮아있다¹⁵¹).

반면, ‘호르몬야끼’와 ‘야키니쿠’ 명칭 사용에 대해 또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한국 근대 경제사 연구자인 미야츠키 토시오(Miyatsuka Toshio)는 1950년대부터 야키니쿠 산업에 종사한 이의 증언을 바탕으로 1960년대에 친북성향의 재일동포들과 한국국적을 지닌 재일한국인들 사이의 정치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키니쿠’라는 명칭이 ‘호르몬야끼’를 대체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도권을 지니고 있던 친북성향의 재일동포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호르몬야끼’를 ‘조선료리’로 지칭해왔다.

144) 이봉언 저, 『재일동포 1세, 기억의 저편』, 윤상인 역, 동아시아, 2009, 109쪽.

145) 위의 책, 252쪽.

146) 최유경, 「메이지정부의 식육정책과 아지노모토-우마미의 발견-」, 『일본학연구』, 52,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7, 200쪽.

147) 위의 논문, 203쪽.

148) John Lie, *Multi-ethnic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77.

149) 박미아, 앞의 논문, 152쪽.

150) Christopher Laurent, “THINK PIECE: Diaspora, Exclusion and Appropriation: The Cuisine of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Asia Pacific Perspectives*, 16(2), University of San Francisco, Center for Asia Pacific Studies, 2020, p.58.

151) Christopher Laurent, 위의 논문, p.58.



하지만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지닌 재일한국인의 연합체인 ‘대일본 대한민국 민단(민단)’이 우세한 상황이 되어 ‘호르몬야끼’를 ‘한국요리’로 지칭해야 한다는 주장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분열에 대한 타협 방안으로, ‘호르몬야끼’라는 음식은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 한반도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한반도에서는 구운고기를 ‘불고기’라 지칭하므로 이를 번역하여 ‘야키니쿠’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⁵²⁾. 이와 같은 야키니쿠 어원에 관련한 다양한 견해들은 아직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키니쿠’라는 명칭은 일본 대중을 상대로 야키니쿠 산업이 확대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미야츠키 토시오는 이와 같은 새로운 명칭이 ‘호르몬야끼’라는 명칭을 대신하고 한국과의 연관성을 덜 보이게 되면서 일본 전역의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⁵³⁾. 말하자면, 재일조선인의 내장요리를 지칭하던 ‘호르몬야끼’는 전후 한반도의 분단현실을 통해 다시 탈영토화되어 ‘야키니쿠’라는 중립적 용어로 재영토화 된 것이다.

야키니쿠 산업이 일본 대중들에게 향유되게 된 기점은 연구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보통 1952년 전후로 본다¹⁵⁴⁾. 전술하였듯 패전 후 일본에서의 식량 부족 사태로 인하여 일본인들 역시 재일한국인들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암시장을 통해 저렴하게 내장요리로 배를 채울 수 있었고, 이후 1955년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를 기점으로 일본에서 육식과 외식이 활성화 되면서 야키니쿠 산업은 일본 전국에서 인기를 맞이하게 된다. 일본에서의 야키니쿠 붐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서 1955년 일본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것이 제1차 야키니쿠 붐이고, 1960년부터 일본 고도성장기를 통해 제2차 야키니쿠 붐이 일어났으며, 88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 붐이 일어나면서 제3차 야키니쿠 붐이 일어났다¹⁵⁵⁾. 이렇게 경제적 환경이 나아지자, 일본패전 직후까지 소 부속물 구이에 한정되어 있던 야키니쿠 식당의 메뉴에 한국식 갈비와 불고기를 비롯해 김치와 같은 반찬을 포함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야키니쿠 붐은 일본 대중들의 구미에 맞게 서비스와 시설 등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발전은 70년대 등장한 무연로스터와 찍어먹는 양념장의 개발인데, 이는 일본에서의 야키니쿠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무연로스터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 및 야키니쿠 관련 저술에서 대부분 언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초창기에는 화로를 사용하였고, 이후 가스 로스터를 사용하다가 테이블 가운데 구멍을 내어 만든 불판 양옆으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무연로스터로 발전했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더불어 무연로스터의 보급으로 인하여, 그동안 기름 냄새와 연기로 자욱하던 남성고객중심의 야키니쿠 음식점이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되면서 여성고객들에게 확장되어 소비되었으며, 고급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152) Miyatsuka Toshio, “Yakiniku-Savory Dish With Simple Origins”, *Japan Quarterly*, 46(4), Asahi Shimbun, October-December 1999, p.38.

153) 위의 논문, 39쪽.

154) 이광규, 앞의 논문, 167, (최길성 1960, 재인용)

155) 최석진 외, 위의 책.



반면 찍어먹는 양념장의 개발은 야키니쿠의 일본식 변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재일한국인들이 향유하던 음식민속인 초기의 호르몬야끼는 전술하였듯이 양념한 채로 굽는 요리였다. 하지만 일본 대중들을 상대하는 야키니쿠는 양념하지 않은 채 굽고 난 후 양념장에 찍어먹거나 손님상에 올리기 전 즉석에서 양념을 바르는 요리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인들이 음식에 대해 지닌 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야즈카 토시오는 일본인에게 불고기나 갈비와 같이 양념에 재워둔 채 상에 오른 고기는 일본인들의 구미에 맞지 않았을 것이라 설명한다. 왜냐하면 일본인의 관념 속 신선한 고기는 불거나 분홍빛을 보여야 하는 것인데, 이미 양념하여 재워둔 고기는 검거나 보랏빛을 띠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쉽게 호감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¹⁵⁶⁾. 이러한 배경으로 야키니쿠는 즉석에서 양념을 발라주거나 양념장에 찍어먹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야키니쿠 양념장 산업이 1970년대 후반 성립되었다. 나아가 이는 일본의 가정에서도 야키니쿠가 향유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야키니쿠는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면서 ‘한반도에서부터 유래된 음식민속’의 정체성으로부터 서서히 탈영토화 되어 일본인들의 일상 속에 재영토화되었다.

한편, 재일한국인의 야키니쿠 변용 과정은 그들에게는 생존에 관한 문제였다. 조선 혹은 한국음식의 정체성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을 차용한 것도, 운전차의 견해를 빌리자면, “재일조선인은 식민지배와 그 후 ‘세 나라(일본, 북한, 대한민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려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각 지배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이 중요”¹⁵⁷⁾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일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소의 내장을 먹는 음식민속을 그들의 문화로 이식시켜줌으로써 일본사회에서 야키니쿠는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지만, 정작 재일한국인의 일본사회에서의 위치는 여전히 차별적이라는 사실은 기억해야 할 문제이다.

재일한국인들의 사회적 소외문제를 연구하는 크리스토퍼 로렌트(Christopher Laurent)는 야키니쿠의 변용 사례가 오히려 식민제국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소수집단 음식 도용의 한 예라 주장한다¹⁵⁸⁾. 다시 말해, 제국은 식민지로부터 흡수한 음식문화를 향유하지만, 오히려 그 문화의 발원지인 소수집단이 그러한 문화를 자본화하는 것을 방해하고, 더불어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에 기여한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일한국인의 생업으로 이어져온 야키니쿠 전문점의 주역이 일본인 경영자로 바뀌고 있는 사실”¹⁵⁹⁾을 지적하는 것이며, 오늘날 일본사회에서 야키니쿠 자본의 최대 수혜자가 재일한국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일본사회의 경제적 환경에서도 야키니쿠는 재일한국인 경제로부터 탈영토화하여 일본인 경제로 재영토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56) Miyatsuka Toshio, 위의 논문, p.32.

157) 윤건차 저, 『자이니치의 정신사』, 박진우 외 역, 한겨레출판, 2016, 50쪽.

158) Christopher Laurent, 위의 논문, p.61.

159) 최석진, 위의 책, 99쪽.



이와 더불어 야키니쿠가 점점 일본화 되는 배경에는 일본이 ‘민족음식(National Food)’을 형성하는 방법과도 맞닿아 있다. 일본의 민족음식 형성은 오랜 민속에서 찾아지기보다는 대부분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며 함께 수용한 음식들을 일본식으로 변형한 것에서 찾아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카레라이스가 있다. 1880년대 영국을 통해 일본으로 들어온 인도의 카레는 일본식 변형을 거쳐 오늘날 일본의 대표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⁶⁰⁾. 이러한 일본의 국민음식 형성방식은 다양한 외래음식들을 일본식으로 변형시키고 나아가서는 일본의 정체성을 입히는 결과물들을 생산해냈다. 이는 야키니쿠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역사성을 배제하고 일본음식화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며, 야키니쿠 음식점이 미국과 같은 제3국에 수출될 때 ‘일식당(japanese restaurant)’으로 분류되는 현상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5. 한국에서의 야키니쿠 역수입과 정체성 담론

한국에서 야키니쿠의 정체성에 관한 담론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야키니쿠에 관한 논쟁은 간혹 민족감정에 의한 논쟁으로 확산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2010년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일본의 음악방송에 출연하여 가장 좋아하는 일본음식으로 야키니쿠를 언급하면서 한국 대중으로부터 못매를 맞은 사건이 있다. 이러한 논쟁은 야키니쿠에 한국음식의 정체성을 부여한 관점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야키니쿠를 한국의 불고기와 동일한 음식으로 보는 관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기사에서는 “‘야키니쿠’란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으로 통상 불고기를 뜻하는 것으로...(중략)...한국의 전통음식인 ‘불고기’를 일본음식으로 바꿔버린 것이다.”¹⁶¹⁾라고 서술하며, 야키니쿠를 한국 전통 불고기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곧 한국의 음식민속이 탈영토화-재영토화 과정을 거쳐 야키니쿠라는 새로운 음식민속으로 변형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야키니쿠와 한국 전통불고기를 동일시하는 오류는 야키니쿠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재생산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가수의 발언은 야키니쿠가 일본음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야키니쿠 전문점이 한국에 역수입되는 과정에서 일본식 음식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음식이 지닌 역사성은 탈락되고, 한국대중들에게는 일본음식으로 각인된 결과이다.

160) John Lie, 앞의 책, p.76.

161) 「제시카 ‘야키니쿠’발언 논란, 불고기가 일본 음식?」, 『한경닷컴 bnt뉴스』, 2010.10.26.



〈그림 58〉 동아일보, 1999년 7월 12자 43면 광고

日本을 알면 돈이 보인다

일본식 숯불고기 야끼니꾸 (炭火焼肉食満腹) 전문점

최고급 쇠고기의 12가지
맛있는 부위만 맛볼 수 있어

98년 일본열도를 감타한 야끼니꾸(炭火焼肉食満腹)를 본토의 맛 그대로 드디어 국내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日本의 노로 오사카지방에서 새로운 음식문화로 정착하여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구미지역까지 진출하여, 미식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야끼니꾸가 98년 국내 진출을 계기로 순수 일본식 운영방식으로 일본 특유의 비전소스로 요리한 최고급 소고기의 12가지 맛있는 부위만을 추가비용없이 골고루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신세대 고객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고 상업중이어서 지역에 화제가 되고 있다.

1999년 새로운
외식사업으로 한국 진출!

한국크로커다일(주) 大和屋 (02)2236-4100에서는 일본문화의 개방 분위기에 관습과 기대의 상과를 거두고 있으며 일본 야끼니꾸 전문점을 일본에서 크게 성공한 것처럼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현재 서울 및 지방에 10여개점이 상점중이다.

특히 시설관계, 조리기술, 정보운영 등에 대한 노하우를 일본 현지 경영방식 그대로 지도운영하여 국내에서도 외식업계의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으며 25평이상 점포소유자 및 임차가능한 초보자리도 분사 운영이 가능하며 한국인 지도하여 영업장 및 현장에서 1주간 교육실시후에는 직할점운영이 가능하다.

日本야끼니꾸와 함께
즐기는전통 일본 최고의
주조 月桂酒

특히 대화옥은 일본 특유의 소스를 사용하여 최상급의 소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독특하게 조리한 일본 본토의 환상적인 맛과 300년 전통 일본 최고주조 月桂酒의 다양한 주류와 오묘한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직영점 및 전문점 문의
TEL: (02)2236-4100

大和屋
(주)한국크로커다일



야끼니꾸 음식점은 1999년에 처음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한국크로커다일이 주도한 ‘대화옥(大和屋)’이라는 야끼니꾸 체인점 사업이 진행된 것이 그 시작이다(그림 1).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오코노미야키(일본식 빈대떡), 규동(쇠고기 덮밥), 라멘, 회전초밥과 함께 일식전문점의 한 업태로 한국 외식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¹⁶²⁾. 이와 같은 일본 음식점 사업이 국내에서 확장된 계기는 세계화와 인터넷 보급, 그리고 한·일 월드컵 개최의 계기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한국 대중들의 관심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된 반일감정으로 일본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금기시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한·일 관계를 완화하는 외교정책으로 문화교류가 중용¹⁶³⁾되면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 한국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여기에 일본대중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N세대¹⁶⁴⁾의 문화소비가 결합하여 국내 일본문화시장이 활기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야끼니꾸 음식점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2010년 이후로 보여지며 이때부터 야끼니꾸 체인점 사업도 확산 세를 이루게 된다. 비슷한 시기에 한 외식경영 관련 월간지 주최로 일본으로 “야끼니꾸 벤치마킹”¹⁶⁵⁾을 떠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며, 일본에서부터 야끼니꾸 문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말하자면, 야끼니꾸의 한국으로의 역수입은 자장면이나 연변냉면처럼 그 문화를 향유하는 민족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함께 수입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재일한국인과는 상관없이 한국인 사업가들을 통해 수입이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야끼니꾸의 의미 속 ‘재일한국인’의 정체성은 완

162) 「[창업]‘일식전문점’유행」, 『매일경제』, 2001.03.20.

163) 조규철,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한일관계」, 『일본학연구』, 8,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1, 112쪽.

164) 「21세기 우리문화를 생각한다 (8)일본문화의 전파자들」, 『경향신문』, 1999.11.15.

165) 「2008년 1월에 떠나는 <야끼니꾸 벤치마킹 투어>」, 『이데일리』, 2007.12.26.



전히 탈락되고 오직 일본식 문화 정체성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야키니쿠 음식점은 일본식 분위기를 갖춘 곳이 대부분이다. 상호명과 메뉴를 일본어로 표기하는 곳도 다수이며, 일본 주류를 함께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일본의 야키니쿠 전문점 또는 제3국으로 진출한 야키니쿠 전문점에서는 김치를 사이드메뉴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한국의 야키니쿠 식당에서는 김치를 취급하는 곳은 거의 없다. 또한 일본의 야키니쿠 음식점에서는 다양한 부위를 모두 취급하지만, 한국 야키니쿠 음식점의 메뉴 구성은 가게마다 차이를 보인다. 단순히 정육 부위만 취급하는 곳도 있고, ‘호르몬’ 메뉴를 포함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메뉴는 일본의 야키니쿠 음식점과 같이 부위별로 소량씩 주문하게 되어있는데, 대부분 최상 품질의 한우를 사용하여 가격대가 비싼 편이다. 일본에서 야키니쿠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화를 통해 고급화되었듯이, 한국에서도 고급 외식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의 내장을 섭취하고 판매하던 초기의 재일조선인들의 음식민속과는 대조적이다. 여러 차례 문화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는 이렇듯 문화의 향유 계층도 넘나드는 역동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국에서 야키니쿠가 젊은 세대에게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계기는 2016년경부터 ‘혼밥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1인 판매에 배타적인 삼겹살 또는 갈비와 같은 한국의 여타 고기구이 집과 달리 1인용 테이블 및 미니화로를 사용하여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야키니쿠 음식점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혼자서도 고기를 구워먹을 수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혼밥을 즐기고자하는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1인 가구에 맞춘 가정용 미니화로가 판매되기도 하는 등 젊은 세대가 향유하는 새로운 음식민속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최근 야키니쿠 산업이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면서, 야키니쿠의 기원과 문화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매체를 통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일본에서의 야키니쿠 산업에 대해 다루고 있는 한국 언론매체의 기사에는 “야키니쿠, 재일동포가 힘겹게 지킨 우리 불고기”¹⁶⁶⁾라던가, “일본 도시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야키니쿠(한국식 불고기) 요리점”¹⁶⁷⁾이라는 표현 등과 같이 야키니쿠를 한민족의 정체성 안으로 포용한다. 동시에 대부분 야키니쿠를 ‘일본으로 넘어간 한국의 불고기’로 규정하며 야키니쿠의 기원이 한국의 불고기에 있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업태를 ‘한식’으로 등록하여 장사를 하는 야키니쿠 음식점들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메뉴 구성은 여타 야키니쿠 전문점과 다를 바 없지만, 이들은 메뉴판에 ‘야키니쿠가 일본 본토음식이 아닌 한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¹⁶⁸⁾라는 문구를 넣으며, 야키니쿠의 기원이 재일한국인들, 나아가서는 한국음식에 있음을 알

166) 「야키니쿠, 재일교포가 힘겹게 지킨 우리 불고기」, 『중앙SUNDAY』, 588호, 2018, 21면.

167) 「[설왕설래] 한국인의 입맛」, 『세계일보』, 2020.11.02.

168) 이와 같은 캠페인을 하는 야키니쿠 전문점은 서울의 세 곳에서 운영 중이며, 모두 같은 음식점이다.



리고 있다. 나아가 업태를 ‘한식’으로 규정하며,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야키니쿠를 한식으로 새롭게 영토화 시키려 시도한다. 이러한 입장은 한편으로 탈영토화-재영토화를 통해 변화된 문화의 형태가 지닌 정체성이 기원적 영토에 완전히 귀속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야키니쿠의 기원’은 한반도 혹은 한민족이라는 영토에 귀속되어 있지만,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되며 일본화 된 형태의 야키니쿠를 과연 그 기원과 동일한 정체성의 영토에 위치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6. 나가며

본고에서는 ‘야키니쿠’ 음식문화의 의미와 정체성 변화과정을 탈영토화-재영토화 개념에 대입하여 서술해보았다. 전술하였듯, 야키니쿠는 식민지시기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에 의해 그들이 본토에서 향유하던 음식민속, 즉 소 내장을 요리하고 섭취하는 민속을 일본인들에게 이식시키며 발생한 것이다. 이는 곧 음식민속이 탈영토화-재영토화 과정을 통해 타문화에 이식이 되기도 하고, 거둬들이며 변화된 형태와 의미를 거치며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야키니쿠의 탈영토화-재영토화 과정

탈영토화의 대상	(본래의)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 위치	비고
육류내장섭취 관습	한반도 조선인	→	재일조선인의 내장요리(퐁창)	관습→요리화/ 새로운 명칭으로 영토화
퐁창	재일한국인사회		암시장	향유대상 확대
퐁창(내용물)	퐁창(명칭)		호르몬야끼(명칭)	명칭변화
호르몬야끼(내용물)	호르몬야끼(명칭)		야키니쿠(명칭)	명칭변화
야키니쿠	서민·남성중심음식 (의미)		고급음식 (의미)	무연로스터 개발/ 의미변화
야키니쿠	재일한국인음식 (의미·정체성)		일본일상음식 (의미·정체성)	양념장 개발 (요리 형태변화)/ 정체성변화
야키니쿠	일본		한국 외식시장	역수입

야키니쿠의 이와 같은 탈영토화-재영토화 과정은 한국민속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소 내장을 섭취하는 관습이 새로운 형태로 발현되고 변화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야키니쿠는 오랜 시간 한반도 내에서 변화와 발전을 지나온 대창·막창구이와 곱창전골과 같은 한국의 소 내장요리 및 음식민속과는 또 다른 형태와 의미를 지닌다. 탈영토화-재영토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야키니쿠의 정체성에 있다. 본래 조선의 음식관습에서 발현



된 재일조선인의 내장요리(똥창)는 일본인 사회로 향유대상을 확대하면서 여러 차례 명칭이 변화(똥창→호르몬야끼→야키니쿠)하고, 나아가 형태와 의미가 변화하였다. 본래 내장을 양념하여 구워먹는 요리였던 야키니쿠는 일본대중음식화되는 과정에서 내장을 포함한 소의 정육, 혀, 꼬리 등 모든 부위를 구워먹는 요리로 변화하였고, 소외된 집단의 음식에서 고급음식으로 변모하였다. 나아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래 향유하던 집단인 재일한국인의 정체성이 탈구되고 일본음식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음식의 정체성을 지닌 야키니쿠는 역설적이게도 한국인 사업가들을 통해 다시 일본 음식문화의 한 부류로 한국 외식시장에 자리 잡았다. 일본에서는 이미 야키니쿠를 ‘민족음식(National Food)’으로 위치시키며 해외로 수출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대중적으로는 야키니쿠를 일본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탈영토화-재영토화 과정의 최종 결과물인 야키니쿠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민속학계에서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이는 이민을 통해 형성된 소수민족의 문화가 지닌 정체성을 그가 기원한 국가에 둘 것인지 또는 연속된 탈영토화-재영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리 잡은 국가적 정체성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소수이민족의 문화, 혹은 식민지 경험을 지닌 민족의 문화를 무형문화유산 등재할 경우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비슷한 예로, 중국이 자국 내 소수민족인 몽골족의 전통창법인 후미(Khoomii)를 중국의 대표 유네스코 문화유산목록에 등재하면서 몽골에서 반발한 사건이 있다. 몽골은 후미가 자신들의 영토에 기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몽골국, 중국의 내몽골자치구, 러시아연방의 투바공화국, 부랴트공화국 등 여러 곳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몽골 기원론은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몽골 기원론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미를 몽골만의 문화유산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¹⁶⁹⁾.

본고 작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야키니쿠와 관련한 다양한 기원론이 한국 내에서 양립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야키니쿠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한국식 불고기’라는 내용이 매체를 통해 검증 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야키니쿠를 ‘불고기’가 직접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기에 역사적 근거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소 내장을 섭취하는 한민족의 민속’이 재일한국인들에 의해 ‘호르몬야끼’라는 새로운 요리로 탄생하였으며, 여러 사회·경제·문화적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소의 부위를 화로에 구워 양념장에 찍어먹는 음식으로 발전하여 ‘야키니쿠’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역사성에 있어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타당해 보인다.

반면 ‘야키니쿠’의 ‘불고기 기원론’은 ‘야키니쿠’의 어원과 관련한 추측이 검증 없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불고기가 야키니쿠가 되었다’는 식의 담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본

169) 사례와 관련하여 이평례는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학회(2021.05.07.)에서 논의점을 제시했다. 몽골에서는 후미가 자국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빈약하며, 이미 주변국에 오랫동안 전해온 음악 장르로 향유되고 있기 때문에 몽골의 문화유산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평례, 「인류무형문화유산 후미 등재를 둘러싼 몽골의 갈등과 그 배경」,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학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1, 203~220쪽.)



고에서 전술하였듯, 1930년대 평양에서 고기구이를 ‘불고기’, ‘소육(燒肉)’, ‘야키니쿠(燒肉)’로 다양하게 부르면서 ‘불고기’와 ‘야키니쿠’가 동일시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의 ‘야키니쿠’란 현재 일본과 한국에서 향유되고 있는 ‘야키니쿠’와는 직접적인 역사적 연결이 부족하므로, ‘불고기’와 ‘야키니쿠’를 동일한 음식으로 보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료를 통해 더욱 직접적인 연결을 밝혀내야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¹⁷⁰⁾. 이미 일본 및 해외에서는 불고기와 야키니쿠를 별개의 음식으로 인식¹⁷¹⁾하는 현실에서 역사적 검증 없이 민족감정을 앞세워 ‘불고기=야키니쿠=한국 전통음식’과 같은 도식의 재생산은 국제사회에서 비논리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야키니쿠 기원에 관한 논쟁은 곧 역사적 자료 및 당사자들의 기억에 대한 다층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는 학계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문화사를 정리해야할 과제라 생각된다. 특히 야키니쿠를 탄생시킨 주역인 재일한국인 1세들이 이미 부재한 상황에서 어린 시절 그 상황들을 목격하였고, 가업을 이은 2세들에 의한 기억을 통해 자료를 남길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의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연구에 당장 뛰어 들어 가야하는 이유이다. 더불어 이미 일본에서는 야키니쿠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일본에서의 자료 수집을 통해 비교 검토하고 보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일본 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2.
- 권숙인, 「현지화·정형화·지구화: 재멕시코/일본 한인의 민족음식문화」, 『비교문화연구』, 11(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5.
- 김동진, 『조선, 소고기 맛에 빠지다-소와 소고기로 본 조선의 역사와 문화』, 위즈덤하우스, 2018.
- 김만태, 「짜장면의 토착화 요인과 문화적 의미」, 『한국민속학』, 50, 한국민속학회, 2009.
- 김성희, 「메이지기의 소고기정책과 식생활의 근대적 변화」, 『일본어문학』, 86, 한국일본어문학회, 2020.
- 김수성, 「신문기사를 통해 본 근대 일본의 육식 문화 연구」, 『일어일문학』, 67, 대한일어일문학회, 2015.
- 남근우, 「한민족(韓民族)의 준-종족화(準種族化)와 문화 분절화-김일성민족, 중국조선족, 자이니치 사회의 비교연구」, 『국제정치연구』, 15(1),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2.
- 박미아, 「재일코리아와 야키니쿠(肉) 산업 - 일본 패전 이후 암시장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일본학』, 50,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0.

170) 이와 관련하여, 이규진의 논문, 「불고기의 역사적 계보 연구-맥적, 설야며, 너비아니에 대한 문헌고찰을 중심으로-」(2019)이 역사적 사료를 통해 불고기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야키니쿠와 불고기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현상만 언급할 뿐 직접적인 연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 야키니쿠를 불고기의 한 부류로 보기 위해서는 야키니쿠의 전신인 ‘호루몬야키’가 미리 양념해서 구웠다는 점에서 비슷한 요리법을 이용했다고 연결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요리법이 비슷하다고 동일한 음식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야키니쿠’가 일본에서 상업화되면서 이러한 요리법이 탈락되었으므로, 동일한 음식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71) John Lie, 위의 책, p.77.



- 박정배, 『음식강산 3』, 한길사, 2015.
- 배영동, 「안동 헛제삿밥으로 본 제사음식의 관광상품화와 의미 변화」, 『한국민속학』, 67, 한국민속학회, 2018.
- 성치원, 「한국 소재 연변냉면으로 본 음식 문화의 변용과 적용」, 『한국민속학』, 61, 한국민속학회, 2015.
- 아르노 빌라니 저, 『들뢰즈 개념어 사전』, 신지영 역, 갈무리, 2012.
- 양명심, 『『호르몬문화(ホルモン文化)』(1990~2000)연구: ‘재일(在日) 문화’의 재해석』, 『日本語文學』, 75, 한국일본어문학회, 2017.
- 역사 교과서 재일 코리언의 역사 작성 위원회 저, 『(역사교과서) 재일 한국인의 역사』, 신준수·이봉숙 역, 역사넷, 2007.
- 윤건차 저, 『자이니치의 정신사』, 박진우 외 역, 한겨레출판, 2016.
- 李光奎, 『在日韓國人-生活實態를 中心으로-』, 일조각, 1983.
- 이규진, 「근대 이후 100년간 한국 육류구이 문화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0.
- _____, 「불고기의 역사적 계보 연구-맥적, 설야며, 너비아니에 대한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식생활 문화학회지』, 34(6),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19.
- 이봉언 저, 『재일동포 1세, 기억의 저편』, 윤상인 역, 동아시아, 2007.
- 이평례, 「인류무형문화유산 후미 등재를 둘러싼 몽중의 갈등과 그 배경」,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학회 자료집』,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2021.
- 조규철,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한일관계」, 『일본학연구』, 8,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1.
- 주영하, 『백년식사』, 휴머니스트, 2020.
-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재일코리안의 생활 문화와 변용』, 도서출판 선인, 2014.
- 최석신 외, 『재일코리안사회의 경제환경』, 집문당, 2005.
- 최유경, 「메이지정부의 식육정책과 아지노모토-우마미의 발견-」, 『일본학연구』, 52,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7.
- 한양명, 「놀이민속의 탈맥락화와 재맥락화」, 『한국민속학』, 49, 한국민속학회, 2009.

■ 해외논문

- Laurent, Christopher, “THINK PIECE: Diaspora, Exclusion and Appropriation: The Cuisine of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Asia Pacific Perspectives, 16(2), University of San Francisco, Center for Asia Pacific Studies, 2020.
- Lie, John, Multi-ethnic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Toshio, Miyatsuka, “Yakiniku-Savory Dish With Simple Origins”, Japan Quarterly, 46(4), Asahi Shimbun, October-December 1999.

■ 기사자료

- 「2008년 1월에 떠나는 <야키니쿠 벤치마킹 투어>」, 『이데일리』, 2007.12.26.
- 「21세기 우리문화를 생각한다 (8)일본문화의 전파자들」, 『경향신문』, 1999.11.15.
- 「[설왕설래] 한국인의 입맛」, 『세계일보』, 2020.11.02.
- 「영양과 맛으로 육류의 왕자-쇠고기」, 『조선일보』, 1937.01.14.
- 「야키니쿠, 재일교포가 힘겹게 지킨 우리 불고기」, 『중앙SUNDAY』, 588호, 2018.
- 「음식메뉴에 새로 나타난 “홀몬”요리의 제법」, 『조선일보』, 1937.03.10.
- 「일본을 알면 돈이 보인다 일본식 숯불고기 야끼니꾸 전문점(광고)」, 『동아일보』, 1999.07.12.
- 「제시카 ‘야키니꾸’ 발언 논란, 불고기가 일본 음식?」, 『한경닷컴 bnt뉴스』, 2010.10.26.
- 「[창업] ‘일식전문점’ 유행」, 『매일경제』, 2001.03.20.



[4주제 토론]

“야키니쿠(やきにく, 焼肉) 음식민속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에 대한 토론문

박 채 린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야키니쿠(やきにく, 焼肉) 음식민속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는 야키니쿠(やきにく, 焼肉)의 원조인 한국의 고기구이 문화가 한반도에서 탈영토화하여 일본에서 재영토화된 후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한 논문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발표 논문에 개념의 혼재와 더불어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재정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언어적 측면의 검토

야키니쿠는 한자어 ‘焼肉’를 글자 그대로 일본어로 표기한 것이다. 이 단어의 출현 용례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대(元代)의 실용백과전서인 『거가필용』에서 볼 수 있는데 고기를 양념(기름, 소금, 장, 갖은 양념, 술, 식초) 한 뒤 꼬챙이에 꿰어 직화(炭火)에 구운 음식이다.¹⁾

우리나라에서는 양념에 재운 구운 고기를 음식명으로 표기할 때 ‘焼肉’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다. 따라서 현전 옛 음식책 항목에서 ‘焼肉’이라는 음식명은 찾아볼 수 없고 음식 명칭으로는 ‘적(炙)과 구이’가 쓰였다. 18~19세기 조선 남성들이 쓴 문집이나 왕실기록 등에는 ‘焼肉’이라는 용례가 상당수 보이지만 음식명이 아닌 ‘고기를 굽다(V+O)’는 동사형이거나, 의례음식을 설명하면서 숙육(熟肉), 육증(肉蒸) 등 다른 요리 방법과 구별이 필요할 때 번육(燔肉)과 동의어로 쓰였다.²⁾ 이례적으로 북경 사행록에 상당수 등장하는데 ‘焼肉炭(고기구이용 숯)’이라고 하여 숯이라는 사물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한 경우이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焼肉’이 조선의 우육을 직화로 구운 음식류(육적(肉炙), 산적, 설야매적, 너비아니, 불고기 등)의 번역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즉 ‘焼肉(やきにく)’이 직화구이 쇠고기를 뜻하는 말로 고착된 것은 일본의 영향임을 짐작할 수 있

1) 박채린 외, 「설야매적을 통해서 본 쇠고기 구이 조리법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6(6), 2011.

2) 18~19세기 유행했던 난로회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행위를 소육(燒肉)이라고 하며 많은 시와 그림을 남겼다.(유득공, 박지원, 정약용, 임득명 등)



다. 일본이 직화식 쇠고기 구이류 명칭으로 중국식 한자어형을 빌려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³⁾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는 ‘燒肉’ 식문화와 글자가 모두 존재하였으나 음식과 이름이 별개로 사용되다가 ‘고기구이=燒肉(やきにく)’으로 통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였을 것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고기의 부위는 살코기, 갈비, 내장을 불문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동포들이 내장이 아닌 제사용 쇠고기 구이를 야키니쿠로 호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⁴⁾ 오래 전부터 전해져왔던 한국 고유의 고기구이에 일본식 이름이 새로이 붙여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야키니쿠는 조선식 직화구이 고기요리로 그 핵심 정체성은 ‘직화식 양념구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

(2) 일본 사회 야키니쿠의 3가지 층위

첫째는 일본 패전 이후 일본 영토에 거주하게 된 재일조선인들이 탄생시킨 호르몬야키(ホルモンやき)가 일본 현지인들의 인기를 얻으며 재일한국인의 소수민족음식으로써 유행했던 단계이다. 소는 거의 모든 부위를 버리지 않고 먹었던 터라 본디 야키니쿠의 개념에는 살코기뿐만 아니라 내장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일동포들이 당시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일본에서 버려져 헐값에 구할 수 있던 내장부위였기에 한국의 육적(肉炙) 음식문화는 그대로 계승하되 재료의 속성을 드러내는 ‘호르몬야키(ホルモンやき)’라는 별칭이 생겨났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호르몬야키(ホルモンやき)는 한국인의 내장 섭취 관습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고기구이 문화에서 파생된 것으로 재료의 공급과 경제적 요인이라는 관점에서의 해석해 보기를 제안한다.⁶⁾

일본에서 호르몬야키의 큰 인기는 내장육 자체가 아닌 직화구이라는, 일본인들이 전에 접하지 못했던 조리법에서 비롯된 새로운 풍미와 취식 방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 사회에서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양념에 재우는 것이 아니라 양념장에 찍어먹는 형태로 변형되고 곱을 빼고 기름을 남겨두는 곱창 손질법도 한국과 반대로 형성되는 등 일본식의 현지화도 일어났다.⁷⁾ 이 시기 일본 야키니쿠 문화는 호르몬야키가 주축이었다.

3) 메이지유신 이후 고기섭취가 본격화된 일본에는 고기 직화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던 말로, 피지배자인 한국의 음식을 그들의 언어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사회에 유통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짐작됨

4) 국립민속박물관, 『일본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2002. 일본 관서지방 재일동포들에게 야키니쿠는 내장이 아닌 살코기 부위 구이요리라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5) 한국은 내장을 생으로 먹는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으며 그 외에 구이, 탕, 찜 등 훨씬 다양한 형태로 먹었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조리방식은 국물요리이다. 내장육 섭취 관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내장육의 다양한 조리법의 계승과 전파 측면을 살펴야 할 것이다. 내장을 구이로 먹는 부위는 오히려 한정적이다. 이에 관하여는 손정우의 논문(『소 내장육을 이용한 음식에 관한 고찰』, 『배화논총』 22집, 2003)이 참고가 된다. 쇠고기 요리법으로 우리나라의 직화구이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 유행한 것이 야키니쿠라면 일본의 습식요리인 스키야키가 18세기 이후 들어와 조선에서 유행하게 된 것이 승기약탕(이후 신선로로 변형)이다.

6) 일본인도 물론 내장을 먹었다. ‘부라쿠민(部落民)’이라고 하여 천대받는 계급이 즐겼다.

7) 박찬일, 중앙일보 2018.6.16. <야키니쿠, 재일교포가 힘겹게 지킨 우리 불고기>



둘째는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엔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일관계 회복으로 중장년 일본인들의 비즈니스나 관광목적 한국 방문이 급증했던 시기가 있었다. 마침 한국의 고기구이 외식산업이 급성장하던 때로 한국식 고기구이집의 양념갈비나 불고기 등에 매료되었던 일본인들의 경험이 동인(動因)이 되어 일본 내에서 야키니쿠 문화가 붐이 일어났다. 이 때의 야키니쿠 시장은 재일교포의 호르몬야키와는 다른 양상으로 일본 자본이 개입되기 시작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2000년 이후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이후 고급화된 한식문화가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 젊은층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단계이다. 현재 일본의 야키니쿠 식당에서 취급하는 고기는 그 부위가 마치 샘플러처럼 다양한데 여러 가지 쇠고기부위와 함께 호르몬야키(ほ르몬やき)도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취급하는 호르몬야키를 재일조선인 음식으로 인지하는 강도는 거의 약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키르기스스탄의 ‘짐치’와 ‘김치’ 문화 공존⁸⁾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 단계는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이에 따른 일본 외식시장에서의 변화 부분은 좀 더 자료수집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쨌거나 현재 일본에는 이 3단계의 층위로 유입된 한국의 야키니쿠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식탁 세팅은 고급스러워졌고 곁들임 소스와 먹는 방식에서는 일본색이 짙어지며 현지화하고 있다.⁹⁾

발표문은 주로 1단계 재일동포에 의한 호르몬야키가 일본식 야키니쿠로 재영토화하여 다시 현대 한국으로 역유입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우선 일본 야키니쿠 문화에 농축된 한일음식문화교류 관계를 좀 더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재영토화의 대표 사례로 꼽는 짜장면이나 카레라이스, 돈까스처럼 과연 야키니쿠가 완전한 재영토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야키니쿠문화의 일본 유입과 변형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탈영토화 요소와 재영토화 요소를 재구성해 보면 야키니쿠가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거쳐 일본화된 음식으로 우리나라에 재유입된 것이라 할 수 있을지, 원 발생지를 떠남으로써 발현되는 변형의 수준인지 그 단계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8) 중앙아시아 이주 고려인들이 만들어 먹던 현지화된 김치는 ‘짐치’로, 한국에서 만들어져 수입된 김치는 ‘김치’로 불린다.(백태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한, 그리고 김치문화」, 『김치, 한민족의 흥과 한』, 세계김치연구소, 2016)

9) 숯불 직화가 무연로스터로 바뀐 것은 조리도구의 고도화이지 일본적 정체성과는 무관하다.





[5주제 발표 - 축제·놀이문화와 소]

동제의 희생으로서 소의 활용과 운영에 대한 연구

- 경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김 태 우
(신한대학교)

- 목 차 -

1. 서론
2. 소 희생의 역사와 변화
3. 경기지역 동제에서 소 희생의 양상
4. 소 희생 관련 조직과 운영
5. 결론

1. 서론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일반 기제사와는 달리 특별한 제물들이 올려진다. 제물로 올려지는 동물을 희생(犧牲)이라고 하는데 마을 제사의 희생에는 소, 돼지, 개, 닭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 소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중요한 노동력이었으며 경제적 가치 또한 커서 희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다. 현대에 와서도 소 한 마리를 통째로 구입하여 제물로 올리는 일은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제사를 위해 소를 희생으로 구입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그런데 이처럼 희생으로 소를 쓰는 경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행이 있다. 소 구입은 돈을 모아 공동으로 구입하며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돈을 낸 모두가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다. 다만, 공동 구입의 방식이나 제관과 같이 수고를 한 사람들에게 대한 분육 방식 등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의례에서 사용하는 제물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된 바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다양한 무속 의례에서 사용되는 제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¹⁾ 김숙희도 무속 의례에서 사용되는 제물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소 희생을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²⁾ 특히,

1)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무·굿과 음식』(1~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동제의 제물에 주목한 연구로는 이숙희³⁾와 윤숙경⁴⁾의 연구가 있다. 윤숙경은 안동지역의 88개 마을을 대상으로 동제 제물을 조사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안동지역에서 소를 희생으로 쓴 경우는 없었으며 돼지머리도 6개 마을에 불과했다. 또한, 산신의 제물로 돼지머리를 가장 적절한 제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⁵⁾ 그 밖에 국가적인 제의⁶⁾나 향사⁷⁾, 기제사⁸⁾ 등에 사용되는 제물에 대한 연구도 참고가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을 제의에 사용되는 소 희생의 양상과 관련 조직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소를 희생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종합해 보고 그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소 희생의 양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 희생과 관련된 조직의 사례와 그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의례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속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 소 희생의 역사와 변화

의례의 제물로서 소를 사용한 역사는 오래되었다. 문헌의 기록이나 삼국시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소뼈 등을 통해 고대국가의 제사에 소가 제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여에서는 소를 점복 희생으로 사용했음을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부여 조를 보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보아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붙으면 길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⁹⁾ 이처럼 부여에서는 제천의식을 거행하면서 소의 발굽을 보고 점을 치는 우제점(牛蹄占)을 행하였는데 이는 제천의식의 제물로 소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¹⁰⁾ 또한, 영일과 울진지역에서 발견된 신라비의 비문 내용을 미루어보아 당시 신라 제사의 희생으로 소가 사용되

2) 김숙희, 「한국 무속의례의 제물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3) 이숙희, 「가사리 동제의 제물 구성과 의미 분석」,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4) 윤숙경, 「안동지역의 제례에 따른 음식문화(2) : 동제(洞祭)과 제물(祭物)」,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11 No.5,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96.

5) 위의 논문.

6) 정현숙, 「조선시대 제향의 제물종류와 조리에 관한 분석적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한형주, 「조선시대 국가제사에서의 ‘희생’ 사용과 그 운영」, 『역사민속학』 52호, 역사민속학회, 2017.

7) 김미영, 「서원 향사(享祀)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2, 한국국학진흥원, 2013.

8) 김승우, 차경희, 「조선시대 고문헌에 나타난 소고기의 식용과 금지에 대한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0권 1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15.

9) “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以占吉凶 蹄解者爲凶 合者爲吉”, 『삼국지』 위지 동이전 부여.

10) 이에 대해 한형주는 부여의 우제점에서 희생으로 쓰인 소는 점복의 결과물인 점괘를 현시하는 신의(神意)의 대면자임과 동시에 희생물이라고 했다. 한형주, 「조선시대 국가제사에서의 ‘희생’ 사용과 그 운영」, 『역사민속학』 52호, 역사민속학회, 2017, 195쪽.



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¹⁾ 또한, 백제권역에서 제사용 토기들과 함께 출토된 소뼈 등은 제의 과정에서 바쳐진 희생 동물일 가능성을 보여준다.¹²⁾

신라는 7세기 이후 당의 유교적 의례를 본받아 종묘를 비롯한 제사의 희생으로 소를 사용했으며 고려시대에 와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환구제, 즉 제천의례에서 총 7마리의 송아지를 제물로 사용했다. 이러한 방식은 조선 초기까지 이어져서 조선의 환구제에서 6마리의 송아지가 희생으로 사용된다. 그 외 방택과 사직제, 종묘 등 대사(大祀)에 왕이 친제할 경우에는 모두 소를 희생으로 사용했다.¹³⁾ 이처럼 전통사회에서 국가적인 제사를 지낼 때 최상위의 신들에게는 소를 희생으로 바쳤으며 이는 소가 최상의 희생으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¹⁴⁾

한편, 소는 국가적인 제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례에서도 최상의 희생이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거나 전염병이 돌면 지역에서도 소를 잡아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의 공식적인 제사 외에 소를 잡는 일은 금지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삼금(三禁)’이라고 해서 소(牛禁)와 술(酒禁), 그리고 소나무(松禁)에 대한 금지령이 존재했다. 특히, 소가 있어야 농사일을 집약적으로 할 수 있으며 논을 깊이 갈아엎을 수 있는 ‘심경(深耕)’이 가능했기에 국가에서는 각별하게 규제하였다.¹⁵⁾ 실제 조선왕조 오백 년 동안 우금령에 대한 기록이 22번 나오는데 이는 조선시대 국왕들이 재위 시절 적어도 1번 정도는 우금령을 반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이처럼 국가에서 우금령을 지속적으로 반포했다는 것은 민간에서 불법적인 도축이 빈번하게 행해졌음을 의미한다. 우금령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민간에서 소를 도축할 수 있었다. 즉, 소의 다리가 부러졌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소가 사고사나 자연사를 한 경우는 관아의 허가를 받아 소를 도살할 수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거피입본(去皮立本)’을 해야 하는데 거피입본이란 가죽은 벗겨서 관에 바치고 고기는 시중에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송아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¹⁷⁾ 또한, 치료의 목적이나 향사나 기우제 등에 제수로 쓰기 위해 청원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도축을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충청도 부여에 전염병이 돌아 한 마을 사람들이 특히 많이 죽자 신에게 빌기 위해 소를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마을 동장이 청원을 올려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다.¹⁸⁾

11) 이용수, 「6세기 초 신라의 희생례 : 영일 냉수리비와 울진 봉평비의 비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70, 진단학회, 1990, 4쪽.

12) 박중환, 「백제권역 동물희생 관련 고고자료의 성격」, 『백제문화』 4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2, 190쪽.

13) 한형주, 앞의 논문, 51~55쪽.

14) 이렇게 국가 제사에서 희생으로 사용된 소는 농사를 짓는 누런색의 황소가 아닌 흑우였다. 따라서 제사용 흑우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제주 등에 목장을 설치하여 흑우를 목축하고 전생서 등 전담 기구도 설치하였다. 한형주, 앞의 논문, 58~59쪽. 또한, 소를 희생으로 쓸 때는 통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 두 어깨, 두 갈비, 등허리를 합해 7체로 나누어 사용했다. 같은 논문, 72쪽.

15) 전경묵, 「조선후기 소 도살의 실상」, 『조선후기사학보』 70, 2014, 170~171쪽.

16) 김승우, 차경희, 「조선후기 고문헌에 나타난 소고기의 식용과 금지에 대한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0권 1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15, 67쪽.

17) 전경묵, 앞의 논문, 174쪽.

18) 조선시대 고문서에 보면, 90세인 모친이 소의 피와 생간을 드시고 싶어하시니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



이처럼 관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도축을 하다가 적발되면 엄벌에 처해졌다. 조선 초기에는 우금령을 위반할 시에는 태형 50대를 맞고 도성 밖으로 추방되었으며 관직이 있는 자는 파직되었다. 이후에는 소를 도축하는 자는 재산을 몰수하고 그 재산은 그를 신 고한 자에게 주기도 했다.¹⁹⁾ 하지만 점차 소고기의 수요는 늘어났고 제사나 큰 연회 등에 있어서는 우금령의 예외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다.²⁰⁾ 조선후기에는 서울에서만 23개의 푸줏간이 있었다고 하니 그만큼 소고기에 대한 수요와 소비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²¹⁾ 이런 상황에서는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앞에서 언급했던 충청도 부여의 사례처럼 굳이 청원을 올리지 않더라도 임의로 소를 잡아 희생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의해 임의로 소를 잡은 것이 다시 금지된다. 따라서 당시에 마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잡을 수가 없어서 대신 돼지를 잡거나 혹은 소머리만 사다가 제물로 올렸다는 증언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광복 이후 2000년대 이전까지는 마을 제당 근처에서 소를 잡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이처럼 마을에서 산제사 등을 위해 소를 잡을 때는 군청의 허가를 받으면 임의로 도축이 가능했던 것이다.²²⁾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도축법에 의해 자가 도축이 금지되면서 법정 도살장을 이용하게 되었다.²³⁾

3. 경기지역 동제에서 소 희생의 양상

1) 소 희생의 현황

여기에서 살펴볼 소 희생의 사례는 소와 관련된 고기를 제물로 쓰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동제를 지내기 위해 소 한 마리를 도살하여 그 고기를 제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런데 점차 경제적 원인과 도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의 일부를 구입하여 제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소머리와 소족, 갈비 등을 함께 올려 예전 소를 잡았을 때의 제물과 마찬가지로 진설한다.²⁴⁾ 따라서 소 희생의 사례로서 소 한 마리를 잡

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려 도축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전경묵, 앞의 논문, 181~183쪽.
19) 김승우, 차경희, 「조선시대 고문헌에 나타난 소고기의 식용과 금지에 대한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0권 1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15, 68쪽.

20) 위의 논문, 70쪽.

21) 위의 논문, 73쪽.

22) 2002년 조사 당시 가평군 상면 행현2리 산제사의 경우, 제물로 통소를 구입하였다. 이전에는 군청에 허가를 얻어 제물로 쓸 소를 잡았으나 앞으로는 소를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김지옥 편,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 2002, 19쪽.

23) 도산서원에서 향사를 지낼 때 원래는 살아있는 돼지를 메고 들어와서 생간품례를 행한 뒤 고직사 옆에서 도축하여 제수를 마련했으나, 도축법 위반 및 비위생적 처리 등의 문제로 2009년부터 법정 도축장에서 장만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미영, 「서원 향사(享祀)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2, 한국국학진흥원, 2013, 20쪽.

24) 제물로 통소를 올린다고 할 때 실제 소 전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머리와 소족 4개, 갈비와 내장 등을 따로 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소 한 마리, 통소를 올린 것이라고 인식한다.



는 것 외에도 소머리와 다른 부속물을 함께 올리는 경우도 포함하여 살펴볼 것이다. 단, 소머리만 제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였다.²⁵⁾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경기지역 마을 중에서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소 1마리를 희생으로 쓰는 경우는 총 98건 정도로 나타난다.²⁶⁾ 지역별로 보면 남양주(12건), 용인(12건), 의왕(10건) 등에서 소 희생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그 밖에 군포(6건), 포천(6건), 수원(5건), 오산(5건) 등에서도 다수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도 한두 건 정도는 나타나고 있어 동제를 지낼 때 소를 잡아 제물로 사용하는 풍속은 경기지역 전반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²⁷⁾

다음으로 동제에서 모셔지는 신격과 소 희생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자. 소를 희생으로 사용하는 동제에서 모셔지는 신격으로는 산신(76건, 77%)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그 다음으로 많이 모셔지는 신격은 우물의 용왕신(9건)과 도당신(9건)이다. 성황신 혹은 서낭신도 3건 정도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신을 모시는 동제에서 소 희생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마을신앙에서 산신격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산신이기에 특별히 소를 희생으로 바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전술했던 바와 같이 국가적인 제사에서도 최상의 신에게는 소(송아지)를 희생으로 사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마을에서도 최상의 신인 산신에게 소를 희생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를 잡아 동제를 지내는 시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10월(38건)이 가장 많았

25) 다만, 과거에 소 한 마리를 잡았으나 이후에 소머리만 사용한 사례는 당연히 소 희생 사례에 포함하였다. 소머리만 올리는 경우를 소 희생 사례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이렇게 소머리만 쓰는 경우를 소 희생의 사례에서 제외한 이유 중에 하나는 통돼지를 쓰다가 소머리를 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상부곡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0월초에 산제사를 지내는데 1999년 조사 당시에 제물로 소머리를 썼다.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그 전에는 통돼지를 잡아 제물로 썼는데 분육을 하는 일이나 돼지를 잡는 일 등이 번잡해서 6~7년 전부터 소머리를 사다가 제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비슷한 사례로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상촌마을에서 매년 정월 초사흘에 산신제를 지낼 때 돼지를 잡는다. 그러나 2000년대 초에는 돼지 대신에 쇠머리나 돼지머리를 사다가 대신하고 있다. 5~6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 젊은 사람이 많아 돼지를 도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마을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통돼지는 더 이상 잡지 않게 되었다. 김지옥 편,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 2002, 165쪽. 이외에도 팽택시 동작2동 상서제마을에서 당제를 지낼 때 예전에는 제상에 통돼지가 제물로 올랐다. 이 돼지는 ‘조선돼지’(토종돼지)로 흰털이 하나도 없는 검은 돼지였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상서제마을에서도 몇 가구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 조선돼지가 귀해져 구하기가 어려워졌기에 더 이상 통돼지가 제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후로 쇠머리로 대체되었다. 같은 책, 277쪽.

26) <부록>의 현황표를 작성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 자료 중에서 소머리만 올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머리와 함께 다른 부속물을 올리는 경우나 소 1마리를 잡았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만 현황표에 기재하였다. 소머리만 올리는 경우도 소 희생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례는 너무 많아 전부 현황표에 넣을 수가 없었고 이처럼 머리만 올리는 경우는 소 1마리를 잡았던 관행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러한 사례는 제외하고 현황표를 작성하였다.

27) 다만, 이번 현황 조사에서는 과천, 광명, 부천, 안양, 동두천 등에서는 소 희생 사례가 조사되지 않았다. 이는 자료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 희생은 경기 전체 지역에서 행해졌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고 7월(21건)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9월(15건)과 정월(12건)이 많다. 그 외 8월(5건), 11월(5건), 2월(3건)과 3월(3건), 4월(1건) 등이 있다.²⁸⁾ 여기서 소 희생 제의가 10월에 가장 많은 것은 마을 제의가 보편적으로 10월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7월이 그 다음으로 많다는 것은 보편적인 마을 제의의 시기 빈도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즉, 보편적으로는 동제의 시기가 10월 다음으로 정월이 많지만²⁹⁾ 소를 동제의 희생으로 쓰는 마을들의 경우는 10월 다음으로 7월에 동제를 많이 행하고 있어 여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력 7월은 농사 시기로 볼 때 김매기가 끝나 한숨을 돌리는 시기이고 세시로는 칠석과 백중이 끼어 있다. 이러한 음력 7월에 소를 잡아 의례를 행하게 된 데에는 바쁜 농사일을 일단락하고 평소 잘 먹을 수 없었던 소고기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구입하여 모두가 나누어 먹고 하루를 흥겹게 즐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의미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³⁰⁾

이 밖에 동제를 지낼 때 소를 희생으로 사용하는 배경으로 경제적인 조건과 관련 조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 한 마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시기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400~6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 예를 들어 파주시 탄현면 금산2리의 2004년 산치성 결산 내역을 보면 당시 한우 구입비가 5,490,000원이었으며 91호가 참여하여 3만 5천 원씩 회비를 냈다. 이때 각호마다 분배된 고기량은 3.1kg 정도로 5근이 조금 넘는 양이다(표 1 참조). 또 다른 사례로 의왕시 고천동의 2014년 산치성 장부에 의하면 당시 한우 구입비가 4,701,030원이었으며 64명이 참여하여 5만 원씩을 회비로 냈다(표 2 참조). 이처럼 주민들이 분담하여 구입하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마을에서 소 한 마리를 구입하는 일은 주민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다.

마을에서 이처럼 소 한 마리를 구입하여 희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 분육에 있어서도 무척 신경이 쓰이는 일이다.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균등하게 분배해야 하고 제관 등 수고를 한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소를 희생으로 사용하는 마을들은 대체로 이와 관련된 장부가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대동계나 치성계 등의 조직도 잘 갖춰져 있다.³¹⁾ 따라서 마을 제사를 위해 소를 희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28) 이번 현황 조사에서는 동제를 지낼 때 소를 희생으로 쓰는 마을 중에 5월과 12월에 지내는 마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실제 1960년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마을 제의가 거행되는 시기가 전체 455건 중 10월에 거행되는 사례가 14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정월로 75건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례가 9월로서 46건이다. 그 다음이 7월인데 27건이며 이는 전체의 6%에 불과하다.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서울·경기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5, 681쪽.

30) 비슷한 의견으로 음력 7월의 마을 제의에서 희생으로 소를 쓰는 경우에는 김매기를 끝내고 기력이 쇠잔해진 것을 보신하기 위해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 의미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경기도박물관 편, 앞의 책, 243쪽.

31)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 중동마을의 ‘산축계’, 용인 백동마을의 ‘치성계’, 의왕 왕곡동 왕림마을의 ‘대동회’, 의왕 고천동의 ‘고천동산제보존회’, 군포 광정마을의 ‘산축회’, 고양 고양동 읍내마을의 ‘고양대동회’ 등이다. 현황표에서는 관련 조직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동계나 이중계 등 일반적인



같은 마을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표 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2리의 2004년 산치성 결산서

수 입		지 출	
35,000원*91호	3,185,000	제우값(695kg*7,900원)	5,490,000
가죽 판매	60,000	운임	40,000
꼬리 판매	30,000	도살비	70,000
리조합 지원금	2,700,000	제수비	98,500
		덕, 제주쌀(3斗)	54,000
		기타 잡비	48,800
		식대(31人*3000)	9,1000
합 계	5,975,000	합 계	5,892,300
		잔 액	82,700

〈표 2〉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의 2014년 산치성 결산서

수 입		지 출	
전년 이월	986,170	한우구입 및 작업비	4,701,030
회비(64명*5만원)	3,200,000	주류, 제물	145,300
고기 부산물	1,950,000	모임식비, 가스	110,000
		인쇄, 우편료	174,700
		당주, 소임, 문서	400,000
		장승떡	70,000
합 계	6,136,170	합 계	5,601,030
		잔 액	535140

2) 소 희생의 양상과 변화

과거 경기지역에서 동제를 위해 소를 희생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며칠 전에 우시장에서 제물용 소를 구입하여 제사 당일에 도살한 후 제물로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소를 구입할 때는 다른 색이 섞이지 않은, 다 자란 누런 황소를 골랐다.³²⁾ 경우에 따라서는 송아지를 구입하여 몇 년을 키운 후 희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용인 백암면의 백동마을에서는 2012년까지 산제사를 위해 소를 구입하였는데 2003년부터는 주로 송

마을 조직이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32) 소 희생 제의로 잘 알려진 황도의 경우, 희생 소를 고를 때는 대개 400~600kg 정도의 수소를 고른다. 뿔이 비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나 있어야 하고 털은 잡털이 없이 온통 붉은 색을 띠어야 한다. 소를 파는 집 역시 깨끗한 집이어야 한다. 구입해 온 소는 당주집에서 제를 지내기 전까지 먹인다. 소를 먹이는 것도 깨끗한 비지나 술 찌기미를 먹인다. 구입해 온 소는 더 이상 소라고 부르지 않고 ‘지태’ 혹은 ‘제태’라고 부른다. 지태가 있는 외양간에는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한다. 공주대학교 박물관 편, 『황도 봉기풍어제』, 태안군·태안문화원·공주대학교 박물관, 1996, 134쪽.



아지를 구입하였다. 구입한 송아지는 주민들 중 한 명에게 위탁하여 일 년 정도를 키운 후 산제일에 맞추어 도살하였다.³³⁾ 과거에 소를 도살할 때는 제당 근처에서 주민들이 직접 도살을 하거나 전문 도살자를 불러 도살하였다. 이처럼 과거에는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을에서 임의로 소를 도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점차 소의 자가 도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³⁴⁾이 강화되면서 소의 자가 도축이 전면 금지되었다. 즉, 소나 말, 돼지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도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때부터는 소를 구입했더라도 도축은 도축장에 가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번거로움은 점차 소 희생의 양상을 바꾸어 놓았다.

1999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경기 동부 대부분의 마을에서 예전에는 소를 희생으로 쓰다가 점차 소머리, 다리, 간, 천엽 등 소의 일부분만 쓰게 되는 추세라고 했다.³⁵⁾ 이렇게 소 한 마리를 사지 않고 부속물을 따로 사게 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으나 일제강점기에 소를 함부로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리와 4족, 간, 허파 등 주요 부위만을 장만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해석도 있다.³⁶⁾ 전술했던 용인 백암면의 백동마을의 경우도 2012년까지 소를 구입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소머리와 소의 오장육부, 소족 2개로 대신하고 있다.³⁷⁾

동제의 제물로 ‘통소’를 올린다고 할 때는 통소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각을 떼서 각 부위별로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³⁸⁾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서는 소의 각은 기본적으로 머리, 좌측 갈비, 우측 갈비, 앞다리, 뒷다리로 구분하고 이를 서낭당 안쪽에 걸어 진설한다. 즉 머리는 당의 후면부에 좌측 벽에는 좌측 갈비 우측에는 우측을 걸고 당 입구 쪽에 뒷다리, 당 앞쪽에는 앞다리를 걸어 한 마리의 소 전체를 상징적으로 진설하게 된다.³⁹⁾ 이후에 소를 잡지 않고 부속물을 사다가 제물로 올리는 경우에도 소머리와 소족 4개, 생적 등을 올리는데 이는 예전에 통소를 올렸던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⁰⁾

33)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편, 『경기옛길 속 민속』,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2015, 203쪽.

34) 2010년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다음과 같다.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5) 경기도박물관 편, 『경기민속지』 II. 신앙편, 경기도박물관, 1999, 238쪽.

36) 경기도박물관 편, 앞의 책, 251쪽.

37)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편, 앞의 책, 196쪽.

38) 조선시대 국가제사에 사용되는 희생은 ‘7체’로 나눈다고 했다. 7체란 다리뼈와 어깨, 갈비가 각각 둘씩이고 등허리를 합쳐서 말하는 것이다. 한형주, 앞의 논문, 63쪽, 여기서 머리는 빠져 있으나 종묘 의례 때 태조의 실에는 소머리를 올린다고 하였다. 같은 논문, 62쪽. 따라서 7체에는 머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9) 김지옥 편, 앞의 책, 19쪽.



이처럼 통소의 관행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희생이 돼지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다. 1999년 조사에서도 경기 동부지역 동계에서는 점차 소보다 돼지 희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했다.⁴¹⁾ 예를 들어 여주군 점동면 처리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산제를 지낸다. 1999년 조사 당시에는 제물로 돼지머리를 올렸다. 그런데 그 전에는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전에는 소를 한 마리 통째로 올렸다고 한다. 즉, 처음에는 소를 잡아 통째로 올렸다가 점차 돼지로 바뀌었고 이후에 다시 돼지머리로 바뀐 것이다.⁴²⁾

한편, 소를 희생으로 썼던 마을이 점차 희생을 돼지로 대체했는데 몇 년 있다가 다시 소머리를 쓰는 사례도 있다. 의정부시 민락동 삼귀마을은 음력 10월 초에 산신제를 지내는데 원래는 소를 잡아서 제물로 썼다가 도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자 돼지를 잡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까지는 돼지를 키우는 집들이 많아 돼지를 고르기가 쉬었으나 점차 돼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다시 제물을 소머리로 바꾼 것이다.⁴³⁾ 또한, 연천군 차탄리 햇골마을에서는 군자산 대동굿을 지내는데 무당굿을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돼지를 잡아서 올라갔다고 한다. 그런데 대동굿이 무당굿으로 바뀌면서 소머리를 쓰기 시작했다.⁴⁴⁾

소 희생의 사례 중에 특이한 것으로 제사가 끝나고 소턱뼈를 헌물로 바치는 사례가 있다.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쇠터마을은 매년 음력 9월 8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산신제를 지낼 때 제물로 소머리와 간, 천엽을 쓰는데 여기도 과거에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 후에 분육을 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소의 간과 천엽, 그리고 소턱뼈를 한지에 싸서 신목에 묶어 놓는다.⁴⁵⁾ 이처럼 소턱뼈를 신목에 묶어 놓는 사례는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양방마을에서도 발견된다. 양방마을에서도 음력 9월 2일 밤에 산제사를 지낸다. 이때 제물로 소머리나 돼지머리를 올리는데 그전에 여유가 있을 때는 소 한 마리를 잡았지만 이후에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제물로 사용했다. 그런데 돼지를 잡아 제물로 돼지머리를 올리더라도 제사가 끝나면 소턱뼈를 창호지에 싸서 신목에 원새끼로 매어두는 관행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⁴⁶⁾

동계에서 소머리만 올리는 경우에는 통소 희생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돼지 희생의 대체물이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소머리만 올리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에서는 음력 2월 초사흘 경에 고창제를 지낸다. 그런데 이때 제물로 소머리를 2개 준비한다. 소머리를 2개씩 준비하는 관행은 오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을묘년(1915년) 치성 기록을 보면 이때도 제물 구입 목록에 “牛頭(우두) 二首(이수)”로 되어 있다.⁴⁷⁾ 이 경우에는 원래부터 소머리만 올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래부터

40) 세종대학교박물관 편,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세종대학교박물관·의정부시, 2001, 389쪽.

41) 경기도박물관 편, 앞의 책, 1999, 238쪽.

42) 경기도박물관 편, 앞의 책, 206쪽.

43) 세종대학교박물관 편,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세종대학교박물관·의정부시, 2001, 385쪽.

44) 경기도박물관 편, 『경기민속지』 II. 신앙편, 경기도박물관, 1999, 158쪽.

45) 경기도박물관 편, 앞의 책, 179~180쪽.

46) 경기도박물관 편, 앞의 책, 185쪽.

47) ‘神祀記錄簿’,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http://archive.history.go.kr/catalog/view.do?arrangement_cd=ARRANGEMENT-0-D&arrangement_subcode=ARCHIVES_DOMESTIC-0-KI&provenance_ids=&displaySort=catalogId_asc&displaySize=5



소 2마리를 매년 잡았을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4. 소 희생 관련 조직과 운영

마을 제사에 사용할 희생 소를 구입하고 제사 후에 고기를 균등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전술했던 바와 같이 이를 담당할 조직이 필요했다. 이러한 의례 조직에는 산축계, 산제계, 치성계, 산제보존회 등이 있다. 일반적인 의례 조직의 본래 목적은 마을 제사를 잘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지만 소를 희생으로 사용하는 마을에서는 소의 구입과 분육, 결산을 담당하고 이를 기록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전술했던 용인시 기흥구 중동마을은 초당골, 어정, 언목, 내촌, 외촌 등 5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들이 공동으로 매년 음력 7월 초순(이후 8월로 변경됨)에 산제를 지낸다. 산제를 지내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산축계’를 구성하였고 지금은 ‘보개산신령제보존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⁴⁸⁾ 또한 매년 산제와 관련된 장부인 ‘산축기’를 소장하고 있어 의례 조직의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표 4 참조)⁴⁹⁾. 희생의 변화를 보면, 1980년에 돼지 2마리를 구입하여 희생으로 사용하였다가 1985년에는 소머리를 구입했다. 그러다 1994년부터 1996년, 3년간은 한우 1마리를 구입해서 희생으로 사용했다. 2002년부터는 다시 소머리만 구입해서 제물로 올렸다. 그런데 1994년에 희생으로 한우 1마리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확실치는 않다. 다만, 이 해 제사 시기가 음력 7월에서 8월로 옮겨졌고 이듬해에는 의례 조직으로 ‘보개산신령제 보존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조직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산제도 성대하게 치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의례 조직의 상황을 가늠하기 위해 한우 1마리를 희생으로 쓰기 시작한 1994년의 산제 문서를 살펴보면, 음력 8월 19일에 산제가 거행되었으며 장소로 ‘구성면 중리 보현산’이 명시되어 있다. 당주는 홍○○, 제관은 이○○, 축관은 이○○이다. 1994년 9월 13일(음력 8월 13일)에 사전 회의를 열었는데 언목에서 2인, 어정에서 1인, 초당골에서 1인, 중1리에서 6리까지 이장들이 참석하였다. 이때 합의된 사항을 보면, 어정마을 일부가 불참

0¤tNumber=1&system_id=000001007089&catalog_level=&catalog_position=0&search_position=0&lowYn=Y, 2021. 3. 14일 검색.

48) 중동마을에 보관되어 있는 완의(完議)에 의하면, 산축계는 송계에서 유래되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송계는 신해년(1911년)에 설립되었으며 당시 25인이 참여하였다. 이후 ‘금송계(禁松契)’로 변경한다. 계축년(1913년)에는 131인이 계에 가입하였고 병진년(1916년)에는 128인이 가입한 ‘호세계(戶稅契)’로 변경한다. 그러나 무오년(1918년)에는 100여 명의 의견으로 계의 명칭을 ‘산축계(山祝契)’로 변경한다. 그러다가 경오년(1930년)에는 이 계를 해산하고 계의 기금을 각 마을별로 분급하기에 이른다. 중리의 계는 이후 계유년(1933년)에 다시 중수되었다. 올해년(1995년) 산축기에 의하면, 그 이전에는 매년 음력 7월 초에 지내던 것을 음력 팔월 초에 지내기로 한 것과 이 당시에 산제 주관 단체인 ‘보개산신령제 보존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태우, 「광복 이후 경기 남부 마을 조직의 현황과 운영에 대한 시론: 조직 명칭과 의례 조직의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0, 2021, 551~552쪽.

49)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편, 앞의 책, 162~163쪽.



하였으나 차후로는 동참하기로 결의하였고 산제를 현재까지는 음력 7월 초에 시행하였으나 금년은 날이 늦게 나와 부득이하게 팔월 중에 제를 올리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음력 8월 19일에 산제가 거행된 것이다.

당시 지출 내역을 보면, 한우 1마리가 3,477,000원(570kg×6,100원), 도축비가 64,000원, 그 밖에 제물 등등해서 총 4,358,600원이 들었다. 수입 내역을 보면, 찬조금으로 언목의 송○○, 내촌의 구○○가 각각 10만 원씩, 용인 무속협회에서 20만 원을 내었다. 정육값으로 초당골에서 586,240원(43.8kg×13,800원), 외촌에서 494,080원(38.6kg×13,800원), 내촌에서 629,760원(49.2kg×13,800원), 언목에서 459,520원(35.9kg×13,800원), 어정에서 512,000원(40.0kg×13,800원)을 지불하였다. 부산물을 판매하여 들어온 돈이 1,277,000원으로 총 수입금은 4,358,600원이다. 결국 수입과 지출 비용이 같아 잔액은 없다. 그러나 이처럼 수입과 지출 금액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표 3>을 자세히 보면, 정육 수입금이 실제 한우 구입액보다 많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 한우를 구입할 때는 kg당 6,100원이었으나 주민들에게 팔 때는 kg당 13,800원에 팔았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들에게 판매한 정육의 kg당 가격은 지출 금액과 상쇄될 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마을에서는 한우 1마리를 구입하여 제물로 사용하고 이를 다시 재판매함으로써 마을 제사에 소용되는 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소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앞에서 예로 들었던 파주와 의왕의 마을 사례처럼 계원들이 일정한 회비를 내고 균등하게 정육을 나누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표 3〉 용인시 기흥구 중동마을 1994년 산제 입출금 내역

수 입		지 출	
초당골(43.8kg×13,800원)	586,240	한우 1마리(570kg×6,100원)	3,477,000
외촌(38.6kg×13,800원)	494,080	도축비	64,000
내촌(49.2kg×13,800원)	629,760	기타 제물	817,600
언목(35.9kg×13,800원)	459,520		
어정(40.0kg×13,800원)	512,000		
부산물	1,277,000		
정육 수입금 총액	3,958,600		
찬조금	400,000		
총 계	4,358,600원	총 계	4,358,600원

〈표 4〉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의례 조직 관련 문서와 주요 내용

연번	문서명	시기	주요 내용	희생
1	산축기(山祝記)	신해(辛亥, 1971)	산축제문	미상
2	산축제(山祝祭)	경신(庚申, 1980)	어정, 언목, 내촌, 외촌, 초당골 등 5개 마을이 삼십 이만 원을 모아 생돈 2두로 시행했다는 보고, 당주·제관·축관 명단,	생돈 2두



			축문, 결산 내역 등	
3	"	을축(乙丑, 1985)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등	우두
4	"	갑술(甲戌, 1994)	제사를 음력 칠월 초에 지냈으나 금년은 팔월 중에 지내기로 한다는 회의 보고,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등	한우 1마리
5	"	을해(乙亥, 1995)	‘보개산신령제 보존위원회’ 결성과 위원 명단, 제사는 매년 음력 팔월 초에 지내기로 결정한 회의 보고,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등	한우 1마리
6	"	병자(丙子, 1996)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이장 명단 등	한우 1마리
7	"	임오(壬午, 2002)	오랫동안 제를 올리지 못해 올해 제를 올리기로 한다는 회의 내용 보고, 제당의 주소가 ‘용인시 구성읍 중리 산22번지’로 명시됨,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등	우두
8	"	계미(癸未, 2003)	산제당 보존을 위해 경계 측량을 하자는 회의 내용 보고,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등	미상
9	"	갑신(甲申, 2004)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등	우두
10	"	을유(乙酉, 2005)	택일 등 회의 보고,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등	우두
11	"	병술(丙戌, 2006)	제단을 설치하기로 하는 회의 내용 보고,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등	우두
12	"	정해(丁亥, 2007)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등	우두
13	"	무자(戊子, 2008)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등	우두
14	"	기축(己丑, 2009)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등	우두
15	"	경인(庚寅, 2010)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등	우두
16	"	신묘(辛卯, 2011)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등	우두
17	"	임진(壬辰, 2012)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등	우두
18	"	계사(癸巳, 2013)	당주·제관·축관 명단, 축문, 결산 내역 등	우두

한편, 전술한 바 있는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동마을은 매년 음력 9월 30일에 산제를 지낼 때 소를 잡는다. 이 마을에는 산제를 지내기 위해 ‘치성계’가 조직되어 있다. 이 마을에서는 치성계 문서를 해마다 작성하고 있어 그 운영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치성계 문서에는 규약, 계원 명단, 산제축문, 제사지내는 절차, 제물 진설 방법, 제물 구입 목록, 계원 미(契元米) 내역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백동마을 치성계가 의례 조직이면서 식리(殖利) 조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즉, 치성계 규약⁵⁰⁾을 보면, 먼저 백동마을에서 거주를 시작하는 자들은 의무적으로 계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때는 백

50) 規約.

- 一, 栢洞에 一家를 營爲하는 자는 義務的으로 本契員이 되어야한다.
- 二, 本契에 加入함에는 白米四斗整을 出資하여야 한다.
- 三, 外地, 他洞으로 轉出할 때는 契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 四, 外地로 轉出하였다가 拾年二內에 다시 轉入할 때는 契員의 資格은 復旧되는 것으로 한다.
- 五, 契의 財政出納은 一切 現穀으로 한다.
- 六, 修契有司는 三人을 一組로 順次 担当키로 한다.
- 七, 本契는 埋陰九月二十五日을 定期契日로 定한다.
- 八, 修契有司三人中 二人은 修契日에 一人은 破祭日에 濁酒一甕式 準備키로 한다.
- 九, 白米五斗以上에는 空叭一枚式 내여야 한다.



미 4두 또는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입비로 내야 한다.⁵¹⁾ 또한, 출자금으로 백미 10말씩을 내도록 하여 자산을 마련한 후 계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백미 1가마니씩을 빌리도록 해 이자를 걷어 이 자금으로 산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한다. <표 5>를 보면, 2012년에 산제 희생으로 소를 구입하였는데 작업비까지 하여 4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었다. 그런데 계원들에게는 3만 원씩만 회비를 걷었는데 총액이 1백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다. 즉, 계원들의 회비만으로는 소 구입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그러나 이월금, 즉 전년도 치성계의 이자 수익과 가입, 탈퇴비와 올해의 가입, 탈퇴비 등이 그 차액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낸 후에는 정육은 계원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단, 산제를 위해 수고한 제관들에게는 기본적인 분육 외에 추가적인 분급이 이루어진다.⁵²⁾

이처럼 백동마을은 치성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식리 사업을 통해 계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동마을 치성계 2012년 산제 입출금 내역

수 입		지 출	
2011년도 이월금 백미 39가마	1,977,674	소 구입비	3,650,000
기본계비(이자) 39가마*30,000원	1,170,000	작업비	400,000
마을(이장) 지원금	2,000,000	점심 식대(작업)	53,000
이○용 신규가입비 백미 4두	68,000	제물(기타)	519,220
이○식 탈퇴 백미 1가마	170,000	수고비(안○○)	50,000
부속 판매 총계	410,000	길도지(이○○)	17,000
총 계	5,795,674	총 계	4,689,220
		잔 액	1,106,454 백미 39가마

51) 김태우, 앞의 논문, 546~547쪽.

52) 소를 한 마리 잡을 경우에 당주에게는 정육을 6근, 제관과 축관에게는 정육을 각각 3근씩 준다. 계장과 이장에게는 각각 족 2개씩을 준다. 만약 소를 잡지 않고 소머리만 쓰는 경우에는 당주에게는 소머리의 반을, 제관과 축관에게는 나머지 반의 반씩을 준다. 그리고 계장과 이장에게는 족 1개씩을 준다는 내용이다. 김태우, 앞의 논문, 2021, 547~548쪽.



5. 결론

이상으로 경기지역 동제에서 나타나는 소 희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 희생의 양상과 변화, 그리고 소 희생과 관련된 의례 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지역에서 소를 희생으로 사용하는 마을 의례는 남양주, 용인, 의왕 등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에도 일정 정도 행해지고 있어 이는 경기 전반에서 행해지고 있는 풍속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를 희생으로 사용하는 동제에서 모셔지는 신격으로는 산신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 시기는 음력 10월이 가장 많으며 음력 7월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특징적이다. 김매기 등 고된 농사가 일단락되고 칠석과 백중 등 세시가 들어 있는 음력 7월의 시기적 특성이 마을 제사 때 소를 잡아 나누어 먹는 풍속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 밖에 소 희생 의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경제적 토대와 조직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소 희생의 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가 도축을 통한 소 희생은 점차 도축장이나 시장에서 구입한 소머리와 소족 등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희생 소가 아예 돼지 등 다른 동물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소 희생의 양상이 변하게 된 데에는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도축법으로 인한 제약 등이 중요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 희생과 관련된 의례 조직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례 조직들은 산축계, 산제계, 치성계 등 다양한 명칭이 있으며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용인 기흥 중동마을의 사례에서는 소 구입 비용을 포함한 전체 지출 비용에 맞추어 주민들의 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았다. 또한 용인 백암면 백동마을의 사례에서는 상시적으로 치성계를 운영하면서 식리 사업을 통해 계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 의례를 수행하고 유지하면서도 소고기의 섭취라는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민주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재)기전문화재연구원·대한주택공사, 『용인서천택지개발예정지구 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 2003.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시문화원 편, 『이천시 백사면 문화유적 민속 조사보고서』,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천시문화원, 1996.
 경기도박물관 편,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1 : 임진강』(1), 경기도박물관, 2002.
 경기도박물관 편,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2 : 한강』, 경기도박물관, 2002.
 경기도박물관 편, 『경기민속지』Ⅱ. 신양편, 경기도박물관, 1999.



- 경기도박물관 편, 『평택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도박물관·평택시, 1999.
-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편, 『경기옛길 속 민속』,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2015.
- 고양시사편찬위원회 편, 『고양시사』 제3권, 고양시사편찬위원회, 2005.
- 고은별, 「중부지방 원삼국~삼국시대 동물희생의례의 지역적 특징」, 『고고학』 19-1, 중부고고학회, 2020.
-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서울·경기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5.
- 기전문화연구원·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용인 구성 택지개발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기전문화연구원, 2000.
- 기전문화재단연구원 편,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기전문화재단연구원, 2000.
- 김미영, 「서원 향사(享祀)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2, 한국국학진흥원, 2013.
- 김숙희, 「한국 무속의례의 제물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승우, 차경희, 「조선시대 고문헌에 나타난 소고기의 식용과 금지에 대한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0권 1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15.
- 김종대, 김지옥, 송민선, 『한국의 산간신앙 : 강원도·경기도 편』, 민속원, 1996.
- 김지옥 편,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 2002.
- 김태우, 「광복 이후 경기 남부 마을 조직의 현황과 운영에 대한 시론: 조직 명칭과 의례 조직의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0, 2021.
- 김한신, 「송대 민간사묘의 우육 희생: 광덕군(廣德軍) 사산장대제(祠山張大帝) 사묘제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총』 8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5.
-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편, 『남양주시지』 3권: 민속,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 박중환, 「백제권역 동물희생 관련 고고자료의 성격」, 『백제문화』 4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2.
- 서울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구리시·구리문화원,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 2000.
- 세종대학교박물관 편, 『오산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세종대학교박물관, 2005.
- 세종대학교박물관 편,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세종대학교박물관·의왕시, 2001.
- 세종대학교박물관 편,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세종대학교박물관·의정부시, 2001.
- 수원시문화원 편, 『율전동지』, 수원시문화원, 2005.
- 안익승, 『수원의 맥』, 한국문화도서관, 1996.
-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수지읍지』, 용인문화원, 2002.
- 용인신봉구역도시개발조합추진위원회·인하대학교 박물관,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1.
- 윤숙경, 「안동지역의 제례에 따른 음식문화(2) : 동제(洞祭)과 제물(祭物)」,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11 No.5,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96.
- 이숙희, 「가사리 동제의 제물 구성과 의미 분석」,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용수, 「6세기 초 신라의 희생례 : 영일 냉수리비와 울진 봉평비의 비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70, 진단학회, 1990.
- 전경목, 「조선후기 소 도살의 실상」, 『조선시대사학보』 70, 2014.
- 정현숙, 「조선시대 제향의 제물종류와 조리에 관한 분석적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편, 『평택시사』(상),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01.
- 한국디지털대학교 문화예술연구소·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신앙 현황조사 학술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 2006.
- 한형주, 「조선시대 국가제사에서의 ‘희생’ 사용과 그 운영」, 『역사민속학』 52호, 역사민속학회, 2017.

■ 부록 <소를 희생으로 사용하는 경기지역 마을 의례 현황표>

*일러두기

- 이 현황표는 소 한 마리를 구입하여 도살하는 경우, 소머리 외에 쇠족 등 다른 부속물을 함께 바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에 한정하여 작성하였다(소머리만 바치는 경우는 제외함).
- 현황표에서 출처의 구체적인 사항은 참고문헌으로 대신하였다.
- < > 안에 묶인 내용은 < >로 묶은 출처의 내용이다.

시 군	마을명	제의(제당) 명칭	제의 일시	제물(소)		관련 조직(문서)	조사 시기	출처
				소 구입 유무	진설			
용 인 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한터마을	산신당	음력 10월 1일	황소 도살	황소 1/2	미상	1960년 대말	(구 용인군 내사면 대대리), 한국의 마을제당, 423쪽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박성마을	산제사	음력 10월 15일	황소 도살	우육	미상	1960년 대말	(구 용인군 내사면 주북리), 한국의 마을제당, 426쪽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백동	산제당	음력 10월 1일	황우 1두 도살→소머리 등	소머리, 갈비시목 , 족, 간, 콩팥	치성계	1960년 대말, 2012년 까지 소 구입	(구 용인군 외사면 백봉리), 한국의 마을제당, 437~438쪽; 2016년 현지조사
	처인구 원삼면 좌향리 황골마을	산신당	음력 10월 상순	황우→돼지	미상	미상	1960년 대말	한국의 마을제당, 453쪽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삼파동	산제당	미상	소 1필(소머리)	미상	미상	1960년 대말	(구 용인군 이동면 덕성리), 한국의 마을제당, 455쪽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당곡마을	산제사	음력 10월중	황소 1마리	우육 전부	미상	1960년 대말	(구 용인군 포곡면 삼계리), 한국의 마을제당, 468쪽
	수지구 고기동 손의터마을	산제당	9월 초순	미상	소머리, 소족, 소근육	미상	1960년 대말	(구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 한국의 마을제당, 432쪽
	수지구 고기동 고분재, 셋말, 배나무골마을	산제사, 산치성	음력 7월 초순, 3월 3일, 9월 9일	소 잡음	소머리	-	1960년 대말까 지 소 도살	수지읍지, 1232~1239쪽
	수지구 신봉동(신봉2리) 서봉마을	산제사	음력 9월 1일	우시장에서 소 구입	-	-	-	용인 신봉 조사보고서, 45~48쪽
	기흥구 고매동 원고매마을(고매 1리)	산제	음력 10월 1일	송아지 구입 후 목축	-	-	-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09~110쪽
	기흥구 창덕동(창덕2리) 윗마을	산신제	음력 10월 1일	-	소(수놈) 을 통째로 올림	-	-	용인 구성 조사보고서, 20~22쪽
	기흥구 중동마을	산제	음력 7월 초	한우 1마리→우두	소머리 등	산축계→ 보개산신 령제보존 위원회	1996년 까지 한우 구입	2016년 현지 조사
화 성 시	우정읍 매향1리(고온동). 5리	<신향당>, 각시당	음력 11월 하순	<황우 1두 도살>→소머리	<우육>, 소머리	미상	<1960 년 대 말 > , 2000년 대초	<한국의 마을제당, 639쪽>, 경기도의 마을신앙, 320쪽
	반월동(반월2리) 당골마을	우물고사	음력 10월 1일	소 1마리	-	-	-	용인 서천 조사보고서, 92~93쪽
양 평 군	양서면 양수5리 두물머리	도당제	음력 9월 2일	통소(큰굿)	소머리	-	-	
	단월면 향소1리 <비슬마을>	서낭제, 산신제	<4년마다> 3년마다	황소 1마리	미상	대동계	2016년 지속	<한국의 산간신앙, 322쪽>; 2016년

			음력 11월 중					현지 조사
이 천 시	마장면 관리 〈삼동 상송마을〉	산제사	음력 1월 중	소 1마리	소고기, 〈우육 1필〉	관동보수 회, 양약산산 신회	〈1960 년대말〉 , 2016년 지속	경기민속지, 214~222쪽, 〈한국의 마을제당, 476쪽〉; 2016년 현지조사
	신둔면 지식리	산신당(산 제사터)	음력 2월 초1일	미상	황우 1두	미상	1960년 대 말	한국의 마을제당, 479쪽
	백사면 현방리	산제	음력 1월 15일, 10월 15일	황소 1마리	-	-	-	이천시 백사면 민속 조사보고서, 231쪽.
여 주 시	점동면 처리	산제	음력 1월 15일	소 1마리→돼지 1마리→돼지머 리	-	-	-	경기민속지, 206쪽
	가남면 연대리 쭈뚝마을	산제사	음력 1월 3일	통소(한국전쟁 이전까지)→통 돼지	통돼지(내장 제거)	-	2000년 대 초	경기도의 마을신앙, 212쪽
과 천 시	-	-	-	-	-	-	-	-
의 왕 시	왕곡동 〈별미마을〉	〈상당〉, 산제	음력 10월 초	소 1마리 제당에서 도살	우두, 우족, 우육	미상	〈1960 년대말〉 , 1990년 대말, 2000년 대 초	(구 시흥군 왕곡면 왕곡리), 〈한국의 마을제당, 246쪽〉, 경기민속지, 272~273쪽;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42쪽
	왕곡동 왕림마을	산축제	음력 10월 1일	소 1마리 구입	소머리, 우족4개	대동회	2016년 지속	2016년 현지조사
	학의1동 학현	산제	음력 10월 15일 이후 택일	통소 잡아서 제사	-	-	일제시 대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61쪽;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42쪽
	학의2동 의일	의일산제	음력 10월 1일	소 잡아서 분육(→소족)	-	-	일제 이전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65~467쪽;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42쪽
	고천동	산신제, 산치성	음력 10월 1일	소 1마리 우시장에서 구입	소머리, 족, 우둔, 염통, 씨앗갈비 , 뼈도가니 , 결간, 천엽, 양지머리 , 곰창, 안심	고천동산 제보존회	1990년 대 말, 2016년 지속	경기민속지, 277~278쪽; 2016년 현지조사
	포일동 양지편마을	우물고사	음력 7월 1일	소 1마리	-	-	2000년 대 초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42쪽
	오전동 오매기	산제	음력 10월초	소 1마리	소머리, 소산적	-	2000년 대초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42쪽
	오전동 전주동	산신제	음력 10월초	소 1마리	소머리, 골탕	-	2000년 대 초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42쪽
	이동 어협	당제사	음력 10월 2일	소 1마리	소머리	-	2000년 대 초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42쪽
	월암동 월암1동	정제	음력 7월 1일	소 1마리	포, 소고기	-	2000년 대 초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42쪽
김 포	통진읍 동을산1리	산신제	음력 1월초	소 1마리(일제시대)	돼지머리	-	일제의 탄압으	경기도의 마을신앙, 84쪽

시	산아마을			전까지)→ 돼지			로 소 대신 돼지를 잡음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정제사	음력 1월 1일 밤	통소(1960년대 까지)→소 다리	4등분된 소고기	유물계	1960년대 이후부터 소다리만 사용	경기도의 마을신앙, 48쪽
	중부면 상변천리	산치성	음력 7월 그믐	황소 1마리→소머리와 내장	소머리, 콩팥, 간, 뇌, 천엽	연방계	1990년까지 황소 구입	경기도의 마을신앙, 51~52쪽
평택시	안중면 덕우1리 원덕우마을	우물제, 산신제	음력 7월 1일	황소 1마리(도축장 이용)	소다리 1개(우물제), 소머리(산신제)	-	2000년대 초	경기도의 마을신앙, 284~288쪽
	오성면 당거1리	당제	음력 동짓달	소 1마리	미상	-	-	평택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83쪽
	비전1동 자란마을	산제	음력 1월 15일	미상	소머리, 소족	-	-	평택시사(상), 1121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주평동마을	산제당	음력 1월초	황우 1마리	황우 1필	미상	1960년대 말	한국의 마을제당, 309쪽
	미양면 용두리 소머리마을	정제	음력 1월 14일	소 1마리→고기 구입	소고기	미상	미상	경기민속지, 286쪽
오산시	가수동	성황제	음력 10월초	소 1마리	미상	-	-	오산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61~462쪽
	금암동 금바위마을	산신제	음력 10월 1일	미상	소(수놈) 반쪽	-	-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 227~228쪽
	내삼미동 안삼미마을	산치성, 우물제사	음력 9월 그믐	-	소는 4등분	-	-	오산시사(하), 738쪽
	세교3동 오릿골마을	산제사	음력 10월 2일	-	풍년이면 소를 올림	-	-	오산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39~441쪽
	동탄면 금곡2리(신암)	산제사	음력 10월 1일	황소 1마리→소 안심 등	소 안심, 간	미상	2000년대 초	경기도의 마을신앙, 229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아랫구운동	우물고사	음력 7월 7일	-	소머리, 갈비, 앞다리, 뒷다리	-	-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07쪽
	권선구 구운동 웃구운동	정제	음력 7월 초	-	소고기	-	-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07쪽
	권선구 탑동 골말	서낭제	음력 7월 1일	소 2마리 잡음	소머리 1개	-	2000년대 초	경기도의 마을신앙, 133~136쪽
	장안구 울전동 아랫밤밭마을, 윗밤밭마을	은행나무고사	음력 1월 15, 7월 7일	소를 잡음	-	-	2000년대 초	울전동지, 197~202쪽
	팔달구 화서동 꽃뚝마을	산신제	음력 8월 14일	미상	소를 통째로 올림	-	1990년대 말	수원의 맥, 115~116쪽
군포시	금정동	〈산제사〉, 산축제	음력 7월초	〈소 1마리〉	소머리, 고기, 천엽, 간, 콩팥	금정동향우회	〈1960년대말〉, 1990년대말	(구 시흥군 남면 금정리 괴곡마을), 〈한국의 마을제당, 230쪽〉; 경기민속지, 241~243쪽
	산본동 수리	산신제	음력 1월, 7월	-	소머리, 족, 내장	-	-	군포시지, 883~886쪽
	산본2동 광정마을	산축제	음력 1월 초, 7월 초	소 1~2마리	소머리, 소족,	산축회	1990년대말	경기민속지, 250~253쪽

					갈비, 우랑, 콩팥, 천엽, 간, 염통			
	군포2동 삼성마을	도당제	음력 7월 1일, 10월 1일	소 1마리	-	-	-	군포시사, 12~13쪽
	당정동	우물제	음력 7월 2일	소 1마리	-	-	-	군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73~478쪽
	괴곡리 느티울	산신제	음력 7월 1일	-	소머리, 천엽, 소족4개, 갈비	-	-	군포시지, 881~883쪽
시 흥 시	신현동 포동 새우개	당제	음력 7월 3~4일	소 1마리→돼지2 마리	돼지 갈비나 다리 1개	-	2000년 대초	경기도의 마을신앙, 141쪽
하 남 시	하산곡동 고양골	산신제	음력 2월초	통소(한국전쟁 이전까지)→소 머리 등	소머리, 소고기 홍두깨살	미상	2000년 대초	경기도의 마을신앙, 311쪽
	미사동	성황제	음력 8월초	통소 1마리	-	-	-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57쪽; 경기도의 마을신앙, 462쪽
성 남 시	수정구 심곡동	〈우두물(우 물고사)〉, 산신제	〈음력 7월초〉, 음력 7월 1일	소 1마리→소머리 등	소머리, 두 다리	미상	1960년 대 말, 2000년 대초	(구 광주시 대왕면 심곡리), 〈한국의 마을제당, 135〉; 경기도의 마을신앙, 122쪽
광 명 시	-	-	-	-	-	-	-	-
부 천 시	-	-	-	-	-	-	-	-
안 산 시	양산동 아랫버대마을	정제	음력7월 1일	소 1마리(1951년 까지)	생소고기 적	미상	1951년 이후 소를 잡지 못함	경기민속지, 258쪽
	팔곡동	산신제	음력 10월 1일	통소 1마리→돼지 1마리	돼지머리	산신제추 진위원회	1970년 대까지 통소 잡음	경기도의 마을신앙, 149쪽
안 양 시	-	-	-	-	-	-	-	-
양 주 시	어둔동	산제당	미상	미상	우두, 우족, 우랑	미상	1960년 대말	(구 주내면 어둔동), 한국의 마을제당, 327쪽
	광적면 가남1리	산제사	음력 10월 1일	생돼지→소머리 등	소머리, 앞다리, 뒷다리	미상	1950년 대 부 터 소 머 리 등 으 로 대체	경기도의 마을신앙, 178쪽
	장흥면 부곡리 장말	산신제	음력 3월 1일, 9월 1일	-	소머리, 간, 천엽, 족	-	-	한국의 산간신앙, 295쪽
고 양 시	덕양구 북한동	도당굿	격년 음력 4월 10일	미상	소머리, 소족, 통돼지	미상	2000년 대초	고양시사3, 156~157쪽
	고양동 읍내마을	산제사(불 은당)	음력 10월 1일	소 1마리	소적	고양대동 회,	2018년 지속	2018년 현지조사

						세찬계		
의정부시	민락동 본민락마을	산신제	음력 10월 초	소 1마리→소머리 등	통소→소 머리 혹은 돼지머리	-	2000년 에는 소머리 올림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84쪽
	민락동 삼귀마을	산신제	음력 10월 초	소 1마리→돼지→ 소머리	소머리	-	1970년 대까지 돼지를 잡음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85쪽
	녹양동 버들개마을	산제	음력 10월 3일	소 1마리→소머리 등	소머리, 소족4개, 소 생적	-	-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89쪽
동두천시	-	-	-	-	-	-	-	-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도마산동	산신당	음력 10월초	미상	쇠머리, 소족, 우탕	미상	1960년 대말	한국의 마을제당, 493쪽
	탄현면 금산2리	보현산제	3년마다 음력 11월	소 1마리	우두, 육포, 4족	미상	2018년 지속	2018년 현지조사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치성	음력 10월 초	통소(1967년 이전까지)→통 돼지	소머리, 소족 4개→통 돼지	미상	2000년 대초	경기도의 마을신앙, 220쪽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평촌동	도당굿	5년마다	미상	쇠머리, 쇠다리	미상	1960년 대말	한국의 마을제당, 559쪽
	군내면 명산리	산신제	음력 11월 3일	통소→소머리→ 돼지1마리	-	-	2000년 대초	3대하천조사1, 447쪽
	화현면 명덕리 원명덕동	산제당	음력 3월초순	미상	우두, 우족, 정육, 내장 각 부분	미상	1960년 대말	(구 내촌면 명덕리), 한국의 마을제당, 569쪽
	가산면 금현2리 궁말	산치성	음력 9월 초순	통소(1960년대 후반까지)→소 머리 등	소머리, 소다리	미상	2000년 대초	경기도의 마을신앙, 301쪽
	소흘면 무림리 중말	산신제	음력 8월 초순	통소(1970년대 이전까지)→소 머리 등	소머리, 소다리	미상	2000년 대초	경기도의 마을신앙, 305쪽
	신북면 가채2리	산제사	음력 10월 1일	소 1마리	-	-	2000년 대초	3대하천조사1, 447쪽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쇠터마을	산신제	음력 9월 8일	소 1마리→소머리	소머리, 간, 천엽, (소터뼈)	-	-	경기민속지, 179쪽
	설악면 방일리 양방마을	산제사	음력 9월 2일	소 1마리→통돼지	(소터뼈)	-	-	경기민속지, 185쪽
	외서면 청평8리 마구전마을	산제사	음력 9월 1일	통소→돼지머리	돼지머리	-	-	경기도 마을신앙과 제당, 15쪽
	상면 행현2리	산제사	음력 9월초	통소를 잡아 각을 떠서 올림	머리, 좌측 갈비, 우측 갈비, 앞다리, 뒷다리	미상	2000년 대초	경기도의 마을신앙, 19쪽.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상독정동	산치성	음력 10월 초1일	황우 1두	소머리	미상	1960년 대말	(구 양주군 진건면 송능리), 한국의 마을제당, 330~331쪽
	진건읍 용정리 상독정마을	산치성	음력 9월 15일	황우 1두	소머리, 소족	미상	1960년 대 말	(구 양주군 진건면 용정리), 한국의

							마을제당, 337~338쪽
진접읍 내각1리	산제	음력 2월초, 10월초	소 1마리 →소머리 등	소머리고 기, 우족	-	2000년 대초	남양주시지, 319쪽
화도읍 마석우리	산신당	음력 7월초	미상	소육 반팔, 우두, 우족	미상	1960년 대말	(구 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 한국의 마을제당, 340쪽
화도읍 가곡1리	산신제	음력 9월 9일(3년마 다 도당굿)	소 1마리→돼지머 리	도당굿 때는 소머리	-	2000년 대초	남양주시지, 322쪽
오남읍 팔현1리	산제사	음력 8월초~10 월초	통소 1마리→소머리 등	소머리, 앞다리, 뒷다리	선후회	2000년 대초	경기도의 마을신앙, 94쪽
조안면 시우리	산제	음력 8월 1일	황소 1마리→소머리 등	소머리, 소족, (염통)	-	1990년 대에도 소 잡음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28~330쪽
가운동 가재울마을	도당굿	2년마다 음력 10월초	미상	소머리, 소족, 꼬리	-	2000년 대초	남양주시지, 333~334
와부읍 월문4리	산제	음력 9월 9일	황소 1마리(산에서 도축)	6각을 떠서 매달	미상	2000년 대초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03쪽
와부읍 월문5리	산신제	음력 9월 1일	황소 1마리	소머리, 앞다리, 뒷다리, 갈비, 내장	-	2000년 대초	남양주시지, 317~318쪽
별내면 덕송1리	산신제	음력 10월초	황소 1마리(1979년 산신각 철거)	소머리, 우랑, 갈비, 4족	-	2000년 대초에 는 간략하 게 지냄	남양주시지, 328쪽
수동면 입석4리	산제	음력 7월~8월	소 1마리→돼지 1마리	돼지머리 , 다리, 간	-	2000년 대초	남양주시지, 331쪽
구 리 시	갈매동	음력 3월 3일	통소 구입→소머리	소머리	-	-	경기민속지, 169; 갈매동도당굿, 60~65쪽
	사노동 안말	음력 10월 1일~3일	미상	소머리, 돼지머리 , 우족, 우갈비, 소간, 천엽, 소산적, 소콩팔	-	2000년 대초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 228~231쪽
	수택동 수누피마을	음력 10월 1일	소 마리(도당굿할 때)→소머리 등	소머리, 소족	-	-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 215~216쪽
	인창동 궁말	음력 10월초	-	소머리, 소족	-	2000년 대초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 222~223쪽



[5주제 토론]

“동제의 희생으로서 소의 활용과 운영에 대한 연구” 토론문

정 형 호

(전북대학교)

이 발표문은 경기도 지역의 동제에서 희생물로 소를 사용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신격의 성격, 제의시기, 변화 양상, 마을조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다. 실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연구이기에 연구사적으로 귀중한 발표라 여겨진다. 특히 발표자는 서울지역의 동제당을 현지조사와 각종 문헌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분석한 적이 있으며, 근래 경기도 지역 동제당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이 분야 전문가이다. 발표문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있지 않으며, 다만 논의의 심화를 위해 토론자가 조사한 지역을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제시하겠다.

첫째, 소를 희생물로 사용하는 마을제의 형태가 경기도만의 특성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지 궁금하다. 경기도에서 소치성을 올리는 곳이 98곳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경기도 지역에 소를 제물로 사용하는 곳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의정부 지역 10곳의 산신제(4곳 정도 현재 전승) 중에서 1곳은 소를 직접 잡았던 곳이고, 7곳은 소의 머리와 내장을 쓴다는 점에서 예전에는 대부분 소를 희생물로 썼던 곳으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에서 소를 희생물로 사용하는 곳은 더욱 광범위하다고 여겨진다.

경북 안동에서는 동제에 소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다른 지방에는 소를 제물로 사용한 곳이 일부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조사된 충남 청양지역 동제 조사보고서(『청양의 당제』, 청양문화원)에는 전체 55곳의 동제당 중에 대부분 돼지를 제물로 사용하지만, 1곳이 소를 사용하고, 6곳은 소에서 돼지로 바뀌었고, 3곳은 소고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청양에도 과거에는 10~20% 정도는 소를 희생물로 쓰지 않았나 추정된다. 그런데 소가 돼지를 바뀌는 경우에는 대체로 전쟁의 영향이나, 마을의 경제적 문제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다른 지방보다 경기도가 소를 희생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두드러지게 많다고 여겨진다. 이런 현상이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역적 특성인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둘째, 경기도 지역의 소치성 98곳 마을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자가 파악한 소치성 마을에는 대체로 특정 가문 중심의 오랜 역사성이 있는 마을이거나, 산신당이 있는 마을 뒷산이 신성시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용인시 동부동 내어둔마을(2007년 소 제물)은 김해김씨가 300~400년 정도 거주한 마을이며, 마을 뒤 석가산할머니와 국수봉할아버지(국사봉 346m)를 산신으로 모신다. 2007년 조사 당시에 그곳은 마을 줄다리기가 전승되던 마을이다. 의정부 민락동 본민락마을은 전쟁 전에 소를 잡아 소치성을 올렸는데, 평양 조씨 조건의 후손이 630년 거주한 마을이며, 용암산(475m) 덕수봉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조건은 조선 개국공신인 조준의 동생으로, 그는 이성계의 협조를 거부하고 은둔한 인물이다. 의정부시 산곡동 검은돌마을은 전주 류씨(류세구 후손)가 15대 거주한 마을로 수락산(508m) 호랑이 할머니를 모신다. 현재 소머리를 사용하지만 예전에 소를 제물로 사용한 곳이다. 포천시 일동면 길명2리 소치성은 현재도 전승되는데, 청주 양씨(양사언 후손)가 13대 거주한 곳이며, 금주산(568m) 산신을 모시고 있다.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틀못이마을은 문화류씨가 10대에 걸쳐 거주하고 있으며, 천주산(423m) 산신을 모시며, 현재 정월대보름 동화놀이가 전승되는 마을이다.

이런 점에서 특정 가문 중심의 오랜 역사성, 마을 뒤의 산신에 대한 신앙성, 집단적 민속놀이 전승 등이 기반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발표자께서 조사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전승 기반에 대해 보완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마을 제의에 소를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소값을 일정 액수만큼 추렴하고, 고기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필요에 따라서 특수 부위를 판매하여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소를 제물로 사용하는 마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관의 지원을 받은 마을도 있었으나, 영수증으로 곤욕을 치른 적도 있다. 용인의 내어둔마을은 예전에 지자체로부터 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소값으로 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었기에 다른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그 마을은 다음 해에 관의 지원을 거부했다. 대체로 희생물로 소가 돼지로 바뀌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며,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희생용 소를 마을제의에 사용하는 지역이 점차 줄어들거나 다른 동물로 대체되는 양상에 대해 발표자의 보완적 설명을 듣고 싶다.



한우해~♪



한우해~♪



올해는 한우해~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올해는
한우해



2021년은辛丑年, 소의 해!
이제부터 '한우해'로 불러주세요

